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 기념



Loving the Silent Tears

THE MUSICAL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책으로 보는 뮤지컬의 모든 것

칭하이 무상사의 시 원작

Loving the Silent Tears

THE MUSICAL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책으로 보는 뮤지컬의 모든 것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원작으로 한 가사

작곡

호르헤 칼란드렐리 · 알 카샤 · 더그 캣사로스 · 헨리 크리거
돈 피핀 · 낸 슈워츠 · 존 세카다 · 데이비드 샐리어

구상

알 카샤

시 개작

프랭크 에반스

대본

신시아 루이스 페렐 · 토니 그린

안무

보니 스토리

감독

빈센트 패터슨

추천사

론 단테

서문

알 카샤



OCEAN OF LOVE ENTERTAINMENT, INC.

Loving the Silent Tears

THE MUSICAL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책으로 보는 뮤지컬의 모든 것

© 2015.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퍼낸이: Ocean of Love Entertainment, Inc. 2015년.
122-A East Foothill Blvd. #306, Arcadia, CA 91006 USA

인쇄처: 캐나다 (Printed in Canada)
영문판 원서: Loving the Silent Tears: The Musical
-The Complete Book and Lyrics of the Musical

프로젝트 감독: Peter Peace
프로젝트 감리: Bella V, Crystal My
디자인: Frans Evenhuis
편집: Lucy Staff
교열: Cynthia Lewis Ferrell
글: Lisa Parker, Audrey Ellen

한국어판
레이아웃 편집: Diba Na
번역: Ru Nam
교정: Afe Byun

사진: Ross Bird, Dave Branson, Garrett Davis, Ricardo Dearman,
John Goode, Fred Hidalgo, Ed Krieger, Ryan Miller,
Michael Rueter, Oscar Tellio, Yvette Zhao

ISBN 978-0-9963016-2-6
10 9 8 7 6 5 4 3 2 1

www.OceanofLoveEntertainment.com

Publisher's Cataloging-In-Publication Data

Loving the silent tears : the musical =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 뮤지컬 /
[Ocean of Love Entertainment, Inc.] ;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원작으로 한
가사 ; 작곡 호르헤 칼란드렐리 [and 7 others] ; 구상 알 카샤 ; 시 개작 프랭크
에반스 ; 대본 신시아 루이스 페렐 & 토니 그린 ; 안무 보니 스토리 ; 감독 빈센트
패터슨. -- [Korean edition].

2 volumes : illustrations, music ; cm + 4 DVDs (approximately 7 hr., 15 min.)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 기념"--Cover.

Edition statement supplied by publisher.

Set includes 4 DVDs with recordings of: red carpet event, the full
musical, post-show interviews, making of the musical and media coverage.

Contents: [Book 1.] 책으로 보는 뮤지컬의 모든 것 -- [book 2.] 악보와 시.

ISBN: 978-0-9963016-2-6 (Korean edition)

1. Supreme Master Ching Hai. Silent tears--Adaptations. 2.
Spiritual life--Drama. 3. Spiritual life--Songs and music. 4. Musicals.
I. Supreme Master Ching Hai. II. Calandrelli, Jorge. III. Kasha, Al. IV.
Evans, Frank (Librettist) V. Ferrell, Cynthia, 1956- VI. Greene,
Toni. VII. Ocean of Love Entertainment, Inc. VIII. Title: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M1500 .L68164 2015
782.1/4



이 책에 소개되는 기쁜 행사는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을 기념해 가장 사랑받는 세계적인 인도주의자, 비범한 평화주의자를 기리는 상서로운 자리였다. 우리는 아름다운 시집 『침묵의 눈물』로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영감을 주신 칭하이 무상사께 감사드린다. 지구를 더욱 아름다운 곳으로 만드는 시인의 진실된 비전이 우리에게 감화를 주었듯이, 수많은 출중한 예술가들이 멋진 관객들 앞에서 생동감 있게 펼쳐낸 이 특별한 뮤지컬이 모두를 고양시키고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를 기원한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드림월드 서커스의 공중 곡예사 제나 카펜터와 카일 데상이 선보인 특별 오프닝 공연.

차례

추천사 | 6

서문 | 8

제 1 장 경축 행사 | 10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 기념
시인에 대하여
칭하이 무상사의 메시지
축하 인사

제 2 장 뮤지컬 | 24

출연진과 크레딧
등장인물과 장면
뮤지컬 수록곡
대본과 가사

제 3 장 예술 작품 전시회와 비건 채식 연회 | 122

제 4 장 책장에서 무대로 | 132

-예술가와 창작 팀 특집
작곡가
작가
감독과 안무가
출연진
무대 및 음향 디자이너
초청 연사

제 5 장 매체 보도 | 250

추천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뮤지컬 그 이상이다. 하나의 축하 행사이다.

이 놀라운 공연은 우리 세계의 다양성을 구현한다. 날아오르는 듯한 음악, 놀라움을 자아내는 무대 세트와 의상, 인상적인 출연 가수와 무용수들이 무대 위에 세계 16개국의 문화를 생생하게 녹여 낸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뮤지컬 대본과 가사는, 인생의 환상이 깨진 중년 여성과 제 길을 찾지 못한 청년의 삶이 마법의 여행 속에서 서로 교차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길로 나아가는 여정을 매력적인 이야기로 엮어 나간다. 이 의미 있는

실존을 찾아 나서는 여정은 결국 내면의 평화를 찾게 되는 더없는 행복으로 마무리된다.

뮤지컬은 늘 노래와 춤을 통해 사랑과 야망, 역경의 이야기를 전해 왔다. 대다수 뮤지컬과는 훨씬 더 독특한 주제를 지닌 이 뮤지컬은 특히나 심오하면서도 오락성 또한 다분하다. 그 주제는 높은 힘과 연결되고자 갈망하는, 아니면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 당신을 향한 침묵의 눈물을 더 사랑” 하는 인간의 타고난 갈망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훌륭한 연극은 생각하고 질문하고 염원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가 바로 그렇다. 미학적 만족감을 제공하는 한편 앞으로 더 성찰할 수 있는 씨앗을 뿌린다.

모든 시가 쉽게 음악으로 개작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칭하이 무상사의 시는 사람들이 특별한 무대에 기대하는 위트와 감동, 기쁨의 곡조로 불릴 수 있는 완벽한 보석이라 할 수 있다. 역사상 위대한 시인 겸 철학자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연결되고 싶어할 때 평범한 인간으로서 모두가 갖게 되는 생각들을 호소력 있게 표현해 왔다. 칭하이 무상사도 글 속에 폭넓은 진짜배기 감정을 담아 오롯이 영적이면서도 열렬한 인간적인 생각을 표현한다. 간단히 말해 그녀는 사람들의 가슴과 마음을 감동시키는 재능을 갖고 있다. 특별한 심오함과 보편적인 공감대를 갖고 있는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에 담긴 시들은 오스카상을 2차례 수상한 작곡가 알 카샤(Al Kasha)에게 창작성을 한껏 발휘할 영감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원작은 펜으로 쓰인 지 30년이 지난 지금 이 뮤지컬과 잘 다듬어진 곡의 광활한 토대가 되었다.

음악은 멜로디를 통해, 가사를 통해 다방면으로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 구성 요소와 사람, 그리고 약간의 운이 제대로 결합된다면 우리 내면의 무언가를 일깨울 수 있다. 내가 베리 매닐로우(Barry Manilow)와 함께 그의 히트곡 「맨디(Mandy)」를 녹음했을 때 우리는 아주 특별한 것이 나왔다는 것을 바로 알았다. 멋진 노래이고, 그 노래를 부를 목소리가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말이다. 번개라도 맞은 듯 스튜디오에 있던 모두가 그 사실을 알았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그냥 한순간이 아니라 출연진과 창작 팀이 뒤돌아봤을 때 자신들이 아주아주 비범한 것을 위해 함께 모여 작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많은 특징을 가진 탁월한 순간들의 정점이었다. 이는 진정한 사랑의 수고였다.

전설적인 브로드웨이 감독 겸 제작자 해롤드 프린스(Harold Prince)는 한때 뮤지컬에서 창작성을 발휘할 기회를 잡아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어마어마한 기회를 잡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전통적인 인습에 갇히거나 더 큰 예술적 비전을 위해 양보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했다. 그 도약과 새로운 시도가 충분히 가치 있었다는 것은 초연일 밤에 쏟아진 기립 박수로 증명되었다.

나 역시 이 오리지널 작품에 갈채를 보낸다. 그 특별한 영감의 근원,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도 갈채를 보내고 또한 그것에 음악적 생명을 부여한 모든 이들의 용기에도 갈채를 보낸다. 이는 오늘날 지극히 유의미한 메시지를 가진 공연이다. 여러 환경이 우리 사이를 소원하게 만들고 더 깊은 자아와도 멀어져 있는 시점에서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우리가 똑같은 존재이며 내면의 평화를 찾는 같은 여정에 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이는 분명 경축하고도 남는 일이다.

-론 단테(Ron Dante)

토니상을 2차례 수상한 제작자 (뮤지컬 「에인트 미스비헤이빙[Ain't Misbehavin']」, 「작은 신의 아이들[Children of a Lesser God]」)



서문

칭 하이 스승님은 감동적인 시를 통해 평화와 화합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신다.

음악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의 삶을 바꾸는 힘이 있다. 온 좋게도 나는 아카데미상을 2차례 수상한 조엘 허쉬혼(Joel Hirschhorn)과 수년간 함께 작업하면서 영화와 연극, 텔레비전 속의 노래를 만들며 전 세계 청취자들에게 기쁨을 주고자 했다. 또한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통해 영감을 찾는 축복을 받기도 했다.

무상사는 아주 풍부하고 강력한 시어로 자신의 모든 진실한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나는 그녀가 유년 시절에 겪은 전쟁부터 사랑, 영적 성찰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의 많은 시들을 읽을 기회를 갖게 되면서 칭하이 무상사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만들어야겠다는 영감을 받았다. 2011년,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공동 작업한 「진정한 사랑(The Real Love)」이 아름답게 무대에 올려졌다. 뮤지컬이 초연되던 날, 믿음과 배경이 각기 다른 사람들 모두가 공연에 감동받는 것을 보았다. 달리 말하자면 그들은 인류의 더 큰 행복을 위해 개인적인 삶을 희생한 칭하이 무상사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은 것이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진정한 사랑」에서 자연스럽게 진화한 뮤지컬이다. 사랑 이야기에서 영적 여정으로 나아간 것이다.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에 큰 감동을 받은 나는 그것이 이 뮤지컬이란 새로운 형식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보았다.

여기에 실린 시 하나하나가 독특하면서도 또한 시 전체적으로는 더할 수 없이 진실하게 사랑과 평화, 친절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나 역시 전적으로 동감하는 세 가지를 내보이고 있는데 첫째는 사랑의 실천, 둘째는 우리 자신에게 유익한 비건 채식 생활 방식, 셋째는 동물에 대한 사랑이다.

이 뮤지컬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우리 모두가 살면서 가질 수도 있는 내면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칭하이 무상사의 자비가 전 세계를 아우르듯이 이 또한 여러 대륙을 넘나드는 뮤지컬이다. 오스카상과 그래미상, 토니상, 에미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기량을 가진 예술가들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출연하기로 선택한 이유는 사람을 고양시키는 그 본질을 알아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공동 작업을 통해 사랑과 화합이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공통된 가치를 다시 한 번 확인했기에 이는 정말이지 또 다른 영광이자 기쁨이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이 감동받았고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라도 모두 감동받으리라 믿는다.

-알 카샤(Al Kasha)

아카데미상을 2차례 수상한 작곡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최초 구상



제 1 장

경축 행사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 기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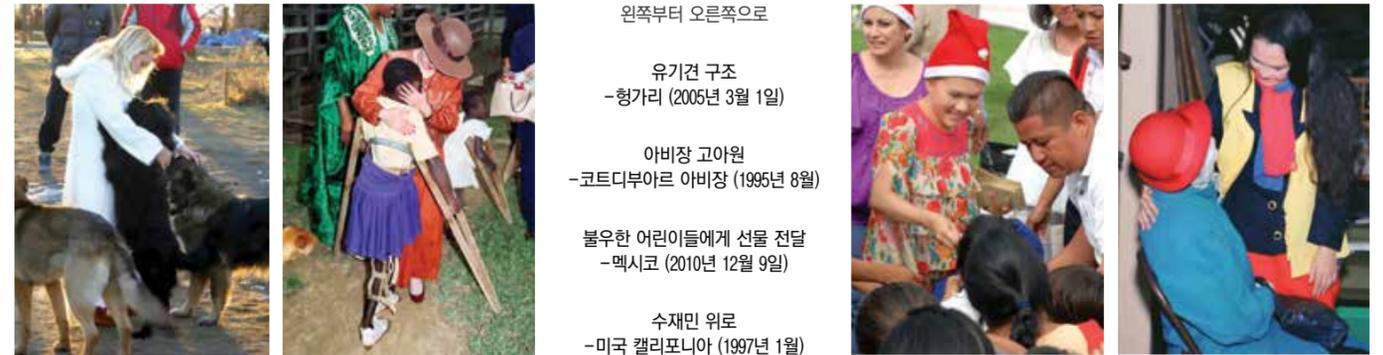
“그녀는 미움이 있는 세계에 사랑을 가져옵니다. 그녀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가져옵니다. 그녀는 오해가 있는 곳에 이해를 가져옵니다. 그녀는 위대한 사람의 빛이며, 우리 모두를 위한 자비의 천사입니다.”

-프랭크 F. 파시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시장 (1993년 10월 25일)



고아원 어린이들과 시간을 보내시는 칭하이 무상사. 아르메니아 예레반 (1999년 5월 15일)

칭하이 무상사는 전 세계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 어린 지원을 전하십니다.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유기견 구조 -헝가리 (2005년 3월 1일)
아비장 고아원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1995년 8월)
불우한 어린이들에게 선물 전달 -멕시코 (2010년 12월 9일)
수재민 위로 -미국 캘리포니아 (1997년 1월)

1993년 프랭크 F. 파시(Frank F. Fasi) 미국 하와이 제9대 호놀룰루 시장은 감화를 주는 영적 스승이자 인도주의자, 시인, 예술가, 헌신적인 세계 시민인 칭하이 무상사의 박애 활동과 평화를 증진하는 노고를 기리고자 10월 25일을 「칭하이 무상사의 날」로 선포했다. 시상식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공로상과 명예 시민권, 동상도 수여받았다.

「칭하이 무상사의 날」의 자선 정신을 이어 받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세계 초연에서 칭하이 무상사는 뮤지컬에 참여한 모든 예술가들을 대신하여 3개 자선 단체에 미화 총 30만 달러의 기부금을 전달해 그들을 표창했다.



「공로상」을 수상한 칭하이 무상사. 오른쪽은 프랭크 F. 파시 시장. 미국 하와이 (1993년 10월 25일)

기부금 전달식에서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표는 칭하이 무상사가 보내온 메시지를 다음과 같이 낭독했다. “이 단체들과, 사랑과 용기로써 이 세상을 더 자비롭게 만들고 있는 다른 영웅적인 단체들에게 경의와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예술가들의 공헌에 감사드리며 한편 여러분을 대신하여 이 선물을 전달하고, 이 재정적인 기부를 통해 이들 단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들이 앞으로도 펼

칠 고귀한 활동에 행운을 빕니다.”

“이 자애롭고 관대하기 그지없는 특별한 선물을 주신 칭하이 무상사께 감사드리며, 무대에서 아름답게 펼쳐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실현되고 있는 그분의 영적인 이념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의 시 「찬양의 노래」에는 ‘한없이 자비로운 스승님’이란 시구가 나옵니다. 그분은 이 아낌없는 선물을 통해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토م 바이올라(Tom Viola)
「브로드웨이 케어즈 & 에이즈와 싸우는 배우 조합 (Broadway Cares/ Equity Fights AIDS)」 사무국장



브로드웨이 케어즈 & 에이즈와 싸우는 배우 조합
국제동물보호협회 (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국제 수의사 봉사협회 (Worldwide Veterinary Service)

기부금을 수령한 3개 자선 단체가 칭하이 무상사께 전달한 감사패.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적 스승, 인도주의자, 시인, 예술가

칭하이 무상사



2009년 8월 8일 유럽

중 부 어울락*(베트남)에서 태어난 칭하이 무상사는 유럽에서 공부하고 그곳에서 적십자사 일을 했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전 세계 곳곳에 고통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 해결책을 구하려는 깊은 갈망으로 결국에는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게 되었다.

그녀는 독일인 의사와 결혼해 행복하게 살고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대단히 힘든 결정 끝에 남편의 동의로 이별하게 되었다. 그녀는 영적 깨달음을 찾아 혼자 인도로 구도의 길에 올랐고, 마침내 히말라야 깊은 곳에서 진정한 스승을 만나 신성한 내면의 빛과 소리를 전수받았다. 얼마간 수행에 정진한 후 그녀는 위대한 깨달음을 성취했다.

히말라야에서 돌아온 후 신실한 요청에 따라 칭하이 무상사는 자신의 신성한 본성을 관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었다. 이 관음 명상법을 통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지혜와 다시 연결되고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또한 칭하이 무상사는 세계 각국 정부와 저명한 기관으로부터 강연 초청을 받았다.

헌신적인 인도주의자이며 배려심 깊은 비건 채식주의자인 칭하이 무상사는 인종과 국적, 종교, 종(種)을 막론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 그녀는 자신의 패션 디자인과 예술 작품에서 생긴 수익금을 기부해 어려운 처지에 놓인 인류와 동물을 돕고 환경을 보호한다. 이 밖에 그녀의 귀감에 영감을 받아 국제적인 명상·자

선 단체가 설립된 데 이어 그녀는 5년간 위성을 통해 전 지구적으로 무료로 방송된 건설적인 매체 채널「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Supreme Master Television)」을 이끌기도 했다.

전 세계 여러 정부 대표와 민간 단체들은 그녀의 인도주의 공헌과 예술적 공헌을 표창해 「세계 인도주의 시민상(World Citizen Humanitarian Award)」, 「구시 평화상(Gusi Peace Prize)」, 「세계 영적 지도자상(World Spiritual Leadership Award)」,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자원봉사 대통령상(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 「텔리 1등 은상(Silver Telly Award)」, 「로스앤젤레스 음악 주간 표창장(Los Angeles Music Week Certificate of Commendation)」 등 권위 있는 상을 수여했다.

칭하이 무상사는 오늘도 무수히 많은 생명들에게 영적·물질적 위안을 주고자 계속 노력하고 있다.

*예술가이자 영적 스승인 칭하이 무상사는 내재된 영성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모든 표현을 사랑하신다. 이에 그녀는 종종 베트남을 가리킬 때 평화와 행복을 나타내는 베트남의 상서로운 옛 이름 '어울락'으로 칭하신다.



칭하이 무상사의 메시지

2012년 10월 27일

집중적인 명상 안거를 하는 관계로 행사에 참석할 수 없었던 칭하이 무상사는 별도로 시간을 내어 전화 녹음 메시지를 통해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셨다.

“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이 음악 공연에 정성을 쏟아 주신 모든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진귀하고 즐거운 행사에 오신 여러분과 관객들께도 축하드립니다.

우리가 여전히 그 어떤 축하의 방식을 통해 신이 주신 지구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사랑하고, 우리의 좋은 것들을 즐기며 지금 이 세계와 다음 세계에 함께 공존하는 모두와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모든 고귀하고 긍정적인 것을 믿고 천국의 힘이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믿어서 좋습니다.

이 뮤지컬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는, 이런 방식을 통해 이 세상을 좀 더 즐거운 곳으로 만들고 대중에게 힘을 주며 천상과 지상에 감사를 전하는 여러분의 헌신에 축복을 빕니다. 아마도 나는 이 행사를 볼 수 없을 것 같고 또 이 프로그램의 내용을 미리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이 공연이 아주 훌륭할 것이며 모든 관객이 즐겁게 보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명상에 몰두하고 있는 곳에는 첨단 기술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에 이 간단한 메시지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여러분의 성공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표시로, 좋은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는 아마도 우려하는 모든 마음들, 즉 이 세상 모든 존재의 생존과 안위를 걱정하는 모든 마음들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란, 우리 행성이 축복 덕분에 앞으로도 1만 년 이상 더 지속할 것이며, 장차 우리의 선량함에 따라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 신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모든 존재들의 사랑 어린 기도와 다방면에 걸친 공헌에도 감사합니다. 부족한 나 자신 또한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지금 세대와 수없이 이어질 다음 세대를 위해 지구를 구하려는 우리의 공통되고 단결된 노력을 지지하겠습니다.

공연 즐겁게 보시고 다시 한 번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신께서 우주를 축복하시고 우리 세계를 보호하시길 빕니다. 사랑합니다!”

*이 오디오 메시지 후, 2013년 4월 14일 칭하이 무상사는 지구의 연장된 수명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알려 주시면서 지구가 수억 년 동안 보존될 것이라고 발표하셨다.

축하 인사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을 맞아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출연진과 창작 팀, 손님들이 시인이자 인도주의자인 칭하이 무상사께 따뜻한 안부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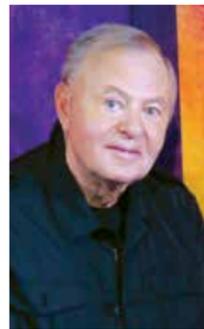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의 인도주의적 노고는 정말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가 그 메시지를 우주에 전하고 퍼뜨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디 와틀리(Jody Watley)
그래미상을 수상한 팝/R&B 아이콘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 모두 이 작품을 하게 돼 아주 흥분돼 있습니다. 이 특별한 날을 축하드리고 싶고 이 축하 공연에 참여하게 돼 행복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내는 이 공연이 당신께서 세상에 베풀어 주고 계신 기쁨과 아름다움에 부합하기를 빌며, 그 일의 작은 부분을 맡게 돼 영광입니다.”

-빈센트 패터슨(Vincent Paterson)
토니상 후보 감독 겸 안무가



“칭하이 무상사님, 당신을 흠모하고 사랑합니다. 당신은 평화를 지지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동물을 보살피고 비건 채식 하시는데, 그것은 저의 신조이기도 합니다.”

-알 카샤(Al Kasha)
아카데미상을 2차례 수상한 작곡가
(포세이돈 어드벤처)

“그분이 우리 모두와 여기에 같이 계시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분의 정신과 사랑이 모든 관객들과 이 작품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의 사랑과 지지를 느껴요. 칭하이 무상사의 날을 축하합니다!”

-사안기(謝安琪, Kay Tse)
중국 플래티넘 팝스타. 채식주의



“칭하이 무상사께서 하신 모든 일에 대해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위대한 메시지로 사람들을 깨우치고 계시지요. 그분은 아주 대단한 일을 하신 것 같아요.”

-키릴 쿨리쉬(Kiril Kulish)
토니상을 수상한 배우, 무용수, 가수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안녕하세요, 이스라엘 출신의 리엘 콜렛입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을 축하드려요. 당신이 하시는 그 훌륭한 일들을 계속하시며 이런 날들이 더욱더 오래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오늘 무대에서 당신의 시를 선보이게 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리엘 콜렛(Liel Kolet)
수상 경력의 이스라엘 가수



“이 멋진 공연을 위해 두 곡을 작곡했는데,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인사 말씀과 안부를 전하게 돼 기쁘고, 모두가 행복한 칭하이 무상사의 날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호르헤 칼란드렐리(Jorge Calandrelli)
그래미상을 6차례 수상한 작곡가
(악호장롱)

“칭하이 무상사님, 당신의 아름다운 시와 아름다운 영혼, 그리고 세상에 아낌없이 당신 자신을 바치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패티 코헨아워(Patti Cohenour)
토니상 후보 배우 겸 가수
(오페라의 유령)



“칭하이 무상사님, 이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말씀들을 우리 모두와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작품에 참여하고 축하하면서 각기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것에 너무나도 감사히 생각합니다. 또한 칭하이 무상사의 날을 축하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헤더 박(Heather Park)
한국 가수. 비건 채식주의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출연하게 돼 영광스럽고 또한 축복으로 느껴집니다. 아주 멋진 공연이 될 것입니다. 부족한 제가 무상사님의 시에 곡을 붙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 즐겁게 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아주 굉장한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또한 이 날이 앞으로 오래오래 계속 이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축하합니다!”

-존 세카다(Jon Secada)
그래미상을 2차례 수상한 팝스타



“칭하이 무상사님께서 아주아주 행복한 기념일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당신을 위한 멋진 날이에요.”

-보니 스토리(Bonnie Story)
에미상을 수상한 안무가
(하이스쿨 뮤지컬 1, 2, 3)

“칭하이 무상사님, 빈 적이 있는 당신의 음악 친구 더그 캣사로스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주 친절하고 다정하시지요. 당신의 메시지와 당신이 노력하고 계시는 일에 감사드립니다. 이 공연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19주년 보내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19주년을 맞이하시길... 또한 지구가 앞으로 계속해서 즐겁게 지속될 만년과 더 많은 세월 동안에도 당신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더그 캣사로스(Doug Katsaros)
에미상을 수상한 작곡가 겸 음악 감독(뫼투즈)





“칭하이 무상사님, 우리 사회를 위해 해주신 일들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당신이 우주에 퍼뜨리시는 사랑과 용서, 관용의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공부입니다.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당신의 시를 부르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며, 당신과 함께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을 축하합니다.”

-마크 자니첼로(Mark Janicello)
이탈리아 테너. 비건 채식주의

“삶이 너무 팍팍하기 때문에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늘 많은 선행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숨가쁜 삶 속에서도 결코 자신을 생각지 않고 늘 고귀한 일과 선행, 자비로운 일을 하길 원하며 차별 없이 모두를 보살피시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칭하이 무상사이지요. 그분은 늘 그렇게 해오고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분의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이라면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을 보고 높이 평가하고 존경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꾸인흐영(Hồ Quỳnh Hương)
어울락(베트남) 팝스타. 비건 채식주의



“칭하이 무상사님, 잘 지내시길 바라며 축하드립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날을 축하합니다!”

-루크 이벌(Luke Eberl)
수상 경력의 배우

“칭하이 무상사님, 정말 영광입니다. 당신과, 당신이 지지하시는 메시지를 기리는 작업에 참여하게 돼 전을 그 이상을 느낍니다. 활기찬 에너지로 가슴 설레는 밤이 될 것입니다. 제 가족들을 데려와 이 모든 공연에 참석해서 당신의 사랑과 인도, 에너지를 직접 경험하게 될 생각에 정말 흥분됩니다.”

-낸 슈워츠(Nan Schwartz)
그래미상을 수상한 작곡가, 오케스트라 편곡가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 1부)



“칭하이 무상사는 사람들과 자연계 사이를 이해시키고 사람들과 동물들 사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 놀라운 모범을 보이십니다. 그런 철학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매 순간 실천하고 계시는 모습이 정말 감명 깊어요!”

-신시아 루이스 페렐(Cynthia Lewis Ferrell)
수상 경력의 극작가

“칭하이 무상사님, 다시 한 번 당신의 가사를 작업하게 되고 이 엄청난 작품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돈 피핀(Don Pippin)
토니상과 에미상을 수상한 작곡가, 음악 감독
(코러스 라인)



(더키 심슨) “칭하이 무상사님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빕니다.”
(카예 스타) “기념일을 축하합니다, 칭하이 무상사님.”
(앤드류 비즈) “그분께 감사드리고 제 모든 사랑을 보냅니다.”

-블랙 우후루(Black Uhuru)
그래미상을 수상한 레게 그룹

“칭하이 무상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좋은 일들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이 특별한 날에 행복하시길 빕니다. 또한 이 빛이 모두를 비추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메시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아바쉬 샴스(Siavash Shams)
페르시아 슈퍼스타



“칭하이 무상사님, 당신의 날을 축하합니다. 정말 이날이 있는 게 마땅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그 모든 활동에 감사드리고 계속 성공하시고 잘 지내시길, 그리고 건강과 사랑을 기원합니다.”

-리즈 캘러웨이(Liz Callaway)
에미상 수상, 토니상 후보 가수
(베이비, 아나스타샤)

“사색적이고 통찰력 있는 당신의 시를 음악으로 만들 기회를 주신 칭하이 무상사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형식의 작업이었는데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시와 음악이 결합된 이 작품이 칭하이 무상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길 바랍니다.”

-헨리 크리거(Henry Krieger)
그래미상을 2차례 수상한 작곡가
(드림걸즈)



“행운을 빌며 그분이 하고 계시는 활동에 찬사와 존경을 바칩니다. 감화를 주는 활동이지요.”

-조지 차키리스(George Chakiris)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배우, 채식주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칭하이 무상사님, 정말 행복합니다. 당신의 메시지는 긍정적인 것이어서 이 뮤지컬의 일원이 된 것이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 하시는 일과 당신의 글을 조금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 이야기는 정말 감화를 주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니까요. 그 점에 대해 전적으로 당신에게 동의합니다. 뮤지컬에서 제가 맡은 역할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군요. 온 마음과 영혼을 바쳐 하겠습니다. 무상사님, 칭하이 무상사의 날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파비아나 파소니(Fabiana Passoni)/ 수상 경력의 브라질 가수



“안녕하세요, 칭하이 무상사님!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을 축하합니다. 이 엄청나고 화려한 공연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돼 영광입니다. 앞으로 늘 이 경험을 소중히 여기고 기억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 직접 만나 뵈길 바랍니다.”

-브라이언(Brian Joo)
한국 팝스타(플라이 투 더 스카이 멤버)

“안녕하세요, 칭하이 무상사님. 데비 그래비티입니다. 전 세계에 걸친 당신의 놀라운 업적을 기념하는 이번 공연에 참가하게 돼 영광입니다. 다들 당신에 대해 영광스럽고 훌륭한 얘기만 하는 것을 보면 분명 아주 대단하신 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만나 뵈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로 우리 공연을 보러와 제가 얼마나 크게 노래하는지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데비 그래비티(Debbie Gravitte)
토니상을 수상한 가수 겸 배우
(제품 로빈스의 브로드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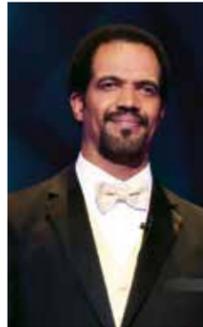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의 날 기념일을 맞아 큰 포옹과 많은 사랑을 보내 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활동은 너무나 대단합니다. 하시는 모든 일에 가슴 깊이 감사드립니다.”

-수지 카스틸로(Susie Castillo)
TV 진행자, 배우, 전(前) 미스 미국
비건 채식주의

“무상사께서 건강하게 가능한 한 오랫동안 계속 그 말씀을 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프랭크 에반스(Frank Evans)
수상 경력의 작가 겸 작사가





“안녕하세요, 크리스토프 세인트 존입니다. 「더 영 앤 더 레스트리스」에서 「닐 윈터스」를 연기하고 있고 저 역시 삶의 여행자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님과 칭하이 무상사의 제자들과 팬들에게 좋은 행사가 되길 기원하러 왔습니다. 오늘은 칭하이 무상사의 날이며, 사랑과 평화, 화합, 그리고 우리가 서로 돕기 위해 여기 존재한다는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크리스토프 세인트 존(Kristoff St. John) 에미상을 2차례 수상한 배우. 채식인 (더 영 앤 더 레스트리스)

“당신의 엄청난 업적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또 이런 훌륭한 프로젝트에 동참하게 돼 영광입니다. 이 방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는지 보러 오실 시간이 있으시다면 멋진 텐데요.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 인류에 대한 사랑, 지구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사랑으로 향하는 초대처럼 느껴집니다.”

-존 야코벨리(John Iacovelli) 에미상을 수상한 무대 디자이너(피터팬)



“정말 멋진 칭하이 무상사의 날이에요. 당신의 아름다운 평화와 사랑의 날이 생긴 지 19년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놀랍고 아름다워요. 여기에 함께하게 돼서 아주 영광스럽고 복되게 생각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말씀과 메시지를 계속 퍼뜨려 주세요. 우리 모두 그걸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은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코리 펠드만(Corey Feldman) 수상 경력의 배우. 채식인 (구니스, 스탠 바이 미)

“저는 칭하이 무상사의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사랑합니다. 이 기회를 빌려 칭하이 무상사께서 행복한 칭하이 무상사의 날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케이티 맥마흔(Katie McMahon)/ 아일랜드 소프라노(리버덴스)



“칭하이 무상사의 날 축하 행사에 참여하게 돼 너무나 기뻐요. 칭하이 무상사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걸 큰 영광이거든요.”

-플로 앙카(Flo Anka) 프랑스 가수



“칭하이 무상사님, 당신이란 분에 대해 정말 어마어마하게 감사히 생각하며, 자비와 공감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고양되고 내면의 진리와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도록 영감을 주시는 점에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이지 당신이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멋진 칭하이 무상사의 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당신을 만나 직접 감사할 수 있기를, 신과 우주,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게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말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멜리아 아부-오다(Camellia Abou-Odah)/ 아랍 가수



“칭하이 무상사님, 늘 그렇듯이 당신의 특별한 시로 곡을 만들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당신의 훌륭한 마음에서 솟아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스며드는 많은 행복한 선물에 참여하게 돼서 자랑스러웠습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날을 맞아 당신에게 가장 따뜻한 안부를 전합니다!”

-데이비드 샤이어(David Shire) 아카데미상과 그래미상을 2차례 수상한 작곡가 (토요일 밤의 열기)



“칭하이 무상사의 날을 맞아 칭하이 무상사님과 모든 시청자들에게 행운을 기원합니다. 모두가 공연을 보시고 저희와 함께 이 놀라운 경험을 즐기며 칭하이 무상사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기쁨에 잠겨 보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칭하이 무상사의 날을 축하하는 놀라운 경험이 될 것입니다.”

-주니어 케이스(Junior Case)/ 배우

“평화와 사랑, 그분(칭하이 무상사)이 이미 그 본보기를 보이셨지요. 그녀의 모든 글이 그 본보기입니다.”

-켈리 팩커드(Kelly Packard) 배우. 채식인 (SOS 해상 구조대)



“안녕하세요, 칭하이 무상사님! 축하합니다! 저는 최근 들어 채식을 시작했습니다. 저로서는 새롭게 탐사 중인 일인데 아주 신납니다.”

-메건 라몬테인(Meghan Lamontagne) KCAL TV의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TV」 진행자

“저는 [칭하이 무상사]께 극진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분은 아름다운 말을 통해 우리가 동일체라고 사람들을, 영혼을 일깨웁니다. 머리가 아닌 가슴을 일깨우시지요.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서니 힐든(Sunny Hilden) 가수 겸 레이 찰스, 스팅, 패티 라벨의 곡을 쓴 작곡가



“안녕하세요, 칭하이 무상사님. 하시는 일에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당신이 미국과 모든 국가에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는 공헌에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또 정말 감사합니다.”

-마릴린 피터슨(Marilyn Peterson) 「아금아금 비건(Vegan Bite by Bite)」의 저자 비건 채식인

“당신이 모두를 위해 하고 계시는 일이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행복한 칭하이 무상사의 날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찰스 시겔(Charles Segal) 수상 경력의 남아프리카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축하드리며 이날이 앞으로 아주아주 오랫동안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로라 로젠탈(Laura Rosenthal) 미국 캘리포니아 말리부 시 위원



“칭하이 스승님, 당신의 빛을 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빛은 우리가 남들에게 빛을 전하고, 또 그들이 세상 나머지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이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시오마라 오르티즈(Xiomara Ortiz)/ 배우



“칭하이 무상사님, 당신에게 경의를 표하고 19주년을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과 이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경탄하는지 모릅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의 햇불이십니다.”

-라이오넬 프리드버그(Lionel Friedberg) 에미상을 수상한 영화 제작자 비건 채식인



“무상사님, 몇 년 전에 멕시코에서 만난 적이 있지요.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당신은 유대인 어머니와 같고 지구의 어머니 같습니다. 좋은 일들에 마음이 많이 쓰시지요. 당신을 만나고 또 당신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알게 돼서 너무나도 기뻐요 영광이었습니다. 경이롭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아주아주 행복한 19주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119주년 더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캐리 브라운(Cary Brown) 에미상을 3차례 수상한 영화 제작자. 비건 채식인

“안녕하세요, 칭하이 무상사님! 당신의 날에 당신과 함께하고자 여기 참석하게 돼 기쁘고 영광입니다.”

-지나 라 피아나(Gina La Piana) 배우 겸 팝 가수





제 2 장

뮤지컬

등장인물

조이

한때 신에 대한 믿음이 강했으나 개인적인 비극을 겪은 후 이제는 마음이 괴로운 중년 여성. 일기장의 형태로 여전히 과거를 짚어지고 다닌다.

피트

이제 막 성년이 되어 아버지에 의해 세상에 떠밀려 나왔다. 금전적인 성공을 추구한다.

기차 차장

유머 감각이 뛰어나지만 수수께끼 같은 열차 차장. 조이와 피트에게 세계 일주와 더불어 그들 내면에 눈뜨게 하는 여행을 인도한다.

출연진 (등장 순서별)

- 기차 차장: 주니어 케이스
- 조이: 패티 코헨아워
- 피트: 루크 이벌

- 프랑스: 플로 양카
- 자메이카: 블랙 우후루
- 한국: 브라이언, 헤더 박
- 브라질: 파비아나 파소니
- 미국: 데비 그래비티
- 호주: 리즈 캘러웨이
- 중국: 사안기
- 러시아: 키릴 콜리쉬
- 쿠바: 존 세카다
- 이탈리아: 마크 자니셀로
- 아일랜드: 케이티 맥마흔
- 이란: 시아바쉬 샴스
- 아랍권: 카멜리아 아부-오다
- 이스라엘: 리엘 콜렛
- 아프리카: 조디 와틀리
- 어울락(베트남): 호구인호영



마법의 기차에 탑승한 출연진.

장면

제1막

- 제 1장 해 질 녘의 작은 기차역
- 제 2장 열차 객실 안. 프랑스
- 제 3장 열차 객실 안. 자메이카
- 제 4장 열차 객실 안. 한국
- 제 5장 열차 객실 안. 브라질
- 제 6장 열차 객실 안. 미국
- 제 7장 열차 객실 안. 호주
- 제 8장 열차 객실 안. 중국
- 제 9장 열차 객실 안. 러시아

제2막

- 제 1장 막간
- 제 2장 푸른 초원 가장자리의 텅 빈 철로. 밤. 쿠바
- 제 3장 초원. 초저녁. 이탈리아
- 제 4장 초원. 한밤중. 아일랜드
- 제 5장 초원. 중동
- 제 6장 초원. 새벽. 아프리카
- 제 7장 초원. 동틀 녘. 어울락(베트남)
- 제 8장 초원. 아침

시간

사건은 해 질 녘부터 동틀 녘까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다.

장소

전 세계 도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에미상 수상 작곡가 더그 캣사로스.

뮤지컬 수록곡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을 원작으로 한 가사

제 1막

1 서곡		오케스트라
2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네	작곡: 돈 피핀	합창
3 내면의 스승	작곡: 더그 캣사로스	기차 차장
4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	작곡: 낸 슈워츠	프랑스
5 흥정을 해봐요	작곡: 더그 캣사로스	자메이카
6 찬양의 노래	작곡: 데이비드 샤이어	한국
7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	작곡: 호르헤 칼란드렐리	브라질
8 당신의 자리 없네	작곡: 알 카사	미국
9 날뛰는 마음	작곡: 데이비드 샤이어	호주
10 돌부처에게 건네는 이야기*	작곡: 칭하이 무상사	중국
11 세상은 소용돌이	작곡: 헨리 크리거	러시아

제 2막

12 영원한 놀이	작곡: 호르헤 칼란드렐리	합창곡
13 모두 사랑하고 모두 용서하기를**	작곡: 존 세카다	쿠바
14 입문	작곡: 돈 피핀	이탈리아
15 스승과 나 사이	작곡: 낸 슈워츠	아일랜드
16 진리와 예고, 영혼, 축복	작곡: 더그 캣사로스	중동
17 진정한 바보	작곡: 낸 슈워츠	아프리카
18 깨달음	작곡: 헨리 크리거	어울락(베트남)
19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작곡: 알 카사	합창

경축 행사 피날레

20 서로의 손을 잡아요†	작곡: 알 카사	합창
----------------	----------	----

* 칭하이 무상사가 2007년 3월 포모사(대만)에서 쓴 노래. 시집 『천년의 사랑』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에 실린 시 「한 아이가 전하는 마음의 소리」와 시집 『침묵의 눈물』을 원작으로 한 가사.

† 칭하이 무상사가 청소년기에 쓴 시 「사랑하며(Loving)」와 「화해(Conciliation)」, 그리고 20대 후반에 쓴 시 「서로 사랑해 요」를 원작으로 한 가사. 원문 어울락어. 시집 『조약돌과 황금(Pebbles and Gold)」과 『천년의 사랑』에서.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네」에 화려하게 등장한 아프리카(조디 와틀리)와 이탈리아(마크 자니셀로).

제1막 제1장

해 질 녘 환상적인 분위기의 봄비는 작은 기차역. 호화로운 전통 의상을 입은 한 무리의 여행객들이 서둘러 기차를 타려고 모여든다. 무대의 여러 통로와 객석의 복도를 통해 등장.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네

아프리카

오, 주여, 당신은 어디에나 계신다는데
어찌하여
나의 집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나요?

미국

오, 주여, 베일이 영원토록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눈앞에
나의 눈앞에...

중국

오, 더없이 기쁜 세계의 주님
이 베일을 걷어 주소서!
당신 얼굴을 뵈 수 있도록
당신 얼굴을 뵈 수 있도록

다 함께

오, 더없이 기쁜 세계의 주님

아일랜드

당신은 어디에나 계신다는데
어찌하여
나의 집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나요?

이탈리아

당신은 온 우주에 빛을 쏟아부으시면서
나 혼자만 어둠 속에 버려두시는군요!
내 영혼 울고 또 울어 마침내 부서질 지경이건만

다 함께

당신은 신경 쓰지 않으시겠지요
당신은 신경 쓰지 않으시겠지요
오, 주여

러시아

당신은 어디에나 계신다는데
어찌하여
나의 집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나요?

이란

알아요, 내가 그만한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하오니 자애로운 주님, 지체 마시고

남성

나를 이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끌어올려

여성

당신의 빛 속에 살게 하소서

다 함께

당신의 무한한 은총 속에 살게 하소서
오, 주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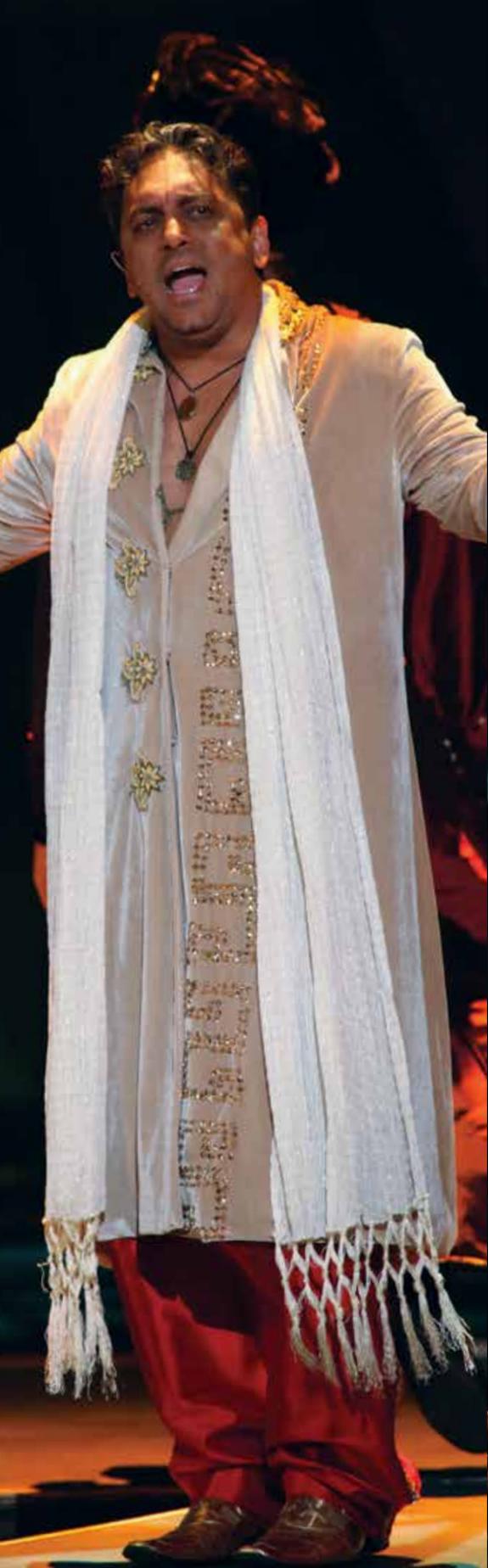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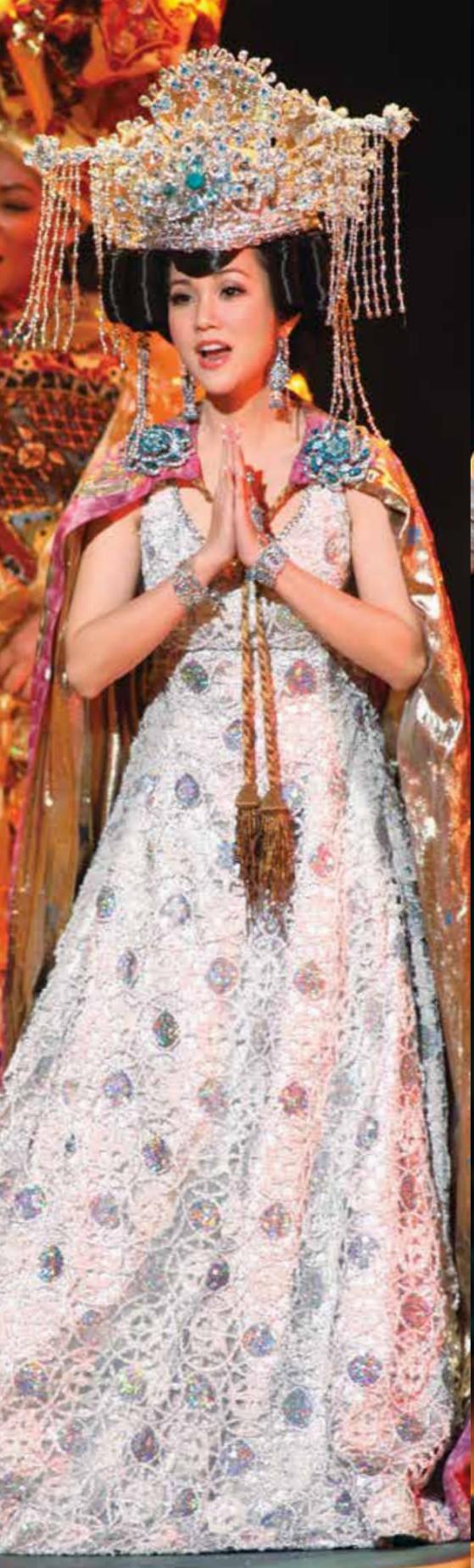
한국

당신은 어디에나 계신다는데
어찌하여
나의 집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나요?

다 함께

오, 주여, 베일이 영원토록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눈앞에
나의 눈앞에...

오, 더없이 기쁜 세계의 주님
이 베일을 한쪽으로 치워 주세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한 무대에 선 국제적인 출연진. 왼쪽부터 러시아(키릴 콜리쉬), 미국(데비 그레비티), 한국(브라이언), 중국(사안기), 이란(시아바쉬 삼스), 아일랜드(케이티 맥마흔).



지혜롭고 쾌활한 기차 차장(주니어 케이스).

(복적대는 분위기 속에서 50대 후반에서 60대쯤 되는 여성 '조이'가 뒤돌아선 채로 기차표를 확인한다. 그녀는 큰 핸드백을 뺀데 부유해 보인다. 군중들과 부딪치는 바람에 핸드백을 떨어뜨려 내용물이 쏟아진다. 때 묻은 낡은 책이 바닥에 미끄러진다. 차장이 책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하다가 책을 집어 든다.)

차장 (겉표지를 읽으며) 조이의 일기? 주인 되시는 분? 조이의 일기?
(차장이 일기장을 편다... 그가 소리 내어 읽으면 여행자들이 뒤에서 합창한다.)

내면의 스승

차장 (코러스가 일부 단어를 메아리치듯 따라 부르며)

내면의 스승
영원한 생명의 상징!
우주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힘 있고 자비로운 분
어떤 이들은 스승을 주님, 아버지, 어머니, 하느님,
만물의 근원이라 부르고
어떤 이들은 도(道)라 부르며, 또 어떤 이들은 낭만적으로
아름다운 신부, 연인으로 묘사한다네
또 어떤 이들은 본래면목,
대지혜, 완전한 길, 사랑이라 부르네
부르고 싶은 대로 부르라!
솔직히 그는 전혀 개의치 않으리
그러나 그 무엇이 됐든
그 없이는 살 수 없어라
그녀를 보고 싶은 갈망은 가장 큰 고통
오직 신묘한 도에 발 디딘 이들만
그 고통을 안다네

(조이가 차장에게 시선을 두고선 그 시어를 알아차린다.)

일단 찾기만 한다면
여태껏 미처 몰랐다는 걸 깨닫게 되리라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빛'과 '소리'를 통해서라네
천국은 내면에 있노라-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지금 여기에!

조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차장 당신 건가요?

조이 그래요.

차장 증명해 보세요.

조이 내 거예요.

차장 '조이의 일기'?

조이 내가 조이예요.

차장 좋아요, 순수한 '조이'. (그녀에게 일기장을 건네려 한다.) 그럼 그 시를 당신이 쓴 건가요?

(조이는 그에게서 일기장을 잡아채려 하지만 차장은 그녀의 손이 닿지 못하게 들고 있다.)

조이 아니요, 몇 년 전에 베껴 쓴 거예요. 바보 같은 것이었지요. 내겐 아무 의미도 없어요.

차장 좋아요. 오늘 여행 목적은요? 가족 방문?

조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요.

차장 (일기장을 조이에게 건네며) 그냥 시간이나 때우려고요.

조이 여기 있는 어느 누가 목적지를 말할 수 있겠어요? 기차 시간표를 도무지 읽을 수가 없던데요. 기차도 한 대뿐인 것 같고요! (승객들의 복장을 유심히 보며) 다들 복장도 아주 독특하네요.

차장 그럼 당신은 어디 가시지도 모르는 거군요.

조이 기차역에 가려고 했어요. 이 역은 아니지만요. 이 역은 난생처음 봐요. 내가 가려던 역이 아닌 건 확실해요. 그 택시 기사가 무능하기 짝이 없었나 봐. 이 기차는 어디로 가지요?

차장 어디든지요.

조이 아니, 진짜로 말해 보세요.

차장 정말이에요. 어디든지 가요.

(누군가에게 떠밀린 듯 피트가 비틀거린다. 젊고 아직은 철부지인 그는 반짝이는 새 서류 가방을 움켜쥐고 있다. 자신을 떠민 사람에게 마지못해 손을 흔들어 작별 인사를 한다.)

피트 안녕, 아빠!
(상대는 벌써 등 돌리고 가는 듯 그냥 불러 본다.)
안녕, 아빠!
(피트가 열차에 올라탄다. 열차 기적 소리가 울린다.)

조이 이 기차는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거지요?
(차장이 씩 웃는다.)

차장 전원 탑승!

(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낮은 엔진 소리가 뒤따른다. 차장이 조이를 당겨 올려 태우자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첫 번째 도착지인 프랑스(플로 양카)가
에펠 탑 앞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를 부른다.



제 2장

열차 객실 안.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

프랑스 (프랑스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겠어요?
당신의 힘든 시험은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영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겠어요?
당신의 힘든 시험은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프랑스어)

그게 어떤 것인지 잘 아시잖아요

(영어)

그게 어떤 것인지 잘 아시잖아요
당신의 인도 없이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겠어요?
당신의 힘든 시험은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프랑스어)

내게 소중한 건 오로지 당신뿐!
분명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을 텐데
오, 지상과 천국의 스승님

(영어)

무한한 사랑의 주님
기쁨과 슬픔을 초월하신 당신
내 마음을 몽땅 가져가시는군요!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겠어요?

(프랑스어)

당신의 힘든 시험은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영어)

그녀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겠어요?

(프랑스어)

당신의 힘든 시험은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영어)

당신이 우리 손을 잡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곧바로 쓰러지고 말 거예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시겠어요?

조이 나는 내릴래요. 지금!

차장 여행을 가려던 생각이었잖아요?

(다른 승객들에게)

자리에 앉으세요!

(승객들이 열차 안을 오가며 여전히 부산하게 움직이는 통에
피트가 비틀거리다 조이와 부딪친다.)

피트 죄송합니다, 부인.

조이 내 책에서 손 떼! 내 가방에서 말이야.

(그가 그녀에게 기대 균형을 잡으려 하지만 그녀는 재빨리 떨어지며
핸드백을 어깨에 바싹 멘다.)

이 멍청이가.

피트 죄송해요. 다들 저한테 어리바리하대요.

조이 맞는 말이네.

피트 주로 저희 아빠가 그러세요. 아빠 말씀이 그래요.

조이 철 좀 들어, 멍청아. 나한테 가족 불평하지 말고. (차장에게) 나
한테는 승차권 달라고 하지 말아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열차에 끌려온 거니까.

차장 마법으로! 경이! 갖가지 발걸! 마음을 열어 주는 깨달음.

(객실 통로를 다니며)

승차권 보여 주세요!

(장면이 파리 배경으로 바뀐다. 무용수들이 한 줄로 늘어서 캉캉
춤을 춘다. 이어서 여러 쌍의 남녀가 에펠 탑 앞에서 우아하게
왈츠를 춘다. 프랑스가 등장한다. 그녀는 프랑스 국기 색(파랑,
빨강, 흰색)으로 된 19세기풍 드레스를 입고 똑같은 톤의 풍선
한 다발을 들고 있다.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조이가
놀라서 쳐다본다. 이 여정은 더 이상 열차 객실이라는 물리적
공간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 음악 공연에 16개국이 공헌한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공연은 수많은 실력자들을 한자리에 모았는데, 6대륙이 참여하
는 걸 보고 놀랍다고 생각했어요. 기적 같은 일이에요!”

-브렌다 바카로(Brenda Vaccaro)
골든 글러브상과 에미상 수상, 아카데미상과 토니상 3차례 후보

(프랑스어)
당신의 힘든 시험은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프랑스가 자기 풍선을 무용수들에게 하나씩 나눠 주기 시작한다.)

(영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

(프랑스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

(영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

(기차가 다시 들어오고 프랑스가 무대를 떠난다. 프랑스는 조이에게 풍선을 하나 건네지만 조이는 방금 본 광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한다.)

제 3장

다시 열차 객실 안. 이제 차장은 음식이 가득한 카트를 밀며 승객에게 나눠 주면서 즐거운 듯 혼자 춤을 춘다.

피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는 사람은 없어요.

조이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요?

피트 아무도 없었는데요.

조이 여기서 있었던 일을 본 사람 없어요? 우리가 파리를 지나갔다고요!

차장 말했잖아요! 볼거리가 많을 거라고.

조이 파리였어요! 여러분, 파리였다고요!

차장 경치가 기가 막히지요! 하지만 더 많은 게 기다려요! (바게트를 권하며) 바게트 좀 드실래요?

(조이가 손바닥을 들어 보이며 거절한다. 차장은 이어서 피트에게 묻는다.)

'감로수' 한 잔?

피트 예?

차장 주스 드시겠어요?

피트 (여전히 못 알아들은 척하며 더 크게) 예?

차장(주니어 케이스)이 어안이 병병해진 조이(패티 코헨아워)에게 앞으로 더 많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확인하고 피트(루크 이벌)가 그 모습을 바라본다.



스승님,
같이 흥정을 해보고 싶어요.

몇 분간만 우리 역할을 바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비밀을 아시겠지요.

아니면 기억이라도 하시든가요

자기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청하이 무상사가 30대(1980년대)에 쓴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피트가 차장과 함께 웃는다. 끼익끼익거리고 딸깍거리는 기차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짓궂게 놀리는 듯한 타악기 비트로 바뀐다.)

조이 또 시작이군!

(피트에게)

이 소리 들려? 나만 들리는 건가? 내가 아침을 잘못 먹었나 봐.

(자메이카 트리오가 무용수들과 함께 들어온다. 모두 선명한 빨강색, 초록색, 노란색의 의상을 입고 있다. 장면이 갑자기 레게 풍의 파티 분위기로 바뀐다. 열차가 뒤로 사라진다.)

흥정을 해봐요

자메이카 1

내가 생사의 사막에서 목말라 할 때

당신은 천국의 어딘가에서

감로수를 마시고 계시는군요!

그 길을 알기만 한다면

당장 올라가 가로첼 텐데

오, 스승님

영광 중에 영광이신 분!

내게 몇 방울이라도 떨어뜨려 줘야

공평하다 생각지 않으십니까?

내게

몇 방울이라도?

자메이카 2

당신이 숨어 계신 곳을 안다면

찾으러 달려갈 텐데

하지만 아아! 나는 천생 장님이라

그 높은 정상까지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귀머거리에 병어린지라

소리쳐 부를 수도,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어요

오, 주님

당신이 이 가련한 영혼을 창조하셨잖아요

다들 내게 그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니 당신이 보살피 주셔야지요

아니면 나는 홀로 비참하게 죽을 거예요

당신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다 함께

당신에겐 눈이 있으니

나를 거두러 오시고

당신에겐 입이 있으니

제발 나를 불러 주세요

당신에겐 귀도 있는데

어찌하여 내 간청을 듣지 못하시나요?

스승님

같이 흥정을 해보고 싶어요

자메이카 3

몇 분간만 우리 역할을 바꿔 보는 거예요

그러면 깊은 비밀을 아시겠지요

아니면 기억이라도 하시든가요

자기 자신과 분리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다 함께

당신에겐 눈이 있으니

나를 거두러 오시고

당신에겐 입이 있으니

제발 나를 불러 주세요

당신에겐 귀도 있는데

어찌하여 내 간청을 듣지 못하시나요?

자메이카 1과 3

당신에겐 눈이 있으니

나를 거두러 오시고

당신에겐 입이 있으니

제발 나를 불러 주세요

당신에겐 귀도 있는데

어찌하여 내 간청을 듣지 못하시나요?

어찌하여 내 간청을 듣지 못하시나요?

어찌하여 내 간청을 듣지 못하시나요?

자메이카 2 (겹치게 부르며)

오, 신이시여! 그 위대한 천국에서 홀로 뭘 하시나요?

정녕 외롭지도 않으신가요?!

다 함께

당신에겐 귀도 있는데

어찌하여 내 간청을 듣지 못하시나요?

어찌하여 내 간청을 듣지 못하시나요?

어찌하여 내 간청을 듣지 못하시나요?

(자메이카 가수들이 춤추며 재등장하는 열차를 지나간다. 각자 조이를 잠깐씩 돌아보며 퇴장한다. 그러나 조이는 화장을 고치면서 그들을 못 본 척한다.)

레게풍의 「흥정을 해봐요」를 부르며
카리브인의 열정을 무대로 옮겨 온 자메이카(블랙 우후루).





기차가 극동으로 진입하면서 한국(브라이언과 헤더 박)이 스승에게 절절한 마음의 헌신을 바치다.

제 4 장

레게 세계가 흩어지고 열차는 그냥 열차일 뿐이다.

객실에 있는 승객은 조이뿐. 그녀는 문득 아무도 없는 걸 깨닫는다.

조이 마침내 혼자가 됐군. 정신도 제대로 돌아오고.

(차장이 레게 가발에 알록달록한 자메이카 모자를 쓰고 들어온다.)

차장 (크게 노래 부르며) 당신에겐 입이 있으니 제발 나를 불러 주세요.

조이 완전히는 아니군.

(차장이 바닥에 또 떨어져 있는 조이의 일기장을 비롯해 이런저런 분실물들을 줍는다.)

차장 (노래하며) 당신에겐 입이 있으니 제발 나를 불러 주세요! (흔젓말로) 드림 채 한 쌍.

(드림 채를 주머니에 집어넣는다.)

낡은 스웨터, 조이의 일기. 이거 버리려고요?

(그가 그녀에게 일기장을 건넨다.)

조이 그 멍청이가 또 훔치려고 했나 봐요. 나는 모든 걸 빼앗기기만 해요.

차장 짐은 걸음을 더디게 할 뿐이에요. 여행 고수는 가볍게 여행하세요. 물론 당신은 언제나 보험에 들 수 있어요.

(그는 뜬금없이 반짝이는 서류 폴더를 꺼내 흔들어 보인다.)

조이 재산 보험! 좋은 생각이네요.

차장 아니, 아니요. 영적 보험이에요.

조이 영적 보험.

차장 당신 영혼을 위해서요.

조이 내 영혼에 보험이 필요하다고요? 누가 내 영혼을 훔치기라도 하나요?

(가난한 여행자 부부가 등장해 조이의 솔을 갖고 싶은 듯 바라본다. 조이는 솔을 단단히 여며 두른다.)

차장 (스웨터와 드림 채를 들어 올리며) 우리 모두 도중에 이런저런 걸 잃어버리니까요.

조이 이 안이 좀 춥지 않나요?

차장 갑자기 그렇군요. (고개를 저으며)

자비를 베푸소서, 자비를.

(차장이 낡은 스웨터를 가난한 여행자의 어깨에 덮어 준다.)

조이 다음 생에는 더 운이 좋기를.

(열차가 한국의 산중에 훔날리는 봄눈 속으로 사라진다.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궁중 한복을 입은 위엄 있는 한국 남녀가 입장한다. 궁중 무용단이 따라 들어온다.)

찬양의 노래

한국 1과 2 (영어로 부르는 각 소절을 한국어로 받아서 메아리치듯 따라 부른다.)

한없이 자비로운 스승님

깊고도 깊은 그 은혜

한없는 은총 말할 수 없네

내 깊은 마음속

침묵의 눈물 흐르네!

태양도 그 빛

잃어버리네!

당신은 별보다 보석보다 찬란한 빛

신성한 그 빛으로

내 영혼 깊은 어둠 밝히네

오, 간절한 마음

신성한 기쁨

즐거움이 넘치네

당신의 빛 속에 잡겨

모든 세속의 근심은 없네!

이런 사랑과 자비

흘려넘치는 분 없어

한 마리 제비 되어

세상 끝나도록

찬양의 노래

영원토록 노래하고 싶네!



당신이 모습을 드러내시면
태양도 그 빛을 잃어버리네!

당신의 존재

수천의 별보다 무수한 보석보다 빛나고

당신의 성스럽고 싱그러운 광채

내 영혼의 깊은 어둠을 밝혀 주시네.

칭하이 무상사가 30대(1980년대)에 쓴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에서 스승이 자애롭게
함께 주시길 열정적으로 호소하는 브라질(파비아나 파소니).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

브라질 (영어로 노래하면 코러스가 포르투갈어로 따라 한다.)

오, 주여
당신에겐 수많은 제자가 있지만
내겐 오직 당신뿐!
우리 둘 중 누가 더 충실할까요?

솔직히 나 자신이 불쌍해요!
대놓고 불명하겠어요!

내 말 들리는 사람 있나요?

피트 나요!

브라질

나의 스승님은 전혀 관심 없으세요

스승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걸 잊으셨나 보군요
이제는 천안(天眼)이 열려 있으셔서
그러니 외로이 있는 내가 안 보이시는 거겠죠
당신을 뵈고자 갈망하고 있는데

피트 (브라질에게) 나도 당신을 보고 싶어.

(브라질이 그를 밀쳐 낸다.)

브라질

휘황찬란한 더 높은 세계에 들어가시니
나 홀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어도
아무렇지 않으시겠죠!
오, 당신은 '완전한' 성인인데
어찌하여 눈을 잃으셨나요?

브라질과 코러스 (영어로 말하며)

스승님! 귀가 있기는 하신가요?
꼭 있어야 하는데!
내 절박한 부름을 들으시려면
아무래도...
내일은 인간의 두 귀를
사다 드려야겠어요

브라질 (노래하며)

어딘가에서 마음을 잃어버리신 건
아닌가요

(피트가 브라질과 삼바 무용수들에게 퇴짜를 맞는다.)

(한국 가수들이 조이에게 살짝 고개 숙여 인사하고 조이의 시선은 떠나는 이들을 계속 따라간다.)

조이 누구를 찬양한다고? 누구를? 무엇을?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한국이 사라지자 열차에는 다시 그녀 혼자뿐이다. 피트가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들어온다. 그의 손에는 노트북과 문서가 담긴 서류 가방이 들려 있다.)

피트 돈이요! 아버지는 늘 돈을 찬미하라고 했어요! 나도 그렇고요.

제 5장

전과 같은 열차 객실 안.

조이 어디 갔었니?

피트 철드는 중이지요! 부의 세계가 옆 칸에 있던데요! 온갖 대박 투자에 관한 걸 배웠어요. 재정적 조언이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조세 피난처? 미래를 위해 잘 따져야 해요! 투자를 제대로 하고, 돈 관리를 배우세요.

조이 멍청이, 내 돈에는 손댈 생각 마.

피트 피트.

조이 뭐라고?

피트 내 이름은 피트라고요.

조이 뭐든 간에. 너 같은 어린애랑 얘기할 시간 없어.

피트 좋아요, 저는 아버지의 자랑이 될 거예요. 그 무엇도 내 앞길을 막을 순 없어요.

(삼바 음악 소리가 커진다. 반짝이는 은빛 옷을 입은 브라질이 삼바 무용수들과 함께 등장한다.)

오, 와.

(피트가 늑대 휘파람을 분다. 더 많은 삼바 무용수들이 객석 통로를 통해 들어온다. 피트는 신이 나서 그들 주위로 뛰어다닌다. 열차가 리우데자네이루의 카니발 축제 분위기로 전환된다.)

당 신에겐 수많은 제자가 있지만
내겐 오직 당신뿐!

우리 둘 중 누가 더 충실할까요?

솔직히 말해 나 자신이 불쌍해요!

대놓고 불평하겠어요!

내 말 들리는 사람 있나요?

청하이 무상사가 30대(1980년대)에 쓴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브라질

천국에 올라가시다가!
그게 아니면 내 심정을 아실 텐데요
언제까지나
소매에 매달린 채
당신께 바치고자 안달이 난
나의 마음을!

(피트는 붉은 드레스를 입은 예쁜 아가씨가 자신에게 눈길을 주는 걸 보곤 그녀에게 다가가 함께 퇴장한다.)

사랑하는 스승님!
나와 한배를 탄
모든 동료들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열반을 갈망하지만
윤회밖에 모르는 그들을

사랑하는 스승님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리셨다면
(포르투갈어)

내 마음을 가져가세요
내 마음을 가져가세요

(브라질과 일렬의 삼바 무용수들이 퇴장한다. 카니발이 사라진다. 열차가 다시 등장한다.)

제 6장

전과 같은 열차 객실 안. 피트는 새 여자 친구와 함께 아주 행복해한다. 그들은 조이가 보는 가운데 삼바 음악의 남은 리듬에 맞춰 춤을 춘다.

피트 부인, 제가 뭘 꿰찼나 보세요!
(차장이 저글링을 하며 들어온다.)

조이 (비꼬듯이) 아빠가 아주 자랑스러워하겠는걸. 해폰 여자라니, 다음에는 또 뭐지?

차장 인생을 마음대로 갖고 노는 법을 배우겠지요.

피트 그건 이미 아는데요. (여자 친구에게) 이것 봐. 자기가!
(피트가 카트에서 칼을 잡는다. 여자 친구가 열렬한 눈으로 쳐다본다.)

조이 그래! 칼로 저글링하기! 네 또래 애들은 자기가 불사신인 줄 알지.

피트 내 또래의 '남자'요.
(차장은 피트에게서 칼을 빼앗고 오렌지를 건넨다.)

차장 오렌지부터 해봐.

피트 할 수 있었는데.

조이 물론 할 수 있었겠지.

피트 나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요?

조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 애들은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피트 할 수 있거든요!

조이 (이제는 피트에게 하는 말이 아닌 투로) 어리석고 위험한 짓만 해대지! 남은 가족들은 너를 위해 기도하고 말아야.

피트 (이제는 조이에게 하는 말이 아닌 투로)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유명해질 거야!

조이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어.

피트 온 세상이 내 이름을 알게 될 거야!

조이 신은 없어. 아니면 용서받을 만한 사람이 없든가.

피트 돈이 있는데 신이 왜 필요해요?

조이 너는 결국 번잡한 거리에 혼자 남아 찾지 못할 사람을 찾아다니고 말겠지.

(열차가 네온사인과 간판이 즐비한 뉴욕 브로드웨이의 도시 야경 속으로 사라진다. 선홍색 옷을 입은 미국이 신문을 읽으며 들어오다 도시 인파 속의 누군가와 부딪친다. 다들 유니폼을 입은 듯 형광색 비즈니스 정장 차림에 신문과 서류 가방,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있다.)

다음 도착지에서 미국(데비 그래비티)이 청중들을 뉴욕 시 심장부로 데려간다.





「당신의 자리 없네」에서 정신없이 움직이며 부산한 도시 군중들.

당신의 자리 없네

미국

세상은 번뇌로 가득한데
 나만은 당신으로 가득해요!
 세상 안에 당신의 자리 마련돼 있다면
 모든 번뇌가 사라질 텐데
 그러나 세상이 번뇌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어요!
 주여, 당신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세상은 번뇌로 가득한데
 나만은 당신으로 가득해요!
 (미국이 바닥에서 휴대폰을 줍는다. 군중 속의 한 사람이 낚아
 채며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세상 안에 당신의 자리를 마련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질 텐데
 그러나 세상이 번뇌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어요!
 주여, 당신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군중 속의 사람들이 정신없이 업무를 보며 때로는 서로 밀치거나 부딪친다.)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할 줄 안다면
 그들의 고통과 슬픔은 끝날 텐데
 하지만 사랑하는 스승님, 나는 발견했어요
 그들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더 사랑한다는 걸!
 오, 그들은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더 사랑해요!

세상은 번뇌로 가득한데
 나만은 당신으로 가득해요!

세상은 번뇌로 가득한데
 나만은 당신으로 가득해요!

세상은 번뇌로 가득한데
 나만은 당신으로 가득해요!
 세상 안에 당신의 자리를 마련하면
 모든 번뇌가 사라질 텐데
 그러나 세상이 번뇌로 가득 차 있어
 당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어요!
 당신의 자리를 찾을 수 없어요

(미국이 조이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아는 척한다. 그녀가 무대를 떠나면서 열차가 다시 들어온다. 도시 경관이 사라진다.)

제 7장

열차 안, 지금은 대체로 어둠에 싸여 있다. 스포트라이트가 이젠 머리가 부스스해진 피트를 비춘다. 그는 다른 두 노름꾼과 탁자에 둘러앉아 포커 카드를 돌린다. 피트 앞에는 시가와 담배 연기가 피어오른다. 지폐 무더기와 술 한 병, 작은 술잔들이 놓여 있다. 여자 친구가 그의 어깨 너머로 보고 있는 가운데 피트는 시가를 피우며 돈을 획 과시한다.

피트 카드 두 장. 두 장, 아니면 세 장? 똥똥한 시가를 물고 있는 이 친구에게 세 장.

(피트가 한 노름꾼에게 새로 세 장의 카드를 돌린다.)

조이 (몇 열 뒤의 좌석에서) 폐암에 걸려도 나는 몰라.

피트 어둠 속에서 들리는 저 소리는 무시해. (어깨 너머로 조이를 가리키며) 우리는 모르는 여자야. 알고 싶지도 않고. 이봐, 판돈이 부족하잖아. 누가 안 낸 거지?

(노름꾼들이 몸을 바짝 들이대며 피트를 위협한다.)

그래, 우리 아빠가 포커를 가르쳐 줬어. 우리 아빠는 대단한 포커꾼이야. 남자한테는 그 이상의 아버지가 없을걸. 보드카 5잔을 연달아 원샷 하는 법도 가르쳐 줬다고.

(피트가 노름꾼들과 보드카 잔을 째 하고 부딪치고 술을 마신다.)

조이 이제는 간을 죽이는구나.

(여자 친구가 조이에게로 몸을 확 돌려 눈을 부라린다.)

피트 (여자 친구에게, 그러나 반쯤은 어깨 너머로 조이에게 하는 말로) 받아, 예쁜아. 이걸 갖고 가서 예쁜 것 좀 사.

(여자 친구가 그의 돈을 들고 뿔내는 걸음걸이로 나가면서 은밀하게 노름꾼 한 명에게 먼저 웅크한다. 멀어져 가는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피트. 하지만 노름꾼에게 말한다.)

이봐! 카드나 봐. 그녀는 내 거야.

(여자 친구는 조이가 앉아 있는 객실 끝에서 피트가 준 돈을 세기 시작한다. 그녀는 자신을 노려보는 조이와 잠시 눈이 마주친다. 그러자 조이는 들고 있는 잡지를 재빨리 훑훑 넘기며 혼잣말로 구시렁댄다.)

좋아, 누가 이길 것 같아? 나한테 에이스 네 장이 없다고 누가 그래? 좋아, 당신들 거는 걸 보고 나도 판돈을 계속 올리겠어. 이 밤이 끝날 쯤이면 여자를 열 명 더 살 만한 돈을 따겠는걸.

(여자 친구가 돌아와서 피트 뒤에 선다.)

아야! 내겐 너뿐이야!

조이 장담하는데, 그녀가 네 주머니를 탈탈 털어 갈 거야.

피트 부인, 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피트가 조이에게 따지려고 몸을 돌릴 때 여자 친구에게 돈 뭉치를 또 준다. 그녀는 신이 나서 그걸로 부채질을 한다.)

조이 주머니가 텅텅 비겠지!

피트 마음이 텅텅 비었군요!

조이 머리가 텅텅 비었구나.

(기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늘 그렇듯이 낮은 엔진 소리가 이어진다. 토속적인 북소리가 커진다. 열차는 머나먼 호주의 오지로 사라진다. 고대에 그려진 암벽화 뒤로 자유롭게 춤을 추는 무용수들의 실루엣이 영사막에 비쳐 보인다. 무대에는 원주민 남자 하나가 책상다리를 한 채 바닥에 앉아 있다. 그는 디제리두를 불며 나지막한 원시 시대의 소리를 불러들인다. 호주가 미개척지에 걸맞은 갈색 톤의 모자와 코트, 부츠 차림을 하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온다.)



피트는 노름꾼 패거리와 새로운 여자 친구와 어울리면서 세속적인 방종에 깊이 빠져든다.

날뛰는 마음

호주

당신께 귀의했을 때
 당신은 내게 영원한 행복을 약속하셨지요
 그건 믿어요. 정말 믿어요!
 오, 스승님, 열린 실현시켜 주소서
 나는 지금
 이 어둠의 왕자의 감옥에서 죽어 가고 있으니
 사랑하는 스승님
 당신은 내게 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인걸요!

당신은 천국과 지상을 움직이고
 악마도 사랑의 천사로 바꿀 수 있지요
 가장 위대한 마술사님
 어찌하여 이 날뛰는 마음은 바꾸지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스승님
 당신은 내게 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인걸요!

당신의 손길은 돌도 금으로 바꿀 수 있고
 악마도 사랑의 천사로 바꿀 수 있지요
 전능하신 스승님!
 내 영혼을 어루만져
 당신 것이 되게 하소서

(디제리두 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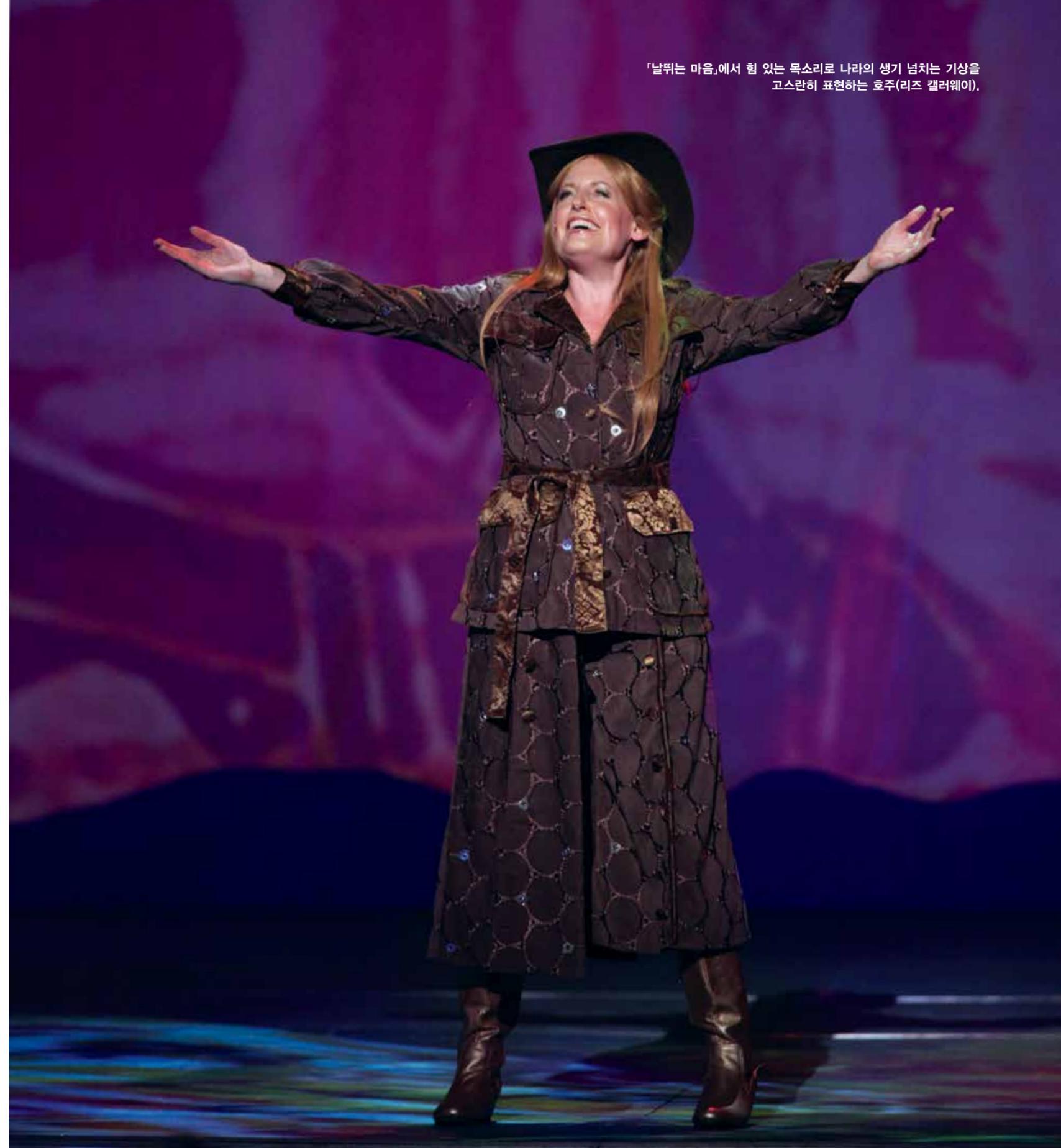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어요
 알아요! 알고말고요!
 이미 내게 말씀하셨지요
 “만물은 신의 피조물이다”

사랑하는 스승님
 사랑하는 스승님
 당신은 내게 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인걸요!
 당신은 내게 신보다 더 중요한 존재인걸요!

(호주와 조이의 눈이 잠깐 마주친 후 호주가 성큼성큼 무대에서 퇴장한다. 오지의 배경이 희미해진다.)



「날뛰는 마음」에서 힘 있는 목소리로 나라의 생기 넘치는 기상을 고스란히 표현하는 호주(리즈 캘러웨이).



제 8 장

전과 같은 열차 객실 안. 피트가 노름꾼들의 돈을 긁어모은다. 노름꾼들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씩씩대며 떠난다.

피트 (상당히 취한 상태로) 정말 고마웠어, 신사 양반들. 즐거운 시간이었어! 내가 어디 있는지 알 테니까 또 놀러 오라고, 한 번 더 해보아야지 않겠어! 다음번에는 당신들에게 운이 돌아갈지 누가 알겠어! 초심자의 행운을 내가 어찌겠어?
 (노름꾼들이 퇴장한다. 피트는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술병을 들고 있는 여자 친구를 껴안는다. 둘이 함께 앉는다.)
 좋아, 좋아, 좋아. 그래, 5천7백, 5천8백, 5천9백, 6천...
 (여자 친구가 지폐를 몇 장 엉덩이 밑으로 숨긴다.)
 아니, 이것보다는 더 많이 봤는데.
 (여자 친구에게)
 못 봤어? 바닥에 떨어진 돈 못 봤어?
 (여자 친구는 훔친 돈을 짐싸게 원피스 안에 숨긴다. 피트는 모르지만 조이는 알아챈다.)

조이 그녀 손에 떨어졌나?

피트 그만해요!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러는 거예요?

조이 네가 똑똑한 바보인지, 멍청한 천재인지 모르겠구나.

피트 당신 자식한테나 잔소리하세요. 아들 이름이 뭐죠? 마마보이?
 (술에 취해 요란하게 웃어대며) 아들 이불도 꼭꼭 다독여 주나요?
 그 아드님은 어머니날에 꽃을 사다 주고요? 술도 안 마시는 모범생에 (술을 흘쩍이며) 도박도 절대 안 하겠지요. 당신 명이라면 뭐든지 다 따르나요?

조이 오, 인생이 탄탄대로구나.

피트 예, 아주 탄탄대로예요! 당신이 가진 건 손때 묻은 옛날 일기장과 모범생 아들뿐이지만요.

조이 네가 아직 살아 있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결국! 신이 없다는 증거야!
 (차장이 물품 판매대를 끈에 매달아 목에 걸고 들어온다.)



피트와 조이 간에 갈등이 심화되자 차장이 끼어든다.

차장 안대, 귀마개! 낮잠 주무실 분? 침묵 속에서. 깊은 명상에 잠긴 침묵 속에서.

피트 안대요!

조이 (손을 들며) 귀마개요! 들을 만큼 들었어요.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낸다.)

차장 공짜예요.

(조이가 귀마개를 한다. 여자 친구는 피트에게 술을 한 잔 더 먹인다.)

조이 돌처럼 딱딱하군.

차장 부드럽러워질 거예요. 좋은 꿈 꾸세요. 기도하고...

(잠시 쉬었다가)
답을 기다리세요.

조이 (귀마개를 밀어 넣으며) 그 얘기는 이미 한 걸로 아는데요! 신은 없어요. 답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없거든.

피트 기도라고요! 무슨 그런 농담을.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나요? 여기 이 몸을 잘 보세요!

(안대를 하며)

내가 바로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니까.

(노름꾼이 들어와 여자 친구에게 손짓을 한다. 여자 친구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는 몸짓을 하고선 재빨리 주위를 둘러본 뒤 피트의 돈다발을 들고 그와 함께 걸어 나간다. 안대를 한 피트는 일이 꼬이는 낌새를 알아채지 못한다.)

차장 잘 자요.

(열차가 퇴장하면서 심금을 울리는 선율이 시작된다. 중국이 들어오며 차장에게 가볍게 인사한다. 그녀는 보석들로 화려하게 장식된 관을 쓰고, 소매가 바닥까지 닿는 푸른 은백색의 장엄한 의상을 입고 있다. 돌부처의 이미지가 배경에 나타나고 중국풍의 등불이 허공을 가득 채운다. 우아한 무용수들이 등장한다. 중국이 손을 합장한 채 노래 부른다.)

돌부처에게 건네는 이야기

중국 (영어)

안녕하세요, 부처님, 어찌하여 우시나요?
그 돌 가슴에 갈망이 얼마나 많나요?
어찌하여 당신의 눈물, 바다로 흐르나요?
어찌하여 당신의 사랑, 조약돌에 주시나요?

(중국어)

안녕하세요, 부처님, 어찌하여 우시나요?
그 돌 가슴에 갈망이 얼마나 많나요?
어찌하여 당신의 눈물, 바다로 흐르나요?
어찌하여 당신의 사랑, 조약돌에 주시나요?

(영어)

오, 부처님, 오, 부처님
어찌하여 열반을 떠나오셨나요?
이곳에 찾을 게 뭐가 있다고?
끝없는 고통 아니면 슬픔?

오, 부처님, 오, 부처님
지금 어서 사바세계를 떠나세요!
슬픔 없는 곳으로 돌아가세요
기쁨만 영원한 곳으로
사랑만 있고, 경계도 없는 곳으로

(중국어)

오, 부처님, 오, 부처님
지금 어서 사바세계를 떠나세요!
슬픔 없는 곳으로 돌아가세요
기쁨만 영원한 곳으로
사랑만 있고, 경계도 없는 곳으로

(영어)

안녕하세요, 부처님
어찌하여 미소 지으시나요?
당신의 돌 가슴은 빛으로 가득하군요!
어찌하여 당신의 두 팔, 세상을 감싸 안으시나요?
어찌하여 당신의 사랑, 영원히 빛나요?

(중국어)

오, 부처님, 오, 부처님
오, 부처님, 오, 부처님

(장면이 희미해지고 열차가 다시 들어온다. 중국이 피트와 조이에게 자애롭게 두 팔을 뻗어 보인다.)

세상에 대한 스승의 슬픔과 자비를 담은 노래 「돌부처에게 건네는 이야기」에서 선녀복의 무용수들이 중국(사안기)을 원형으로 둘러싸고 있다.



오, 부처님, 오, 부처님,
지금 어서 사바세계를 떠나세요!

슬픔 없는 곳으로 돌아가세요
기쁨만 영원한 곳으로
사랑만 있고 경계도 없는 곳으로.

청하이 무상사/ 2007년 3월 포모사(대만)
시집 『천년의 사랑』에서



제 9 장

전과 같은 열차 객실 안. 몇 시간 후. 조이는 여전히 자고 있다. 그녀가 펼쳐서 들고 있던 일기장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진다. 피트 혼자 도박 테이블로 돌아온 상태. 안대는 목까지 내려와 있다. 탁자에는 시가 콩초와 피트의 지갑, 지폐 몇 달러가 너저분하게 어질러져 있다. 그가 얼마 안 되는 지폐를 꺼내 펼쳐 본다. 보는 사람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취했다.

피트 (사람을 부르며) 자기야! 내 행운의 여인이 어디로 갔지? 내게 행운을 갖다 줄 수도 있었는데! 그 돈을 도로 되찾아야겠어!
(조이를 바라보며)
누가 멍청한 노름꾼인지 보여 주겠어. 그게 내 전 재산인 줄 알아? 더 뺏다고.
(그는 지갑을 빼서 몇 장 안 되는 돈을 꺼내 확인한다.)
히! 이제는 많지가 않군... 어쨌든 내일은 다시 다 따겠어.
(그가 지갑을 뒷주머니에 도로 쑤셔 넣는다. 고주망태가 된 그는 문득 조이의 일기장이 바닥에 떨어진 것을 알아챈다.)
아, 그 일기장.
(그는 만면에 웃음을 짓고는 살금살금 통로를 기어가서 일기장을 집어 든다. 펼쳐서 읽기 시작한다.)
“금요일: 잠자는 그 애의 모습이 참 잘생겼다.” (올려다보며)
“잠자는 그 애의 모습이 참 잘생겼다!” 나에 대해 쓴 거잖아! 이 봐요, 부인!
(조이의 어깨를 툭툭 치며 깨운다.)

조이 그만둬! 뭐 하는 거야?

피트 나에 대해 써 봤네요!

조이 안 들려!

피트 (소리 지르며) 일기에 나에 대해 써 봤다고요!

조이 (귀마개를 뽑는다.) 그건 네 희망 사항이지.

피트 (일기장을 휘두르며) 여기 있잖아요!

조이 (일기장을 보고선 벌떡 일어선다.) 여기라니?

피트 “토요일: 오늘 그는 20살이 됐다.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나길 기도한다.”

조이 (달려들며) 이리 내놔!

피트 오후라. 아니, 이건 그 신비한 아들에 대한 거군! 그 유명한 완벽남!

(둘이 의자 위로 올라간다. 피트는 고약하게 취해 있고 조이는 그를 쫓아가다 비틀거린다.)

조이 이리 내놔!

피트 뭐가 그렇게 비밀이에요? 당신의 어두운 과거사? 현재의 애인들!

조이 한 방 먹는 수가 있어.

피트 노인네가 꽤나 대담한데.
(좌석 등받이 위를 넘어가며 일기장으로 그녀 어깨를 다시 툭툭 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녀가 커다란 자기 핸드백을 단단히 붙잡고 그에게 휘두른다.)

빛나갔네요!

조이 (다시 치려고 하면서) 안전은 환상일 뿐이야!

피트 아야! (굴하지 않고) “일요일: 그는 아직 자고 있다. 내 가슴은 타 들어간다. 하느님, 어디에 계시나요?” (조이가 울기 시작한다.) 오, 잠깐, 이건 뭐지? 시군! “나는 온 창조계의 입.”

(피트가 발작적으로 웃는다.)

조이 차장을 부르겠어. (소리치며) 차장! (피트에게) 차장이 너를 이 기차에서 던져 버릴 거야. 운 좋다면 시베리아에 떨어지겠지.

(조이가 핸드백을 집어 들고 퇴장한다. 피트는 앉아서 일기장을 읽는다. 알록달록한 양파형 돔 건축물들이 나타나고 민속 음악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러시아가 활기찬 무용수 무리들과 함께 무대로 뛰어 들어온다.)

조이가 술에 취한 피트한테서 일기장을 되찾으려 하지만 헛수고로 돌아간다.





러시아(키릴 콜리쉬)와 민속 무용단이 선보인 '세상은 소용돌이'가 종력을 거스르는 공연으로 제1막의 마지막을 장식하다.

세상은 소용돌이

러시아 (영어)

나는 온 창조계의 입
 숨김 없이 외치리라
 생사윤회로 세세생생 겪는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자비로운 스승님
 어서 그것을 끝내 주소서

(러시아어)

나는 온 창조계의 입
 숨김 없이 외치리라
 생사윤회로 세세생생 겪는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자비로운 스승님

어서 그것을 끝내 주소서

(영어)

오, 무한한 빛의 스승님!
 자비롭게 이 간절한 마음에
 몇 줄기 빛이라도 내려 주소서

세상은 소용돌이

전갈과 뱀으로 가득 차 있네

그것들이 탐욕과 분노, 증오로 물어뜯으니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 속으로 빠져드네

(러시아어)

세상은 소용돌이

전갈과 뱀으로 가득 차 있네

그것들이 탐욕과 분노, 증오로 물어뜯으니
 사람들은 꼼짝없이 그 속으로 빠져드네

(영어)

오, 스승님, 왕 중의 왕이시여
 부디 저들을 평화의 저택으로 데려가
 영원한 봄을 되찾게 하소서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미로운 눈길을 주실 때면
 그이는 자기가 당신의 하나뿐인 연인이라 믿겠지요

(러시아어)

당신이 누군가에게 감미로운 눈길을 주실 때면
 그이는 자기가 당신의 하나뿐인 연인이라 믿겠지요

(영어)

오,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분이시여!
 그 눈길, 천 번 만 번 내게 주소서

(러시아어)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을 다 팔 텐데

(영어)

당신의 아름다운 눈길 하나 살 수만 있다면
 우주의 해와 달과 별을 다 팔 텐데

오, 무한한 빛의 스승님!

자비롭게 이 간절한 마음에

몇 줄기 빛이라도 내려 주소서

(러시아가 무용수들과 함께 퇴장하며 피트에게 미소 짓는다. 장면이 사라지고 열차가 다시 돌아온다. 여자 친구가 뽀내듯 걸어 서 입장한다.)





피트가 주먹다짐을 하는 바람에 조이와 함께 기차 밖으로 떠밀려 나간다.

피트 자기야!
 (노름꾼이 따라 들어와 여자 친구의 허리에 팔을 두른다.)
 잠깐, 너는 내 거잖아! 아니면... 이 패배자에게 붙은 거야?
 (조이가 차장을 끌고 들어온다.)
조이 애가 내 일기장을 가져갔어요!
 (피트는 조이를 돌아보고선 순간 어리둥절하다가 자기 손에 일기장이 들려 있는 게 생각한다. 여자 친구는 당당하게 그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탈탈 털어 간다. 피트가 그걸 느끼고 몸을 돌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피트 야, 그건 내 돈이야!
조이 (차장에게) 내 일기장을 찾아 주세요!
피트 그건 내 전 재산이라고! (차장에게) 내 전 재산이에요!
조이 내 일기장을 찾아 줘요!

차장 긴급 정차. 정차!
 (기차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춘다. 모두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린다. 열차 문이 열린다. 조이가 피트에게서 일기장을 낚아챈다. 피트는 돈을 찾으려 돌진한다. 노름꾼이 피트에게 주먹을 날린다. 피트는 균형을 잡으려고 조이를 잡는다. 그녀의 핸드백을 잡았다는 편이 맞지만.)
조이 내 가방에서 손 떼!
 (너무 늦었다. 피트가 출입구 문간으로 고꾸라지면서 열차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때 피트가 조이를 잡아끌고, 조이는 차장을 밖으로 끌어낸다. 열차 문이 여자 친구와 노름꾼 앞에서 닫힌다. 기적 소리가 크고 길게 울린다. 차장이 웃으며 기차에게 가라고 손짓한다. 그는 조이의 두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운다. 셋이 초원으로 걸어가고 커튼이 내려진다.)

제2막 제1장

세계 여러 지역의 상징으로 장식된 배경막.
 다양한 나라의 무용수들이 독특한 깃발을 들고 등장한다.

영원한 놀이

호주
 이 영원한 놀이가 무슨 소용인가요
 아침 내내 홀로 앉아
 당신을 뵙고자 했건만
 오시지 않았어요

아프리카
 오후 내내 또 홀로 앉아
 애타게 기다렸지요

브라질
 온 세상이 내 절박함을 알 텐데!

아프리카와 브라질
 당신은 개의치 않으시네!

프랑스
 칠흑 같은 방에서
 뜬눈으로 누워 있어요

이탈리아
 외로운 촛불 하나뿐
 당신의 빛은 한 번도 비춰지지 않았어요!

한국
 좋아요, 스승님! 갈 테면 가세요!
 원하는 데로 가세요
 나는 지쳤어요!
 마음이 산산조각 났어요
 어쨌거나 나는 약한 중생일 뿐

다 함께
 이 영원한 놀이가 무슨 소용인가요
 옛날부터 이어진
 이 숨바꼭질이?
 이 숨바꼭질이

미국
 영겁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건 현명한건
 이 놀이에 얼마나 많은 힘을 뺏던가요!
 난 그만두겠어요!

아랍권과 이스라엘
 언젠가는 당신 스스로 나오셔야 해요
 나는 더 이상 계속할 힘이 없어요
 우리 둘 다 좋을 게 없어요

다 함께
 이제 이 놀이를 멈추어요!
 나는 지금 헐벗은 마음으로
 의식을 잃고 당신 문가에 누워 있어요
 행인들도 내 처지를 아는데
 당신은 모르시는군요!
 이 영원한 놀이가 무슨 소용인가요
 옛날부터 이어진
 이 숨바꼭질이?

오, 자비롭고 은혜로운 스승님!
 내 영혼에 생명수를
 뿌려 주세요
 얼른요!
 아니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거예요!

(배경막이 사라진다. 차장과 실의에 빠진 조이가 등장해 있다. 가수들이 나가면서 조이와 차장에게 다정한 몸짓을 건넨다.)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을 축하하는 이런 뜻 깊은 행사의 일환으로 참석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겸허한 마음이 듭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주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다니 정말 멋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코리 펠드만(Corey Feldman)
수상 경력의 배우(구니스, 스탠 바이 미), 채식주의자

제2장

푸른 초원 가장자리의 텅 빈 철로. 달은 없지만 별이 총총한 밤. 열차는 가고 없다. 귀뚜라미가 운다. 부엉이도 부엉부
영 운다. 차장은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있다. 조이는 여전히 충격과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통나무에 앉아 있다.
피트만 몹시 분개하며 서 있다.

피트 (조이에게) 일어나요! 일어나요! 어떻게 거기에 앉아만 있을 수
있지요?

차장 그녀에게 시간을 좀 줘. 방금 기차에서 내팽개쳐졌잖아.

피트 왜 기차를 잡지 않는 거예요?

차장 왜 이걸 여행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 기차가 데려다
주는 건 한계가 있어.

피트 휴대폰 없어요? 아니면 쓸 만한 거라도? 그 시가 피우는 놈이
나를 쳤어요! 폭행죄로 고소하겠어! 내 여자 친구는 내 돈을 전
부 훔쳐 가고! 경찰서가 어디지요? 경찰을 불러야겠어요!

차장 (휴대폰을 꺼내며) 신호가 안 잡히네. 잠깐! 막대가 하나 뒀어!
두 개인가 본데. 그래, 여기가 낫겠어...

(휴대폰을 들고 신호가 잘 잡히는 곳을 찾아 퇴장한다.)

피트 아주 잘됐군! 이젠 차장도 가 버렸어.
(조이에게)
일어나요!

조이 (살짝 쳐다보며) 왜?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말하라고? 몇 마일
내에 하나뿐인 차편에서 나를 끌어내리거나 하고.

피트 나도 불시에 얻어맞았다고요.

조이 그래, 멍청아. 네 업장은 고약해. 있잖아, 너는 내 아들을 많이
닮았어. 지금처럼 짜증 낼 때는 말고. 지금은 좀 붉으락푸르락
하잖아. 아무튼 네가 아들을 닮아서 엄마처럼 굴었는데, 미안하
게 생각해.

피트 지금 나는 고약한 업장에, 붉으락푸르락한 거군요! 내 간을 죽
이고 있고, 폐를 태우고, 멍청이라고? 부인, 당신은 세계 최고의
잔소리꾼이에요. 당신 아들은 당신을 어떻게 참는 거지요? 어
느 누가 당신을 참아 내겠어요? 나를 기차에서 밀어내질 않
나...

조이 내가 밀었다고?

피트 (숨을 헐떡이며) 당신도 껴 있었잖아요! 당신 때문에 정신없는

틈에 그들이 내 돈을 훔쳐 간 거지요! 이제 나는 빈털터리야! 여
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내가 당신 아들을 닮은 게 뭐 상관어람?

조이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내 잘못이구나?

피트 그래요!

(조이가 웃기 시작한다.)

조이 그럼 파티라도 해야겠네!

피트 그게 대책이에요? 정신이 나갔군요.

조이 (계속 웃으며) 내 짐은, 잘은 몰라도 타히티 어딘가에 있겠지.
내가 앉아 있는 통나무는 아주 축축해서 일어날 엄두가 안 나.
체면이 말이 아니야.

피트 그런데 왜 웃어요?

조이 (반박하면서) 내가 내 똥까지 화내고 있으니깐! 나는 그 이상으
론 화내지 못할걸. 화내는 것도 질렸어. 30년 동안 파티에도 못
갔어.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점점 커진다. 무대의 풍경이 열대 낙원으
로 변하면서 쿠바가 살사 무용수들과 함께 들어온다. 점잖게 폐
도라 중절모를 쓰고 새빨간 셔츠를 입은 쿠바가 조이에게 일어
나 파티에 합류하라고 손짓한다. 피트는 나무 그루터기에서 쳐
다보기만 한다.



차장이 허허벌판에서 휴대폰 신호를 찾아다니자 피트가 초조한 모습으로 쳐다본다.

모두 사랑하고 모두 용서하기를

쿠바 (영어)

오, 주여

당신을 사랑할 뿐 나를 위해선 아무 바람도 없어요

하지만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해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이들이 자신의 평화를 찾기를

땅과 하늘, 바다에 사는

우리 친구들의 삶

(스페인어)

그들은 사랑과 보호와 아낌을 받아야 해요

생명은 마땅히 그래야 하듯이

사랑하는 천국, 친애하는 인과의 왕이여!

그들을 데리고 올라가 사랑을 주소서

저 위의 천국에서

그들에게 사랑을 주소서! 천국에서!

(무용수들이 육해공의 다양한 동물 이미지를 들고 들어온다. 잠시 후 살사 무용수 몇 명이 파티에서 빠져나와 둘러싸자 조이는 즐거워하고 피트는 시큰둥해한다. 조이와 쿠바는 계속 춤을 춘다.)

(영어)

모두 사랑하고 돌보며 용서하기를

모든 창조물을 돌보기를!

저 위 천국에는 수많은 곳들이 있으니

모두 사랑하고 돌보며 용서하기를

모두 사랑하고 돌보며 용서하기를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조이는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가슴에 꼭 껴안는다.)

(영어와 스페인어)

이것이 나의 작은 기도!

사랑과 자비심으로

모두 사랑하고 돌보며 용서하기를

모두 행복하고 공존하기를

모두 사랑하고 돌보며 용서하기를

모두 행복하고 공존하기를

모두 사랑하고 돌보며 용서하기를

모두 사랑하고 돌보며 용서하기를

모두 사랑하고 돌보며 용서하기를

(쿠바가 퇴장하고 무용수들이 그림자 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간다.)

「모두 사랑하고 모두 용서하기를」에서 쿠바(존 세카다)가 공연장 전체를 살사 파티의 도가니로 돌아낸다.



이 것이 모든 존재들을 위해 올리는
저의 작은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사랑과 자비심만 있으면 됩니다.
모든 존재가 행복하고 서로 화목하게 공존하기를,
모두 사랑하며, 서로 돌보고 용서하기를.

칭하이 무상사의 책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에 실린 시
『한 아이가 전하는 마음의 소리』 중에서





차장이 조이를 위로하고 그녀는 영성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된다.

제 3장

전과 같은 초원. 달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조이는 계속 혼자 춤을 춘다. 피트는 이리저리 서성거리고 있다.

조이 (노래하며) 모두 사랑하고 돌보며 용서하기를.
(말하는 투로) 분노는 기력을 너무 많이 소모시키지.

피트 뭐라도 도움이 되는 걸 한번 해봐요.
(조이가 깡충 걸음으로 피트의 뒤를 따라 걷는다.)
웃기네요. 나는 구조 방법 같은 걸 말한 건데요.

차장 (다시 들어오며) 됐어요! 연결이 됐어요. 잠깐만, 아니네.

피트 전화기 줘 봐요!
(피트가 휴대폰을 쥐고 연결이 잘 되는 곳을 찾아 퇴장한다.)

조이 즐거운 시간을 놓치셨군요.

차장 당신답지 않게 유쾌해 보이네요.

조이 당신들 두 사람과 함께 있잖아요.

차장 그러니 운 좋은 거지요!

조이 바닥을 쳤잖아요! 올라가는 것만 남았지요.

차장 일기장을 또 떨어뜨렸군요.

조이 조이의 일기! 손목에 묶어 놔야겠어요.
(차장이 조이에게 일기장을 건넨다. 그녀는 살짝 망설이더니 결국 책장을 덮고선 품에 꼭 끌어안는다.)

차장 읽을 기분이 아닌가요?

조이 다 외우고 있는걸요. 아들 옆에 앉아서 1년 동안 이걸 썼어요.
그 애가 좋아지길 바라면서.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자기가 불사신인 줄 알아요. 어리석은 모험을 걸지요. 과속 운전을 했어요.
모두 다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차장이 그녀를 쳐다보곤 일기장을 가져다 펼쳐 읽는다.)

차장 “내면의 스승: 영원한 생명의 상징...”?

조이 “천국은 내면에 있노라, 지금 여기에!” 어떤 날은 호전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에는 회복하지 못했어요. 신은 나를 도우러 오지 않았어요. 아마 그럴 운명이었겠지요. 지금 나의 최대 희망은 우주의 계획이에요. 영적 보험이요.

(차장이 갑자기 불쑥 폴더를 꺼내 든다.)

차장 바로 여기 있어요.

조이 (돌아보며) 와!

차장 나는 재주가 많아요.

조이 영적 보험인데 종이에 적혀 있네요? 얼마예요?
(그녀가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낸다.)

차장 (폴더를 건네며) 공짜예요. 백지고요.

조이 백지 보험 증서?

차장 당신 스스로 채워야 해요.

조이 어떻게요?
(조이가 지갑을 정장 주머니에 넣는다.)

차장 내면으로 연결돼야 해요.

피트 (등장. 좌절감에 빠져 멍통인 휴대폰을 흔든다.) 연결이 안 돼요. 그 기차를 못 타면 내 인생은 끝장이라고요!

조이 안됐구나. 삶은 영원할지도 모르는데. (생각하느라 잠시 멈춰다 가) 나는 삶이 영원하다고 생각해.
(차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피트 역까지 얼마나 되지요?

차장 오, 다음 대륙에.

피트 다음 대륙이요? 그거 참 멋진데요. 끝내주는군요. 그럼 우린 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유럽?

차장 지금은 그렇지.

피트 잠깐, 우리가 여전히 여행 중인가요?

차장 내가 차장이니까, 내가 안내하는 거지.

(조이가 살짝 웃는다.)

피트 그럼 내 운명은 당신에게 달렸군요? 언제까지요?

조이 멍청이, 너는 그냥...

피트 내 이름은 피트라고요, 부인! 그 정도 예의는 지켜 주시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여기에 있잖아요!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끝장났다고요!

(조이와 차장이 폭소를 터뜨린다.)

왜 웃어요?

조이 그냥.

(피트는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져 바닥에 드러눕는다. 그는 팔로 눈을 가리며 애써 잠들려고 한다. 달이 떠오르고 달빛이 비친다. 붉은 커튼과 함께 오페라 하우스의 모습이 나타난다. 턱시도를 입은 이탈리아가 계단 꼭대기에 서서 들어온다. 무대 반대 쪽에는 이탈리아의 마리오네트가 하나 들어와 이탈리아의 가사를 춤으로 표현한다.)

입문

이탈리아 (영어)

당신은 내게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줬지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사랑의 참 뜻을 몰랐겠지요

그러나 남들에게는 말하지 않겠어요

나를 미쳤다고 할 테니까!

정말이지, 나는

당신의 성스러운 감로수에 빠져 버렸어요

나의 입문

나의 입문

입문

(이탈리아어)

스승의 사랑이 내 영혼에 드리워질 때

나는 젊은이로 거듭나지요

그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유는 사랑의 논리가 아니니까!

(영어)

이유는 사랑의 논리가 아니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혼하면

열정이 어느 정도 식는데

주여, 나는 당신과 약혼하고서

열정이 타오르기만 합니다!

이유는 사랑의 논리가 아니니까!

칠팔십 노인에게서
춤추는 눈망울과 생기 넘치는 청춘을 본다면
형제들이여, 알아야 해요
그건 스승의 기적의 손길 때문이라는 걸

(이탈리아어)

입문

입문

입문

(영어)

스승의 사랑이 내 영혼에 드리워질 때

그 이유는 묻지 마세요

(이탈리아어)

이유는 사랑의 논리가 아니니까!

이유는 사랑의 논리가 아니니까!

(노래가 절정에 이르면 마리오네트가 묶여 있던 줄에서 풀려나 조이 앞에서 팔짝팔짝 기뻐하며 춤을 춘다.)

(영어)

이유는 사랑의 논리가 아니니까!

(마리오네트가 의기양양하게 계단을 기어 올라가서 이탈리아와 만난다. 감동한 조이가 “고마워요.” 하고 속삭인 후 그들이 퇴장한다.)

세레나데 「입문」을 부르는 동안
강렬한 존재감을 발하는 이탈리아(마크 자니셀로).



“아 주 훌륭한 공연이었습니다. 이번 L.A. 여행의 백미였어요. 중간부터 계속 소름이 돋았어요. 몇 번이나 목이 메었고요. [그 시에는] 아주아주 심오하고 풍부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간직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리고 [칭하이 무상사계서] 명상 중에 시간을 내서 나오셨다는 사실에 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린제이 버틀러(Lindsay Butler)/ 영국 BBC 진행자





소프라노 음조와 뛰어난 하프 연주 실력으로 아일랜드(케이티 맥마흔)가 이 지상의 것이 아닌 듯한 아름다움을 뽐낸 자아나다.

제 4장

전과 같은 초원. 이제는 달빛이 완연하다.

피트는 기진맥진해서 자고 있다.

차장 여기는 바깥이라 쌀쌀하지요?

조이 몰랐어요.

차장 (피트를 가리키며) 춥겠는데요. (조이에게 손을 건네주며) 나는 저 기차를 확인하러 가 볼게요.

(조이가 피트에게 자신의 손을 걸쳐 주려다가 잠시 망설인다.)

조이 또 엄마 노릇을 하게 생겼네. 오, 알 게 뭐야. 이거나 덮어. (솔로 그를 덮어 준다.)

나도 어쩔 수가 없어. 한 번 부모는 영원한 부모니까. 한 가지 말 해 줄게, '피트'. 어떤 부모도 자식이 먼저 가는 걸 원치 않는단다. 수년 전 일이었지만 난 모든 믿음을 저 일기장에 쏟아부었어. 그 후로는 그걸 읽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었어. 그러다 이 세상 어디로도 가지 않는 기차역에 도착했는데 내가 누굴 발견한 줄 알아? 너야. 내가 본 중 최고의 문제야.

(피트가 깨어난다. 그가 일어나 몸을 돌리다가 조이의 솔에 걸려 넘어진다.)

피트 아야!

조이 괜찮니?

(피트의 눈높이가 철로와 같아진다.)

피트 철로라니... 그럼 여길 통과하는 다른 기차가 있겠네? 그래야 맞지! 마법의 기차는 아니겠지만 다른 기차가 있을 거야. (그는 주머니가 빈 것을 느낀다.) 차비가 필요하겠는데.

조이 기차는 내가 가야 할 곳으로 데려다주지 않아.

피트 당신은 돈이 있지요! 돈이 필요해요.

조이 너는 너의 평화를 찾아야 해. 나도 내 평화를 찾고 있어.

(화려한 복장을 한 켈트족 무용수들이 아일랜드와 함께 힘차게 등장한다. 피트와 조이는 무용수들에게 압도당한다. 아일랜드 스텝 댄스가 잠잠해지는 틈틈이 에메랄드빛 드레스를 입은 아일랜드가 높은 단상 위에서 달콤하게 하프를 연주하며 노래한다.

스승과 나 사이

아일랜드 (게일어)

세상 연인들은 자신들만이
사랑의 고통이 뭘지 안다고 생각하지요
아! 얼마나 큰 착각인가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애타게 그리워하는지 알면 좋으련만

(영어)

세상 사람들은 밤에 밖으로 나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음악에 취해
노래하고 춤추는데
나만은 고요히 앉아
내면의 빛과 선율에
몸을 맡기고 있어요

당신의 눈부신 아름다움은 극상의 예술!
생명 없는 조각상을 어찌 다시 숭배할 수 있을까?

제아무리 장엄한 초상화라도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게일어)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영어)

하지만 당신을 찬미하는 말,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맹세했어요!

(게일어)

세상의 비루한 말로 하기는 부끄럽기에
그 어떤 언어로도 가장 존귀하신 분을
찬탄할 수 없기에

(영어)

세상 연인들은
자신들만이 사랑이 뭘지
사랑이 뭘지 안다고 생각하지요
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그들이 알면 좋으련만

나와 스승의 유대감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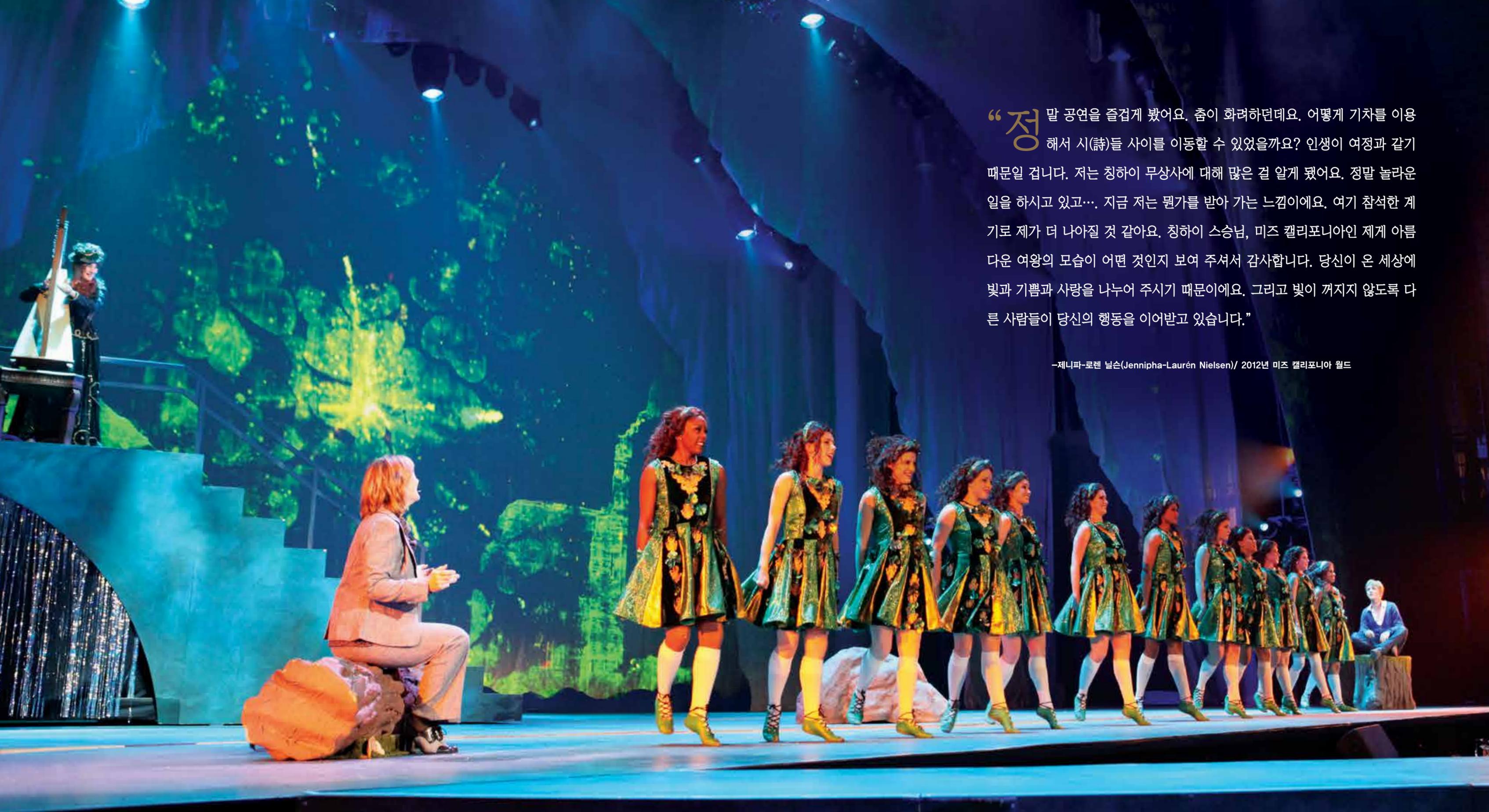
(게일어)

그들이 알면 좋으련만
나와 스승의 유대감을

(영어)

그들이 알면 좋으련만
나와 스승의 유대감을

(아일랜드와 무용수들이 사라진다.)



“정말 공연을 즐겁게 봤어요. 춤이 화려하더라고요. 어떻게 기차를 이용해서 시(詩)들 사이를 이동할 수 있었을까요? 인생이 여정과 같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칭하이 무상사에 대해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정말 놀라운 일을 하시고 있고... 지금 저는 뭔가를 받아 가는 느낌이에요. 여기 참석한 계기로 제가 더 나아질 것 같아요. 칭하이 스승님, 미즈 캘리포니아인 제게 아름다운 여왕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온 세상에 빛과 기쁨과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빛이 꺼지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제니파-로렌 닐슨(Jennipha-Laurén Nielsen)/ 2012년 미즈 캘리포니아 월드



제5장

다시 초원은 초원일 뿐. 달이 머리에 가깝게 떠 있다.
별들이 밝게 빛난다.

조이 우리가 하룻밤 새 어떻게 이렇게 멀리 올 수 있었지? 내가 그 기차를 타지 않았다면 어쩔 뻔했어?!

피트 그랬다면 나는 행복했을 텐데요.

조이 언제부터 그렇게 심술궂어졌니?

피트 부인한테 배운 건데요.

조이 그런 건 배우지 마. 정말 안 어울려. 그리고 내 이름은 조이야.
(차장이 평소처럼 웃는 얼굴로 돌아온다.)

피트 역에 전화해 봤어요?

차장 어째서 네가 또 다른 여행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피트 역에 전화해 봤냐고요?

차장 그래.

피트 우리가 있는 곳을 알려 준 거지요?

차장 그럼! 지금 오는 중이야.

피트 당신을 믿어야만 하는 거겠지요?

차장 철로에 귀를 대 봐.

피트 왜요?

차장 쪼그리고 엎드려 철로에 귀를 대 보라고. 멀리서 기차 오는 소리가 들릴 거야.

(피트가 쪼그리고 엎드려 철로에 귀를 갖다 댄다.)

피트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차장 더 엎드려 봐! 귀를 바짝 대!

(피트가 귀를 선로에 바짝 붙인다.)

피트 안 들려요.

차장 눈을 감아! 더 잘 들릴 거야! 그렇지! 레몬즙을 짜듯이 꼭 감아 봐.

피트 그리고 있어요! 좀 우스꽝스러운 것 같은데요.

(차장이 드럼 채를 꺼내 바위를 약하게 두드리기 시작한다.)

차장 아직도 안 들려?

피트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안 들려요.

(차장이 더 세게 두드린다.)

차장 믿음을 가져! 진리에 귀 기울여 봐.

피트 (여전히 눈을 감은 채) 팔각거리는 소리가 나요!

조이 뭔가 오고 있어!

피트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드디어!

차장 네가 예상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피트 (움직이기 시작하며) 뭐가 됐든 여기 있는 것보단 나아요!

차장 눈 뜨지 마! 뭘 하든 눈을 떠선 안 돼!

(차장이 드럼 소리에 맞춰 크게 노래를 부른다. 다음 노래 첫 소절의 가사 없는 고음 부분이다. 피트가 벌떡 일어나 화를 낸다.)

피트 거짓말쟁이!

차장 웃어넘겨, 피트!

피트 나를 속였어!

조이 작작 좀 해.

(중동-아랍권·이란·이스라엘-이 들어와 차장의 노래를 이어 받는다. 각 지역을 상징하는 벨리 댄서와 회전춤을 추는 데르비시, 하시드 유대 무용수가 등장한다.)



차장과 조이(옆 페이지)가 기차를 간절히 기다리는 피트를 놀린다.



조이가 아랍권(카멜리아 아부-오다)과 이란(시아바쉬 샴스), 이스라엘(리엘 콜렛)으로 구성된 평화의 트리오를 만나.

진리와 예고, 영혼, 축복

이란 (페르시아어)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을 하길래
그들의 예술을
따라 해볼까도 했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입만 열면 '진리'가
방울방울 쏟아져요!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고자
당신의 거룩한 모임에 들었는데
가장 힘든 일을 요구하실 줄은
미처 몰랐어요
내 예고를 버리라고 하실 줄이야!

아랍권 (영어)

당신의 시는
내가 읽은 가장 감동적인 시
하지만 사랑하는 스승님
어찌하여 내 영혼 가장 깊숙이 감춰진 비밀을
모두 밝혀셨나요?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고자
당신의 거룩한 모임에 들었는데
가장 힘든 일을 요구하실 줄은
미처 몰랐어요
내 예고를 버리라고 하실 줄이야!

이스라엘

남편이 떠난다면
거의 못 살겠지요

아랍권

자식들한테 버림받는다면
분명 울 거예요

이란 (페르시아어)

은 세상이 나를 저버린다면
정말 비참하겠지요

이스라엘 (영어)

하지만 당신이 나를 외면하신다면

이스라엘과 아랍권

사랑하는 스승님!



중동 가수들의 목소리가 「진리와 예고, 영혼, 축복」에서 완벽한 화합을 이룬다.

이란 (페르시아어)
나는 죽고 말 거예요

아랍권 (영어)
나는 죽고 말 거예요

이스라엘
나는 죽고 말 거예요

아랍권 (아랍어)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고자
당신의 거룩한 모임에 들었는데
가장 힘든 일을 요구하실 줄은
미처 몰랐어요
내 예고를 버리라고 하실 줄이야!

이스라엘 (영어)
나를 멸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들의 마음이 어서 피어나길 기도하겠어요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에서 나오는
수천 수만 개 태양 빛의 은총을 통해서!
(히브리어)
오, 주여!

이란 (페르시아어)
당신의 축복 모든 이들에게 흘러넘쳐요

이스라엘 (영어)
악한 이와 선한 이
아름다운 이와 추한 이에게

이란 (페르시아어)
당신의 축복 모든 이들에게 흘러넘쳐요

아랍권 (영어)
신실한 이와 가치 없는 이
모두에게 똑같이!

이스라엘
당신이 바다에 눈길 한번 주시면
오, 장엄하신 임이여
물고기들은 모두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고

그럼 축복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인간의 복전(福田)을 기름지게 할 테지요
오, 장엄하신 임이여

(히브리어로 아랍권, 이란과 겹쳐 부르며)
당신이 바다에 눈길 한 번 주시면

오, 장엄하신 임이여
물고기들은 모두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르고

그럼 축복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인간의 복전(福田)을 기름지게 할 테지요
오, 장엄하신 임이여

아랍권 (아랍어로 겹쳐 부르며)
봉사와 희생의 삶을 살고자
당신의 거룩한 모임에 들었는데
가장 힘든 일을 요구하실 줄은
미처 몰랐어요
내 예고를 버리라고 하실 줄이야!

이란 (페르시아어로 겹쳐 부르며)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을 하길래
그들의 예술을
따라 해볼까도 했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입만 열면 '진리'가
방울방울 쏟아져요!

다 함께 (아랍어, 히브리어, 페르시아어)
오, 장엄하신 임이여!

(중동 트리오가 각자 조이와 피트, 차장에게 인사하고 퇴장한다.)



나를 멸시하고 욕하는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마음이 어서 피어나길 기도하겠어요
당신의 머리카락 한 올에서 나오는
수천 수만 개 태양 빛의 은총을 통해서, 오, 주여!

청하이 무상사가 30대(1980년대)에 쓴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극도로 흥분한 피트가 조이의 소중한 일기장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갈등이 정점에 이른다.



제6장

전과 같은 초원. 여명 전의 빛줄기가 하늘을 울긋불긋하게 물들인다.

조이 새벽이네!

피트 나는 되찾고 싶어요. 나는 부(富)를 원하고 여자를 원해요. 내 삶을 되찾고 싶어요. 내 삶을 원한다고요!

조이 그럼 너는 아직 못 찾은 거야!

(멀리서 기차의 기적 소리가 울린다.)

차장 아! 진리의 소리! 철로를 따라 도착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정지 신호를 보내려 갈게요. (피트에게) 그런데 아까 철로에 귀를 갖다 대던 모습은 아주 웃겼어. 꿈무늬를 하늘로 치켜들고 말이야.

(차장이 철로를 따라 내려간다. 다시 들리는 기차 기적 소리, 더 가까워진다. 피트가 몸을 돌리다 조이의 핸드백에 발이 걸려 넘어진다. 그가 핸드백을 낚아채자 조이도 힘을 주며 버틴다. 결국 예전처럼 둘은 핸드백을 팽팽하게 잡고 놓지 않는다. 두 사람은 꼼짝하지 않고 서로를 바라본다.)

조이 또 이렇게 됐구나. 처음으로 돌아갔네.

피트 그렇네요.

조이 뭘 하려는 거야?

피트 난 정말 당신 돈이 필요해요.

조이 바보구나. 왜 나한테 돈이 있다고 생각하지?

(피트는 그녀의 손에서 핸드백을 뺏아당긴다. 가방을 열지만 일기장밖에 안 보인다. 그가 그걸 꺼내자 조이의 얼굴이 굳어진다.)

피트 당신 지갑은 어디 갔어요?

(조이가 일기장을 잡아채자 피트가 다시 낚아챈다. 피트는 핸드백을 멀리 내던지고 일기장은 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멀찌감치 든다.)

지갑 어디 있어요? 봤는데! 지갑 있는 것 다 안다고요!

(조이가 정장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급히 빼낸다.)

조이 내가 찾는 게 이거니?

(꺼낸 지폐를 갈기갈기 찢어 버린다.)

이건 종이일 뿐이야!

(피트의 자세가 갑자기 굳어 버린다.)

피트 당신이 찾는 게 이거예요?

(피트가 일기장을 거칠게 찢는다. 조이의 숨이 턱 막힌다. 일기장을 가리키며) 이건 종이일 뿐이에요!

(서로에게 찢어진 조각들을 날린다.)

조이 아들 곁에 앉아서 쓴 거야!

피트 아들이 아주 자랑스러워하겠네요!

조이 내 아들은 죽었어!

(피트가 아주 오랫동안 미동도 하지 못한다. 조이가 조용히 흐느끼기 시작한다.)

피트 그런 말 안 했잖아요. 몇 살이었는데요?

조이 네 나이쯤. 모든 게 그 애를 위해 준비돼 있었지.

피트 돈과 여자 같은 거요?

조이 그래.

피트 나처럼요?

조이 아들을 잃었을 때 나도 영적인 혼수상태에 빠졌어. 이 여행이 나를 깨운 거야.

피트 그가 정말 내 나이에 죽었나요?

조이 너희 같은 애들은 자기 몸이 불사신인 줄 알지. 온갖 잘못된 일에 관심을 쏟고! (잠시 멈추고) 나도 정말 바보였어.

(조이는 나무 그루터기에 주저앉아 눈물을 멈추지 못한다. 멀리서 기차 바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근접해 오는 기차. 피트가 소리 나는 쪽을 보다 조이를 돌아본다. 아프리카 북 고수들이 들어와 리듬을 타기 시작한다. 초원이 세렝게티의 야생 평원으로 바뀐다. 전통적인 느낌의 의상에 부풀린 머리 장식을 쓴 여왕 같은 모습의 아프리카가 들어와 조이를 가만히 안고 뺨을 쓰다듬는다. 아프리카 무용수들이 조이와 피트를 둘러싼다.)

진정한 바보

코러스 (줄루어)
 가장 지혜로운 분이여!
 어떤 일을 맡기시든
 제 목숨을 거는 일이라도 해내겠어요
 하고말고요!
 그저 당신의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오, 만물의 주님!

아프리카와 코러스 (영어)
 오, 만물의 주님!

아프리카
 내 운명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당신은 내게 너무 막중한 큰 사명과
 산더미 같은 쓰레기를 짊어지게 하셨어요
 내가 산을 오르려 안간힘을 쓸 때면
 돌덩이를 굴러 보내시지요!

코러스
 스승님! 스승님!
 어서
 나를 구하러 와 주세요!

아프리카
 아니면 산 채로 파묻히고 말아요!

코러스 (줄루어)
 스승님! 스승님!
 어서
 나를 구하러 와 주세요!

아프리카 (영어)
 나는 진정한 바보겠지요
 부처가 되려 한다면
 완전한 스승이 되려 한다면
 구루!
 (말하는 투로)
 구루!
 마하라지!

코러스 (줄루어)
 오, 만물의 주님!
 오, 만물의 주님!

아프리카 (영어)
 어째서 이 온갖 짐을 제 어깨에 올려놓아
 당신 곁에 앓을 귀한 시간을 없애시나요?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분이여!
 어떤 일을 맡기시든
 제 목숨을 거는 일이라도 해내겠어요
 하고말고요!
 하고말고요!

코러스
 작은 보답으로

아프리카
 그저 당신의 은혜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아프리카가 조이의 손을 잡고 기분을 북돋워 준다.)

당신에 대한 작은 보답으로
 당신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에 대한 보답으로

(아프리카가 이번엔 피트에게로 다가간다. 그도 그녀의 손을 잡는다.)

하고말고요!
 하고말고요!

당신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에 대한 보답으로
 당신에 대한 보답으로

(아프리카가 조이에게 작별을 고한다. 그러는 사이 미련이 남은 한 무용수가 피트를 격려라도 하듯 그를 위해 춤을 춘다. 이어 서 배경이 다시 초원으로 바뀐다.)

새벽 동이 틀 때, 아프리카(조이 와틀리)가 조이에게 마음의 위안과 치유를 가져다준다.



“**쏟** 아진 그 모든 사랑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칭하이 무상사
께서 들려주신 그 모든 지혜의 말씀이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친절해야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고 서로서로 계속 일깨
워 준다면 우리 본연의 상태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뮤지컬
은 그 점을 정말 아름답게 표현한 것 같아요.”

-서니 힐튼(Sunny Hilden)/ 가수 겸 레이 찰스, 스팅, 패티 라벨의 곡을 쓴 작곡가





여정 끝에 어울락/베트남(호꾸인호영)이 노래 「깨달음」으로 청중들을 매혹시키다.

제7장

전과 같은 초원. 하늘에서 여명의 환한 빛줄기가 비친다. 조이가 무릎을 꿇고 찢어진 일기장을 모은다. 그녀가 반은 땅에, 반은 천국에 대고 말한다. 피트는 망연자실한 채 통나무에 앉아 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모습이다.

조이 이젠 별로 소중한 보이지 않네. 안 그래? 때 문은 낡은 일기장. 쓸모없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나를 엉뚱한 곳에 데려왔지. (그녀가 서서 주위를 둘러본다.) 어질렀으니 별금이 나올지도 모르겠네. 뭐, 적어도 짐이 가벼워진 것 같았잖아. (그녀가 핸드백을 되찾아 보험 폴더를 꺼내 열어 본다. 보이지 않는 차장 뒤를 쫓아서 철로를 따라가며 소리치면서) 이봐요! 이거 백지라고 한 거 같은데요! (내용을 읽는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유일한 재산은 너의 가슴속에 지닌 믿음이다.”

(천국을 올려다보며) 오, 이 눈물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그동안 당신이 그리웠을 뿐이에요.

(떠오르는 태양을 상징하는 어울락[베트남]이 등장한다. 배경막에는 깨달음의 상징인 아름다운 연꽃이 내려온다. 어울락의 세 지역을 나타내는 밝은 색의 전통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도 합류한다.)



조이가 하늘을 우러러보며 스승에 대한 그리움이 담긴 눈물을 흘린다.

깨달음

어울락 (어울락어/베트남어)
다들 들어 봤겠지요
위대한 이들은 연화좌를 하고 앉아
깨달음을 얻는다고
나무 그늘 아래서
산속에서
히말라야에서
혹은 외로운 사막에서
산속 깊은 동굴에서
안거에서, 고요한 사원에서
기타 등등... 기타 등등에서...
하지만 말해 주자면
나는 밤에 자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플라스틱 텐트 안에서!
시끄러운 휴일 유원지 한가운데에서

조이 (영어로 부르고, 어울락이 어울락어로 메아리치듯 따라 부른다.)

다들 들어 봤겠지요
위대한 이들은 연화좌를 하고 앉아
깨달음을 얻는다고
나무 그늘 아래서
산속에서
히말라야에서
혹은 외로운 사막에서
산속 깊은 동굴에서
안거에서, 고요한 사원에서
기타 등등... 기타 등등에서...
하지만 말해 주자면
나는 밤에 자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플라스틱 텐트 안에서!
시끄러운 휴일 유원지 한가운데에서

(어울락이 조이와 모두에게 자비로운 손짓을 보내며 장면이 암전된다. 아침 해가 지평선 위로 빛난다. 울고 있던 피트가 조이에게 다가간다. 서로 포옹한다.)

“아주 잘 짜여진 행사였고, 모든 것이 흘러가는 강물처럼
순조로웠습니다. 구성이 훌륭했고 아주 세심했습니다.
전체 과정이 기념행사다웠습니다.”

-개빈 글린(Gavin Glynn)/ 전 월트 디즈니사 프로듀서, 폭스 방송 이사



조이 올라갈 일만 남았네.
피트 나를 어떻게 참아 낸 거지요?
조이 가장 좋았던 건, 네가 칼로 묘기를 부리려고 할 때였어.
 (그들이 즐겁게 웃는다.)
 오렌지로만 해.
피트 (동감하며) 내 업장이 고약하지요?
 (그들이 살짝 웃는다.)
 정말 미안해요.
조이 어떤 게?
피트 모두 다, 전부 다요. 무엇보다도 아들을 잃으신 부분이에요.
조이 내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잃은' 건 아니야. 나는 그 애를 잃지 않았어. 그의 영혼은 늘 살아 있으니까.
차장 (옆으로 재주를 넘고선 일어서며) 짜잔! 약속한 대로...

(기차가 도착한다. 조이가 행복하게 웃는다.)
피트 이제는 표를 살 돈도 없는데요.
차장 피트, 없어도 될 거야.
피트 정말요? 고마워요! 이 일생의 여행을 인도해 줘서 고마워요!
차장 너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은데.
 (피트가 기차에 오른다. 차장이 조이에게 묻는다.)
 같이 가실 건가요, 부인?
조이 오, 그럼요.
 (승객으로 꽉 찬 열차에 오르려다 말고 차장에게 미소 지으며)
 이 기차는 정확히 어디로 가는 거지요?
차장 고향으로, 저 너머로. 여러분, 자리에 앉아 주세요! 승차권을 보여 주세요!



피트와 조이가 각자의 평화를 찾자 차장이 고향으로 가는 여정에 신호를 보낸다.

제8장

몇 분 뒤 태양이 초원 위로 떠오른다. 출연진이 나와서 인사한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차장
 별들도 때로는 밤에 잠이 들건만
 나만은 영원히 깨어 있어요
 당신이 내 영혼의 신성한 열정을 뒤흔들어 놓았으니
 우리 둘 다 제대로 잠들 수 없겠어요!

조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리 둘의 비밀을 밝힐 수 없어
 그것을 빛나는 베개로 만들어
 내 꿈의 세계에 가득 채워 넣었어요!

피트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
 당신을 향한 침묵의 눈물을 더 사랑해요
 하지만 여의주의 왕이여
 내게 정말 선택권이 있기는 한가요?

다 함께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
 당신을 향한 침묵의 눈물을 더 사랑해요
 하지만 여의주의 왕이여
 내게 정말 선택권이 있기는 한가요?

여성
 해와 달도 정해진 시간이 있고

남성
 사계절도 때가 있으며

여성
 날씨도 늘 변하건만

남성
 어째서 나의 갈망은 결코 끝나지 않나요?!

조이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 상념은 시가 되어 흘러나와요

오, 가장 아름다운 분이여!
 그건 당신의 선율이 내 안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기 때문이지요

다 함께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
 당신을 향한 침묵의 눈물을 더 사랑해요
 하지만 여의주의 왕이여
 내게 정말 선택권이 있기는 한가요?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
 당신을 향한 침묵의 눈물을 더 사랑해요
 하지만 여의주의 왕이여
 내게 정말 선택권이 있기는 한가요?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
 당신을 향한 침묵의 눈물을 더 사랑해요
 하지만 여의주의 왕이여
 내게 정말 선택권이 있기는 한가요?
 세상의 다이아몬드보다
 당신을 향한 침묵의 눈물을 더 사랑해요
 하지만 여의주의 왕이여
 내게 정말 선택권이 있기는 한가요?

남성
 침묵의 눈물을 사랑해요

여성
 침묵의 눈물을 사랑해요

남성
 침묵의 눈물을 사랑해요

여성
 침묵의 눈물을 사랑해요

남성
 침묵의 눈물을 사랑해요
 (막이 내린다.)



“매우 훌륭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특별했어요. 모든 것이 놀라웠고 완전히 감동받았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아름다운 여성[칭하이 무상사이 이 모든 것에 영감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그냥 스승이 아니라 여왕이십니다!”

-렐라 크리스틴(Lela Christine)/ 「파워 플레이어 라이프스타일(Power Player Lifestyle)」 잡지 편집장

“**참** 석한 사람들을 보고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운 각 국 사람들이 환영하는 레드카펫에 섰을 때는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공연 자체도 아주 좋았어요. 하루만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레인보 마스(Rainbeau Mars)
배우, 전 아디다스 세계 홍보대사. 비건 채식주의



데비 그레이버티



케이티 맥마흔



클라 워싱턴 무용단

“**아** 주 흥미롭고 다채로운 춤이었어요. 정말 끝내주게 멋졌습니다!”

-스탠리 매그논(Stanley Magnone)
에미상 후보로 지명된 음향 기사
ABC TV 네트워크



헤더 박과 브라이언

“**오** 늘 밤 음악이 경이로웠어요!”

-빌리 맥나마라(Billy McNamara)/ 배우, 프로듀서, 채식주의



무용수들, 클라 워싱턴, 빈센트 패터슨, 조디 와틀리, 브라이언



양상בל 단원들



자히라 무용단



“**뮤**지컬이 깜짝 놀랄 만큼 멋졌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칭하이 무상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하고 이 뮤지컬 공연에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을 때 진짜 놀라고 탄복했어요!”

-시오마라 오티즈(Xiomara Ortiz)/ 배우



루크 이벨, 패티 코헨아워, 주니어 케이스



더그 캣사로스



빈센트 패터슨, 보니 스토리, 클라 워싱턴, 낸 슈워츠, 패티 코헨아워, 돈 피핀, 호르헤 칼란드렐리, 프랭크 에반스, 존 아코벨리, 알 카사



니키 톨린슨, 존 세카다, 조디 와틀리

“공연을 얼마나 즐겁게 봤는지 몰라요. 또한 많은 동물 단체들이 공연장에 와 있는 걸 보고 그 점에도 감동받았어요. 무상사님은 세상 모든 동물들의 진정한 영웅이세요!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송구하고 진심으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저의 따뜻한 안부와 감사의 말씀을 무상사님께 전해 주세요.”

-파라 스미스(Farah Smith)/ 시셰퍼드(Sea Shepherd Conservation Society). 비건 채식인



시아바쉬 샬스, 리엘 콜렛, 호우인호영, 루크 이벌

“공연장, 무대 디자인과 세트, 색 상, 음악 등 모든 것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오랜만에 아주 재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최고의 밤이었고 최고의 해였습니다!”

-마르코 로댕(Marko Rodin)/ 관객



사안기



블랙 우후루



양상밴드 단원들



파비아나 파소니, 리즈 갤러웨이



“문화와 배경이 각기 다른 이 모든 비건 채식주의자와 음악인들이 한 무대에 서서 청중의 가슴에 대고 직접 노래하는 모습이 정말 놀라웠어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참석한 후 칭하이 스승님의 책을 샀는데, 그녀의 시는 제가 인생에서 흠모하는 몇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됐습니다.”

-소니아 킬(Sonia Kil)/ 「버라이어티(Variety)」지 기자



플로 양카



키릴 클리쉬, 마크 자니셀로, 카멜리아 아부-오다

“동료들과 멋진 시간을 보냈어요. 무상사님의 시와 깨달음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LA 카운티에서 진행하는 빈곤 퇴치 활동을 계속해 나갈 동기를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가호를 빕니다!”

-알리사 올두나(Alisa Orduna)
로스앤젤레스 광역시 유니타이트웨이(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축하 피날레 「서로의 손을 잡아요」를 신명 나게 공연하는 전체 출연진과 기립해서 별빛 야광봉을 흔드는 객석의 관객들.



30년 전쯤 됐을 거예요. 80년대였어요. 당시 포모사(대만)에서 작은 사명을 시작한 참이었던 나는 시간적으로 약간 더 여유가 있어서 모든 인류의 마음과 연결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가 나오고 책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난 그 시가 언젠가 그런 위대한 작곡가들과 예술가들을 통해 미국 슈라인 오디토리엄 같은 세계적인 대형 무대에 올려지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백만 년 뒤라도 꿈꾸지 못할 일이었어요. 아니었으면 시를 어떻게든 더 아름답게 좀 더 다듬었겠지요. 나는 그냥 느끼는 대로 썼을 뿐이고 아주 빨리 나왔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다.

나는 불가능한 것을 성취하려 애쓰는 인류의 분투에 감정이 이입됐습니다. 말하자면 높은 등급의 깨달음 같은 거의 불가능한 것 말이에요. 성인(聖人), 죄인, 평범한 사람 할 것 없이 우리 모두 다 똑같이 이것을 겪습니다. 진정한 자아를 찾고자 한다면 그렇게 분투하게 마련입니다. 수행을 안 하는 사람들도 절망하고 내면으로 향해야 하는 순간이 있으며, 그때 그들은 뭔지도 모르는 어떤 힘에 기도하고, 믿지도 않았을 신께 기도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그런 분투가 있습니다. 내 시집 『침묵의 눈물』은 그런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Supreme Master Ching Hai)
2012년 12월 22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수프림 마스터 TV와의 화상회의 중에서



제 3 장

예술 전시회와 비건 채식 연회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전시된 칭하이 무상사의 예술 창작품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초연과 연계한 「천상의 예술 전」을 통해 시인이자 예술가, 디자이너인 칭하이 무상사의 작품들이 슈라인 엑스포 홀(Shrine Expo Hall)에서 선보였다.

칭하이 무상사의 예술 작품들은 그녀가 명상을 통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된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 주며 유화, 부채 그림, 사진, 장식 등, 보석 및 의상 디자인, 요리 예술, 건축 및 조경 디자인, 시, 작곡 등을 아우른다. 어떠한 형태로도 기부를 받지 않는 칭

하이 무상사는 자신의 예술 디자인을 통한 수익을 독립적인 재정원으로 삼아 전 세계적으로 행하는 인도주의 활동을 뒷받침한다. 천국의 영감을 받은 아름다운 작품 하나하나마다 진리와 미덕, 사랑이 심오하게 표현돼 있다.

사람들의 마음을 고양시킨 뮤지컬과 마찬가지로 예술 전시회의 신성한 아름다움 역시 관람객들에게 고요한 산들바람을 전해 주었다.

칭하이 무상사가 디자인한 만세등.



왼쪽 위부터 아래로:
S.M. 천상의 보석, 칭하이 무상사의 사진 작품이 활용된 등, S.M. 천의.



“**책** 한 권을 보고, 몇 가지 작품을 훑어봤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녀의 색감도 같은 화가 입장에서 봤을 때 남다른 면이 있습니다.”

-조지 차키리스(George Chakiris)
아카데미상 수상 배우(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채식주의



“무 상사의 창작은 세부 양식과 예술 작품 면에서 모두 우아하고 아름답 습니다. 오늘 밤 여기에 전시돼 있는 모습에서 존경과 품격이 느껴 집니다. 다양한 보석 및 의상 디자인, 예술 작품들이 더없이 아름답고 우아하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아주 일류 수준입니다.”

-랜디 올슨(Randy Olsen)
셀레브리티 인터내셔널 엔터테인먼트(Celebrity International Entertainment) CE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S.M. 천상의 보석 「영생」, 만세동 「만물합일」, 칭하이 무상사의 그림.



슈라인 엑스포 홀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디자인 작품을 선보인 「천상의 예술전」.



자비심을 기리는 비건 채식 연회

“우리는 사랑하고 자비로우며 동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과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비건 채식주의자)
2008년 7월 24일 태국 방콕 센터와의 화상회의

비건 채식주의(Veganism), 즉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는 삶은 칭하이 무상사가 몸소 실천하며 지구상의 평화를 주창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인도주의자인 그녀는 인류와 환경에 혜택을 주는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우리와 더불어 사는 동물들의 고통을 줄이고자 가능한 한 모든 방면에서 일하고 있다. 그녀는 구조된 동물을 보살피는 단체들을 후원하고 동물 학대를 종식하려는 노력들을 지원하며 비건 채식 생활 방식을 장려한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초연에서는 자선의 정신과 건강하고 자비로운 식생활 선택을 강조해 작품 리허설 기

간과 공연 후 연회에서 동물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맛있는 식사를 제공했다. 러빙헛(Loving Hut), 원베지월드(One Veg World), 프리소울카페(Freesoulcaffe), 그린어스(Green Earth) 등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많은 사랑을 받는 비건 채식 식당이 그 다채롭고 고급스런 채식 요리들을 공급했다. 예술가와 매체 관계자, 내빈들이 화려하게 차려진 이 연회에 참석했다. 다음에 이어지는 페이지에서는 동물 학대를 피하는 생활 방식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관점들을 실었다.

“사실 저는 이제 막 비건 채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가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이클 스투어트 아이작스(Michael Stewart Isaacs)/ 전문 강연가



“어렸을 때 집에서 아로와나 물고기를 키웠어요. 당시 아주 인기가 많았던 대형 물고기였지요. 매일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들과 함께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춤을 추곤 했는데, 같이 연결된 느낌이 들었어요. 물고기들이 좋아하고 또 매일 제가 하교 하길 기다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 때문에 어릴 때부터 생선을 먹지 않다가 물고기만 사랑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왜 다른 동물들은 사랑할 수 없겠어요? 다 똑같은데요.”

-사안기(Kay Tse)/ 중국 플래티넘 팝스타, 채식주의자

“관절염이 심했는데 동물성 단백질이 육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동물성 단백질을 배제한 식단으로 몸을 치유할 수 있다는 방법에 대해 다룬 책을 읽었습니다. 9년 전에는 고관절 대치술을 권유받을 만큼 관절염이 심했습니다. 하지만 비건 채식을 하면서부터는 한 번도 코르티손 주사를 맞지 않았습니다. 진통제를 맞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춤을 추고 공연을 합니다.”

-마크 자니첼로(Mark Janicello)/ 이탈리아 테너, 비건 채식주의자





연회에서 식물성 특별 진미를 즐기는 내빈들.

“빙하 해빙이나 동물 살생 같은 아주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건 채식을 하고 환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동물들의 눈물을 보면 정말 가슴 아파요.”

-카예 스타(Kaye Starh)
그레미상을 수상한 레게 그룹 블랙 우후루 멤버

“기분이 좋습니다. 잘 먹고 있어요. [작품을 위해] 여기 있을 때는 완전히 비건 채식을 합니다. 한 달 반 됐는데... 아주 기분 좋습니다!”

-더그 캣사로스(Doug Katsaros)
에미상 수상 작곡가, 음악 감독(뫼루즈)

“[칭하이 무상사가] 동물 보호를 위해 돈을 기부했다는 사실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건 정말 세상에 필요한 일입니다.”

-호르헤 칼란드렐리(Jorge Calandrelli)
그레미상 6차례 수상 작곡가(와호장룡)

“평화와 사랑은 인간에게뿐 아니라 지상의 모든 존재에게 필요합니다. 그 존재들은 모두 이미 조화롭게 살고 있으니 우리는 그걸 방해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코리 펠드만(Corey Feldman)
수상 경력의 배우(구니스), 채식주의

“인류가 전쟁 면에서뿐 아니라 동물에게 자행한 일들도 정말 잔인무도합니다. [비건 채식이라는 측면이] 행사에 참여하게 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크리스토프 세인트 존(Kristoff St. John)
에미상 2차례 수상 배우, 채식주의
(더 영 앤 더 레스트리스)



“격변의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 [비건 채식의 메시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서야 음악과 대화, 존재, 음식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됐어요. 그것은 총체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 지구에서 경험하고 있는 기쁨들이 바로 그러한 것들에 있다는 것을 되짚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더 번창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요.”

-베르노 우르퀴자(Verno Urquiza)
싱어송라이터

“지금은 전에 고기를 먹었던 시절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있어요. 늘 그렇게 말하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저녁 먹으러 와!’ 하고 한 상 가득 차려 주면 다들 ‘와, 믿을 수가 없군!’ 그러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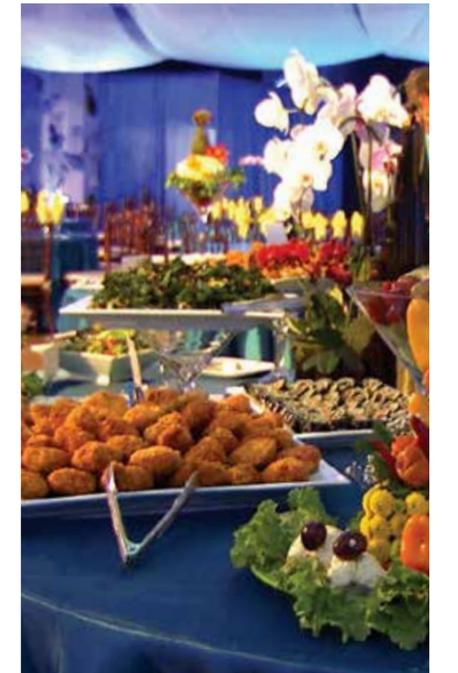
-수지 카스탈로(Susie Castillo)
TV 진행자, 전(前) 미스 미국, 비건 채식주의

“다 맛있었어요. 실컷 먹었어요. 인생에 대해 다른 멋진 공연을 보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근원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앨리슨 체니(Allison Chaney)/ 배우

“[비건 채식 점심은] 여태껏 먹어 본 음식 중에 최고였어요.”

-데비 그래비티(Debbie Gravitte)
토니상 수상 가수(제롬 로빈스의 브로드웨이)



“매일 비건 채식 점심을 먹고 있는데, 점심을 먹고 다시 리허설을 하러 가면 확실히 힘이 듭니다. 집중력도 커지고 근육의 움직임도 아주 좋습니다. 확실히 몸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마크 스폴딩(Marc Spaulding)/ 무용수

“연회장은 독창적인 음식 장식과 다정한 담소로 가득했고, 음식이 정말 맛있어서 손님마다 두세 번씩 음식을 가지러 갔다 왔어요. 그 음식이 우리 몸과 환경에 이롭다는 생각이 더해지니까 음식을 더 갖다 먹는 게 보람 있게 느껴졌어요.”

-이베타 바바자니안(Ivetta Babadjanian)
『캐년 뉴스(Canyon News)』 기자



제 4 장

책장에서 무대로

예술가와 창작 팀 특집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작곡가 심층 취재 호르헤 칼란드렐리



그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음악에 대한 열정이 느껴진다. 두 눈은 반짝거리고 손은 열정을 표현하느라 끊임없이 움직인다. 물론 항상 미소를 띤 채 말이다.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작곡가 호르헤 칼란드렐리(Jorge Calandrelli)이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가진 인터뷰에서 칼란드렐리 씨는 음악가로 짝을 띄우고 결국 탁월한 결실을 맺게 된 과정을 설명해 주었다. “저는 네 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피아노를 아름답게 치셨는데 그 음악이 정말 좋았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음악가란 게 어떤 직업인지도 모른 채 마냥 음악인이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덧붙여 말했다. “저는 타고난 재능을 선사받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 매일 신께 감사합니다.”

“이 멋진 뮤지컬에 참여하게 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많은 뮤지컬의 경우,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고 나오긴 해도 내면에 남는 것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이 뮤지컬은,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성과 사랑, 인도주의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를 남길 것입니다. 정말 훌륭하고 의미 깊은 메시지를 지니고 있으며 마음속에 자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호르헤 칼란드렐리
그래미상 6차례 수상, 오스카상 2차례 후보, 작곡가

그래미상을 6차례 수상하고 26차례 후보에 올랐으며 오스카상 후보에도 2차례 지명된 칼란드렐리 씨의 예술성은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유럽에서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 비범한 다재다능함을 지닌 이 음악가의 작품은 팝·재즈·라틴·클래식 등 다양한 음악 장르에서 정평이 나 있다.

그가 편곡·작곡·제작에 함께한 예술가들로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Barbra Streisand), 셀린 디온(Celine Dion), 제니퍼 로페즈(Jennifer Lopez), 스팅(Sting), 훌리오 이글레시아스(Julio Iglesias), 마크 앤소니(Marc Anthony), 마돈나(Madonna), 엘튼 존 경(Sir Elton John), 플라시도 도밍고(Plácido Domingo), 글로리아 에스테판(Gloria Estefan), 조니 마티스(Johnny Mathis), 폴 매카트니 경(Sir Paul McCartney), 베리 매닐로우(Barry Manilow), 케이디 랭(k.



윗줄: 보노, 글로리아 에스테판, 마이클 부블레, 셀린 디온, 훌리오 이글레시아스, 제니퍼 로페즈, 스팅, 엘튼 존 경, 조니 마티스.
아랫줄: 플라시도 도밍고, 베트 미들러, 폴 매카트니 경, 마크 앤소니, 베리 매닐로우, 케이디 랭, 조쉬 그로반, 퀸시 존스, 알 재로, 리키 마틴.

d. lang), 조쉬 그로반(Josh Groban), 마이클 부블레(Michael Bublé), 보노(Bono), 퀸시 존스(Quincy Jones), 알 재로(Al Jarreau), 리키 마틴(Ricky Martin), 베트 미들러(Bette Midler) 등이 있다. “세계 최고의 예술가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운이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작사한 곡이 수록된 「영원한 사랑(Amore Infinito)」이라는 앨범을 제작하게 되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작품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름다운 내용의 시는 하나같이 작곡에 영감을 줍니다. 모든 작품마다 스타일과 주제가 있지요. 그래서 음표 하나라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그 프로젝트, 예술가, 작품, 그와 관련된 모든 것에 몰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수년간 연습하고 나면 곧바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지요. 때로 제 학생들은 ‘마에스트로,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하고 묻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30년간 하다 보면 얼마나 쉬워지는지 알 수 있지요.”



위부터: 토니 베넷, 아투로 산도발, 요요마.

전설적인 가수 토니 베넷(Tony Bennett)과 수년간 함께 작업하며 아홉 장의 앨범을 녹음해 그 래미상을 2차례 수상한 바 있는 호르헤 칼란드렐리는 그에 대한 즐거운 회상을 이어 나갔다. “토니는 그동안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사람이었습니

다. 얼마 전에는 그와 함께 일한 25주년을 축하하기도 했지요. 놀라운 점이 한 가지 있었어요. 제가 이 나라에 오기 전에 아르헨티나에 있었을 때 다른 별나라 사람인 듯한 토니 베넷의 노래를 들으면서 ‘와, 토니 베넷을 만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맡았던 프로젝트 중 하나가 1986년 「아트 오브 엑셀런스(The Art of Excellence)」 앨범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정말 돈독한 사이가 됐습니다.”

칼란드렐리 씨는 유명한 트럼펫 연주자 아투로 산도발(Arturo Sandoval)과 만든 앨범 「사랑할 시간(A Time for Love)」으로 라틴 그래미상을 두 차례, 요요마(Yo-Yo Ma)와의 작업으로 그래미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 그는 이 천재적인 첼로리스트와 함께한 경험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연주자였기 때문에 아주 도전적인 작업이었어요. 그가 연주할 곡을 그의 수준에 맞춰 만들어야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주 근사하게 나왔고 요요마도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 훌륭한 작곡가의 작품 중 「재즈 클라리넷과 오케스트라 협주곡(Concerto for Jazz Clarinet and Orchestra)」 같은 콘서트 작품은 전 세계적으로 공연되고 있다. 영화 쪽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으로는 삽입곡 「월광애인」으로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와호장룡(Crouching Tiger, Hidden Dragon)」과 「명탐정 바실(The Great Mouse Detective)」, 오스카 최우수 음악상 후보에 지명된 「컬러 퍼플(The Color Purple)」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얘기를 함께 나눠 봤다. “「와호장룡」 때문에 CBS와 소니 사장인 피터 구버(Peter Guber)가 전화를 했어요. ‘조지, 그 영화에 들어갈 명곡이 필요해.’ 그들이 전에 작곡한 「타이타닉」 삽입곡이 3천5백만 장 정도가 팔린 터라서 영화에 엔딩 곡을 넣고 싶어했는데 당시 그 일의 책임자로 저를 생각했나 봅니다. 「컬러 퍼플」은 저의 또 다른 오스카상 후보 작품이었습니다. 퀸시 존스가 전화해서 영화 몇 장면에 들어갈 곡을 부탁했는데 그게 후보에 올라서 퀸시 존스, 스티븐 스피버그, 그리고 그 영화 작업을 같이한 작곡가들과 함께 아카데미 시상식에 썼지요.”

칼란드렐리 씨는 그 엄청난 재능을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쏟았다. 그는 작곡을 시작하기에 앞서 뮤지컬 「진정한 사랑(The Real Love)」 DVD를 보고 “뛰어난 작품성과 그 훌륭한 메시지가 아주 감명적이었다”고 말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노래로 만들어진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대해 그는



「영원한 놀이」 합창.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름답습니다! 아주 마음을 고양시키고요! 그 점 때문에 곡을 쓸 때 주로 가사의 내용에 맞췄습니다. 가사 내용이 깨달음과 사랑 등 온통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요즘 세상에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 모두에겐 영적이고 심오하며 깊은 사색과 감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음악으로 그려 내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칼란드렐리 씨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브라질을 대표하는 노래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Your Eyes, Your Ears, Your Heart)」을 작곡했다. 브라질 스타 파비아나 파소니가 부른 삼바 스타일의 이 노래는 인류가 신과 분리된 괴로운 감정을 끝내도록 도와 달라고 신께 애원하는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다.

천 국에 올라가시다가 어딘가에서
마음을 잃어버리신 건 아닌가요!
그게 아니면 내 심정을 아실 텐데요
언제까지나 소매에 매달린 채
당신께 바치고자 안달이 난 내 마음을!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브라질 역을 맡아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을 공연한 파비아나 파소니.

칼란드렐리 씨가 작곡한, 신나는 제2막 오프닝 곡 「영원한 놀이(Eternal Game)」는 더 높은 힘과 연결되고자 끝없이 갈구하는 인간의 좌절감을 표현한다.

아 침 내내 나 홀로 앉아
당신을 뵈고자 했건만
당신은 오시지 않았습니니다.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은 리드미컬한 곡이라서 브라질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칼란드렐리 씨가 설명했다. “그리고 「영원한 놀이」는 8분의 6박자 패턴을 따랐는데, 이 노래도 라틴 음악적 요소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음악이었습니다. 각국의 다양한 출연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들이 편안하게 함께 공연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행사에서 여러 단체들이 칭하이 무상사의 기부금을 전달받는 것을 보고 칼란드렐리 씨는 말했다. “저는 정말 그분이 하는 일

을 존경합니다. 정말 훌륭해요. 전 세계에 필요한 초긍정적인 일입니다.”

비건 채식 연회에서 만난 칼란드렐리 씨는 열변을 토했다. “웅장한 공연이었어요! 모든 면이 그토록 멋지게 나오리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의상이며 안무며 시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흡족합니다. 정말 대단했어요! 내년엔 다시 할 겁니다!”



호르헤 칼란드렐리가 동료 창작 팀 돈 피핀(왼쪽), 프랭크 에반스(오른쪽)와 무대에 올라와 마지막 인사를 하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작곡가 심층 취재 알 카샤



알 카샤/ 아카데미상을 2차례 수상한 작곡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최초 구상.

알 카샤(Al Kasha)는 모든 분야에서 정상에 이르렀다. 그는 작가, 프로듀서, 작곡가, 동기 부여 연설가로서, 그리고 연극·영화·텔레비전·홈비디오·음악 서적·레코딩 총괄 작업 등의 분야에서 무한한 재능을 발휘했다. 그는 26세에 컬럼비아 레코드(Columbia Records)사에 입성한 이후로 50여 년간 엘비스 프레슬리(Elvis Presley)부터 아레사 프랭클린(Aretha Franklin), 헬렌 레디(Helen Reddy), 도나 서머(Donna Summer)에 이르기까지 많은 아티스트들의 히트 음반을 제작했다.

알 카샤 씨는 조엘 허쉬혼(Joel Hirschhorn)과 오랫동안 함께 곡 작업을 하면서 두 곡의 오스카상 수상곡을 탄생시켰다. 영화 「포세이돈 어드벤처(Poseidon Adventure)」의 「모닝 애프터(The Morning

After)」와 「타워링(The Towering Inferno)」의 「다시는 이렇게 사랑할 수 없으리(We May Never Love Like This Again)」가 그것인데, 두 곡 모두 모린 맥거번(Maureen McGovern)이 불렀다. 그는 오스카 최우수 음악상과 최우수 주제가상(Candle on the Water) 등 2개 부문 후보에 오른 월트 디즈니사의 고전 실사 애니메이션 뮤지컬 「피트의 용(Pete's Dragon)」을 비롯해 수많은 인기곡을 작곡하고 제작했다. 브로드웨이에서는 「7인의 신부(Seven Brides for Seven Brothers)」의 대본과 음악으로 토니상 최우수 음악상 후보에 지명됐고, 찰스 디킨슨 원작의 「코퍼



필드(Copperfield)」로 다시 한 번 토니상 후보에 올랐다. 이 밖에 두 번의 그래미상 후보, 네 번의 골든 글로브상 후보에 올랐고 피플스 초이스 상, 무비가이드 어워드(Movieguide Awards)의 공로상을 수상했다. 한편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와 「진정한 사랑」의 창작 팀으로 참여했던 알 카샤는 수퍼림 마스터 텔레비전 4주년 기념행사와 그 외 행사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가사로 해서 곡을 쓰기도 했다.

잡지 『50 이후의 인생(Life After 50)』 편집장 데이비드 로렐(David Laurel)은 알 카샤의 비벌리힐스 자택에서 인터뷰를 갖고 그의 음악 생애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다음은 인터뷰의 발췌 내용이다.

데이비드 로렐: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당신이 수년간 작업한 수많은 작품들을 벗 삼아 살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알 카샤: 고맙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영화 음악처럼 똘똘 꿰뚫어 줍니다. 왼쪽에 남들이 동경하는 멋진 두 개의 트로피가 있군요. 두 번의 오스카상 수상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알 카샤: 예, 「모닝 애프터」는 사실 하룻밤 새 작곡된 거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스튜디오에서 걸어가면서 저는 조엘[허쉬혼]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이 노래로 아카데미상을 받게 될 거야.” “오, 저런, 알, 또 정신이 나갔구나.” “그냥 감이 왔어. 느낌이 그래.” 그러고선 「벤(Ben)」의 마이클 잭슨과 경합을 벌이게 됐는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포세이돈 어드벤처」가 수상한 건 특수효과상을 제외하면 우리뿐이었습니다.

데이비드 로렐: 또 하나의 오스카상은요?

질문:

이 뮤지컬에 기대하는 특별한 성과가 있으신가요?

알 카샤:

이 작품이 브로드웨이로 진출하길 바라고 사람들이 신께 향하는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게 최고의 성과지요.

알 카샤: 우리는 「타워링」 작업을 했는데, 그들은 영화에 노래를 넣을지 고민 중이었습니다. 어윈 알렌(Irwin Allen)의 비서한테 대본을 받고서 조엘 허쉬혼과 스튜디오에 가서 노래를 작곡했어요. 어윈 알렌에게 그 곡을 연주해 줬더니 “음, 정말 잘 모르겠는데요.”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당신 비서 바비를 불러와야겠다”고 했지요. 바비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이 곡 참 좋은데요.” 그러자 알렌도 “오, 그럼 이 노래를 영화에 넣겠어요.” 했지요. 그게 두 번째 오스카상이 됐습니다.

데이비드 로렐: 오늘도 일하고 계시네요. (알 카샤: 그렇지요.) 음악 작업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알 카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음악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하지요. 다른 작곡가들도 사랑해서 그들에 관한 책도 쓴 적이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은 브로드웨이풍의 쇼인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입니다. 전 세계 6대륙을 아우르는 작품이지

요. 우리는 무상사의 시를 선택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세대의 간디 같은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저는 정말 무상사가 쓴 시에 감동을 받습니다. 이 시들은 우리가 살면서 가질 수도 있는 내면의 행복을 다룹니다. 예수님은 “하루의 걱정은 그만하면 됐다. 스스로 더 많은 걱정을 만들지 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녀의 시가 그런 식입니다.

데이비드 로벨: 현재 당신의 영성, 종교적 믿음이 무상사와는 어떻게 결부되나요?

알 카사: 모든 종교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요. 종교마다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녀가 쓰는 글은 모두

평화와 사랑, 기쁨, 인내, 친절, 선량함, 신의 등 모두 신약성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녀는 그런 글을 씁니다. 또한 그렇게 행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에서도 살았어요. 세상에, 일주일이나 이주일 단식하는 그런 곳이지요.

데이비드 로벨: 신작 뮤지컬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신다면요.

알 카사: 국가간, 인종간, 그리고 동물을 비롯한 모든 생물종 간의 사랑과 화합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여러모로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 하나하나에 고유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전통적인 뮤지컬은 아닙니다. 뮤지컬이긴 하지만 줄거리가 있지요.



로스앤젤레스의 주요 TV 채널 KCAL-TV를 통해 방송되는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TV(California Adventure TV)」는 시청자들에게 캘리포니아 각지의 볼거리와 활동을 소개한다. 뜻 깊은 메시지가 담기고 초호화 스타들이 출연한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역시 이 프로그램에 보도되었다. 다음은 그중 알 카사와 가진 인터뷰 장면이다.



질문: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 이 뮤지컬을 만들게 되셨나요?
알 카사: 칭하이 무상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녀의 인생을 생

각하면 그 삶 자체가 뮤지컬입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는 위업을 이루셨으니까요. 작년에 했던 뮤지컬 「진정한 사랑」은 러브스토리였는데, 올해는 더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사실 삶을 통한 인생에서 겪은 영적 여정이지요. 그러니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라 생각됩니다. 뮤지컬에 참여한 면면이 오스카상을 받았거나 브로드웨이의 토니상, 음악의 그래미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인재들을 한데 모아 칭하이 무상사의 이야기를 전하는 거지요.

질문: 구체적으로 그 시의 어떤 면에서 영감을 받아 음악을 만들게 되셨나요?

알 카사: 올해의 시들은 훨씬 더 깊이가 있습니다. 작곡가들 모두... 그 영적인 본질을 봤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함께하기로 한 것입니다.

질문: 맞습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알 카사: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지요. 그리고 곡이 아주 빨리 나왔습니다. 시어가 아주 강력한 까닭에 여태껏 그 어떤 곡보다 빨랐습니다. 저는 항상 가사는 풍요로우시고 음악은 힘이라고 느꼈습니다.

질문: 그렇지요. 그럼 시가 단순한 예술성이나 창작성을 넘어 영적인 영감을 준 것이나 다름없군요.

알 카사: 아, 그럼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당신을 생각할 때마다
내 상념은 시가 되어 흘러나와요.
오, 가장 아름다운 분이여!
그건 당신의 선율이 내 안에서
영원히 울려 퍼지기 때문이지요.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데이비드 로벨: 이 독특한 뮤지컬은 음악도 훌륭하거나와 조디 와틀리, 존 세카다 등 오늘날 지구를 휩쓰는 실력자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10월 말이면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모두 모여 엄청난 밤을 선사하겠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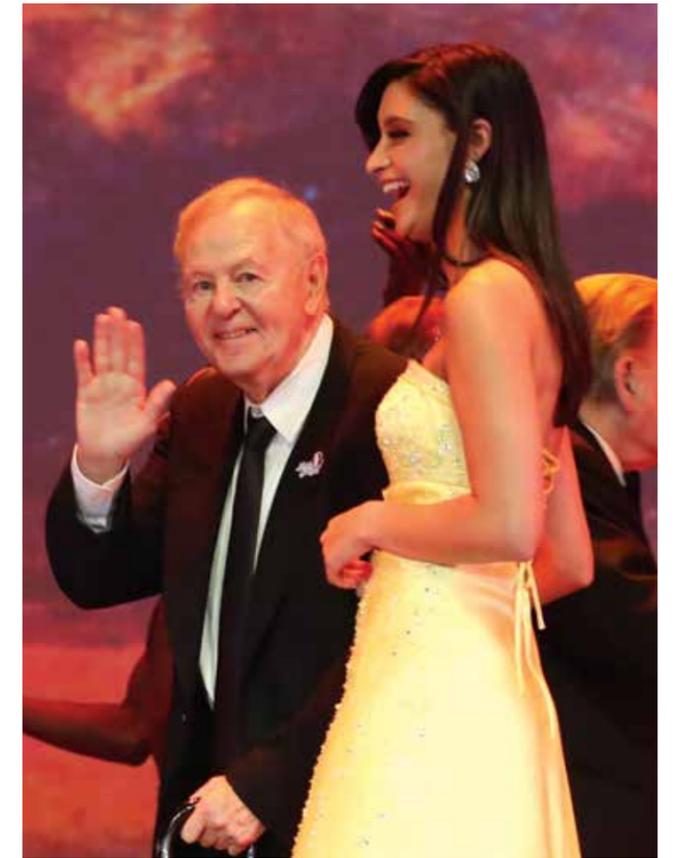
알 카사: 예, 영혼을 고양시킬 뮤지컬입니다.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하는 뮤지컬이지요.

데이비드 로벨: 무상사의 가르침이나 교리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종교나 영성에 대해 갖는 느낌을 넘어서겠군요. (**알 카사:** 확실히 초월하지요.)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음악이나 시 정도로 정말 몇 가지 안 됩니다. 그 외의 것들은 대부분 각각의 방식대로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지요. 우리가 남의 문화를 포용하거나 배우려고 하든 하지 않든 정치나 다양한 문화가 돼 버립니다. 하지만 음악과 시, 예술은 정말 위대한 화합의 중개자입니다.

알 카사: 예, 확실히 위대한 화합의 중개자이지요. 이 공연의 본질은 모든 대륙을 아우릅니다. 온갖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듣게 될 텐데, 그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 무상사의 목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데이비드 로벨: 매력적인 여성인 것 같군요.

알 카사: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음악과 시가 결합돼서 우리에게



출연진, 창작 팀과 함께 무대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알 카사.

절실히 필요한 일체감을 줍니다.

데이비드 로벨: 우리는 매일 조금씩 조금씩 늙어 가고 있는데, 나이 들에 대한 철학 같은 게 있으신가요?

알 카사: 저는 배움을 믿습니다. 무상사의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세요. 동물을 사랑하세요. 비건 채식을 하세요.” 저는 이 세 가지 신조를 확실히 믿습니다.

뛰어난 음악 생애에서 희망과 사랑을 가장 큰 요소로 여겨 온 알 카사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를 통해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화합시키는 데 다시 한 번 도움을 주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작곡가 심층 취재

더그 캣사로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작곡가 중 한 사람일 뿐 아니라 가수들의 음악 감독을 맡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뮤지컬 수록곡을 모두 오케스트라 편곡을 한 탁월한 예술가 더그 캣사로스(Doug Katsaros)를 만나다!

캣사로스 씨와 함께 일한 모든 출연진과 창작 팀은 재미있고 생기 넘치는 모습으로 공동 작업을 이끄는 모습에 팬이 되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같이 참여한 그래미상 수상 할리우드 작곡가 낸 슈워츠 역시 마찬가지였다. “더그 캣사로스님과 통화하고 나서 그를 만나는 게 몹시 기대됐어요. 아주 활기 넘치는 사람 같았거든요. 재능 있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요. 브로드웨이라는 다른 세상 사람이어서 저로서는 아주 흥분됐어요.”

“더그는 잊지 못할 사람이에요.” 아랍 출연진 카멜리아 아부-오다가 말했다. “그는 대단해요. 에너지가 넘쳐요. 동심이 살아 있고 뛰어납니다. 음악 천재예요. 숨씨가 아주 세련돼서 어떤 장르의 음악이든 바로 쏟아져 나옵니다. 정말 그와 다시 작업하고 싶어요!”



에미상을 수상한 더그 캣사로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작곡가, 음악 감독, 지휘자, 오케스트라 편곡가.

이번에는 캣사로스 씨가 출연진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가까이 사는 것도 아니고 각자 여기에 오려고 열 시간씩 비행기를 타야 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특별합니다. 제가 이 비범함의 중심축이라니 이보다 더 기쁠 수가 없습니다.”

더그 캣사로스는 수년간 「풋루즈(Footloose)», 「인생(Life)», 「록키 호러 쇼(The Rocky Horror Show)», 「알타 보이즈(Altar Boyz)», 「톡식 히어로(The Toxic Avenger)», 「사랑의 은하수(Somewhere in Time)», 「내 이름은 앨리스(A... My Name Is Alice)」 등의 브로드웨이 및 오프브로드웨이 작품에서 지휘와 작곡, 오케스트라 편곡,



윗줄: 셰어, 로드 스투어트, 프랭크 시나트라, 피터 폴 앤 메리, 존 본 조비.
아랫줄: 글로리아 에스테판, 도니 오스몬드, 비비 킹, 마이클 볼튼.



편곡을 맡았다. 사라 제시카 파커(Sarah Jessica Parker), 로버트 로지아(Robert Loggia), 산드라 블록(Sandra Bullock)이 출연한 TV와 영화 음악을 작곡하고 지휘하기도 했다.

텔레비전 쪽에서는 애니메이션 「틱(The Tick)」의 삽입곡으로 에미상 후보에 지명되는 영예를 안았고, 「짐 헨슨 아워(The Jim Henson Hour)」, 「만쿠소 FBI(Mancuso FBI)」, 「ABC 선데이 나이트 무비(Sunday Night Movie)」 프로그램의 주제곡을 작곡했다. 또한 PBS의 「위대한 공연(Great Performances)」 시리즈와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를 위해 지휘를 맡았다.

이 밖에 그가 글로리아 에스테판(Gloria Estefan),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 로드 스투어트(Rod Stewart), 주디 콜린스(Judy Collins), 비비 킹(B. B. King), 도니 오스몬드(Donny Osmond), 본 조비(Bon Jovi), 셰어(Cher), 마이클 볼튼(Michael Bolton), 피터 폴 앤 메리(Peter, Paul and Mary) 등 수많은 유명 아티스트들에게 제작해 준 음반들은 50만 장, 백만 장의 판매

고를 기록했다. 한편 정기적으로 메이시스(Macy's) 백화점의 독립 기념일 폭죽 행사와 추수감사절 퍼레이드를 위한 특별곡을 쓰고 있는 그는 2012년 추수감사절을 위한 곡으로 에미상 주제가상을 수상했다. 유명한 「바이 멘넨(By Mennen)」 CM송도 그의 작품이다.

이 걸출한 음악가는 2009년과 2010년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3주년·4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편곡을 맡았고, 2010년 12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최고의 환경 영웅 갈라」에 참여하면서 그곳에서 칭하이 무상사를 만날 수 있었다. 2011년에는 뮤지컬 「진정한 사랑」의 초연을 위해 수상 경력이 화려한 다른 네 명의 작곡가들과 함께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가사로 한 수록곡을 작곡했다.

“공연을 만들어 나가는 전체 과정이 완전히 창의성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공연된 「진정한 사랑」 초연 당시를 회상했다. “칭하이 무상사가 [라이브] 영상 메시지에서 말씀하셨듯이 예술가들은 지구의 기쁨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그런 창의적인 과정에 함께하고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다음은 더그 캣사로스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창작 과정에 대해 나눈 이야기이다.

창작 팀

대단한 작곡가들이 직접 연주한 데모곡을 받았습니다. 피아노로만 연주된 곡이었는데, 그것을 갖고 작업해야 했습니다. 그 후에 빈센트 감독의 전화를 받았는데 그의 창의성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 외 [안무가] 보니 스토리의 경우도 다른 면에서 아주 창의적이었고요. 빈센트가 정리해서 중심을 잡으면 보나는 창작하고 춤을 추지요. 저는 그저 다양한 음악을 조금씩 건드려 봤을 뿐입니다. 부모님이 온갖 다양한 음악을 연주하는 걸 들으며 자랐거든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음악을 들었고 또 자라면서는 비틀스를 들었지요. 로큰롤 밴드도 했고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도 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로큰롤, 재즈 같은 것들에 익숙하지요. 덕분에 우리는 완벽한 팀을 이뤄 함께 작업하며 오늘 밤 같은 공연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출연진

문화뿐 아니라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블랙 우후루가 여기 왔고 조디 와틀리, 리즈[켈러웨이], 데비[그래비티], 사안기, 베트남의 호프[호꾸인호영]까지 왔습니다. 세상에! 이들은 엄청난 스타들이에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21인조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더그 컷사로스.

작곡가로서

「내면의 스승(The Inner Master)」이란 곡이 있는데, 그건 좀 「비트 세대」 같은 스타일입니다. 본래는 대사로 처리될 거였는데 ‘거기에 약간의 리듬을 붙이고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미를 주는 부분으로요. 중동 트리오의 곡도 썼는데, 세 사람이 한 곡을 부르는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인 중동풍의 음악으로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각자[가수들]가 좋은 악상을 갖고 있어서 그들과 함께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정말 즐거운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작만 했고 그들이 정말 그 작업을 완성한 거였습니다.

시인

그녀[칭하이 무상사]는 “이 공연이 아주 훌륭하리란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그런 믿음이 정말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연은 그냥 “몇 사람 모아서 노래를 몇 곡 부르면 되겠지...” 그럴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녀의 시 작품이고 그녀의 여정이며 전 세계와 나눌 그녀의 메시지입니다.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지요. 그냥 하룻밤 6천 명이 참석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세계적인 행사인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너무나 정확히 말했어요. “[뮤지컬 내용을] 읽어 보지는 못했어요. 내 일을 하느라...” 그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명상을 하고 안거 중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 그녀에게서 혜택을 입는 사람들, 그리고 그녀가 누구인지조차 모르지만 그녀의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작품이 우리에게 중요한 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 행사 당일 칭하이 무상사의 오디오 메시지 중에서.

지휘자로서

(레드카펫에서) 덩치만 좀 진정할 겁니다. 제 팔은 두 시간 반 동안 움직일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 세상에. 무대에 설 엄청난 실력자들을 포함해서 놀라운 로스앤젤레스 음악인들이 이 행사를 위해 모였습니다. 정말 놀라운 밤입니다. 이 행사에 작게나마 동참할 수 있어서 아주 설렙니다!



페르시아 가수 시야바쉬 삼스와의 오케스트라 리허설.

비건 채식: 창의성의 촉매제

여기 있을 때는 완전히 비건 채식을 합니다. 지금까지 한 달 반 됐습니다. 옛날 식단으로 다시 돌아갈 이유가 없지요. 아주 기분 좋습니다!

평화의 정신

전 세계 놀라운 재능을 가진 예술가들 속에 포함되고, 또 어떤 나라에서였다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방식으로 함께 일할 수 있어서 황송하고 영광입니다. 오늘 밤 이곳에서 평화의 작은 정신을 실천할 수 있다면 분명 더 나은 세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작곡가 심층 취재

헨리 크리거



작곡가에 대하여

「드림걸즈(Dreamgirls)」, 「사이드 쇼(Side Show)」, 「탭댄스 키드(The Tap Dance Kid)」. 이들 브로드웨이 공연에 등장하는 불후의 명곡들은 엄청난 재능을 가진 작곡가의 손으로 빚어졌다. 그래미상을 2차례 수상했고 아카데미상 후보에 3차례 지명된 헨리 크리거(Henry Krieger)가 그 주인공이다. 『플레이빌(Playbill)』 잡지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다. “헨리 크리거는 대중음악을 연극용으로 성공적으로 바꿀 수 있는 흔치 않은 재능을 지닌 작곡가이다.”

미국 뉴욕의 아들 헨리 크리거는 부모님의 축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쇼팽과 리스트의 선율을 들으면서 음악적 소양을 키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패츠 월러(Fats Waller)와 레이 찰스(Ray

“사색적이고 통찰력 있는 당신의 시를 음악으로 만들 기회를 주신 칭하이 무상사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형식의 작업이었는데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시와 음악이 결합된 이 작품이 칭하이 무상사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길 바랍니다.”

-헨리 크리거/ 작곡가
그래미상 2차례 수상, 오스카상 3차례 후보

Charles) 같은 위대한 R&B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접하면서 더 현대적인 스타일로 취향이 바뀌게 되었다. 성년이 되어서는 처음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보러 다니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갈채를 받는 뮤지컬 노래들을 들은 후 잊지 못할 인상을 받았다. 그가 다니던 학교에도 브로드웨이와 유사한 극장이 있었기 때문에 극예술에 대한 관심을 키울 수 있었고, 이후 워싱턴 D.C.에 있는 아메리카 대학교(American University)에서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예술 교육을 계속하게 되었다.

크리거 씨는 20대부터 오프-오프브로드웨이에서 작곡을 시작했다. 그 시기에 극작가이자 작사가인 톰 이언(Tom Eyan)을 만나 1981년에 시작되어 토니상을 여섯 차례 수상한 브로드웨이의 장기 흥행 뮤지컬 「드림걸즈」를 만들어 냈다. 그는 전설적인 명곡들로 토니상 후보에 올랐고 오리지널 캐스트 앨



범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했다.

수년 뒤 「드림걸즈」는 제이미 폭스(Jamie Foxx), 제니퍼 허드슨(Jennifer Hudson), 비욘세 놀스(Beyoncé Knowles), 에디 머피(Eddie Murphy)가 출연한 가운데 2006년 드림웍스 영화로 제작돼 또 한번의 성공을 거뒀다. 오스카상 수상자이며 뮤지컬 영화 「시카고(Chicago)」의 대본을 쓰고 감독한 빌 콘돈(Bill Condon)이 이 영화의 각색과 감독을 맡았다. 크리거 씨는 이 영화판 「드림걸즈」를 위해 4곡을 새로 작곡했는데, 같은 해에 그중 3곡이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는 진풍경이 연출되었다. 그에게 두 번째 그래미상을 안겨 준 「러브 유, 아이 두(Love You, I Do)」를 비롯해 「리슨(Listen)」과 「페이선스(Patience)」였다.

1983년에는 무용수가 되길 꿈꾸는 소년에 관한 내용을 담은 헨리 크리거의 뮤지컬 「탭댄스 키드」가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돼 토니상 2개 부문을 수상했다. 그다음 브로드웨이 뮤지컬 「사이드쇼」는 유명한 무대 공연가가 되는 삼 쌍둥이의 삶을 그린 작품으로서 1997년에 초연되어 최우수 음악상을 포함해 토니상 4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이후 크리거 씨와 콘돈 씨는 공동으로 「사이드 쇼」 리메이크 작업을 해서 2013년 무대에 올렸다.



「세상은 소용돌이」를 공연하는 토니상 수상자 키틀 콜리쉬.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헨리 크리거는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의 시로 힘이 넘치는 무곡을 탄생시켰다. 제1막의 마지막을 장식한 이 「세상은 소용돌이(The World Is a Whirlpool)」는 토니상을 수상한 키틀 콜리쉬가 영어와 러시아어로 공연했다.

세상은 소용돌이
전갈과 뱀으로 가득 차 있네.
그것들이 탐욕과 분노, 증오로 물어뜯으니
사람들은 꿈쩍없이 그 속으로 빠져드네.

오, 스승님, 왕 중의 왕이시여!
부디 저들을 평화의 저택으로 다시 데려가
영원한 봄을 되찾게 하소서.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또한 뮤지컬 제2막에서 영적 여정의 마지막 도착지로 나오는 노래 「깨달음(Enlightenment)」은 주인공 ‘조이’ 역을 맡은 토니상 후보 배우 겸 가수 패티 코헨아워와 어울락(베트남)을 대표하는 팝스타 호꾸인흐영이 듀엣으로 불렀다. 막힘없이 유려한 아름다운 선율의 이 곡은 시인이 다음과 같이 묘사했던 것처럼 예기치 못한 쉬운 방법으로 깨달음을 얻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말해 주자면/ 나는 밤에 자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플라스틱 텐트 안에서!/ 시끄러운 휴일 유원지 한가운데에서.”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크리거 씨가 시적 감성을 훌륭하게 해석해 낸 호소력 있는 곡들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이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작곡가 심층 취재
돈 피핀



브로드웨이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음악 감독, 작곡가이며 토니상과 에미상을 수상한 돈 피핀(Don Pippin)은 「메임(Mame)」, 「코러스 라인(A Chorus Line)」, 「올리버!(Oliver!)」, 「라카지(La Cage aux Folles)」 등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컬에 참여했다.



뉴욕의 저명한 라디오시티 뮤직홀(Radio City Music Hall)에서 10년 넘게 음악 감독을 역임한 피핀 씨는 오랫동안 브로드웨이에서 함께 공동 작업을 해온 제리 허먼(Jerry Herman)에게 경의를 표하는 「제리 허먼의 음악(The Music of Jerry Herman)」과 「제리 허먼의 브로드웨이(Jerry Herman's Broadway)」에서 각각 런던 로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내셔널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했다. 또한 프랭크 시나트

“칭하이 무상사의 시로 다시 한 번 작곡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진정한 사랑」에서 그녀의 시를 작곡했던 작업은 아주 깨우침이 많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올해 공연은 그보다 훨씬 더 성공적이고 의미 깊을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님, 감사합니다.”

-돈 피핀/ 토니상과 에미상을 수상한 작곡가

라(Frank Sinatra), 토니 베넷(Tony Bennett), 줄리 앤드류스(Julie Andrews) 같은 위대한 가수들은 물론 리타 헤이워드(Rita Hayworth), 진저 로저스(Ginger Rogers), 도리스 데이(Doris Day) 같은 영화배우들과도 함께 작업했다.

2011년 돈 피핀은 다른 4명의 브로드웨이 및 할리우드 작곡가들과 함께 뮤지컬 「진정한 사랑」의 곡 작업에 합류했다. 칭하이 무상사의 인생에서 영감을 받은 이 작품은 그녀의 시에 기반한 가사들로 이루어졌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에서 매진된 이 뮤지컬 세계 초연에 참석했을 때 말했다. “제 평생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시 같은 아름다운 가사를 음악으로 만들 기회가 없었거든요. 그녀가 쓴 시들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음악에 영감을 줍니다.” 이어서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저는 글을 쓰는 그녀의 진실된 방식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녀는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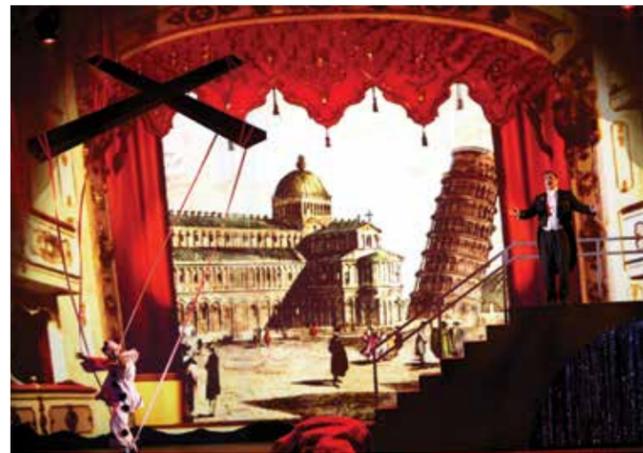


왼쪽부터: 토니 베넷, 리타 헤이워드, 진저 로저스, 도리스 데이, 프랭크 시나트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충분히 봐 왔는데, 그녀의 존재 자체가 마법 같습니다. 그녀가 쓰는 시에도 그 마법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이 위대한 여성을 만날 수 있다면 정말 특별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진정한 사랑」의 성공적인 초연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피핀 씨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를 위해 칭하이 무상사의 시로 작업할 기회를 다시 갖게 됐다.

오프닝 곡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네(Never Set Foot)」와 이탈리아 장면의 「입문(Initiation)」, 이 두 곡을 작곡한 그는 곡을 쓰는 과정에서 인상 깊었던 일들을 적어 두었다.



「입문」을 부르는 이탈리아 테너 마크 자니셀로.

세 상 사람들은 결혼하면 열정이 어느 정도 식는데 난 당신과 약혼하고서 열정이 타오르기만 합니다!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칭하이 무상사가 꿈속에 나를 찾아왔던 것 같다. 꿈에서 그 곡을 처음부터 다시 쓰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 멋진 구상이 새로 떠올랐다. 그래, 이런 템포와 속도감이면 오프닝 곡으로 딱 맞아떨어진다. 스타일을 설명하자면 락의 리듬을 지닌 활기 넘치는 행진곡이라고 할까. 신선함과 재미를 유지시키는 흥미로운 악구(樂句)가 많다.”

“마크의 노래는 작곡하기가 꽤 쉽지 않다. 칭하이 무상사의 시가 아주 마음에 든다. 그녀는 대단한 사색가이다.

그 곡은 약간 오페라 느낌이 나는 이탈리아 예술 가곡이라 할 수 있다.

글을 쓰다 보니 칭하이 무상사가 ‘사랑’이라는 주제 면에서 유머 감각이 뛰어나다는 걸 알게 됐다.”

피핀 씨는 한 인터뷰에서도 이에 대해 말한 바 있다. “이번에 오프닝 곡을 썼는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편곡과 작업 방식, 그 일이 완성되는 과정이 아주 황홀했어요. 작년에도 제가 오프닝 곡을 썼지요. 그리고 보니 제가 오프닝 곡 전담이 된 것 같군요. 하지만 정말 즐거웠던 작업은 마크 자니셀로의 이탈리아 곡이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가수입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의 공연과 노래를 많이 보고 들었는데 정말 그의 목소리를 알겠더군요. 그래서 그 목소리를 위해 작곡하는 게 아주 좋았습니다.”

이탈리아 테너이자 주요 출연진이었던 마크 자니셀로는 피핀 씨의 곡이 자신의 목소리에 ‘장갑처럼’ 꼭 맞았다면서 여러 자리를 빌려 그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제 목소리는 4.5옥타브입니다. 일반 대중가요부터 엘비스, 레이디 가가(Lady Gaga)까지 전부 부를 수 있지요. [돈 피핀은] 저의 능력과 제 표현 방식을 그대로 복제해 이 멋진 노래 속에 쏟아부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맞춰 곡을 만드셨지요. 아름답습니다. 저의 모든 장기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돈,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 「입문」을 위해 피핀 씨는 도입부에 예스러운 이탈리아 장면을 연상시키는 만들어진 세레나데를 넣는 등 문화적인 세부 양식까지 특별히 신경 썼다. 그 인상적인 멜로디를 통해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담긴 미묘한 숨은 뜻과 시감이 잘 표현되었다.

작곡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녀의 시가 놀라운 이유는, 한번 훑어 읽어 보고선 ‘뭘, 팬찮네.’ 혹은 ‘이런 거로군.’ 하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 번, 다양한 기분일 때 읽어 봐야 합니다.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다르거든요. 특히 오프닝 곡 같은 경우엔 그녀의 유머 감각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다가 사색하는 과정이 아주 깊어질 수도 있지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예요.”

유머와 심오한 의미, 이 두 가지는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네」의 처음 두 소절을 보면 정말 두드러져 보인다.

스 승님, 당신은 어디에나 계신다는데
어찌하여 나의 집에는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나요?
베일이 영원토록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아요
나의 눈앞에.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뮤지컬 세계 초연일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은 피핀 씨에게 공연 소감을 물었다. “다 말하려면 2시간은 걸릴걸요!” 그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이 공연은 일반적인 평화가 아닌 내면의 평화를 다룹니다.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볼 게 많습니다. 엄청난 시각적 대향연이었습니다. 대단했어요! 배우들이 어떻게 그 많은 걸 그렇게 빨리 습득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대규모의 공연인 것치곤 리허설을 많이 하진 못했거든요. 정말 황홀했습니다.”

출연한 무용수들의 공연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주연 배우들이 배역을 연기하고 노래가 곁들여진 댄스 콘서트 같았습니다. 무용수들이 아주 훌륭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에 또 다른 뮤지컬을 하게 될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피핀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여러분이 아직 칭하이 무상사의 시 마지막 부분을 듣지 못한 것 같은데요. 곧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레드카펫을 걷는 돈 피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작곡가 심층 취재

낸 슈워츠

그녀는 '할리우드에 꼭꼭 숨겨진 비밀', '단순함이 최고임을 보여 주는 달인', '말 없는 이야기꾼'이라고 칭해져 왔다. 그래미상을 수상했고 에미상 후보에 7차례나 오른 낸 슈워츠(Nan Schwartz)는 여성 작곡가의 선구자로도 꼽힌다.

슈워츠 씨는 텔레비전 제작 일을 통해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이후 혼자서만 간직해 왔던 영화 음악이라는 꿈을 이루고자 개인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평생을 음악에 바친 노력과 피아노 공부 경험, 그리고 전문적인 노래 경험을 바탕으로 「밤의 열기 속으로(In the Heat of the Night)」, 「아르고(Argo)」, 「라이프 오브 파이(Life of Pi)」,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 「해리 포터와 죽음의 성물-1부(Harry Potter and the Deathly Hallows: Part 1)」, 「업타운 걸스(Uptown Girls)」 등 잊지 못할 수많은 영화 및 드라마의 삽입곡을 작곡하거나 오케스트라 편곡을 하며 승승장구했다. 그 외 존



그래미상을 수상한 작곡가 낸 슈워츠.

윌리엄스(John Williams)가 지휘하는 보스턴 팝스 오케스트라를 비롯해 레이 찰스(Ray Charles) 등 여러 유명한 재즈 음악가들에게 편곡해 준 작품들이 그래미상 후보에 올랐다는 점도 눈에 띄는 이력이다.

그녀의 화려한 수상 기록 중에는 나탈리 콜(Natalie Cole)을 위해 편곡해 준 음악으로 받은 그래미상도 포함된다. 주제가와 노래, 에피소드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등 음악 영역 전반에 걸쳐 주목을 받은 슈워츠 씨는 세계적인 작곡가로 훌륭한 명성을 쌓았다.



나탈리 콜.

다음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이 슈워츠 씨와 함께 음악과 작곡가로서의 삶, 그리고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작곡가로 참여한 경험에 대해 인터뷰를 나눈 내용 중 일부이다.

질문: 당신이 평생 음악 활동을 해온 것은 일정 부분 부모님의 영향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 두 분 모두 뛰어난 음악가로 프랭크 시나트라, 토미 도시(Tommy Dorsey), 주디 갈란드(Judy Garland), 헨리 맨시니(Henry Mancini), 소니 앤 셰어(Sonny and Cher) 등과 작업하셨지요. 작곡가로 활동하는 데 있어 누구에게서 가장 큰 음악적 영향을 받았나요?

낸 슈워츠: 아주 어려서부터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프랑스 출신의 어떤 새로운 작곡가와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같이 출연해 달라는 제안을 받았어요. 그 작곡가가 미셸 르그랑(Michel Legrand)이었습니다. 「셀부르의 우산」을 포함해 많은 주옥 같은 노래를 쓴 분이죠. 그에게서 화음과 선율에 대한 감각을 배웠는데 그게 오늘날까지도 제 음악 속에 여전히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참여한 걸출한 작곡가 중 한 분이신데, 이 흥미진진한 작품에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낸 슈워츠: 무상사와 그녀의 가르침, 그녀의 철학에 대해 처음 알게 됐지만 그 가사를 음미하면서 제가 세상의 긍정적이고 선량한 큰 힘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훌륭한 목적, 더 높은 이상, 영적인 목적 속에 음악으로 결합된 힘 말이지요. 저는 줄곧 더 높은 목적의식이 있고 사람들에게서 최상의 모습을 이끌어 내며 좋은 메시지가 담긴 영화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여 주는 프로젝트는 찾기가 어려워요. 상업적인 음악, 상업적인 영화, 상업적인 텔레비전은 때로 그런 영성이나 긍정성의 세계에 대해 깊이 생각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정말 깊이 다룹니다. 이 프로젝트는 저의 장점을 발휘해 저의 철학, 제가 인생에 대해 느끼는 고마움을 쏟아 낼 수 있었습니다. 아주 멋진 공동 작업이었어요.

질문: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를 위해 쓰고 있는 음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낸 슈워츠: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쓴 곡은 각각 세계 다른 나라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아일랜드, 또 하나는 프랑스, 나머지 하나는 아프리카였어요. 무상사의 가사를 사용하면서 그 나라의 정취를 담아내야 했기 때문에 한 곡 한 곡이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기억에도 오래 남고 공감대도 형성할 수 있으며 나중에 무의식적으로 흥얼거리거나 곱씹어 보거나 좋아하게끔 노래에 형식과 구조를 좀 집어넣고 싶었어요. 아일랜드 곡에서는 켈틱 하프와 틴 휘슬을 사용하고 보컬은 엔야(Enya) 스타일의 고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곡은 조디 와틀리가 노래하고 아프리카 타악기가 사용됩니다. 프랑스 곡에는 아코디언이 사용되는데 가사는 조금 침울한 의미로 시작되지만 이후 의기양양하고 활달한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그 부분을 화려한 장면으로 만들기로 해서 브로드웨이풍의 작품이 됐습니다.

질문: 어떤 과정을 거쳐 곡을 만들어 내시나요?

낸 슈워츠: 때로는 구조를 찾고서 머릿속에서 흥얼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가사들이 리듬에 맞게 잘 어울리는지 생각하고 그러다가 거기에 잘 어울리는 멜로디를 찾습니다. 그때부터는 음을 받쳐 줄 화성을 만들고 화음을 넣습니다. 물론 민속 악기를 넣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신시사이저 팔레트에 그 악기 음을 넣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를 공연하는 플로 앙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가사로 세 곡의 노래를 작곡한 낸 슈워츠.

두지요. 그 뒤에 코러스를 넣고 그 위에 노래를 안치고 그렇게 작업합니다.

질문: 작곡가가 진정으로 하는 일은 음악을 통해 감정을 살려 내는 것이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작업에서도 그렇게 해보셨나요?

낸 슈워츠: 이 시들은 이미 감정이 풍부하게 깔려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더 높은 힘에게 자신의 심정을 호소하는 면도 그렇고, 아주 감정이 풍부합니다. 그중 하나가 프랑스를 위해 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Accept Me the Way I Am)」입니다. 그 힘에게 애원하는 가사라서 아주 감성적이었어요.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지요. 마지막으로 작업한 곡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였는데, 아마 그래서 가장 감정적인 면이 강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를 작업할 즈음엔 이미 엔진이 완전히 구동돼서 속도가 한창 붙었을 때였거든요. 하지만 가사 자체도 이미 아주 열정적이에요. “오, 지상과 천국의 스승님/ 무한한 사랑의 주님/ 기쁨과 슬픔을 초월하신 당신/ 내 마음 뭉뚱 가져가시는군요!” 우리 모두 아름답게 느낄 메시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느껴져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 당신의 힘든 시험은 통과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모두 항상 인생의 도

전을 겪지만 특히 이 가사는 높은 힘에게 내 모습 그대로 받아달라고 하는 애원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많은 감정이 담겨 있고 제가 작곡한 세 곡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것 같아요.

질문: 칭하이 무상사는 ‘비건 채식’을 하고 평화를 이롭시다’라는 평화의 구호를 제시합니다. 그녀는 평화가 우리 개개인에게서 시작되며 우리 생활 방식을 살펴보고 동물들을 포함한 다른 이들에게 평화를 전해서 우리 자신의 삶에 평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믿습니다. 평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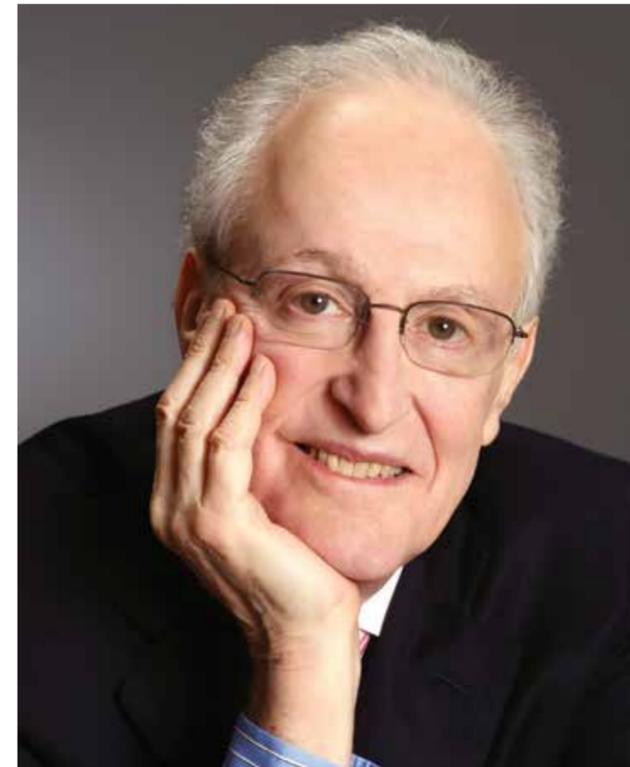
낸 슈워츠: 저는 누구든 언제나 어떤 일을 겪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나 가게, 또는 제 길 맞은편에 있는 누구나 다루기 까다로운 사람이 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누구나 사연이 있고 누구나 무언가를 겪고 있기 때문이지요. 어쩌면 제가 겪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올바른 길을 택해서 사람들에게 평화와 사랑, 이해, 희망을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행보가 땅을 울려 옆 사람, 그 옆 사람, 또 그 옆 사람에게로 전달되겠지요. 우리 모두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비건 채식을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 번에 한 사람씩이요.

“**참** 여한 사람들 모두가 그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입니다. 다들 자기 분야에서는 정상에 있지요.

이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힘을 얻습니다. 최상의 이유를 위해 함께 모였으니 공연장에는 에너지가 가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날 저녁이 어떨지 상상이 갑니다. 에너지와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니 그 힘이 아주 강력할 것 같습니다.”

-낸 슈워츠/ 그래미상을 수상한 작곡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작곡가 심층 취재 데이비드 샤이어



아카데미상과 2차례의 그래미상을 수상한 작곡가 데이비드 샤이어.

브로드웨이와 할리우드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오스카상과 2차례의 그래미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샤이어(David Shire)는 연극과 영화, 텔레비전 음악 분야에 많은 혁혁한 업적을 남겼으며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참여한 작곡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위부터: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빌리 프레스턴, 줄리 앤드류스.

작곡가에 관하여

샤이어는 영화 「노마 레이(Norma Rae)」의 삽입곡 「It Goes Like It Goes」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받았고, 「토요일 밤의 열기(Saturday Night Fever)」로 두 개의 그래미상을 받았다. 백여 곡이 넘는 영화음악 중에는 진 핵크만의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 로버트 레드포드와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모두가 대통령령의 사람들(All the President's Men)」, 제이크 질렌할의 「조디악(Zodiac)」 등이 있다. 한편 그는 여러 유명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삽입곡을 작곡해 에미상 후보에도 5차례 지명되었다.

또한 데이비드 샤이어의 곡을 부르고 녹음한 가수들을 몇 명만 들자면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와 줄리 앤드류스, 그리고 「With You I'm Born Again」을 듀엣으로 부른 빌리 프레스턴(Billy Preston)과 시리타 라이트(Syreeta Wright) 등이 있다.

샤이어 씨는 브로드웨이에서 유명한 작사가 리처드 몰트비 주니어(Richard Maltby, Jr.)와의 공동 작업을 통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공동 작업 과정에서 유명한 뮤지컬 「베이비(Baby,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리즈 켈러웨이 출연)」와 「빅(Big, 톰 헝크스의 동명 영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뮤지컬)」의 곡을 작곡했고, 이 두 작품으로 토니상 최우수 음악상 후보에 지명되는 영광을 누렸다. 그가 작곡 작업에 참여한 오프브로드웨이 작품으로는 그래미상 후보작 「스타팅 히어, 스타팅 나우(Starting Here, Starting Now)」와 외부 비평가상



을 받고 2012년에 뉴욕에서 성황리에 재상연된 「클로저 더 에버(Closer Than Ever)」가 있다.

예술적 공동 작업

이 작곡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칭하이 무상사를 알게 되어 여러 행사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곡을 붙였다. 처음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4주년 기념 콘서트 「평화를 선물하자」에서였다. 그는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원작으로 한 가슴 저미는 두편의 예술 가곡 「오후의 산책(For the Afternoon Walk)」과 「외로운 밤(A Lonesome Night)」을 작곡했는데 그의 친구이자 그래미상 수상 가수인 멜리사 맨체스터(Melissa Manchester)가 이 노래



왼쪽: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4주년 기념행사에서 그래미상을 수상한 가수 멜리사 맨체스터와 함께한 데이비드 샤이어.
오른쪽: 「최고의 환경 영웅 갈라」에서 소프라노 린 윈터스텔라와 함께.

들을 불렀다. 당시 그는 시인이자 영적 스승, 박애주의자, 예술가인 칭하이 무상사에 대해 존경을 표했다. “저는 그녀의 영적

샤이어 씨는 2010년 12월 유엔 기후변화 협약 동안에 열린 「최고의 환경 영웅 갈라」에 참석하고자 멕시코 칸쿤으로 날아갔다. 그는 오스카상 수상곡인 「It Goes Like It Goes」와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가사로 한 신곡 「당신을 방문하며(Visiting You)」를 선보였다. 두 곡 모두 소프라노 린 윈터스텔라(Lynne Wintersteller)가 불렀다. 다음은 시인과 작곡가가 나눈 다정한 대화 내용이다. 이 대화 중에 샤이어 씨는 이를 만에 「당신을 방문하며」를 쓴 사연을 전했다.

데이비드 샤이어: 우리는 이제 총 세 곡을 같이 썼습니다.

칭하이 무상사: 이를 만에 곡을 만드셨다니 믿어지지 않네요. 천재 시군요. 본인이 천재라는 걸 아세요? **(데이비드 샤이어:** 오, 아닙니다.) 오스카상 수상자일 뿐 아니라 천재시군요! 그렇게 쉽게 쓰시다니요.

데이비드 샤이어: 월요일에는 도저히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피아노 옆을 왔다 갔다 하기만 했는데, 화요일 아침에 시를 골랐고 오후에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수요일에 리허설을 했고요. 그러고서 지금 칸쿤에 와 있는 거지요.

칭하이 무상사: 기적이라도 그것보다 더 걸리겠어요.

데이비드 샤이어: 당신이 내게 에너지를 보내 주신 게 분명합니다.



저서 「위기에서 평화로」에 서명해 데이비드 샤이어에게 선물하는 칭하이 무상사. 멕시코 칸쿤 (2010년 12월 5일)

칭하이 무상사: 당신이 기적을 만든 거예요. 우리 인간은 강하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밤 여기에 오신 게 지구를 돕는 겁니다.

데이비드 샤이어: 감사합니다.

칭하이 무상사: 제가 감사할 일이에요. 정말 사랑합니다.

데이비드 샤이어: 감사합니다. 훌륭하세요.

칭하이 무상사: 신의 축복을 빕니다.

가르침과 시에 익숙하지만 그녀가 다른 많은 것도 추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저는 늘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갖춘 사람에 대한 경외심을 갖고 있습니다. 무상사의 영혼이 크기 때문에 그 예술가적 능력도 큰 것 같습니다.”

이듬해 샤이어 씨는 새로운 뮤지컬 「진정한 사랑」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가사로 수록곡을 쓴 다섯 명의 저명한 작곡가의 일원이 됐다.

작곡가는 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수많은 뮤지컬 작업을 해왔지만 이번 작품에서 우리 작곡가들은 아무도 누가 무슨 곡을 쓰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우리의 공통분모는 대본과 무상사의 멋진 작품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 뮤지컬이 어디선가 홀연히 탄생돼 있었고 멋지기까지 했으니 정말이지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시에서 노래로

이후 데이비드 샤이어는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에서 영감을 받은 두 번째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도 참여했다.

한국을 배경으로 하는 「찬양의 노래(Singing Praise)」는 그가 작곡한 두 곡 중 하나이다. 샤이어 씨는 스승의 ‘무한한 은총’에 대해 말하는 지극히 영적인 가사를 바탕으로 동양의 신비로운 영성과 잘 맞아떨어지는 곡을 창작했다. 그는 ‘자유롭게’ 부르는 한편 전통 피리가 잘 짜여 들어가도록 제안함으로써 이 작품에 깊은 관조적 분위기의 한국 전통 노래라는 색채를 가득 채워 넣었다. 전체적으로 노래와 단아한 의상, 하늘하늘 떨어지는 눈, 앙상블의 우아한 춤, 그리고 한국 가수 브라이언과 헤더 박의 아름다운 목소리들이 한데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다.

또한 그는 음악 스타일을 가볍게 바꿔서 그 곡과는 완전히 다른 「날뛰는 마음(Monkey Mind)」도 작곡했다. 빠른 템포의 이 노

래에는 호주 원주민의 악기인 디제리두 간주가 들어간다. 에미상을 수상하고 토니상 후보에 오른 가수 겸 배우 리즈 캘러웨이는 말했다. “음악이 환상적이에요. 데이비드 샤이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곡가 중 한 분입니다. 그의 음악을 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그의 다른 많은 작품들이 그랬듯이 샤이어 씨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대한 공헌을 통해서 진정한 음악의 기적을 만 들어 가고 있다.

“이 번에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를 위해 두 곡을 작곡하면서 다시 한 번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기쁘고 영광이었습니다. 선약 때문에 초연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지만 모두에게 제 사랑을 보내며, 이 뮤지컬도 다시 한 번 큰 성공을 거두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데이비드 샤이어/ 아카데미상과 2차례의 그래미상을 수상한 작곡가



「찬양의 노래」를 공연하는 헤더 박과 브라이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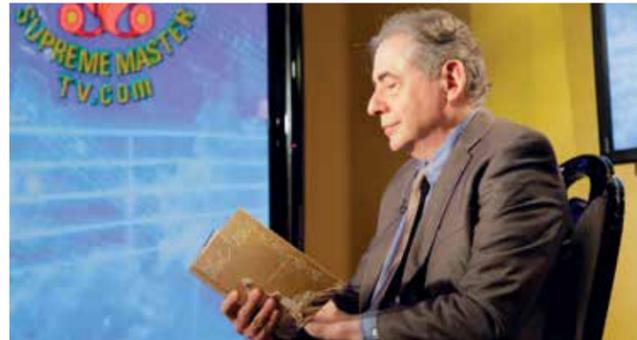
「날뛰는 마음」을 부르는 리즈 캘러웨이.

시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프랭크 에반스: 그것 역시도 튀어나온 거였습니다. “오, 이젠 곡으로 만들어야 해.” 하고요. 아주 매력적인 시입니다. 언제 깨달음이 우리를 찾아올지, 언제 계시가 찾아올지, 언제 음악이 우리를 찾아올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작곡가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녀가 그러더군요. “어쩐 일인지 음이 허공에 있어서 난 그걸 받아 적어야 하고 그럼 누군가가 그걸 불러야 해요.” 시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읽히고 노래로 불리고 사람들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토록 많은 곡이 들어가는 겁니다.

질문: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가 후세에 어떤 것을 물려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프랭크 에반스: 어떤 정치인인지는 잊어버렸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써 그 국가가 기억되리라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들이 남길 예술과 문화 때문에 기억될 것이다.” 우리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를 통해 그 말을 증명하고자 작은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뒤에 남길 것이니까요. 사랑과 선행, 예술, 음악의 기쁨, 노래의 기쁨을 남기고, 단순한 말을 넘어서는 춤의 기쁨, 그리고 시의 기쁨을 남깁니다. 무상사가 예술을 격려하시는 모습



프랭크 에반스가 「침묵의 눈물」에서 시를 골라 개작하는 과정이 신기할 정도로 쉬웠다고 언급하다.

이 점점 더 많이 생각납니다. 만일 음악과 시가 세상을 단합시킬 수 있고 이 사상들이 세상을 단합시킬 수 있고 무상사의 여러 이론과 믿음이 세상을 단합시킬 수 있다면 오, 정말이지 멋진 곳이 될 것입니다.

“**노**래는 기쁨이고 믿음도 기쁨이며 자신의 여정에 오르는 것도 기쁨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 뮤지컬보다 나은 게 또 있겠습니까?”

-프랭크 에반스/ 수상 경력의 작가 겸 작사가



출연진, 다른 창작 팀과 무대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하는 프랭크 에반스(오른쪽 끝).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작가 심층 취재 신시아 루이스 페렐

“**시**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를 믿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존경한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겠어요.”

-신시아 루이스 페렐/ 수상 경력의 극작가

“**저**는 거의 글을 쓰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신시아 루이스 페렐(Cynthia Lewis Ferrell)은 수프리엄 마스터 텔레비전과 가진 인터뷰에서 말했다. 이어서 국제적인 상을 받은 작가이자 극작가, 오페라 대본 작가인 그녀는 덧붙였다. “저는 글을 읽기 전부터 아버지한테 시를 읊어 드리고 아버지는 앉아서 저를 위해 그걸 타자로 쳐 주셨어요. 그럼 저는 그 글씨를 그리곤 했지요. 저는 언어의 자음과 모음, 억양과 운율, 아름다움을 사랑했어요. 늘 한결같았지요.”



2011년 페렐 씨의 오페라풍 작품 「엘 칸구로(EI Canguro)」가 캘리포니아 국제 연극제(California International Theatre Festival)에서 첫선을 보였다. 이후 2012년에는 그녀가 캘러웨이 가든(Callaway Gardens)에 실감 나게 구현한 「산타의 작업장(Santa's Workshop)」이 「내셔널 지오그래픽 트래블러(National Geographic Traveler)」의 세계 10대 조명 공연 중 하나로 선정됐다. 또한 디즈니사의 특별 행사(Disney's Destination: D)를 위한 뮤직비디오 「셰르마니아!(Shermania!)」의 각본과 제작을 맡았고, 단독 작품 「아내가 모르는 것(What a Wife Doesn't Know)」이 뉴욕 관객들의 매진 사례를 기록하는 기쁨을 누렸다. 그녀의 뮤지컬 작품으로는 토니상 수상 작사가 제프 맥스(Jeff Marx)와 함께 작업한 「미국의 정당한 군주(The Rightful Monarch of America)」가, 극본 수상 작품으로는

국제 예술과 문학 대회상(Arts & Letters International Competition)을 받은 「3DB 인사이드(3DB Inside)」, 라이터스 다이제스트 국제 대회상(Writer's Digest International Competition)을 받은 「평균 고조(Mean High Tide)」, 제롬 로렌스 상(Jerome Lawrence Prize)을 받은 「스냅샷(Snapshot)」 등이 있다. 소설 「아이비의 방울뱀(Rattler in the Ivy)」과 희곡 「옥스나드의 신성한 소(Holy Cows of Oxnard)」도 시적이고 생기 넘치는 이 이야기꾼의 또 다른 작품이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페렐 씨는 주인공인 조이, 피트, 열차 차장의 서사를 창조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원작으로 한 뮤지컬의 노래들을 서로 유기적으로 이어 나갔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시였어요. 시가 아주 아름다웠고 그 메시지가 작품 전체에 일관성이 있거든요. 시어의 미묘한 어감도 아주 멋지고 영감을 주는 부분도 많아서 행복만 마음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지요.”

몇 주 안에 대본을 끝내야 했기 때문에 페렐 씨는 처음에는 이 일이 아주 벅차게 느껴졌다면서 이것을 “불가능한 사명”이었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뮤지컬 하나를 만들기까진 몇 년이 걸립니다. 정말 그래요. 물론 우리에게겐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었어요. 가사와 기본 철학이 존재하고 이 아름답고 자유로운 시구에 뮤지컬로서의 토대가 갖춰져 있었으니까요. 말은 이렇지만 정말 실제로 믿을 만하고 흥미를 일으키고

복합적인 인물을 창조하려면 수개월이 걸리는데 이 작품은 단 2주 만에 나왔습니다. 공동 창작은 아주 힘들게 마련인데 이걸 기적과 같았어요.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게 합쳐져 아름답게 펼쳐지는 걸 지켜봤습니다. 그 가능성과 개연성, 실현성에 마음을 연다면 그렇게 빨리, 그렇게 잘될 수 있을 것이고 모든 것을 결합시키는 과정도 아주 재미있을 겁니다.”



레드카펫에 선 신시아 루이스 페렐과 내빈 마이클 드마테이(Michael DeMattei) 씨.

페렐 씨는 뮤지컬 작업 중에 있었던 뜻밖의 행운 같았던 순간 하나를 회상했다. “가장 재미있었던 일 중 하나는 우리가 감독님과 전화 회의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는 즉시 노래와 노래 사이에 대사가 얼마나 들어갈지에 대해 말했는데 우리가 짜 놓은 구성을 알고선 아주 기뻐했어요. 그리고선 ‘러시아 노래를 제1막 마지막에 넣어야 한다’고 했지요. 회의실에 있던 우리 모두 ‘거참 좋은 생각이네요.’ 했어요. 우리 모두 말 없이 이랬어요. (양손 엄지를 세워 보이다.) 벌써 그렇게 해냈거든요. 그건 이 모든 시에

대해, 등장인물 설정을 둘러싼 온갖 구상에 대해 모두의 생각이 일치했던 많은 놀라운 순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들 주파수가 비슷했고 함께 짜맞춰 나갔습니다. 정말 마법 같았고 아주 멋진 시간이었어요. 세상을 다 준대도 바꾸고 싶지 않을 거예요.”

페렐 씨는 이야기 서사가 머릿속에 입체화되던 과정에 대해서도 말해 주었다. “저는 이 시들을 읽으면서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었어요. 시가 가진 철학과 정취가 모든 것을 알려 줬지요. 우리는 이야기를 단순하게 만들어 시를 주축으로 전체를 이끌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이야기가 됐지요. 그 점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에 관해서 그녀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한다’는 것이 뮤지컬 전체에 심박동처럼 흐르는 주제입니다. 침묵의 눈물, 갈망, 신으로부터의 분리감, 그리고 합일의 느낌과 그 합일의 기쁨이지요.”라고 말한 뒤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물론 시들은 정말 칭하이 무상사의 철학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들은 정말 동물들에 대한 사랑을 말하고 또 어떤 노래들은 평화와 갈등의 해소에 대해 말합니다. 또 어떤 시들은 자신을 축하하고 삶을 축하하며 모든 형태에 존재하는 신을 축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 주제들이 결합된 것 같아요.”

뮤지컬 초연 당일, 신시아 루이스 페렐은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했다. “정말 흥분돼요. 어젯밤 드레스 리허설을 봤는데 진짜 멋졌어요. 모두가 함께 일귀 낸 작품이에요! 환상적이에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것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를 경험한 모든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한 기쁨이었다. 이 뮤지컬은 아름다운 시와 음악, 감동적인 이야기, 거기에다 참여한 모든 이들의 재능이 더해 이루어진 결정체였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감독 심층 취재 빈센트 패터슨

“우리가 이 작품을 함께하면서 느꼈던 모든 사랑과 선함, 긍정적인 기운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결과에 반영되길 바랍니다.”

-빈센트 패터슨/ 토니상 후보, 감독 겸 안무가

브로드웨이와 오페라, 콘서트 투어, 영화, 뮤직비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광고계에서 두루 두각을 나타낸 엄청난 재능의 예술가 빈센트 패터슨(Vincent Paterson)은 많은 이가 앞다투어 찾는 감독이자 전설적인 안무가이다.

패터슨 씨는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의 활동에서 중요한 창작의 동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수년간 두 사람과 공동 작업을 했다. 또한 무용수로서는 마이클 잭슨의 가장 유명한 두 편의 뮤직비디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억을 떠올렸다. “저는 「빋 잇(Beat it)」에서 춤을 쳤어요. 「빋 잇」에 나오는 비중 있는 댄서 중 하나였지요. 「스릴러(Thriller)」에서는 보조 안무를 맡았고 좀비 역할도 했습니다. 이렇게 춤을 쳤지요. (스릴러의 좀비 춤 동작을 보여 준다.) 그래서 마이클을 정말 잘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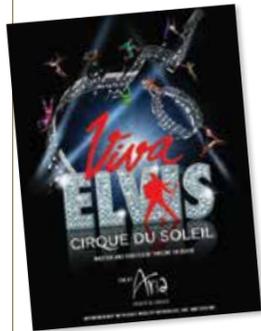
패터슨 씨는 이 팝 황제의 희대의 고전 「스무드 크리미널(Smooth Criminal)」 뮤직비디오를 만들었고 이듬해에는 마이클 잭슨의 「배드(Bad)」 월드 투어를 비롯해 잊히지 않는 몇몇 공연을 감독하고 안무했다. 또한 마돈나의 1990년 월드 투어와 MTV 시상식에서 펠친 유명한 「보그(Vogue)」 공연에서 안무와 감독을 맡



은 데 이어 뮤직비디오 「익스프레스 유어셀프(Express Yourself)」의 안무와 다른 많은 프로젝트에도 참가했다.

브로드웨이 극장가에도 큰 족적을 남긴 빈센트 패터슨은 이름난

브로드웨이 제작자 겸 감독인 할 프린스(Hal Prince)와 함께 작업한 「거미 여인의 키스(Kiss of the Spider Woman)」에서 안무를 맡아 토니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그의 안무 및 감독 작업은 멀리 외국까지 뻗어 나가 런던 웨스트엔드에서는 피터 홀 경(Sir Peter Hall) 감독과 함께한 「레니(Lenny)」에서,



독일 베를린에선 첫 오리지널 제작 뮤지컬 「카바레(Cabaret)」에서, 체코 프라하에서는 「걸리버 여행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외에도 태양의 서커스(Cirque du Soleil)의 「비바 엘비스(Viva ELVIS)」 공연을 집필하고 감독했다.

오페라 쪽에서도 실력을 발휘한 그는 소프라노 안나 네투코(Anna Netrebko)가 출연하고 플라시도 도밍고가 지휘한 마스네의 「마농(Manon)」에서 감독과 안무를 맡았고, 그의 연출작 「안나 네투코: 여성, 목소리(Anna Netrebko: The Woman, The Voice)」는 몽트뢰 영화제(ntreux Film Festival) 최우수 텔레비전 예술 프로그램 부문 후보에 올랐다.

한편 영화계 쪽에서 패터슨 씨는 마돈나가 주연한 오스카상 수상 뮤지컬 「에비타」를 비롯해 스티븐 스피버그 감독, 더스틴 호프만과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후크(Hook)」, 시드니 폴락(Sydney Pollack) 감독, 로버트 레드포드 주연의 「하바나(Havana)」, 마이크 니콜스(Mike Nichols) 감독, 진 핵크만(Gene Hackman)과 나단 레인(Nathan Lane) 주연의 「버드 케이지(The Birdcage)」, 라스 폰 트리에(Lars Von Trier) 감독, 비요크(Björk) 주연의 「어둠 속의 댄서(Dancer in the Dark)」 등 유명 감독들의 영화에 안무가로 크레디트를 장식했다.

그는 250편이 넘는 텔레비전 광고 작업 외에도 TNT 특집 프로그램 「수스 박사를 찾아서(In Search of Dr. Seuss)」를 감독하고 안무를 담당해 이 작품으로 에미상 후보와 ACE 상 5개 부문 후보

에 올랐으며, HBO사의 「코믹 릴리프 VII(Comic Relief VII)」의 안무로 다시 한 번 에미상 후보로 지명됐다.

패터슨 씨는 예술 장르를 가리지 않는 그 놀라운 다재다능함에 대해 설명했다. “저는 관심사가 다양합니다. MTV만큼이나 오페라에도 관심이 있었지요. 연출 기법과 안무하는 법을 알고 수년간 연기를 공부하고 한동안은 배우로 활동했던 것이 많은 문을 열어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을 통해 무용수와 배우, 가수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 지식을 얻은 덕분에 모든 장르에 걸쳐 이런 믿기 어려운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감독을 맡아서는 마음을 고양시키는 노래와 16개국의 문화가 담긴 춤을 통해 칭하이 무상사의 심오한 시들 속에 담긴 인도주의와 평화라는 아름다운 비전을 노련하게 무대에서 풀어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초연에 앞서 열린 레드카펫 행사에서 그는 기쁨 어린 목소리로 확신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합니다. 관객들의 반응은 예측할 수가 없지만 어젯밤 [드레스 리허설에서] 청중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 오후 모든 스타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객들이 계속 박수를 치면 돌아와서 한 번 더 인사하라고 얘기해 뒀습니다.”

다음은 패터슨 씨가 뮤지컬 초연 전에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가진 인터뷰를 발췌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초창기 예술 작업과 마이클 잭슨 및 마돈나와 작업한 경험, 그리고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대한 멋진 이야기를 들려줬다.

사실 저는 드라마, 연극을 전공했습니다. 춤과는 완전히 무관했어요. 일하러 가는 길에 작은 댄스 스튜디오를 지나가곤 했는데 안을 들여다보면 아이들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23살 무렵이었는데 어느 날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난 연극

하는 사람이라서 운동을 하지 않잖아. 많이 하지는 않지. 들어가서 댄스 수업을 받을지 봐야겠어.’ 거기는 성인 댄스 수업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분이 상냥하게도 “원하면 들어와서 청소년들과 수업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11세에서 15세가량의 아이들과 함께요. 저는 아주아주 열심히 공부해서 4년간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그러고서 9개월간 오디션이라는 오디션은 다 봤지만 하나도 안 돼서 일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땀고 그때부터 댄스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쉐리 맥클레인(Shirley MacLaine)과 월드 투어도 하고 광고도 하고 그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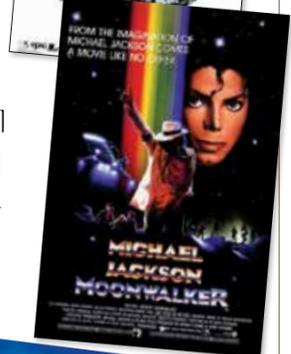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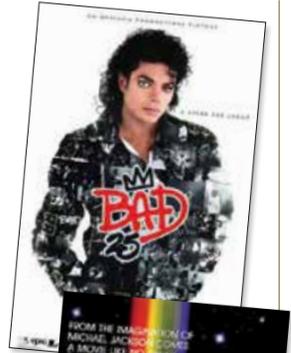
춤을 좋아하긴 했지만 진흙보다는 조각가가 될 인연이 더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시작할 때 운이 좋았어요. 당시는 뮤직비디오가 시작된 초창기였는데 그들이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반 헤일런(Van Halen)이나 데이비드 리 로스(David Lee Roth)의 안무를 짜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지요. “그럼요. 내가 좋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해봤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됐지요.

마이클 잭슨과는 17년간 일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소니의 [마이클 잭슨 다큐멘터리-배드 25(BAD25)] 비공개 상영회에 갔다 왔습니다. 「배드」는 마이클 잭슨의 첫 번째 솔로 투어였습니다. 앞서 그와 함께 몇 가지 멋진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는데, 마이클이 전화해서 「스무드 크리미널」이란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구



빈센트 패터슨이 연출한 「배드」 투어에서 공연하는 마이클 잭슨.

상, 창작해 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 후 「The Way You Make Me Feel」 작업도 했고 그의 짧은 영화 「문 워커(Moonwalker)」에 나오는 다양한 다른 곡들도 작업했지요. 그러다 그의 첫 투어 계획이 잡히자 저에게 연출과 안무를 맡아줄 수 있는지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했지요. 그게 「배드」 투어였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해서 아주 오랫동안 그와 함께 일하면서 그의 그래미 시상식이나 슈퍼볼(Super Bowl), 몇 편의 일본 광고에 들어간 그의 공연을 창작해 줬습니다. 그와 마지막으로 작업한 게 90년대 말이었는데, 제가 연출과 안무를 맡은 비디오가 전 세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는 항상 흥미를 일으키거나 영감을 주는 일, 새로운 생각에 대해 표기를 해둡니다. 그걸 안무에도 적용하고 연출이나 구상, 창작에도 활용하지요. 안무에 관해서는 마이클이 일전에 말해 준 게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알려 줬어요. “당신의 구상을 음악에 강요하지 마세요. 음악이 당신에게 말하게 하고 음악이 뭘 원하는지 말하게 하세요.” 그래서 안무를 맡을 때는 늘 그렇게 합니다. 헤드폰을 끼고 오랫동안 머릿속에 음악이 떠나지 않게 합니다. 편안히 앉아서 명상처럼 음악이 내 전체에 흐르도록 하지요. 그러다 보면 스튜디오에 갔을 때 그 희미하고 추상적이던 개념들이 구체적인 형상을 취하기 시작하지요.

제가 연출을 맡은 최대 규모의 행사는 마이클 잭슨의 슈퍼볼 공

연[We Are the World]을 안무했을 때였습니다. 슈퍼볼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시해야 했습니다. 카드 섹션을 했거든요... 마이클은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에 관중석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카드를 들게 해서 그게 경기장 전체로 퍼져 나가면 어린이들이 손을 맞잡은 모습의 카드 섹션으로 변하는 공연을 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매스게임이었을 겁니다. 얼마나 되려나, 5만 명쯤 됐을걸요?

마돈나 또한 수년간 같이 일한 또 한 명의 훌륭하고 창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12년, 13년쯤 될 겁니다. 저는 펩시 광고에서 일을 했어요. 역사적인 작품이었지요. 3분 30초짜리 광고였는데, 당시 광고로서는 가장 긴 광고였습니다. 그 안무를 요청받아서 그녀를 만나게 됐는데 제가 도착했을 때 그녀가 안무를 전혀 원치 않아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감독이 데리고 간 거였는데 말이지요. 하지만 저는 결정했지요. “좋아요. 그럼 여기 이 백댄서 아이들과 작업해 볼게요.” 그런 뒤 그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과 일하고 있는데 다들 저를 향해 있다가 천천히 멈추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왜 멈추는 거지?’ 했어요.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할지를 말해 주던 참이었거든요. 돌아보니까 마돈나가 있었습니다. 긴 가운데 복실복실한 토끼 슬리퍼를 신고 머리에는 롤러를 감은 모습으로요. 그녀가 뭐 하냐고 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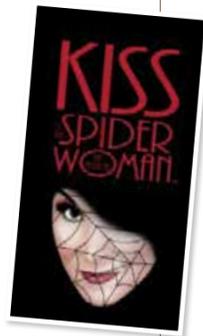
서 저는 말했지요. “걱정 말아요. 당신 안무를 짜는 건 아니에요. 당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그냥 여기서 백댄서 안무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자 그녀가 말했지요. “아니, 맘에 드네요. 옷 갈아입고 올게요. 그것 좀 가르쳐 줘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지요. 우리는 정말 잘 맞았습니다. 그때 일에서 「익스프레스 유어셀프」라는 뮤직비디오의 안무를 하게 됐고, 그 후 그녀는 「블론드 앰비션(Blond Ambition)」 투어의 안

무와 연출을 맡아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껏 마돈나의 공연 전체를 연출하고 안무한 사람은 제가 유일할 겁니다.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공연에서는 대여섯이나 일곱 명의 안무가를 고용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큰 자랑거리다 싶어서 즐겁게 했습니다. 그 후 그녀의 영화 「에비타(Evita)」도 같이 했는데 정말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아카데미 시상식이나 다른 프로젝트도 많이 했지만 알다시피 시간이 좀 지나면 모든 기억이 희미해지게 마련이지요!



태양의 서커스에서 댄스 공연을 만 들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 다. 그래서 몇 년 간 그들과 함께 일했지요. 작품도 만들고 각본도 썼는데, 엘비스 프레슬리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 공연은 8월 말에 종료되었는데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관람했습니다. 공중 곡예사들과 작업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습니다. 전에는 해본 적이 없는 일이었지요. 저는 늘 도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까지 안 해본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요.

뮤지컬 「거미 여인의 키스」를 하고 있던 할 프린스의 전화를 통을 받았습니 다. 테렌세 맥널리(Terrence McNally)가 대본을 쓰고 존 칸더(John Kander)와 프레드 엡(Fred Ebb)이 음악을 맡은 작품이었는데, 저한테 그 안무에 관심이 있냐고 했습니다. 참으로 묘한 요청이었어요. 할 프린스가 전화를 한 그다음 날에는 마이클 잭슨이 전화해서 다음 투어의 연출을 할지 물었거든요. 마이클 잭슨과 브로드웨이 중에서 결정을 해야 했지요. 마이클 잭슨과는 이미 일해 봤고 마돈나와도 일해 본 상태였습니다. 두 번의 콘서트 작품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기도 했고요. 「배드」 투어는 기네스 기록을 세 개나 갈아 치웠습니다. 라이브 콘서트에 참석



한 최대 관중이었고, 웹블리 경기장에서 열린 가장 큰 공연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는지 잊어버렸지만요. 그래서 “콘서트는 두 번 해봤고 브로드웨이는 안 해본 거잖아.” 싶었지요. 이왕 할 거라면 ‘브로드웨이의 왕자’ 할 프린스를 비롯해 존 칸더, 테렌세 맥널리만큼 더 좋은 파트너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 주연을 맡은 치타 리베라(Chita Rivera)와도 일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연출에 관해 얘기하자면, 그 발상이 좋았습니다. 이런 공연에 대한 발상과 그 이면에 담긴 의미가 마음에 들었어요.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때는 거의 풍자극 처럼 보여서 “이건 어렵지 않겠는걸.” 싶었습니다. 이미 노래로 만들어진 시가 있었고 거기에 춤이 곁들여질 거였지요. 그런데 일이 진행되면서 규모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 노래가 접목된 이야기가 됐습니다. 출연진 규모도 갈수록 방대해져서 지금은 오

케스트라와 주요 출연자, 앙상블, 추가로 투입된 2개 무용단까지 합치면 출연자가 거의 1백 명에 육박할 겁니다. 100명이 넘을 것도 같습니다. 첫 대화부터 오늘까지 이 프로젝트는 정말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이 작품을 통해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공연에서는 16개국을 방문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도구를 고안해 냈습니다. 일종의 영적 깨달음을 상징하는 기차를 만들고 있지요. 제3자의 인도 속에 우리는 극중 현실 속에 들어가 두 사람 사이에 전개되는 행위와 드라마를 따라가고, 그들이 논하는 여러 장면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 논의 대상은, 의미가 아주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아름다운 시의 노래로써 적절하게 불리기도 합니다. 울림을 줄 만큼 충분히 심오하며 이제는 모든 게 아름답게 짜여진 것 같습니다.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리허설을 감독하는 빈센트 패터슨.

“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프로젝트는 첫 만남부터 지금까지 모두가 아주 긍정적이고 친절했으며 너무나 열린 마음으로 어떤 삶을 살지에 대한 아름다운 관점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만드는 이 작품에 스며들지 않았다면 정말 놀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작품을 하도록 영감을 주었던 근원, 우리에게 의미 있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보여 드리고자 하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모두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빈센트 패터슨/ 토니상 후보, 감독 겸 안무가

빈센트 패터슨과 사이공 라디오 하이응오아이의 인터뷰



해외 어울락(베트남) 교민 사회에서 호평을 받는 라디오 채널 「사이공 라디오 하이응오아이(Saigon Radio Hải Ngoại)」는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전파를 내보낸다.

사이공 라디오 하이응오아이: 빈센트 패터슨 씨, 오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영광입니다.

빈센트 패터슨: 감사합니다. 우선 몽란(Mong Lan) 씨와 이 인터뷰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멋진데요. 많은 분들이 우리 공연에 관심을 갖고 청취하고 계신다는 게 흥분됩니다.

사이공 라디오 하이응오아이: 시는 칭하이 무상사의 작품인가요?

빈센트 패터슨: 그녀의 아름다운 시에다 미국의 훌륭한 작곡가들이 곡을 붙여 멋진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사이공 라디오 하이응오아이: 패터슨 씨, 이 뮤지컬을 만들기 전에 칭하이 무상사를 알고 계셨나요?

빈센트 패터슨: 아니요, 이번에 처음 그 단체를 접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처음 알았는데 굉장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주창하는 아름다운 일들, 즉 비건 채식과 세계 평화, 지구 온난화의 원인을 찾아 막고자 하는 노력들, 그 모든 게 저도 매우 강력히 동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모두를 위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끼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서 정말 멋집니다. 특히 동물을 위해서요. 저는 동물을 아주 사랑하거든요.

사이공 라디오 하이응오아이: 당신을 모시게 되어 어울락 교민 사회의 영광입니다.

빈센트 패터슨: 어울락 교민 사회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저는 우리와 함께 일하고 있는 호꾸인호영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주 대단하고 다정하더군요.

사이공 라디오 하이응오아이: 빈센트 패터슨 씨, 그레미상 15차례, 오스카상 3차례, 토니상 3차례, 에미상 6차례를 수상한 정상급 예술가들과 공동 작업을 하시는데요. 다들 전 세계 6대륙에서 온 정상급 출연자들이라서 당신도 아주 바쁘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빈센트 패터슨: 확실히 그렇지요. 신나는 점은, 이 멋진 음악을 들어 보면... 그동안에는 녹음된 테이프를 들으면서 작품을 만들어 왔어요. 그러다 지난 이틀간 출연자들이 들어와 라이브로 노래하고 무용수들이 춤을 추었는데, 다들 말했지요. “오, 세상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들을 직접 들으니 소름이 돋고 정말 감격스러워요.” 이 공연은 정말 놀라운 행사가 될 겁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제작 회의.

그것들은 음악의 형태를 띤 아름답고 시적인 기도입니다. 아름다운 감성입니다. 이 시들을 읽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시들을 함께 열기설기 엮어 줄 약간의 서사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좀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에 대한 얘기를 제안했지요. 둘 다 문제를 겪고 있고 어떤 깨달음을 구하고 있다는 설정으로요. 시 대부분이 깨달음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들은 어찌어찌해서 서로 갈등을 겪고 그 갈등의 해소를 통해 마음을 열고 다시 영적인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 프로젝트에 주어진 시간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다들 우리가 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해보자. 우리 모두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들어서 해내 보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3주 동안 22가지 춤과 그 모든 곡을 서로 엮을 장면들을 다 만들어 내야 했습니다.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시간은 아주아주 한정돼 있었지요. 요 전날 첫 제작 회의를 하면서 대본을 읽어 보고 무대 설치, 음향, 의상 같은 것에 대해 말했는데 할당된 시간에 비하면 매머드급의 방대한 제작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에 들어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새로운 에



브라질 장면에서 파비아나 파소니, 루크 이벌과 작업하는 모습.

“극장은 신기한 곳입니다. 좋은 연극에는 늘 영적인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극장을 떠나는 분들이 뭔가를 체험하기를, 내면의 뭔가가, DNA가 약간 바뀌길 바랍니다. 그럼 극장 문을 나서는 여러분은 긍정적인 에너지 입자를 창조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물결 효과를 일으켜 세계 전체에 그 에너지를 전하게 될 것입니다.”

-빈센트 패터슨/ 토니상 후보, 감독 겸 안무가

너지를 얻고 흥분됩니다. 사람들이 신선한 구상을 내놓지요. 조디 와틀리가 노래하고 존 세카다가 노래하며 블랙 우후루가 자메이카 부분을 맡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들 모두 세계 무대에서 엄청난 기량을 발휘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용수들의 경우엔, 정말 기대치 못한 행운이 따랐습니다. 제가 작업했던 태양의 서

“안녕하세요, 빈센트 패터슨입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감독을 맡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비건 채식을 하고 평화를 이룹시다.”

키스 공연이 끝나게 돼서 운 좋게도 미국 내 가장 놀라운 무용수들을 데려올 수 있었거든요. 이제 그들 대다수가 우리와 합류해 이 프로젝트를 할 겁니다. 대부분의 창작 팀은 새로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무대 디자이너와 조명 및 영상 디자이너는 오랫동안 알고 지내며 그 작업 능력을 존경해 왔지만 함께 일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이런 게 창작의 기쁨, 제가 누리는 기쁨의 일부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일하면서 가장 멋진 생각을 짜내고 그걸 다 이어 붙여서 환상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는 거지요. 그게 연출의 재미입니다.

분명 아주 매혹적인 저녁이 될 겁니다. 멋진 음악을 듣고 멋진 춤을 보게 될 겁니다. 훌륭한 공연이 있는 밤이 되리라 봅니다. 재미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아름다운 의상과 멋진 무대도 있고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공연을 보러 올 이유가 되겠지만, 깨달음과 자아 각성에 대한 아름다운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언제 들어도 좋은 것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자신을 일깨울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최고의 시간이었습니다. 모두 사랑합니다. 저를 믿어 주시고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빈센트 패터슨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빈센트 패터슨이 룰라 워싱턴(그의 오른쪽), 조디 와틀리, 브라이언, 루크 이벌, 패티 코헨아워와 인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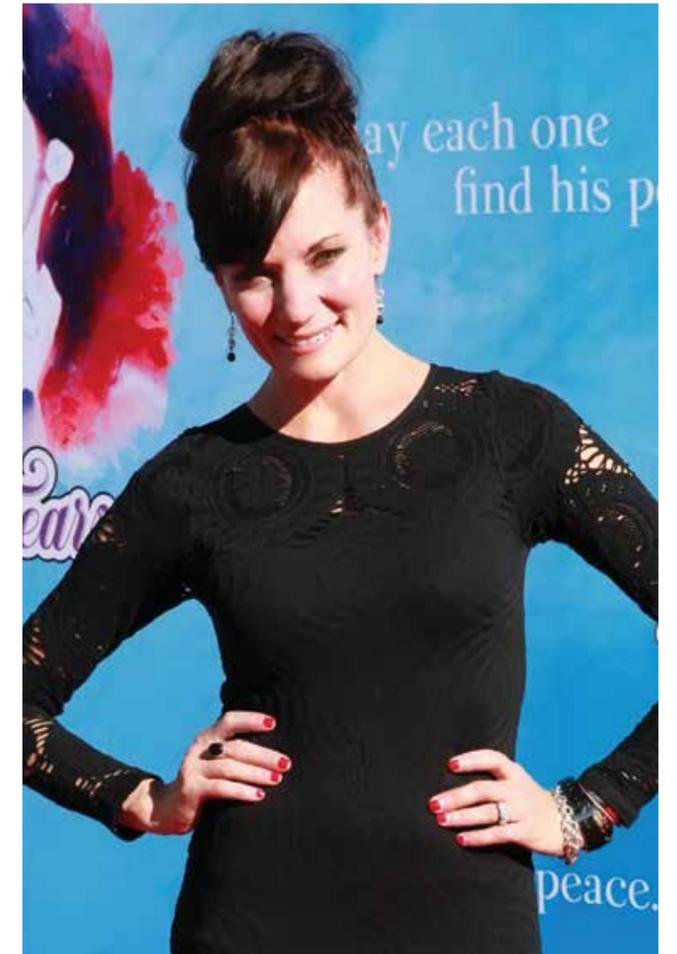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안무가 심층 취재
보니 스토리

“이렇게 긍정적인 일에 동참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긍정적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더 신이 나서 동참하게 된 것 같아요. 이 공연은 긍정적이며 사람들을 고양시키고 더 나아지도록 하는 여행으로 데려갑니다. 그런 점이 정말 놀랍다고 생각해요.”

-보니 스토리/ 에미상 수상. 안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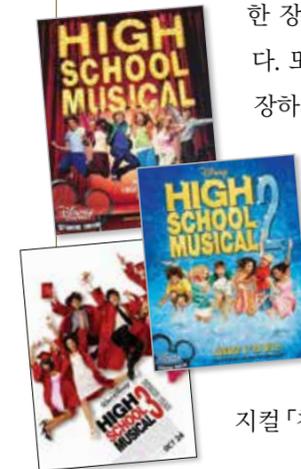
안무가 보니 스토리(Bonnie Story)는 정교한 대형 작품에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녀는 잭 애프린(Zac Efron), 바네사 허진스(Vanessa Hudgens), 애슐리 티스데일(Ashley Tisdale)이 출연한 「하이스쿨 뮤지컬(High School Musical) 1, 2, 3」에 나온 많은 사랑을 받은 춤 장면으로 에미상을 수상했다. 이 메가 히트급 영화들은 전 세계 수억 명이 시청하는 신기록을 세웠고 한 장면에도 2천 명에 달하는 엑스트라가 동원됐다. 또한 스토리 씨는 2002년 동계 올림픽의 웅장하기 그지없는 개막식과 폐막식, 슈가볼(Sugar Bowl)과 오렌지볼(Orange Bowl)의 하프타임 공연, 「태양의 서커스」의 댄스 공연 「비바 엘비스(Viva ELVIS)」에서 안무가로 참여했다.

이 작업들에 이어서 그녀는 화려한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제작에 발을 디뎠



다. 한 무대에서 펼쳐지는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여행을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16개국의 다양한 문화를 대표하는 춤이 요구됐을 때 스토리 씨는 다시 한 번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

보니 스토리가 이 뮤지컬에 합류하게 된 것은 감독이자 그녀의 소중한 멘토인 빈센트 패터슨 때문이었다. 두 사람은 지난 수년



안무가에 대한 생각

“안무는 저의 25년 지기인 놀라운 여성에게 맡길 겁니다. 수년간 제 곁에서 일해 온 그녀는 보니 스토리라는 매우 뛰어난 안무가입니다. 보니가 주로 여기 나오는 아름다운 시들의 안무를 담당할 겁니다.”

-빈센트 패터슨/ 토니상 후보, 감독 겸 안무가

“이 여성은 아일랜드 스텝 댄스를 만들었고 아름다운 프랑스 왈츠에다 이스라엘 민속 무용, 더불어 벨리댄스까지 동시에 안무했어요. 도대체 춤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 걸까요?! 거의 다 안다고 봐야지요!”

-더그 캣사로스/ 에미상 수상, 작곡가 겸 음악 감독

“보니 스토리와 작업은 아주아주 놀랍습니다. 그녀는 정말 일을 빨리 끝내면서도 최대한 스트레스를 안 받게 해줍니다. 어떠한 질문을 해도 다 대답해 주고 어떠한 제안에도 열려 있어요. 정말 여러 사람의 생각을 잘 이용하고 무용수들의 의견을 이용해서 일을 처리합니다. 그래서 정말 즐거워요.”

-데빈 해리스(Devin Harris)
무용수,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앙상블

“저는 보니와 일하는 게 좋아요! 그녀와 마지막으로 작업한 지 꽤 됐는데, 이번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녀는 놀라움 그 자체예요.”

-케이틀린 슈왈베(Kaitlyn Schwalbe)
무용수,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앙상블



「찬양의 노래(한국)」 리허설.

간 (패터슨 씨가 극본과 연출을 맡았던) 태양의 서커스 공연과 다른 프로젝트에서 함께 일해 왔다.

사실 두 사람의 첫 번째 합작품 중 하나는 패터슨 씨가 제작과 안무를 맡고 스토리 씨가 무용수로 참여했던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 「스무드 크리미널(Smooth Criminal)」이었다.

“스무드 크리미널은 제 평생 가장 놀라웠던 경험 중 하나일 거예요.” 스토리 씨는 회상했다. “마이클은 대단했어요! 매우 훌륭했고 빈센트를 깊이 신뢰했지요. 마이클과 함께 작업한 시간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라웠어요. 아주 영광스러웠고, 또한 마이클과 함께 일하는 빈센트를 보면서 이 무대 쪽의 일에 대해 많은 걸 배웠습니다.”

보니 스토리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대한 생각을 얘기해 주었다. “제가 봤을 때 이 작품은 이 모든 아름다운 시들을 통한 여행입니다. 이 시들은 아름답고 보편적인 것 같아요. 특정 유형의 사람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시가 아니에요. 무용수들은 제가 그림을 그리는 물감이고, 빈센트는 방향을 정해 줍니다. 그들은 관객에게 이야기의 생동감을 불어넣습니다.”

“이 들은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는 최고의 무용수들이에요! 그들은 이 일에 매우 들떠 있어요. TV 프로그램 출연을 거절한 이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글리(Glee)」 같은 멋진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지만, 뭔가 색다르고 훌륭한 사람들과 긍정적이고 위대한 이상을 위해 일할 기회에 열광했어요. 그중 한 명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오, 세상에! 다 읽어 봤는데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주 아름다운 공연이 되겠어요!’ 하더군요.”

-보니 스토리/ 에미상 수상, 안무가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브라질)」.

스토리 씨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출연하는 26명의 주요 앙상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의 정상급 무용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비바 엘비스」 공연에서 빈센트와 저와 함께 작업한 무용수들이 많아서 우리는 이 작은 재회에 정말 흥분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볼룸댄스와 관련된 온갖 칸상을 휩쓴 세 명의 볼룸댄서들도 참여해 전체 그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왼쪽: 「모두 사랑하고 모두 용서하기를(쿠바)」.
오른쪽: 리허설에서 앙상블을 지도하는 보니 스토리.

스토리 씨가 안무가로 성공한 것은 상당 부분 천성적으로 어릴 때부터 가족과 이웃들을 소개로 한 이야기를 만들어 내는 것을 좋아하는 데다 유타 대학교에서 발레 공부를 할 장학금을 탄 후 일찌감치 무용수로 경력을 쌓은 것에 기인한다. 「발레 웨스트(Ballet West)」 등의 무용단에서 수석 무용수로 활동하던 그녀는 로스앤젤레스로 무대를 옮기고부터 본격적으로 안무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안무가 입장에서 이전 무용수 시절이 어땠는지, 10시간 리허설을 하는 게 어땠는지를 기억할 때 무용수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포함해 그녀와 함께 일하는 무용수들은 보니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한다. “보니는 정말 밝은 빛이에요.” 무용수이며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앙상블 단원인 아이보리 켄킨스(Ivorie Jenkins)는 말한다. “그녀와 함께 일하면 늘 즐거워요. 그녀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든 행복하게 하고 사기를 북돋워 주거든요.”



왼쪽: 「입문(이탈리아)」 리허설.
오른쪽: 「진리와 애고, 영혼, 축복(중동)」.



「스승과 나 사이(아일랜드)」 리허설과 공연 장면.

스토리 씨의 노련한 안무와 헌신적인 무용 팀을 통해 프랑스와 한국, 자메이카, 브라질, 미국, 호주, 중국, 러시아, 쿠바, 이탈리아, 아일랜드, 이란, 이스라엘, 아랍권, 아프리카, 어울락(베트남)을 대표하는 색채로 가득한 태피스트리가 짜여져 순서대로 펼쳐졌다.

스토리 씨는 세계 전통 무용의 독특한 정수와 아름다움을 이해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관계로 광범위한 연구를 해야 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들 모두가 다 달라 보이게 하고 싶었고 제가 각 나라를 존중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공부했지요. 연구를 많이 한 덕분에 각 나라가 그들 고유의 특별한 스타일을 갖게 된 듯합니다.”

각 곡에 담긴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표현해 내는 일도 스토리 씨의 몫이었다. “[시에 담긴] 심오한 생각들을 외적으로 확실하게 표현해 내야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조금 벅찬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가 정말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한다는 게 큰 영광이었어요.”

이 안무가는 무용수들과 함께 동선을 맞춰야 했던 각국 출연진과 함께 일한 것에 대해서도 소감을 전했다. “그들 모두 대단해요, 세상에! 다양한 나라, 다양한 배경의 다양한 예술가들과 함께 일하다니, 진짜 마음에 드는 경험이에요. 연기 힘든 기회지

요. 언제 이렇게 하겠어요? 이런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레드카펫에서 말했다. “어젯밤 드레스 리허설을 봤는데 굉장히 흐뭇했어요. 각 작품이 표현된 모습을 보니까 정말 흥분됩니다. 각국 의상이 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좋았어요. 시각적으로도 정말 예쁘고 정말 재미있어요!”

공연이 끝난 뒤 안무가는 수프리엄 마스터 텔레비전에 직접 흥분된 감정을 표현했다. “무용수와 배우들, 모두가 정말 훌륭했어요. 다들 아주 집중해 최선을 다했어요!”

보니 스토리는 그녀 자신의 폭넓은 재능과 창작성을 통해 무대에 구현했던 이 시들을 쓴 시인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행하시는 그 많은 놀라운 일들과 인도주의적 업적에 대해 [칭하이 무상사께]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 점에 대해 깊은 존경심을 느낍니다. 협회 전체가 대단한 인도주의 활동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올바른 일들을 권장하고 평화를 고취하며 하나 됨을 촉진합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한 무대에 선 모습을 보고 가슴이 벅차올랐고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술을 통해 우리 느낌을 보여 줍니다. 이건 멋진 일이에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카멜리아 아부-오다

카멜리아 아부-오다(Camellia Abou-Odah)의 데뷔 무대는 8세 때 재학 중이던 학교에서 셸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을 아카펠라 스타일로 공연한 것이었다. 그 후 15세 때는 래퍼 영 조크(Yung Joc)의 오프닝 무대에 서고, 시장의 연례 자선 콘서트에서 노래하는 등 캔자스 시 전역에서 공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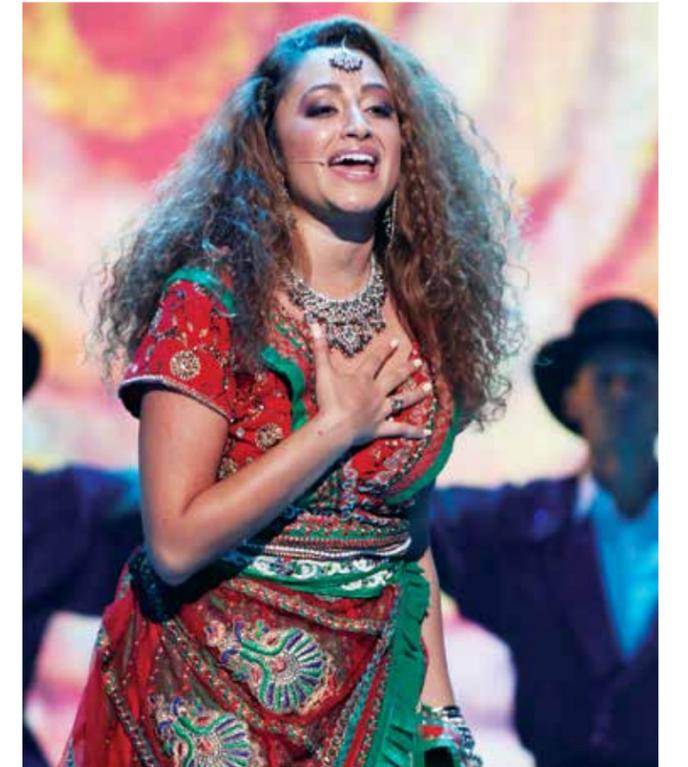
남가주 대학교에 다니기 위해 로스앤젤레스로 이사한 후 래퍼 AMG와 함께 공동으로 작곡하고 녹음한 노래가 HBO의 드라마 「안투라지(Entourage)」에 삽입되었고 2010년에는 중국 상하이 엑스포에서도 공연을 가졌다.

카멜리아는 아랍의 아름다운 창법과 기교를 서양 악기와 여타 요소들에 접목시켜 독특한 스타일의 음악을 창조한다.

「알아랍(AI-Arab)」과 「알와탄(AI Watan)」, 「베이루트 타임스(Beirut Times)」 같은 아랍 신문들은 이 가수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참여한다는 것을 뿌듯해하며 많은 기사를 실었고, KCAL 채널 9의 「베스트 딜 TV 쇼(Best Deals TV Show)」를 포함한 텔레비전 매체와 「할리우드 위클리(Hollywood Weekly)」 잡지에서도 그녀와 인터뷰를 가졌다. 그런 다양한 인터뷰 중 그녀의 성장 배경과 뮤지컬 관련 부분을 발췌해 보았다.

질문: 당신의 독특한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우선 레바논-팔레스타인 뿌리를 가진 제1세대 미국인인데 무슬림 가치들도 믿고 있나요?

카멜리아 아부-오다: 그 가치는 만국 공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하며 자랐어요. 그건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시간이었고 신이라고 여길 수 있는 그 무언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풍부한 아랍 문화를 대표하는 가수 카멜리아 아부-오다.

가에, 어떤 중심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거지요. 그것을 통해 자기 주변의 모든 것과 더욱 강하게 연결되는 겁니다.

질문: 그래미상을 수상한 프로듀서 대니 셈벨로(Danny Sembello)와도 작업을 했던데요. 그는 당신을 “어린 나이에 음악 장르의 경계를 뛰어넘는 예술가는 만나기 쉽지 않다. 그녀의 노래는 날 것인데 유기능이며 가슴에서 우러나온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어

디에서 노래의 영감을 받나요?

카멜리아 아부-오다: 제 방식은 음악을 듣는 거예요. 그 음악한테서 공명이 느껴지면 그것과 관련된 무언가로 인해 쓰지 않을 수 없는 마음이 들고 그럼 머릿속에 멜로디 라인이 그냥 들어옵니다. 주변에서 오는지, 어디서 오는 건지는 정말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옵니다.

질문: 전설적인 가수 스티비 원더(Stevie Wonder)와의 만남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

카멜리아 아부-오다: 「리빙 레전드 어워드(Living Legends Award)」 시상식에서 스티비 원더에게 상을 주는 자리였는데 우리는 그냥 삶에 대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다 그가 저에게 꽃의 심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아주 진실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뭔가가 있다면 제 영혼을 들을 수 있다고요. 정말 감사했지요.

질문: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당신을 만날 수 있는 멋진 기회가 생겼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카멜리아 아부-오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놀라운 축복과도 같았어요. 당시 저는 마침 이 가요계 쪽 일과 관계된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느끼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긍정적인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이지 이 우주는 마법과도 같은 곳이구나 하고 느끼고 있어요.

질문: 아시다시피 노래 가사가 칭하이 무상사가 쓴 「침묵의 눈물」에 나오는 시에 기반하고 있는데요.

카멜리아 아부-오다: 칭하이 무상사는 혁명적인 분이세요. 정말 놀라운 정도로 모두와 연결되어 교감하고 소통하시지요. 수많은 방면에서 아주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요. 사람들에게 동물과 그들의 감정을 생각하게 하고 지구에 대해, 왜 고기를 먹는 것이 지구를 파괴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비건 채식을 장려한다거나 그러시지요. 정말 마음이 아주 관대하세요. 진심으로 제가 배우고 존경할 분이라고 느껴집니다.



음악 감독 더그 캣사로스(피아노 쪽), 동료 출연진 리엘 콜렛, 시아바쉬 샴스와의 리허설.

질문: 에미상 수상자 더그 캣사로스가 작곡해서 당신이 노래하는 시 「진리와 에고, 영혼, 축복(Truth, Ego, Soul and Blessings)」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카멜리아 아부-오다: 이 시에서는 우리가 에고를 벗어 버리면 고통과 평화, 행복, 베품, 무조건적인 사랑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공연하게 될 예술가들과 그들이 대표하는 지역에 아주 딱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질문: 무대에서 이스라엘 가수 리엘 콜렛, 이란 가수 시아바쉬 샴스와 같이 공연하는데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카멜리아 아부-오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들이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들 국가에도 다른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지만, 우리 노래와 뮤지컬 전체에서 큰 주제를 차지하고 있는 이 에고가 앞을 가로막으면 불행히도 우리는 분리돼 있다는 그런 착각, 나와 네가 다르다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우리 모두 똑같은 전체의 일부, 즉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희 셋이 한 곡을 합창하면서 같이 협력하며 이 행사에서 느낄 경험을 극대화할 겁니다.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 가져가서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길 바랍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플로 앙카

플로 앙카(Flo Anka)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합류한 지 2주 후에 작품 리허설에 참여하고자 캘리포니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그녀는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그래미상 수상자 낸 슈워츠가 곡을 붙인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Accept Me the Way I Am)」를 통해 자신의 고국 프랑스를 대표한다.

다재다능한 앙카 씨는 「에디트 피아프 얼라이브(Edith Piaf Alive)」, 「플로인 투 아메리카(Floin' to America)」, 그리고 「러브 이즈 프렌치(Love Is French)」 등의 공연에서 현대적인 창법으로 자작곡과 고전적인 노래를 부르며 갈채를 받았다. 또한 오스카상을 수상한 스타 헬렌 헌트(Helen Hunt)와 저명한 감독 짐 자무쉬(Jim Jarmusch), 조나난 드미(Jonathan Demme)와 같이 일한 배우이기도 하다. 수상 경력을 가진 이 가수는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NPR)과 「포 유어 이어즈 온리(For Your Ears Only)」, 프랑스 공영 텔레비전 방송 프랑스 5(France 5), M6, TV 5 몽드(TV 5 Monde)에 출연했다.

그녀는 로스앤젤레스에 머무는 동안 「프렌치 모닝(French Morning)」과 「굿모닝 90210(Good Morning 90210)」, 「온 에어 워드 토니 스위트(On Air with Tony Sweet)」 등 여러 매체와 인터뷰를 갖고 방송에 출연했다. 「프렌치 모닝」은 이렇게 보도했다. “「타임 아웃(Time Out)」은 그녀를 ‘프랑스의 마돈나’라고 일컬었고, 또 어떤 이들은 새로운 에디트 피아프라고 한다... 고유의 음색과 감성이 풍부한 목소리로 발탁된 플로 앙카는 ‘이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연기력도 뛰어난 플로 앙카는 감독으로 분한 매혹적인 연기로 평단의 호평을 받았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중 솔로 곡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를 침착하고 당당하게 공연하는 프랑스 가수 플로 앙카.

다음 페이지에서는 플로 양카가 예술가로서의 영감과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밝힌 이야기를 실었다.

예술적 열정

저는 다양한 예술 기법을 연구하면서 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창조력을 사람들에게 되돌려 줄 수 있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술이야말로 사람들의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데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다면 저는 그 일부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온 에어 워드 토니 스위트」의 라디오 진행자 토니 스위트(Tony Sweet)와 에디 코너(Eddie Conner)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출연하는 플로 양카, 마크 자니셀로와 멋진 인터뷰를 진행했다.



토니 스위트: 두 분 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출연하시는데요. 좀 전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는데 정말 많은 면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한데 모아 이 뮤지컬을 만들었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드네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마크 같은 경우에도 전 세계를 다니며 많은 공연을 하신 걸로 아는데, 이 작품의 어떤 점에 끌

뮤지컬 배역에 대해

저는 정말 뻗속 깊이 프랑스인이라서 프랑스어로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잘 연결됩니다. 그 점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프랑스 모습을 표현할 수 있는 상태로 이르게 되지요. 가사를 받았을 때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세요」인데요. 누구나 결점과 약점이 있지만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가사에 공감이 갔어요. 작은 풍선을 사람들에게 나눠 주는데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리허설 첫째 날

원래는 프랑스인이지만 뉴욕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로스앤젤레

리셨나요?

마크 자니셀로: 솔직히 말하면 정말 놀랐습니다. 상업 무대에서 기껏해야 수박 겉핥기 식으로가 아니면 어떤 수준으로도 영성을 다루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칭하이 무상사의 시는 우리 모두가 더 높은 힘, 신, 혹은 그 이름이 뭐가 됐든 그분과 연결되고 싶어한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래미상, 오스카상, 토니상, 에미상을 수상한 작곡가들을 기용해 이 시에 곡을 붙였는데, 시 자체가 상당히 아름답습니다.

에디 코너: 그럼 엄청난 에너지가 일어날 것 같은데, 안 그런가요?

플로 양카: 맞아요. 동력이 생겨서 갈수록 웅장하게 되지요.

마크 자니셀로: 화요일에 첫 번째 총 리허설을 봤는데, 춤이 굉장했습니다! 볼룸댄스도 있고 재즈, 힙합까지 나옵니다. 제 노래 부분에서 같이 춤을 추는 무용수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셀린 디온과 계속 공연했던 사람이에요!

에디 코너: 이 작품이 온갖 편견을 완전히 없애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가 타고난 소명의 일을 할 때 지구를 치유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플로 양카: 그럼요. 대본을 읽고 처음 든 생각은 그것이 경계가 없는 세상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서로 쳐다보지도 않았을 나라의 사람들이 한 노래에서 공연하거든요.

마크 자니셀로: 제가 보기엔, 칭하이 무상사의 단체와 그녀를 따르는 사람들이 가진 온전한 목표는 서로 다른 문화들이 함께 일하고 노래하는

스에 와서 아주 좋았어요. 여기는 진짜 따뜻해요. 날씨가 따뜻하면 면도 있지만 이 뮤지컬에 출연하는 사람 모두가 마음이 크게 열려 있었습니다. 어제 도착한 탓에 어떤 게 기다리고 있는지 몰랐는데 모든 게 훌륭했어요. 방금 리허설을 시작한 터라서 제가 저의 바람만큼 잘해 낼 수 있을지 어떨지 기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조금은 꿈 같고 좋아요. 다들 굉장히 순수한 목소리를 갖고 있어요. 진심을 담은 목소리 올림픽처럼 느껴져요. 이런 음악가들과 함께하니 정말 겸손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들 헌신적이고 열심히 참여하는 게 마음에 들어요. 아주 열심히요.



레드카펫 사전 행사에서.

레드카펫에서

영적인 의미가 내포된 행사에 참여하게 돼 기쁩니다. 사람들을 깨우치고 고양시키는 뮤지컬을 한다는 게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 작업이 지닌 가치를 믿기 때문에 그 일부로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진짜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뮤지컬처럼 뮤지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각 나라가 확실하게 표현됩니다. 프랑스 노래가 아주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 작품에 참여해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어서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것을 보여 줌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뭐가 어땠든 간에 이진 모든 예술가의 목표이기도 하지요.

토니 스위트: 그 작업을 여기 미국에서 한다는 게 정말 기쁘군요.

마크 자니셀로: 물론이지요. 이곳은 세계 매체의 중심이니까요. 또한 그들은 정말 이상이 크고 아주 마음이 넓은 것 같습니다. 작품 전체의 내용이 아주 풍성합니다.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겁니다!

플로 양카: 오늘날 연예계는 모두가 하나의 기준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작품의 경우 첫날 모든 가수들과 함께 리허설을 했을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찌나 영혼과 가슴을 담아 소리를 내던지 정말 놀랐어요.

마크 자니셀로: 레계 가수로는 최초로 그래미상을 받은 블랙 우후루도 출연합니다. 레계의 전설이지요. 제가 웅장한 오페라 곡을 리허설하던 중이었는데, 그들이 제가 노래하는 모습이 좋으면서 리허설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 정말 멋지게 부르네요!” 하길래 제가 “오히려 제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판인데요.”라고 했지요. 우리 모두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서로서로 존경하는 모임 같은 분위기입니다. 홍콩[에서 온] 케이[사안기]도 있어요. 엄청난 슈퍼스타인데 저와 플로와 함께 합창을 합니다.

에디 코너: 그런데 원래 그래야 마땅한 법이잖아요. 우리가 타고난 소명의 일을 할 때는 보통 사람들이 감히 꿈도 꾸지 못하는 더 높은 꿈과 목

표, 이상을 지닌 같은 동족을 지구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행성에서 서로를 찾게 되지요. 천사의 도시[로스앤젤레스] 같은 곳에서 서로 만나게 되고 그럼 이 지구의 진동을 바꾸고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 너머, 그 너머로 계속 고양시키게 되지요.

마크 자니셀로: 정말 감명 깊은 얘기라서 좀 놀랐습니다.

토니 스위트: 에디는 초능력자라서 이런 것에 관한 통찰력이 대단하거든요.

에디 코너: 그래서 궁금한데, 여러분이 기립 박수를 받을 때 그 복받치는 감정을 어떻게 참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출연진이 무대에 나와 고개 숙여 인사할 때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관객들도 눈물을 흘릴 텐데요. 정말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설 것 같은데요.

플로 양카: 관객이든 공연자든 그 순간에는 모두가 똑같이 하나가 되지요.

마크 자니셀로: 예, 저는 정말 이 공연이 우주가 저한테, 로스앤젤레스한테, 우리 모두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느껴집니다.

토니 스위트: 이런 공연이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온갖 쇼가 전 미국을 순회할 수 있겠지만 이 뮤지컬은 재능만이 아니라 가슴과 영혼까지 무대에서 펼쳐는 공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볼 때 소름이 돋는 뮤지컬이 흔치는 않습니다.

플로에 대한 생각

“여기 도착한 지 6시간밖에 안 됐는데 곧바로 악보를 받아 스튜디오에 가서 전체적으로 읽어 보고선 프랑스어와 영어로 녹음을 시작하더군요. 본인의 번역을 조금 유지하면서요. 그 노래를 완벽하게 만들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선 여기 와서 바로 춤과 노래, 연기를 하며 노래를 자기 것으로 소화했어요. 정말 완벽한 프로입니다.”

-더그 캣사로스
에미상 수상.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작곡가 겸 음악 감독

“플로, 당신은 내면, 외면이 정말 아름다운 분이예요. 재능도 뛰어나고요. 당신을 바라보고 당신과 같은 작품을 하는 것만으로도 축복입니다.”

-브라이언/ 한국 팝스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출연진



「영원한 놀이」에서 합창하는 플로 양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블랙 우후루

레계의 본고장인 자메이카는 여러 대중음악 장르로 전 세계 문화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섬나라가 낳은 전설적인 레계 그룹 블랙 우후루(Black Uhuru)는 2012년에 웅장한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참여함으로써 그룹 결성 40주년을 기렸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조국을 대표한 블랙 우후루 멤버들은 「홍정을 해봐요(Make a Deal)」를 공연했다. 원조 창립 멤버 데릭 '더키' 심슨(Derrick 'Duckie' Simpson)은 그룹의 이 특별한 참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작년에 했던 공연 「진정한 사랑」을 봐서 몹시 기대가 됩니다. 우리로선 새로운 영역인 셈입니다. 처

음으로 자메이카를 대표하는 일이기도 하고요. 제가 세계에서 자메이카를 대표한 적이 없었거든요. 전에 뮤지컬을 한 적은 없지만 이 내용은 다 ‘하나의 사랑’에 관한 겁니다.”

캐러비안 텔레비전 네트워크 myKEEtv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레드카펫 행사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심슨 씨는 이 공연의 구상에 영감을 준 시를 쓴 시인에 대해 존경심을 표현했다. “저의 모든 존경을 칭하이 무상사께 바칩니다.”

레계의 전설

음악계의 베테랑 블랙 우후루는 1972년 자메이카 킹스턴



그래미상을 수상한 레계의 전설 블랙 우후루가 자메이카 역을 맡아 「홍정을 해봐요」를 공연하다. 왼쪽부터 카에 스타, 데릭 '더키' 심슨, 앤드류 비즈.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뮤지컬 캐스트 앨범 녹음.

(Kingston)의 워터하우스(Waterhouse) 지구에서 우후루(Uhuru, 스와힐리어로 '자유')라는 이름으로 처음 결성됐다. 심슨 씨는 가스 데니스(Garth Dennis)와 돈 카를로스(Don Carlos)와 함께 그룹 활동을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블랙 우후루는 다수의 앨범으로 성공을 거두었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레게 그룹 중 하나로 남아 있다. 그들의 앨범 「레드(Red)」는 영국 앨범 차트에서 28위를 기록했고 『롤링스톤(Rolling Stone)』지의 「1980년대 최고의 앨범 100선」에서도 23위를 차지했다. 또한 「삶이란 무엇인가?(What is Life?)」로는 영국 싱글 차트 1위에 등극하기도 했다. 레게 앨범으로 최초의 그래미상을 수상한 것으로 높은 인정을 받는 블랙 우후루는 그룹 「롤링스톤즈(The Rolling Stones)」의 오프닝 공연을 장식했고, 그룹 「폴리스(The Police)」와도 함께 공연했다.

심슨 씨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1984년에 「엔섬(Anthem)」이라는 앨범으로 그래미상을 수상했어요. 다섯 차례 후보에 올랐고요.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다이아몬드 우수상(Diamond Award of Excellence)」을 받았습니다. 레게 그룹으로 그 상을 받은 건 우리가 유일합니다.”

블랙 우후루의 터키 심슨, 앤드류 비즈(Andrew Bees), 카예 스타(Kaye Starh)는 주로 슬라이 앤 로비(Sly & Robbie)가 함께하는 형

식으로 다른 뛰어난 아티스트들과 함께 세계 투어를 진행했다. 그들은 그룹의 존재를 규정하는 특색 있는 목소리를 발전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영역을 답사하는 데도 몰두하고 있다. 이 점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펼친 공연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뮤지컬

심슨 씨는 뮤지컬을 위해 작곡된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노래하는 이번 경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미있는 게, 제가 그렇게 노래를 시작했거든요. 제 노래가 시였습니다. 노래를 만든 사람[더그 캣사로스]이 아주 잘 만들었더군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스카(ska)와 칼립소(calypso)를 합친 것 같았어요. 전통적인 레게에서 나아가 새로운 경계를 경험하는 게 좋았습니다.”

뮤지컬 CD를 위해 「홍정을 해봐요」를 녹음한 후 카예 스타는 가사에 감동받았다고 말했다. “제 내면으로 들어가게 해줬어요. 녹음하는 동안 느껴진 그 겸손함과 충일함이라니, 정말 영감을 줬어요.” 그녀는 트위터에 글도 올렸다. “노래로 작곡된 칭하이 무상사가 쓴 시에 경외감을 느꼈다.”

앤드류 비즈 역시 말했다. “그 노래는 마음을 열게 해줍니다. 신께로 가는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되지요. 제가 봤을 때 이 노래는



녹음 스튜디오 안에서 음악 감독 더그 캣사로스(왼쪽), 레코딩 엔지니어 앤드류 슈워츠(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함께한 블랙 우후루.

영혼, 불쌍한 영혼을 보호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오랫동안 영적·육체적으로 학대와 방임, 그런 온갖 것들을 겪고 있잖아요. 신이 계시는데 왜 이 모든 야만적인 불이익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하는 거지요. 하지만 이 노래에는 방향성이 있습니다. 희망을 담고 있지요. 인도주의, 인간의 권리를 찾으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리허설 전에 여기 출연하는 모든 스타들 중에 전에 만난 사람이 있는지 물었다. “아니요. 만나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는 스승님을 더 만나 뵙고 싶습니다. 최고의 ‘퍼스트 레이디’를요. 그분의 진동과 에너지를 느끼고 싶습니다. 칭하이 무상사께서 오래오래 사시길 기원합니다.” 심슨 씨의 말이다.

아이탈 생활

자메이카의 오랜 전통인 아이탈(Ital) 생활을 하고 있는 블랙 우후루 멤버들은 비건 채식과 동물에 대한 자비라는 개념에 친숙하다.

“우리 생각과 거의 똑같아서 놀라웠습니다.” 심슨 씨가 설명했다. “우리는 처음으로 아이탈 음식, 즉 소금 없는 음식, 고기 없는 음식을 주창한 첫 번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최고의 식단이지요. 1930년부터 알려 왔는데, 우리 쪽에서는 ‘아이탈(Ital)’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비건 채식’이라고 하고요. 우리에게 이게 공식적인 전통입니다. 그리고 칭하이 무상사가 쓴 시와 하시는 말씀들을 보면... 이 뮤지컬은 자연적인 생활 방식, 자연적인 식생활을 나타냅니다. 그게 가장 좋고 가장 건강한 방식이지요. 그래서 칭하이 무상사께 큰 존경을 보냅니다.”

사랑을 전하다

공연 후 제공된 비건 채식 연회에서 앤드류 비즈는 칭하이 무상사가 동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헌신하는 2개 단체를 포함해 총 3곳의 자선 단체에 미화 30만 달러를 기부하신 것에 대해 소

당 신에게 눈이 있으니
나를 거두러 오시고

당신에게 입이 있으니

제발 나를 불러 주세요.

당신에게 귀도 있는데

어찌하여 내 간청을 듣지 못하시나요?

오, 신이시여! 그 위대한 천국에서 홀로 뭘 하시나요?

정녕 외롭지도 않으신가요?!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감을 전했다. “거기에 동감이 있습니다. 동물을 생각하는 건 영광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전 세계에 학대받는 동물들이 정말 많잖아요. 슬픈 일이지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전히 그 부분을 챙긴다는 게 감동적이었습니다. 무상사님, 동물들이 당신을 자랑스러워합니다.”

레드카펫에서 카예 스타가 말했다. “평화와 화합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칭하이 무상사와 여기 전체 제작진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니 정말 기분 좋습니다.”

심슨 씨도 덧붙였다. “저는 그녀[칭하이 무상사]를 사랑합니다. 정말 가만히 앉아서 그녀를 바라보고만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대의 마더 테레사 같은 분이거든요.”

오직 평화와 화합에 대해 노래하는 블랙 우후루에겐 모두에게 전하고픈 메시지가 있었다. “비건 채식을 하고 평화를 이롭시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리즈 캘러웨이

“여덟 살 때 노래를 할 줄 안다는 걸 알았지만 노래를 부르고 싶지는 않았어요.” 리즈 캘러웨이(Liz Callaway)가 고백했다. “남몰래 노래했어요. 그래서 모두가 집을 비웠을 때만 노래했지요.” 수정같이 맑고 낭랑하게 높이 울려 퍼지는 목소리의 소유자 캘러웨이 씨에게 가수로서의 운명이 펼쳐진 것은 모든 음악 애호가들에겐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날뛰는 마음」을 공연하는 리즈 캘러웨이. 에미상을 수상하고 토니상 후보에 오른 브로드웨이 스타.

4장의 솔로 앨범도 낸 리즈 캘러웨이는 「미녀와 야수(Beauty and the Beast)」, 「알라딘과 도둑의 왕(Aladdin and the King of Thieves)」, 「돌아온 자파(The Return of Jafar)」, 「라이온 킹 2: 심바의 프라이드(Lion King II: Simba's Pride)」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영화의 삽입곡도 불렀는데, 그중 「아나스타샤(Anastasia)」에서 부른 삽입곡 중 하나인 「과거로의 여행(Journey to the Past)」으로 아카데미상 후보에 지명됐다.

2010년에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개국 4주년 기념 콘서트 「평화를 선물하자」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오스카상을 두

차례 수상한 알 카샤가 곡을 붙인 「한밤의 꿈(Dream in the Night)」을 불러 청중들을 매료시키기도 했다. 이후 카샤 씨가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에 영감을 받아 그에 기반한 뮤지컬이 제작되면서 캘러웨이 씨도 이 작품에 참여할 기회가 생겼다. “이 공연을 하게 된 이유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의 특집 프로그램 때 정말 좋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것에서 감명을 받았지요. 이건 아주 엄청난 작품이에요. 내로라하는 실력자들 모두가 공동체 정신과 이 메시지 때문에 함께 모인 거예요. 그들의 재능도 대단하긴 하지만 그보다는 모두가 아주 특별한 영혼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할 줄 알아서 참여한 게 아니라 그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의 영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컬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이건 내면의 평화를 찾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을 읽어 봤는데 중년 부인과 젊은이가 기차에 탑승해요. 둘 다 길을 잃은 영혼이지요. 그들이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그러고 있지 않나 싶어요. 최대한 좋은 사람이 되고 내면의 평화와 깨달음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지요.”

뮤지컬이 끝난 후에는 지구 반대편(호주) 투어 일정이 잡혀 있는 캘러웨이 씨에겐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호주 역을 맡을 게 뜻밖의 재미였을 듯하다. “저는 호주를 사랑합니다. 사실 1월에 갈 예정이었지요. 그리고 보면 이 역을 맡을 거였나 봐요.” 그녀는 회상했다. “3년 전에도 갔었는데, 멜버른에 사는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가사를 보낸 다음에 ‘나 좀 도와주겠어? 이 가사를 너네 억양으로 말해 줄래?’ 했지요.”

캘러웨이 씨의 솔로 곡 제목은 「날뛰는 마음(Monkey Mind)」이다. 무대 장치와 의상, 무용수들을 활용하는 기법으로 관객들을 또 다른 대륙으로 이동시킨 가운데 그 곡에 대한 해석을 표현해 낸 그녀는 공연에 앞서 말했다. “이 노래는 평화에 도달하고 평화로워지고자 애쓰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시도 아름답고 음악도

훌륭하고 재미도 있어요. 무용수들이 제 뒤에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춤을 추고, 노래에는 디제리두도 들어갑니다. 저는 오지의 장면을 연출할 건데 [의상이] 아주 호주답지만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하는 공연이니만큼 약간 화려했습니다.”

이 공연 덕분에 아카데미상과 2차례의 그래미상을 수상한 작곡가 데이비드 샤이어와 음악적으로 다시 조우할 기회를 가진 캘러웨이 씨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샤이어 씨가 정말 호주의 정취를 잘 포착했다고 생각해요. 음악이 아주 유쾌하고 마음을 고양시키고 신나거든요.”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대한 소감도 덧붙였다. “글을 써 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글을 쓰시는 분들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시가 무척 아름다워요. 모든 내용이 깨우침을 줍니다. 특히 더 나은 사람,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인류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전 세계로 여행을 많이 다니지만 문화와 경험이 제각기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 같이 음악에 대한 사랑과 이 작품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근사했습니다. 아주 특별했어요.”

캘러웨이 씨의 특별하고 감동을 주며 잊히지 않는 노래 재능은 더 높은 힘을 갈망하는 인류의 마음을 한껏 담아냈다.

당 신은 천국과 지상을 움직이고 악마도 사랑의 천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가장 위대한 마술사님

어찌하여

이 날뛰는 마음은 바꾸지 않으셨나요?!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스티븐 손드하임(Stephen Sondheim)의 「아름다운 시절(Merrily We Roll Along)」로 브로드웨이에 데뷔한 뒤 「베이비(Baby)」에서의 연기로 토니상 후보에 지명된 캘러웨이 씨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이 경험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멋진 배역에다 음악도 아주 훌륭했어요. 사실 그 곡은 제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부르는 곡을 쓴 데이비드 샤이어의 곡이었답니다. 그분을 존경하는 저로서는 그분의 곡을 부르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훌륭한 작곡가세요.”

그녀는 5년간 「캣츠(Cats)」에서 그리자벨라(Grizabella) 역으로 주연을 맡았고, 「미스 사이공(Miss Saigon)」, 「삼총사」, 「룩 오브 러브(The Look of Love)」의 원년 캐스트로 공연했다. 또한 보스턴 CBS의 생방송 어린이 프로그램 「레디 투 고(Ready to Go)」를 진행해서 에미상도 수상했다. 콘서트와 가수로 뛰어난 이력을 쌓은 캘러웨이 씨는 버트 바카락(Burt Bacharach), 디온 워윅(Dionne Warwick), 스티비 원더 같은 대스타들과도 작업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주니어 케이스

무대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한결같이 유쾌한 재주 많은 예술가 주니어 케이스(Junior Case), 정식 이름으로 가렛 유진 케이스 주니어(Garrett Eugene Case, Jr.)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열차 차장 역을 연기했다.

아홉 형제자매 중 가운데였던 그는 5학년 학교 연극에서 용의 왼쪽 발을 연기하면서 배우 생활을 시작했다. 주니어는 아이다호의 브리검영 대학교(Brigham Young University-Idaho)에서 연극과 경영학을 공부한 뒤 프로보 브리검영 대학교(BYU-Provo)에서 계속 연극과 영화를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그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연극의 힘을 깨닫게 된 중요한 순간에 대해 밝혔다. “고등학교 때 「셰난도아(Shenandoah)」라는 공연에서였어요. 정말 감정 소모가 심한 장면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붙잡아 구하려는 거였습니다. 평생 무대에서 너무나도 실제 같은 감정을 느낀 몇 안 되는 순간 중 하나였지요.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강력한 공부, 사랑의 공부를 시켜 주었습니다.”

주니어가 출연한 영화로는 MGM사의 「금발이 너무해 2(Legally Blonde 2)」를 비롯해 「미시(Missy)」, 「테이크 어 찬스(Take a Chance)」 등의 독립 영화가 있다. 연극에서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의 「블루스 브라더스 쇼(The Blues Brothers Show)」의 제이크 블루스(Jake Blues) 역, 토니상을 수상한 마이클 루퍼트(Michael Rupert)와 공연한 선댄스 재단(Sundance Institute)의 「지붕 위의 바이올린」, 그리고 미국 작가 존 스타인벡(John Steinbeck)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생쥐와 인간(Of Mice and Men)」의 레니(Lennie) 역 등으로 크레디트를 장식했다. 또한 1999년부터 2008년까지는 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수더분한 열차 차장을 맡은 배우 주니어 케이스.

디sey 무용 극단(Odyssey Dance Theatre)과 함께 초대 아티스트로 전 세계 투어 공연을 했고, 2009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네바다 라스베이거스에서 태양의 서커스와 함께 「비바 엘비스(Viva ELVIS)」를 공연하며 비중 있는 내레이터 겸 엘비스의 매니저 톰 파커(Tom Parker) 대령 역을 연기했다.

주니어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로 「비바 엘비스」의 뛰어난 감독과 안무가였던 빈센트 패터슨, 보니 스토리와 다시 뭉치게 되었다. “빈센트는 감독으로서 정말 제 인생을 바꿔 놓았습니다. 사랑의 관점에서 연극 작업을 하는 사람이라서 같이 일하면 정말 그 힘이 느껴집니다. 보니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제가 지닌 잠재력을 알아주고,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있어서 제 이력에 정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주니어는 뮤지컬에서 맡은 배역의 상징적인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우리를 이 여정에 오르게 해주고 여정 내내 우리를 이끌고 나가며 인생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인도합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인간이 되도록 나아가게 해주는 그런 것들을 찾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뮤지컬은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영감을 받은 노래들을 통해 영성이 가득 담긴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를] 계속 읽어 보니까 사색적인 내용이 아주 풍부해서 삶에 대해, 그리고 저의 사고방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만들더군요. 우리 모두 영적인 존재들이잖아요. 누구에게나 우주와 우리 주변의 것들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그것과 어울려 살아가는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들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열릴 것 같습니다. 삶과 우리 주변의 것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고 명상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평온함을 우리 삶에 구현하게 될 겁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의 강연을 좀 볼 수 있었는데, 그분의 정신은 이 세상에 정말 큰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하는 내용과 그 표현 방식이 그대로 제게 와 닿았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행사를 경축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레드카펫에서 아내 나츠에와 출연 동료 파비아나 파소니, 루크 이별과 함께.



빈센트 패터슨과 함께한 리허설에서.

뮤지컬 수록곡 중에는 토니상을 수상한 돈 피핀이 작곡하고 이탈리아 테너 마크 자니셀로가 부르는 「입문(Initiation)」이라는 노래가 있다. 이 장면에서 한 무용수가 마리오네트를 묘사하며 춤을 추다가 노래가 끝날 즈음이면 묶여 있던 줄에서 벗어난다. 이 부분은 입문을 하는 환희의 순간 윤희의 고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상징한다. 공연이 끝난 후 비건 채식 연회에 사랑스런 아내 나츠에와 함께 참석한 주니어는 그 노래에 대한 감상을 얘기했다. “마리오네트가 나오는 이탈리아 곡에서 우리를 묶어 놓고 있는 끈이 풀리잖아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는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묶어 두는 소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놓아 버릴 수 있다면 우린 거기에 이르겠지요.”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열차 차장이 두 주인공의 여정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 ‘만물의 위대한 차장’의 안내를 받아 우리 가슴이 원하는 것을 따를 수 있기를 기원한다.

내면의 스승:
영원한 생명의 상징!

우주 모든 존재 가운데 가장 힘 있고 자애로운 분.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패티 코헨아워

토니상 후보 여배우이자 가수인 패티 코헨아워(Patti Cohenour)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주인공 조이 역을 가슴 절절하게 소화해 냈다. 깊은 감동을 주는 조이의 여정 속으로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그녀의 연기력은 아주 수월해 보이지만 사실 그 훌륭한 재능 뒤에는 엄청난 경험과 연륜이 숨어 있다.

명실상부한 이 베테랑 연극 배우는 링컨 센터(Lincoln Center)의 뮤지컬 「광장의 빛(The Light in the Piazza)」에서 연기한 시그노라 나카렐리(Signora Naccarelli)와 마가렛 존슨(Margaret Johnson) 역, 클라렌스 더웬트 상(Clarance Derwent Award)을 수상하고 토니상과 드라마 데스크 상(Drama Desk) 후보에도 오른 「에드윈 드루드의 비밀(The Mystery of Edwin Drood)」의 로사 버드(Rosa Bud) 역 등 브로드웨이의 수많은 배역을 창조하고 공연했다. 「빅 리버(Big River)」의 메리 제인 윌키스(Mary Jane Wilkes) 역으로 시어터 월드 상(Theatre World Award)을 수상하고 드라마 데스크 상 후보에도 지명됐다.

패티 코헨아워가 맡은 많은 주목할 만한 배역 중 하나는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뮤지컬인 「오페라의 유령(The Phantom of the Opera, 브로드웨이의 최장수 뮤지컬)」의 크리스틴 다에(Christine Daaé) 역이었다. 그 후 이 뮤지컬의 캐나다 전국 순회공연을 했던 그녀는 회상했다. “마침내 10달 후에 앤드류[로이드 웨버 경]를 위해 노래하게 됐어요. 기억나는 것은, 오디션을 마친 후 당시 머물던 친구네 아파트로 돌아갔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오페라의 유령」에는 작은 원숭이 오르골이 나오는데 누군가가, 지금까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조이 역을 연기한 토니상 후보, 브로드웨이의 다정한 스타 패티 코헨아워.

지도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오르골]을 틀어 놓았어요. 그런 뒤 전화가 끊겼지요. 5분쯤 뒤에 제 매니저가 전화를 했어요. ‘배역을 따냈어. 다들 흥분해서 난리가 났어.’”

코헨아워 씨는 「사운드 오브 뮤직」 재공연에서 수녀원장을 연기하는 영예를 안았고, 시카고 두루어리 레인 극장(Drury Lane Theatre)에서 같은 역을 연기해 2012년 제프 상(Jeff Award) 후보에 올랐다. 롭 피셔(Rob Fisher), 피터 네로(Peter Nero), 폴 제미니니(Paul Gemignani), 마빈 햄리쉬(Marvin Hamlisch), 존 댄크워스(John Dankworth) 같은 전문가들이 그녀의 콘서트에서 지휘를 맡았다. 그녀는 미국의 디트로이트 심포니와 라트비아의 리에파야 심포니(Liepaja Symphony)와 함께 이만츠 칼닌스(Imants Kalnins)

의 「록 교향곡 4번(Rock Symphony No. 4)」을 세계 최초로 공연하는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실 틈 없이 작품 활동을 하는 이 예술가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리허설 기간 중에도 자신이 공동 집필한 새 뮤지컬 「당신을 기다릴게요(I Will Wait For You)」의 워크숍 공연 연출을 준비했다. 음악에 대한 얘기가 나오자 그녀는 말했다. “저는 오리지널 작품을 좋아해요. 옛날 음악도 다 좋아하지만 새로운 창작곡을 받을 때가 가장 흥분됩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음악 같은 것이요. 아주 특별한 음악이었고 매우 감동적이었어요.”

코헨아워 씨가 연예 블로그 리처드 스킵퍼 셀러브레이츠(Richard Skipper Celebrates)와 가진 인터뷰에서 말한 것처럼 그녀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맡은 역할은 뮤지컬 수록곡 전곡의 가사인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모두 연결하는 것이었다. 이는 오래 전에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뒤 신에 대한 믿음도 잃고 냉담해진 나이 든 여성 조이를 연기하는 그녀를 통해 완성되었다. 이제는 과거의 일기장에 집착하는 조이는 운명적인 기차에 탑승하게 되고, 지혜로운 열차 차장(주니어 케이스 분)과 그녀와는 도무지 맞지 않는 피트라는 청년(루크 이벌 분)이 함께 동승한다. 코헨아워는 이에 대해 설명했다. “그래서 이 기차는 전 세계를 돌게 되고 우리는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깊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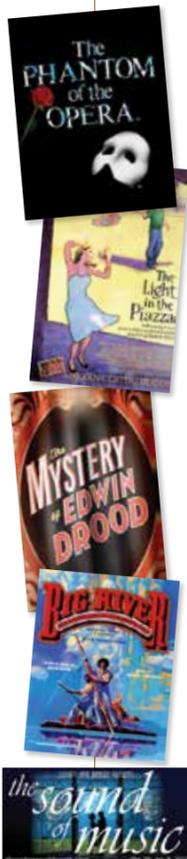
코헨아워의 감동적인 「깨달음」 공연 마지막 모습.

“저는 패티 코헨아워, 이 어머니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훌륭한 목소리를 지녔고 인품도 훌륭합니다. 인정과 매력이 있고 개성도 있지요. 백명과 한 무대에 서서 무대를 장악하기란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녀는 해냈어요. 놀랍습니다!”

-캐리 브라운(Cary Brown)/ 에미상 3회 수상, 영화 제작자, 비건 채식주의자

향으로 인해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깨달음을 찾아가는지 지켜 보면서 우리 내면의 깨달음을 찾는 겁니다. 상당히 특별하지요.”

많은 우여곡절을 겪는 신나는 여정 끝에 조이는 내적인 저항을 벗어 버리고 절망에서 빠져나와 신성과 다시 연결된다. 그때 그녀는 비건 채식주의자 어울락(베트남) 팝스타 호꾸인호영과 함께 그레미상 2차레 수상자이며 아카데미상 후보인 헨리 크리거가 작곡한 노래 「깨달음(Enlightenment)」을 노래한다. 패티 코헨아워는 듀엣 파트너 호꾸인호영에 대해 호감을 갖고 얘기했다. “그녀는 천사예요. 안팎으로 아주 아름다워요! 베트남의 일류 스타라고 알고 있어요. 저는 베트남어를 못하지만 우리 둘 사이엔 특별한 이해가 존재해요. 동지애가 있지요. 정말 마술 같아요.”



다들 들어 봤겠지요
 위대한 이들은 연화좌를 하고 앉아
 깨달음을 얻는다고.
 나무 그늘 아래서
 산속에서
 히말라야에서
 혹은 외로운 사막에서
 산속 깊은 동굴에서
 안거에서, 고요한 사원에서
 기타 등등... 기타 등등에서...
 하지만 말해 주자면
 나는 밤에 자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플라스틱 텐트 안에서!
 시끄러운 휴일 유원지 한가운데에서.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시에 대한 감상력이 남달리 예리한 데다 그래미상을 12차례 수상한 토마스 Z. 셰퍼드(Thomas Z. Shepard)가 프로듀싱한 솔로 앨범 「호수 위의 섬으로: 윌리엄 예이츠의 시(To an Isle in the Water: The Poetry of William Butler Yeats)」를 발매하기도 했던 패티 코헨아워는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창작품이에요. 시는 아주 개인적인 표현이고 그녀는 놀라운 시인입니다. 내면의 빛이 확연히 드러나지요. 그녀를 만났으면 즐거웠을 거예요! 분명 그녀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신의 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관객들이] 음악과 시를 즐기고 제가 감동받은 것처럼 그들도 감동받았으면 합니다.”

패티 코헨아워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제작 경험에 대해 회

상했다. “배우로서 이런 기회가 온다면 잡아서 올라타야 합니다. 그러니 저 자신도 마법 같고 신비로운 작은 여행을 하고 있는 셈이지요. 아주 멋졌어요. 특별하고 친절할 사람들도 많이 만났고요.” 그녀는 후에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한 달 내내 비건 채식을 했는데, 비건 채식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말했다.

공연일 레드카펫에서 만난 패티 코헨아워는 멋졌던 연극 여정에 대한 경험을 나눴다. “그리울 거예요... 모두 그리울 거예요. 잊지 못할 경험이고 축복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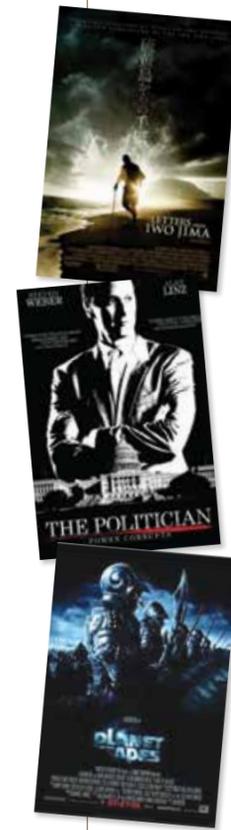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해 자리를 빛낸다.

“주목에서 온 저의 좋은 친구 패티 코헨아워가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가수로 손꼽히며, 마이클 크로포드(Michael Crawford)와 함께 「오페라의 유령」에 출연해 사라 브라이트만(Sarah Brightman)과 교대로 연기를 했고 「에드윈 드루드의 비밀」의 주연으로도 활약했는데, 이번 그녀의 연기는 모두를 매혹시켰습니다. 리허설만 봤는데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마크 자니셀로
 이탈리아 테너.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출연진. 비건 채식주의자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루크 이벌

「주목해야 할 미국 청년 10인」에 선정된 천부적인 재능을 지닌 배우 겸 젊은 영화 감독 루크 이벌(Luke Eberl)은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주인공을 연기했다. 그는 말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피트 역을 맡았습니다. 마초적인 것을 남자다운 것으로 아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는 젊고 순진한 편이고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 이 불완전한 양육 방식에 근간을 둔 것이지요. 그는 조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그녀 또한 인생에서 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평화를 찾아 나서는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Clint Eastwood)의 오스카 수상 영화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Letters from Iwo Jima)」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영화배우 생활을 일찍 시작한 루크는 이어서 팀 버튼의 「혹성 탈출(Planet of the Apes)」에서 눈에 띄는 조연을 연기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말했다.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는 정말 즐거웠어요. 출연한 것이 진짜 자랑스러운 영화예요.” 그는 덧붙여 말했다. “연기하는 모든 배역들, 그리고 영화나 연극 작업을 하는 모든 경험에는 특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사랑하지요.”

루크는 메소드 영화제(Method Fest)에서 「슈가마운틴(Sugar Mountain)」으로 단편 영화 남우 주연상을 받았다. 그의 단편 영화들은 전 세계 영화제에서 상영되었고, 2008년에는 그가 감독한 영화 「추즈 코너(Choose Connor)」가 필라델피아 국제 영화제(Philadelphia International Film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열의에 넘치는 속물적인 피트를 연기한 수상 경력의 배우 루크 이벌.

Festival)에서 최우수 미국 독립 영화 심사위원상(Jury Prize for Best American Independent Film)을 수상했다.

콜로라도에서 자라는 동안 여러 연극 작품에 출연했던 루크는 첫사랑으로 돌아올 기회를 얻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를 통한 무대 공연이 바로 그것이다.

그는 그 경험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가 지금까지 공연했던 가장 큰 극장이었고 확실히 가장 많은 출연진, 가장 경쟁한 출연진과 제작진이었습니다. 빈센트 패터슨은 엄청난 재능의 소유자입니다. 그와 함께 일한 게 정말 좋았습니다. 배우 지도

를 정말 잘하세요. 패티와 주니어 역시 함께 연기하기에 훌륭한 배우들입니다.” 그는 배우, 무용수들과 한 달간 리허설을 하면서 작품이 완성되는 매혹적인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 “공연을 하던 때를 되돌아보면 그 과정이 정말 멋있었고 겹겹이 계속 층이 더해지면서 갈수록 멋있어지던 게 기억납니다. 처음에는 다른 배우들과만 리허설을 했는데 그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그다음에 무용수들이 들어왔는데 놀라울 정도로 수많은 스타일의 춤을 아주 훌륭하게 춰줍니다. 그 뒤로 가수들이 왔는데 그들 역시 정말 대단했지요. 전 세계를 대표하는 다양한 연기와 문화가 있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대해서도 루크는 얘기했다. “정말 시가 좋았습니다. 처음 배역을 맡았을 때만 해도 음악이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몰랐는데, 먼저 시를 읽은 뒤 나중에 총 리허설을 하면서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곡을 붙인 시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보고 재미있었습니다.”

루크는 피트라는 역을 맡아 그 등장인물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동료 출연진과의 리허설.

공연 후 한 관객이 언급했듯이 피트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모든 물질적인 재산을 잃고 인간애로 되돌아가는” 귀중한 교훈을 배웠다.

루크가 피트의 내적 갈등을 뛰어넘어 살려 낸 까닭에 영원한 행복은 외면이 아닌 내면에서 발견된다는 그 중요한 주제가 완벽하게 전달될 수 있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를 합창하는 루크 이벌.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데비 그래비티

AP 통신은 그녀를 “브로드웨이 최고의 목소리 중 하나”라고 칭했고 미국 『버라이어티(Variety)』지는 “자석 같은 존재감”이라고 썼으며 『뉴욕 타임스(The New York Times)』는 “그녀가 있을 곳은 브로드웨이임을 믿어야 한다.”라고 단언했다.

브로드웨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배우로 손꼽히는 토니상 수상자 데비 그래비티(Debbie Gravitte)는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미국 역을 맡아 연기했다.

화려한 이력을 쌓아 가는 동안 뮤지컬 「제롬 로빈스의 브로드웨이(Jerome Robbins' Broadway)」로 토니상 뮤지컬 부문 여우 조연상을 수상하기도 한 그녀는 전 세계에서 100여 곳의 오케스트라와 함께 노래를 했고 조지 번스(George Burns), 제이 레노(Jay Leno), 해리 앤더슨(Harry Anderson) 등과 공연했다.

데비 그래비티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잊지 못할 공연 경험과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다. 이 작품에서 그녀는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을 원작으로 한 가사에 오스카상을 2차례 수상한 작곡가 알 카샤가 곡을 붙인 「당신의 자리 없네(No Place for You)」를 불렀다. 다음은 인터뷰 발췌 내용이다.

질문: 기억에 남는 이전 공동 작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데비 그래비티: 첫 공연을 마빈 햄리시(Marvin Hamlisch)와 했어요. 「제롬 로빈스의 브로드웨이」를 할 때는 레너드 번스타인을 만났지요. 「인어공주(The Little Mermaid)」에서는 목소리 연기를 했고, 알란 멘켄(Alan Menken)과는 친구 사이입니다. 또 「위키드(Wicked)」를 쓴 스티븐 슈워츠(Stephen Schwartz)와는 함께 콘서



토니상 수상자로 브로드웨이에 돌풍을 일으킨 데비 그래비티.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미국으로 출연했다.

트를 하고 제가 그 「중력의 정의(Defying Gravity)」를 처음으로 부르게 됐어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작업은 가장 멋진 경험 중 하나였어요. 전 세계 다양한 그룹의 사람들과 함께 일했거든요. 아주 멋졌어요.

질문: 이 뮤지컬에 대해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데비 그래비티: 연출을 맡은 빈센트 패터슨이 말해 줬어요. 확실히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인데, 그는 우리 모두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있다는 간단한 이상에 대해 말해 줬습니다. 깨달음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그걸 뭐라 부르든 간에요. 뮤지컬의 내

용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건, 전체 경험과 뮤지컬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면서 정말 제가 가진 축복을 소중히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질문: 어떤 역할을 연기하는지 말해 주시겠어요?

데비 그래비티: 저는 미국을 대표합니다. 3억 명을 대표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은 없어요. 제가 그들 대다수와는 달라 보이겠



LA의 라디오 프로그램 「온 에어 워드 토니 스위트(On Air with Tony Sweet)」도 데비 그래비티를 인터뷰했다. 다음은 인터뷰의 일부이다.



토니 스위트: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광고를 볼수록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본 적도 없는데요.

데비 그래비티: 제 마음과 똑같군요. 정말이에요. 리허설 첫날에 갔는데 관련된 모든 것과 사랑에 빠졌어요. 한 방에 세계 각지의 놀랍도록 아름답고 재능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초대형 베트남 스타나 한국 팝스타, 조디 와틀리, 블랙 우후루, 이스라엘, 아랍, 페르시아인 가수 같은 사람들이요. 이걸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그런 심정이었어요.

토니 스위트: 멋지네요!

데비 그래비티: 사람들을 사랑하고 영적인 길도 찾으라는 노래입니다. 정말 모두에게 서로서로 이로운 내용이라는 거지요.

토니 스위트: 예, 앞서 단 하루밤의 공연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런 스타들을 캐스팅해 장기간 뮤지컬을 공연하긴 어려울 것 같군요. 다

지만 괜찮아요. 제가 맡은 '미국'은 뮤지컬에서 흥미로운 노래예요. 행복한 장면의 노래는 아니거든요. 하지만 때로는 어둠이 빛으로 인도하는 법이고 그래서 어둠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른 노래 가사는 하나의 목적의식이 있어요. “세상은 번뇌로 가득한데/ 나만은 당신으로 가득해요!” 저 개인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모두가 ‘당신’을 안다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존 세카다며 조디 와틀리며 늘 세계 투어를 다니는 분들이고 아니면 늘 새로운 작품 활동이나 브로드웨이 공연을 하고 있거나... 1회 공연이라서 압박감이 많으세요?

데비 그래비티: 27일 9시쯤 공연이 다 끝난 후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웃음) 압박감이 커요. 하지만 이 공연을 올리는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조직적이에요. 물론 모든 연극자가 그런 혜택을 받았지요. 누구는 입장하고 누구는 퇴장하고 누구는 옆 통로로 빠지도록 조직해 주지요. 그래서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날지는 정말 잘 몰라요. 대개 리허설에 나와도 자기 일만 하잖아요. 보통은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만 하지요. 그래서 조직적으로 배치해야 할 게 아주 많은데 이 공연의 경우엔 그 많은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았어요... 저는 모두를 보고 놀라서 앉아 있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저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된 느낌이었지요! 첫날 이 모든 다양한 사람들과 한 방에 같이 있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요. 전 세계에 분쟁이 있고 모든 나라가 평등한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면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일부는 음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겁니다.

토니 스위트: 음악은 위대한 연결 고리지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가 로스앤젤레스에서 공연돼서 기쁘네요. 다른 도시에서는 공연된 적이 없는 걸로 아는데요.

데비 그래비티: 예, 이번이 초연이에요. 그러니 처음일 수밖에요.

토니 스위트: 그래서 그들이 로스앤젤레스를 생각해 준 게 기쁩니다. 이곳이 선택돼야 하지요. 여기도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이 이 공연에 함께하니 또 얼마나 바뀌겠어요. 브로드웨이의 최고 스타들을 로스앤젤레스로 모셔 오는 거지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호꾸인호영 (비건 채식인)

칭하이 무상사의 시어와 어울락어(베트남어)의 아름다움을 전하고자 어울락 톱가수 중 한 명인 호꾸인호영(Hồ Quỳnh Hương)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참여해 자국을 대표했다.

“신께서 제게 은총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호꾸인호영은 말했다. “정말이지 웅장한 공연이에요. 여태껏 참가한 공연 중 가장 웅장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예술가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칭하이 무상사의 아름다운 시를 노래하게 돼서 영광이에요.”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을 축하하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초연은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가장 재능 있는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 뮤지컬을 통해 인도주의자이자 영적 지도자, 예술가, 시인인 칭하이 무상사를 기렸다. 지난 수십 년간 칭하이 무상사의 예술성과 전 세계적인 무조건적인 자선 활동은 조국 어울락에 영예를 가져다주었다.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영감을 받은 뮤지컬에 어울락 팝스타가 출연한다는 얘기에 남부 캘리포니아와 미국 다른 지역 내 최대 어울락 매체에서는 뉴스를 보도하는 한편 뮤지컬에 대해 호꾸인호영과 인터뷰를 가졌다. 보도한 매체로는 리틀 사이공 TV(Little Saigon TV), 사이공 엔터테인먼트 TV(Saigon Entertainment TV, SET), 사이공 TV(Saigon TV), 사이공 방송 TV 네트워크(Saigon Broadcasting Television Network, SBTN), 베트남 아메리카 TV(Vietnamese America TV, VNA), 사이공 라디오 하이응오아이(Saigon Radio Hải Ngoại), 『응오어이비엣 데일리 뉴스(Người Việt Daily News)』, 『사이공 타임스(Saigon Times)』, 『비엣바오(Việt Báo)』 등과 해외 매체인 호주의 『선라이즈 데일리 뉴스(Sunrise Daily Newspaper)』도 포함되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깨달음」을 노래하는 어울락(베트남) 팝스타 호꾸인호영.

‘시상식의 여왕’으로 알려진 호꾸인호영은 차트 1위를 차지한 수많은 앨범을 냈고, 「황금살구상(Yellow Apricot Award)」의 최고 인기 대중가수상을 3차례, 「블루 웨이브 상(Blue Waves Award)」의 최고 인기 가수상을 5차례 수상했으며, 국제적인 음악 행사에 어울락 대표로 참가했고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공연했다.

2011년 라이브 공연 「호꾸인호영의 컬러(Colors of Hồ Quỳnh Hương)」 때는 수천 명의 팬이 공연장을 가득 채운 가운데 칭하이 무상사의 동명 시를 가사로 한 「나의 달님(Moon of Mine)」을



콘서트에서 관객의 마음을 휘어잡는 어울락의 팝 디바 호꾸인호영.

불렀다. 대성공을 거둔 이 공연은 영적인 노래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많은 언론 매체의 호평을 받았다.

또한 2012년에는 어울락 가수 지망생을 위한 인기 리얼리티 프로그램 「엑스팩터 베트남(The X Factor Vietnam)」의 심사위원으로 발탁되기도 했다.

호꾸인호영은 일상생활에서 자비로운 비건 채식 생활 방식을 택하고 있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비건 채식을 하고 명상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인생이 거의 완전히 바뀌었어요. 전에는 몰랐던 엄청난 자비심이 제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저는 공헌하고 싶어서 노래하고,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노래합니다. 사회에 이로움을 주는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하고 싶습니다.”



안무가 보니 스토리, 앙상블과 함께한 리허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기라성 같은 출연진의 일원으로 합류하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호꾸인호영은 리허설 중에 서로 나눈 창작 팀의 생각을 전했다. “그들 말로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규모가 지금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커질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에 합류하는 즉시 아주 특별한 것이 일어난 것을 느꼈다고 했어요. 영감이 들어오는 것 같았고 모든 아티스트들이 크게 고양되는 느낌을 받은 거지요. 작곡가와 안무가, 그리고 저 자신을 비롯한 모든 출연진도 끝없는 사랑이 우리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울락(베트남) 언론 매체들이 뮤지컬을 보도하다.

「깨달음(Enlightenment)」은 그래미상 2차례 수상자이며 아카데미상 3차례 후보인 헨리 크리거가 작곡했다. 이 노래를 호꾸인호영은 어울락어로, 뮤지컬 주인공 조이를 연기한 토니상 후보 패티 코헨아위는 영어로 공연했다.

“이 노래는 노래 부르는 사람의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호꾸인호영은 특별히 언급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노래는 우리 영혼에 내재된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영혼 안에 있는 정말 아름답고 고귀한 부분이 깨어나야 한다고요. 이 노래를 부를 때 제 안의 아름답고 고귀한 부분도 가장 강력한 방식으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또한 말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연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에서 말하는 것들, 칭하이 무상사가 세상과 인류, 모든 중생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할 수 있지요.”

그 노래 장면에서 호꾸인호영은 어울락 전통 의상인 우아한 흰색의 아오자이를 입었고 그녀 뒤에는 깨달음을 나타내는 커다란 연꽃이 걸렸다. 뮤지컬에서 공연된 마지막 국가인 관계로 감독은 이 장면을 웅장하게 만들 생각을 했고 이에 따라 거의 모든 앙상블이 북부·중부·남부 어울락 의상을 입고 참여했다.

“무용수들이 베트남 춤을 공연할 때 그렇게 매력적이라곤 생각지 못했어요.” 호꾸인호영은 회상했다. “베트남 사람들의 모든 매력, 베트남 젊은 남녀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전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지요. 베트남 문화의 아름다움이 이번에 뮤지컬 무대에 옮겨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이 뮤지컬에 대한 관객들의 소감이 어떨 것 같은지에 대해 묻자 호꾸인호영은 대답했다. “각자의 마음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째로 그들의 사랑이 깨어날 거예요. 둘째로는 세계 평화에 대해 알게 되고 ‘나는 아름다운 영혼인가? 나는 진정 위대한 존재인가? 그렇다면 찾아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지?’ 할 겁니다. 이러한 의문들을 갖는다면 분명 신께서 알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자아를 찾는 법을 알려 주실 겁니다.”



TV 프로그램 「엑스팩터 베트남」 심사위원석에서.

“이 뮤지컬은 세상의 축소판 같아요. 모든 목소리, 온 세상의 모든 문화가 여기에 모여 있잖아요. 저는 이게 평화의 목소리, 사랑의 목소리로 느껴집니다. 그 사랑은 전에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저는 이 사랑을 위해 공연할 겁니다. 이건 예술이 평화의 목소리이고 예술이 사랑의 목소리인 것과 같습니다.”

-호꾸인호영/ 어울락(베트남) 대중가수, 비건 채식인



「천상의 예술전」에서.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마크 자니셀로 (비건 채식주의)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입문」에서 슈라인 오디토리엄을 가득 채운 테너 마크 자니셀로의 노래.

그 다재다능함으로 큰 인정을 받는 예술가 마크 자니셀로 (Mark Janicello)는 20편이 넘는 뮤지컬과 30편의 오페라, 12편의 연극, 14편의 영화와 100여 편이 넘는 각국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했다. 또한 프랭크 시나트라(Frank Sinatra)와 듀엣 곡을 녹음했고 앤 밴크로프트(Ann Bancroft), 라이자 미넬리(Liza Minnelli), 미셸 파이퍼(Michelle Pfeiffer), 칩 코리아(Chip Corea) 등 영화배우, 음악인들과 같은 무대에 섰다.



「로큰롤의 왕」 엘비스 프레슬리로 분한 마크 자니셀로.

뉴욕의 유명한 카네기홀에서 데뷔한 이래로 세계 각지의 콘서트 홀에서 공연한 그는 1992년에는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엘비스 프레슬리 두 사람의 창법과 공연 스타일을 절묘하게 섞어 3천 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미국 최고의 거리 예술가」란 이름을 차지했고, 이후 「엘비스: 음악 생애(Elvis: A Musical Biography)」에서 주연을 맡았다.

자니셀로 씨의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참여 소식은 주간지 「라이탈로 아메리카노(L'italo-Americano)」와 일간지 「아메리카 오지(America Oggi)」, 라디오 프로그램 「돈 지오바니 쇼(The Don Giovanni Show)」, 「굿모닝 90210(Good Morning 90210)」, 「온 에어 위드 토니 스위트(On Air with Tony Sweet)」, 「밥 린든의 고비건 라디오(Go Vegan Radio with Bob Linden)」, 「친환경 라디오(Environmentally Sound Radio)」, 「팝스탑 TV(PopStop TV)」, 「타임스-뉴스(Times-News)」 등 다양한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됐다. 다음을 통해 이 예술가의 생각을 조금 살피보기로 하자.

모든 표현 형식에 능한 예술가

저는 모든 예술 형태로 소통합니다.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노래하고 춤추며, 미술 갤러리도 2개 갖고 있습니다. 여러 편의 시집과 7편의 뮤지컬도 썼고 29장의 앨범을 녹음했지요. 저는 소통하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이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음악의 힘

음악은 영혼에게 말을 합니다. 음악은 두뇌를 넘고 우리 이해력을 넘어서 가장 기본적인 차원, 세포 차원에서 우리에게, 인류에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음악을 사랑하는 점은 파장이 있다는 겁니다. 소리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파장이 보입니다. 작은 파장일 때도 큰 파장일 때도 있지만 그 파장은 우리를 관통하지요. 엘비스의 노래든 파바로티의 노래든 제가 노래할 때는 곧바로 듣는 사람의 영혼, 가슴, 느낌 속으로 들어갑니다.

건강한 식사

저는 우리 몸에 적합한 재료를 주면 스스로 치유한다고 믿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물성 단백질을 다 끊고 철저한 비건 채식을 하게 됐는데, 제 체중이 크게 줄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을 가족들이 목격했습니다. 물론 동물성 제품을 끊은 기간이 길수록 그에 수반된 업장에 대해서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제 세계 안에 그런 것이 없다는 게 무척 기쁩니다.

첫인상

칭하이 무상사의 노래 가사에 아주아주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글은 인류를 감싸 안습니다. 또한 이 텅없는 인생을 넘어선 그 뭔가를 찾아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중심축을 갖고 있는데 매우 호소력이 있습니다.

어젯밤 늦게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더니 멋진 아파트가 준비돼 있고 그 아파트에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제작진이 준비한 커다란 환영 바구니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환영받는 기분이라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작곡가

제 노래 몇 곡을 프로듀서들한테 보냈는데, 그들이 그 음악을 돈 피핀에게 들려줬습니다. 에미상과 토니상을 수상한 돈 피핀한테 말이지요. 세상에, 그분만이 아니잖아요? 그는 제리 허먼

당 신은 내게 세상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사랑의 참 뜻을 몰랐겠지요. 그러나 남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않겠어요. 나를 미쳤다고 할 테니까! 정말이지 난 당신의 신성한 감로수에 빠져 버렸습니다.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Jerry Herman)과 「메임(Mame)」을 작업했고 「코러스 라인」에도 참여했습니다. 그가 제 음반을 듣고선 칭하이 무상사의 「입문(Initiation)」이라는 시에 곡을 붙였는데 장갑처럼 제 목소리에 딱 맞았습니다.

영감의 근원

아버지와 두 형제는 펜테코스트 파(Pentecostal)의 목사이고 할 아버지도 같은 목사였으며 어머니는 가스펠 가수입니다. 저는 사람의 영적인 본성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집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저 자신도 종교의 자유 문제와 인권 문제에 목숨까지 걸었지요. 칭하이 무상사의 시는 사랑, 평화에 관한 것이고 높은 힘과의 연결을 추구하는 내용이지만, 그것은 또한 각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행동에는 작용과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감상하며.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건 물리학이예요. 우리 개인, 우리 공동체, 혹은 우리 국가, 우리 인류가 기꺼이 자신의 개별 행동에 책임을 진다면, 한 가지 예로 비건 채식을 하고 동물의 고통을 없애거나 한다면 우리 개인, 우리 인류가 더 빠른 평화의 길로 나아가리라 믿습니다.

이탈리아 혈통

조부모님 모두 이탈리아의 바리(Bari), 나폴리(Napoli), 팔레르모(Palermo)에서 태어나셨고 저는 이탈리아어로 노래를 부른 지 30년 됐습니다. 공연할 때 일부는 이탈리아어로 부르는데 저는 이탈리아어를 사랑합니다. 노래 부를 때 가장 아름다운 언어이자 가장 쉬운 언어지요. 그리고 자니셀로(Janicello)라는 제 이름에는 ‘cello’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약기 이름입니다. 제 이름에 들어가 있지요.

연출가와 안무가

이 작품에 참여한 인재들은 그 재능의 깊이와 폭이 비범합니다. 안무가로, 연출가로 도달할 수 있는 최정상에 도달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겁니다. 마이클 잭슨과 17년간 일했다면 그 분야의 최고인 거지요. 빈센트는 친절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입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신사지요. 보니는 아주 사랑스러워요! 그녀는 어린 새처럼 작지만 산 같은 에너지를 품고 있습니다.

제게 있어 이 몸은 문자의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저는 가만히 서서 노래 부르는 가수가 아닙니다. 역할을 연기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저에겐 빈센트와 보니라는 두 명의 훌륭한 안무가가 있습니다. 빈스는 감독으로서 감정을 실어야 할 모든 순간들이 제대로 해석되는지 지켜봅니다. 저는 각각의 모든 순간들을 생동감 있고 인간적이며 가능한 한 진짜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미구엘[‘입문’ 노래를 부를 때 같은 무대에서 공연하는 무용수]과 함께, 조이를 연기하는 패티와 함께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뮤지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노래는 조용한 곡이기 때문에

관객에게 정말 감동을 줄 겁니다. 그 노래를 부를 때는 저 자신도 감동이 됩니다. 제가 그렇다면 관객도 그렇게 느낄 것입니다.

노래

저는 노래를 사랑합니다. 노래가 이야기하는 것을 사랑하지요. 제가 부르는 노래는 ‘입문’이라는 곡인데, 이 뮤지컬의 모든 시들이 그렇듯이 이 노래 역시 평화를 찾는 개인의 탐색을 말합니다. 그 개인은 말하지요. “어떻게 시작할까? 어디서 시작할까? 내 입문은 무엇인가?” 이것은 개인이 신과 하나 되는 과정입니다. 또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어떻게 시작할까?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그런 내용이지요. 이것은 영적인 삶과 세속적 삶을 대비시킵니다. 가사는 매우 강력하면서도 색안경을 쓰고 판단하지 않으며 사람의 보는 눈을 열어 줍니다. “우리가 성공이라고 여기는 것을 보라. 성공을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지?” 하고요.

리허설

공연의 첫 번째 리허설을 봤는데 안무가 진짜 훌륭했습니다. 뛰어난 무용수들에다 뛰어난 안무였어요! 칭하이 무상사의 시와 가사, 음악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그들 모두와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아무리 리허설을 해도 부족했습니다. 그런 열정과 헌신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정말 기쁩니다.

극장에서 리허설이 진행되는 동안은 보통 많은 ‘질풍노도(극적인 사건)’가 일어나게 마련인데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제작자들은 모두가 편하게 느끼도록 아주 애써 봤습니다. 일하러 가는 게 정말 즐거웠어요!

출연진

40년 넘게 이쪽 일을 하면서 그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재주꾼들이 모인 공연이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전문가 출연진과 일하게 돼서 영광이고 흥분됩니다. 평생 멋진 프로젝트를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다양한 분야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뛰어난

실력자들과 함께 뭉쳐 일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조디 와틀리, 존 세카다, 패티 코헨아워, 데비 그래비티, 세상에, 저는 사랑 가게에 간 꼬마 같았습니다. “이것 보세요. 사방에 있는 이게 다 뭐지요! 와!”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멋진 점은 무상사의 시입니다. 그녀의 시는 신, 더 높은 차원의 힘, 우주적인 에너지와의 관계를 찾는 개인, 한 사람에 대해 말합니다. 단지 사랑이나 돈, 명성에 대한 게 아니지요. 일개인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말하고, 신과의 연결, 영적인 깨달음과의 연결을 말합니다. 이 작품의 모든 등장인물들은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신선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우주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이 뮤지컬에서 무상사의 시는 ‘너는 누구인가, 네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너의 인생이 어떠하기를 원하는가, 너의 영원을 위한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 말합니다. 오늘 내 모습이 어떤지, 머리는 단정한지, 치아는 완벽한지, 내 몸이 완벽한지 등 우리 사회에서 갈수록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요.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려고만 급급하지 정작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점 때문에 이 뮤지컬을



마크 자니셀로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부른 노래 가사를 마리오네트 역을 맡아 재연한 무용수 미구엘 페레스.

좋아합니다. [이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아름다운 사람, 더 아름다운 영혼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인상

이 작품은 제게 있어 우주의 보답이었다고 믿습니다. 첫날부터 정말 가득한 사랑과 아낌없는 마음을 경험했거든요. 무대에 선 지 46년 됐지만 이렇게 관대한 마음은 처음 체험했습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를 함께하면서 지금까지 이 작품의 아주 세세한 부분들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말씀은 이 작품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영혼과 가슴, 마음을 분명히 감동시켰습니다.

“이 작품은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으며 특정 교파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건,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 어떤 신을 어떻게 숭배하든 우리 모두 더 나은 삶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뿐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매우 아름답게 표현하는 이 멋진 공연에 참여해서 정말 황홀했습니다.”

-마크 자니셀로

이탈리아 테너. 비건 채식인.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출연진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브라이언

“제가 이런 수준 높은 뮤지컬 작품에 참여하리라곤 상상도 못 했습니다. 음악은 항상 저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능 있는 예술가들과 함께 한 무대에서 공연한다는 건 칭하이 무상사를 직접 뵙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히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한 마음이 들고 오늘 밤 공연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그럼 여행을 한번 떠나 볼까요!”

-브라이언/ 한국 팝스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찬양의 노래」를 공연하는 한국 팝스타 브라이언.

그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로 미국의 뮤지컬에 데뷔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팬들로부터 성원과 흥분에 찬 메시지들이 쏟아졌다.

그의 뮤지컬 참여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파나마 등지와 「올케이팝(All Kpop)」 같은 한국 팝 뉴스 사이트까지 국제적인 매스컴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한국 서울에서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브라이언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사이트에 뮤지컬 제작 과정을 올리고 트위터 팬들에게 도착 사진과 리허설 첫날, 무대 뒷모습 등을 전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MissNomelette의 팬 아트 그림.

그는 수퍼리프 마스터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뮤지컬 리허설 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사실 어느 누가 일하러 가서 ‘아, 일이 즐거웠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내내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 그대로 ‘일하러 가자, 하자!’ 그런 마음이에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미국 뉴저지에서 평범한 아이로 자란 브라이언은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그의 음악적 열정을 알고 있던 친구가 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오디션을 신청하는 바람에 난데없이 오디션 현장에 불러 나간 17세의 브라이언은 놀랐지만 대형 레코드 레이블 SM 엔터테인먼트와 계약하기 위해 밤새 한국으로 날아갔을 때는 정말로 행복했다.

이어서 브라이언은 1999년 가수 환희와 함께 경이적인 한국 팝/R&B 듀오 「플라이 투 더 스카이(Fly to the Sky)」 멤버로 데뷔했다. 그 후 10여 년간 이 그룹은 수많은 상을 수상하고 여러 1위 히트 싱글 곡을 발표하며 엄청난 성공 속에 성장을 거듭했다. 솔로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브라이언은 첫 번째 싱글 「가자마」로 차트 1위에 오르고 그의 앨범 「언베일드(Unveiled)」가 미국과 캐나다, 일본의 아이튠즈 R&B 차트에 상륙하는 등 시작부터 정점을 찍었다.

“이게 아직도 꿈만 같아요. 그런 점 때문에 이쪽 일을 할 때 정말 겸손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내가 늘 꿈꾸어 오던 일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게다가 잘되고 있기까지 하잖아요.”

그는 수년간 전 세계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러시아와 페루, 일본, 아이슬란드 등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의 팬들한테서 이메일을 받습니다. 제 음악이 터키에도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터키에서 나를 안다고?’ 그러면서 와! 하게 되지요. 루마니아, 독일...”



듀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멤버인 브라이언(오른쪽)과 가수 환희.

브라이언은 배우로서는 2011년 한국판 뮤지컬 「렌트(Rent)」에서 주연을 맡았다. 10대 때 오리지널 브로드웨이 작품을 보고 뮤지컬에 반했던 이 스타의 또 다른 꿈이 실현된 것이다. 그는 “이 뮤지컬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존 세카다! 조디 와틀리와,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의 안무가라니. 저는 당장 합류했습니다. 어떤 높은 힘이 드디어 내 기도에 응답을 한 것 같았어요.”



브라이언의 뮤지컬 배역에 대해 보도한 매체 기사.

KpopStarz

브라이언,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공연에서 부드러운 면모를 선보이다

2012년 10월 29일



브라이언의 그간 모습은 줄곧 쿨하고 유머러스하기만 했다. 캘리포니아의 어느 화창한 날, 그는 한결 더 부드럽고 따뜻한 또 다른 면모를 내보였다.

그는 뮤지컬에서 고대의 한국인 같은 모습이지만 현대 인류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 즉 내면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역을 맡았다. 그는 헤더 박과 듀엣으로 부를 때 좀 더 나직한 목소리로 화음을 넣듯이 헤더의 영어 노래를 한국어로 받아 이어 부른다. 두 사람의 노래에서 그들은 마음속 깊은 구석에서 나오는 진심 어린 기도와 찬양을 말하는 하나의 영혼처럼 보인다. 그 노래는 칭하이 무상사가 쓴 시집에서 발췌한 시를 각색한 것이며 뮤지컬은 그녀에게 헌정된 것이다.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브라이언은 좀 더 영적인 자아를 드러낸다.

공연에 앞선 레드카펫 행사에서 브라이언은 당당하게 걸었다. 말쑥한 검은 정장 차림의 그는 특별한 사람, 어머니가 있어서인지 유난히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세계적인 연예계 스타들과 함께 출연하는 이정표적인 행사이만큼 그를 가장 아끼고 사랑해 주는 테이트 상대와 함께하기에 딱 좋은 날이었는데, 브라이언은 어머니를 레드카펫에 모시고 나타나 실망시키지 않았다...



그날 행사에 관한 소감을 전하면서 그는 말했다. “솔직히 그 어느 때보다도 겸손한 마음이 들고 오늘 밤 공연이 어떻게 될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이는 그가 여전히 자신의 비전에 대해 기대하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겸손을 바탕으로 마음속 깊이 부드럽고 자비로운 마음을 지닌 브라이언의 여정이 정말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

기사 출처: <http://www.kpopstarz.com>

이번 여행 동안 브라이언의 일정은 매체와의 인터뷰로 꽉 들어차 있었다. MBC, SBS, TVK24 등 대형 TV 방송국을 비롯해 『할리우드 위클리(Hollywood Weekly)』와 『팝스탑 TV(PopStop TV)』 같은 할리우드 매스컴, 라디오 코리아(Radio Korea), 라디오 K 1230(Radio K 1230), 라디오 서울(Radio Seoul) 등의 라디오 방송국, 미주 『중앙일보』, 미주 『한국일보』, 『주간연예』, 『여성중앙』, 『코레아 저널(KoreAm Journal)』, 일본의 『KEJ 매거진』 등의 인쇄 매체까지 모두 브라이언과 그의 뮤지컬 배역에 대해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가수 브라이언과 한국계 미국 가수 헤더 박이 오스카, 그래미, 토니, 에미상을 모두 휩쓴 스타 군단이 참여, 미국에서 제작하는 뮤지컬 타이틀 룰을 맡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라디오 코리아가 이번 공연에서 특별히 어떤 점을 기대하고 보면 좋은지 묻자 브라이언은 관객들이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바탕으로 한 노래 가사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답하면서 물론 그와 헤더가 등장하는 장면도 기대해야 한다고 농담 삼아 덧붙였다.

공연 당일 브라이언의 팬들이 그를 응원하고자 뉴욕과 일본, 한국 등 멀리서 날아왔고 그가 레드카펫을 걸을 때 그의 이름을 외쳤다. 그의 어머니는 특별 손님으로 아들의 뮤지컬을 보기 위



동료 출연자 헤더 박, 음악 감독 더그 카사로스과 함께한 리허설.

해 뉴저지에서 날아왔다.

브라이언과 헤더 박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듀엣으로 공연한 곡은 「찬양의 노래(Singing Praise)」로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의 시를 가사로 만들고 오스카상과 2차례의 그레미상을 수상한 데이비드 샤이어가 곡을 붙였다.

브라이언은 온라인 잡지 『아시아 태평양 예술(Asia Pacific Arts)』과 가진 인터뷰에서 공연에 대해 얘기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음악은 사실 칭하이 스승님의 시인데, 아직도 저 밖에는 희망과 믿음, 평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노래입니다. 같은 곡을 저는 한국어로 노래하고 헤더 박은 영어로 부릅니다. 지연 효과를 내는 셈이지요. 헤더가 노래를 부르면, 말 그대로 그녀의 노래 부분이 끝나는 대로 제가 곧바로 받아서 한국어로 이어 부릅니다. 한 사람인 듯 함께 신을 찬양하는 겁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브라이언은 영성에 집중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영풍한 곳에서 찾으려 합니다. 어렸을 때는 저도 그랬어요. 평화는 올바른 교육, 제대로 된 학교에 있다고 생각했지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평화가 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화란 인기나 카메라 조명, 화려함과 무관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건 자신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실 여기(내면)에 있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간 이 스타는 자신의 인기 라디오 프로그램 TBS 영어 FM의 「드라이브인(The Drive-In)」에서 이 경험에 대해 나눴다.

“이 뮤지컬에서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어요. 굉장한 분들과, 그것도 제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자랐던 예술가들과 같이 일하게 돼서 정말 재미가 가득했던 밤이었어요. 이 모든 유명한

스승은 가장 자애로우신 분.
오, 친구들이여, 그분의 한없는 은총
영원토록 말해도 부족하기만 하다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겸허히 눈물만 흘릴 뿐!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분들을 만나고 또 그들과 친구가 된다는 사실에 저절로 황홀해졌습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사실 이 공연은 그 아름다운 시집을 쓴 칭하이 무상사의 19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였습니다. 뮤지컬에서 제가 부른 노래를 찾아보세요. 이걸 헤더 박이 부른 「찬양의 노래」입니다. (CD를 들고 한국어로 따라 부르며) 예! 이 뮤지컬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라이브로 한국어 가사를 조금 넣어서 불러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둘이서 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공연을 보러 와 주신 분들께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멋진 뮤지컬이었고 멋진 경험이었습니다.”



무대 뒤에서 동료 출연진들과 함께.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리엘 콜렛

열 두 살에 유럽의 탤런트 대회에서 상을 수상한 이후로 이스라엘 가수 리엘 콜렛(Liel Kolet)의 음악 활동은 쇄도하는 세계 각지의 공연 요청 속에 승승장구했다.

리엘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레드카펫 행사에서 『할리우드 위클리(Hollywood Weekly)』와 인터뷰를 가졌다. “오늘 이 아름다운 뮤지컬에 참여해 이란, 레바논 가수들과 한 무대에서 공연하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흥분됩니다. 제게는 정말 강렬한 순간이에요. 그들과 같은 무대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건 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공연의 빈센트 패터슨 감독도 리엘이 부르는 노래 「진리와 에고, 영혼, 축복(Truth, Ego, Soul and Blessings)」에 대해 “중동권의 이란, 레바논, 이스라엘 대표가 처음으로 한 무대에 서는 거라서 역사적 의미가 깊은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북부 키부츠에서 나고 자란 23세의 가수, 평화주의자가 이번 공연에 참여한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자면 그녀의 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리엘은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인터뷰를 가진 자리에서 설명했다. “저는 어렸을 때 전쟁을 겪었고 아이들이 고통 받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몇 번이나 가족과 여동생, 오빠와 함께 대피소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14세 때,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이스라엘 대통령인 시몬 페레스(Shimon Peres)의 80세 생일 축하 공연 도중 리엘은 즉흥적으로 특별한 초대 손님을 무대로 청해 40명의 아랍 어린이와 40명의 유대인 어린이로 구성된 합창단과 함께 존 레논의 유명한 평화의 노래 「이미진(Imagine)」을 불렀다. 그녀는 이 잊지 못할 경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고국 이스라엘을 대표한 수상 경력의 가수 리엘 콜렛.

험에 대해 얘기했다. “제가 빌 클린턴 대통령에게 무대에 올라와 달라고 부탁하자 다들 ‘무슨 짓이야?’ 그런 태도였어요. 모두 깜짝 놀랐지요. 하지만 그가 무대 위로 올라와 저와 함께 「이미진」을 불렀기 때문에 강력한 공연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의 도움으로 저의 평화의 메시지가 더 강력해졌고, 그 덕분에 저의 음악 활동도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리엘은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헌신한 공로로 독일의 저명



미국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비건 채식인)과 함께 평화를 노래하며.

한 「라디오 상(Radio Award)」을 받았다. 이 밖에 허비 행콕(Herbie Hancock), 훌리오 이글레시아스(Julio Iglesias), 패티 라벨(Patti LaBelle), 스콜피온스(Scorpions), 안드레아 보첼리(Andrea Bocelli) 같은 세계적인 전설들과도 평화의 노래를 녹음했다. “안드레아 보첼리와는 녹음 작업을 하고 공연도 했어요. 「희망의 서광(Ray of Hope)」이라는 노래였는데,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이 가사를 썼어요. 제가 작곡을 해서 영광이었어요.” 리엘은 그래미상 다관왕인 프로듀서 움베르토 가티카(Humberto Gatica)와 함께 「희망의 서광」 앨범을 녹음한 지 얼마 안 되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공연에 합류했다.

KCAL 채널 9의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TV(California Adventure TV)」에 출연 당시 그녀는 말했다. “음악은 전 지구적인 언어입니다. 어디에 사는 사람이든, 어디 출신이든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저는 이 뮤지컬이 그 모든 것을 다 갖췄다고 봅니다.”

그녀는 그 이야기에 덧붙였다. “칭하이 무상사는 정말 특별하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읽어봤는데 정말 마음을 깨우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 너무나도 아름다운 포용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그냥 세계 평화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 마음의 평화를 얘기하지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그분의 아름다

운 시를 노래하게 돼서 정말 머리가 숙여지고 영광스럽습니다.”

뮤지컬 초연 후 히브리어 월간지 『우리는 미국에 있다(We Are in America)』는 이 이스라엘 가수를 표지에 실고 2페이지에 걸쳐 그 인터뷰를 보도했다. 내지 기사에 들어간 큰 사진은 리엘이 공연 전에 슈라인 오디토리엄 레드카펫에 선 모습이였다.

이 뮤지컬에서 찾은 사랑과 조화의 메시지가 세계 평화의 아름다운 악기인 리엘의 천사 같은 목소리를 통해 계속해서 전해지기를 바란다.

당신이 바다에 눈길 한번 주시면
오, 장엄하신 임이여,
물고기들은 모두 용이 되어
구름 위로 날아오를 겁니다.
그럼 축복의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
인간의 복과 공덕의 들판을 기쁨지게 할 테지요.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함께 출연한 아랍 가수 카멜리아 아부-오다와 함께.



공연 후 이어진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비건 채식 연회에서 유대계 매체 「LA의 새로운 소식(What's New LA)」은 리엘 콜렛과의 인터뷰에서 뮤지컬에 얽힌 경험에 대해 물었다. 다음은 그 일부이다.

인터뷰어: 오늘 저녁 어떠셨어요?

리엘 콜렛: 정말 좋았어요. 방금 이 성대한 행사에서 공연했는데 멋진 시간이었어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라는 초대형 공연이었고, 우리는 칭하이 무상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녀가 쓴 그 아름다운 시들은 전부 평화를 말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인터뷰어: 참, 드레스가 참 마음에 들었어요. 흰색과 파란색으로 된 거요.

리엘 콜렛: 그건 이스라엘 국기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입을 수 있었던 게 아주 아주 자랑스러워요.



인터뷰어: 하룻밤만 공연하는 건가요?

리엘 콜렛: 이 모든 전 세계 위대한 스타들이 한데 모인 거라서 정말 특별했어요. 각자가 각국을 대표했는데 16개국이었어요. 유례없는 일이었을 거예요. 칭하이 무상사를 기리는 단 한 번의 공연이었어요.

인터뷰어: 목소리가 아주 근사하네요. 새로운 앨범이 궁금한데요.

리엘 콜렛: 새 앨범은 「희망의 서광」인데 사실 저도 어제 처음 인쇄돼

서 출고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흥분돼요. 지금은 PBS 특별 순회공연 중이에요. 각 나라의 PBS 방송국을 방문하지요. 사람들이 제 음악과 앨범을 좋아했으면 합니다.

인터뷰어: 행운을 빕니다. 들어올 때 입구에서 책을 한 권 받았는데, 이 아름다운 뮤지컬에서 노래하는 모든 아티스트들이 한 페이지씩 소개돼 있었어요. 당신 페이지에서는 평화 운동가라고 멋지게 소개돼 있더군요.

리엘 콜렛: 그건 제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당신과 나는 이스라엘에서 왔고, 전쟁을 겪은 우리는 중동에서 자란다는 게 어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세상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이 평화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임을 알리는 건 제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터뷰어: 이 뮤지컬은 비건 채식을 장려하고 동물을 보호하며 평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언급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리엘 콜렛: 예, [칭하이 무상사의] 시와 그녀의 메시지가 전하는 내용이 모두 그래요. 이건 그녀가 노래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화합의 삼중창. 왼쪽부터 이스라엘 가수 리엘 콜렛, 아랍 가수 카멜리아 아부-오다, 페르시아 가수 시아바쉬 샴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키릴 쿨리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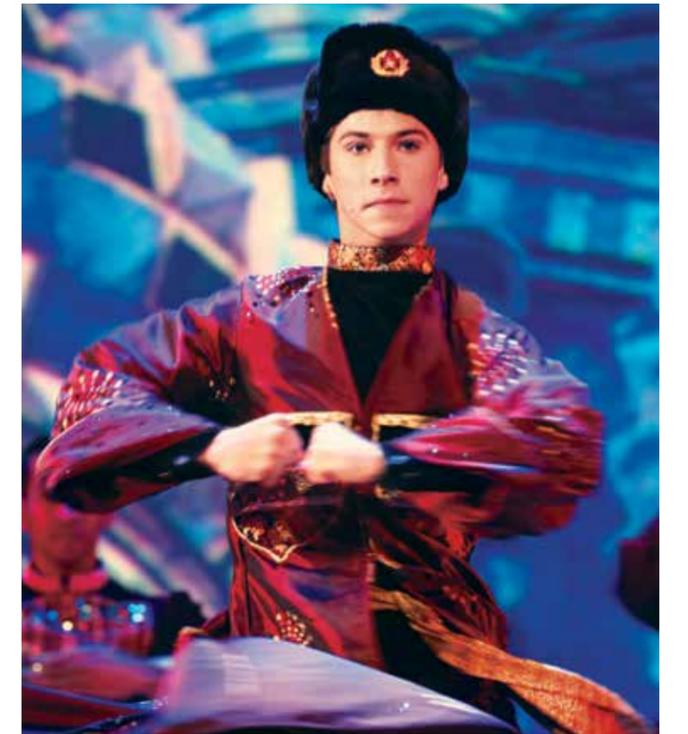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전문 무용수들에 따르면 「세상은 소용돌이(The World Is a Whirlpool)」는 체력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곡 중 하나였다. 그러나 주연 가수 키릴 쿨리쉬(Kiril Kulish)는 라이브로 노래를 부르는 한편 확확 바뀌는 빠른 템포의 춤 동작까지 소화해 내는, 거의 불가능하다 싶은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영어와 러시아어를 말하면서 자랐던 그는 그 2개 언어로 가사를 전달했다. 신나는 연기를 마친 후 최연소 주연 키릴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말했다. “환상적이었고... 힘든 작품이긴 했지만 행복합니다.”

토니상 수상자 키릴 쿨리쉬는 춤의 귀재, 피아노 신동이며 배우이자 가수이다. 그는 2008년 엘튼 존 경(Sir Elton John)과 리 할(Lee Hall)이 제작한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Billy Elliot the Musical)」의 브로드웨이 초연에서 주인공 빌리를 연기해 극찬을 받았고, 그 뛰어난 연기력으로 미국 연극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토니상을 수상했다.

“빌리 엘리어트로 토니상을 받은 게 열다섯 살 때였어요.” 그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게 브로드웨이 데뷔작이었거든요. 우리와 같이 경험을 벌이던 분들은 30년 넘게 브로드웨이에서 그 일에만 전념한 배우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후보에 오르고 또 실제로 토니상을 수상하다니... 놀랍기만 했지요.”



키릴은 프레드 애스테어 상(Fred Astaire Award)과 연극 세상 상(Theatre World Award), 외부 비평가 특별 업적상(Outer Critics Circle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시선을 사로잡는 「세상은 소용돌이」 공연을 펼치는 토니상 수상자 키릴 쿨리쉬.

Special Achievement Award)을 수상했다. 충분히 받을 만한 상들이었지만 그는 또 다른 형식의 상도 받았다.

“때로 공연을 끝내고 나오면 다섯 살쯤 되는 꼬마들이 ‘공연을 보고 형의 모습을 보고 탭 댄스를 시작했다’고 말하곤 했어요. 다른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게끔 힘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도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2세의 어린 나이에 키릴은 전 세계 청소년 중 최고의 무용 유망

당신이 누구에게 감미로운 눈길 주실 때면
그이는 자기가 당신의 하나뿐인 연인이라 믿겠지요.
오, 그 누구보다 사랑스러운 분이시여!
그 눈길, 천 번 만 번 내게 주소서.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포사(대만)

주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주니어 발레 콩쿠르「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Youth America Grand Prix)」에서 「최우수 전반적 표현 유망주 상(Hope Award for Best Overall Performance)」을 받은 데 이어 13세 때는 같은 대회 최고 영예인 「청소년 그랑프리 대상(Youth Grand Prix Award)」을 품에 안았다. 또한 그 무렵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미국 볼룸댄스 챔피언의 자리에도 올랐다.

이 천재 무용수는 「샌디에이고 발레 아카데미 주니어 컴퍼니(San Diego Academy of Ballet's Junior Company)」와 함께 세계적인 공연을 이어 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정평이 난 발레 학교들로부터 장학생 제의를 받았다. 또한 패티 루폰(Patti LuPone)과 크리스틴 체노웨스(Kristin Chenoweth)와 함께 주연으로 공연하고, 아메리칸 발레단(American Ballet Theatre)과 멕시코의 멕시코시티에서 8차례의 갈라 콘서트를 가졌다.

콘서트 피아니스트인 키릴은 멕시코와 유럽에서 객석을 가득 메우며 성황리에 공연한 바 있다. 현재는 다양한 영화와 텔레비전, 연극 작품을 하고 있다.

2011년 키릴은 칭하이 무상사의 인생 이야기와 시에서 영감을 받은 뮤지컬 「진정한 사랑」에 특별 출연했다. 키릴은 전석 매진된 그 행사에 대해 말했다. “작년에 놀라운 경험을 했었는데, 이 공연도 할 수 있게 돼 정말 기뻐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키릴은 발을 구르고 회전하며 무용수들과 합을 맞춰 똑같이 공중 높이 튀어 오르는 동시에 노래까지 부르는 「세상은 소용돌이」 공연으로 6천 명의 마음을 사로잡고 감탄을 샀다. 이 노래는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에 나오는 시를 가사로 그래미상을 2차례 수상하고 오스카상 후보에도 올랐던 헨리 크리거가 작곡한 것이었다.

키릴은 말했다. “칭하이 무상사님은 모든 메시지를 [시 속에] 멋지게 담아내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좋은 메시지만 전하는 뮤지컬은 많지 않습니다.”

뛰어난 실력을 가진 앙상블과의 춤 공연에 대해서도 이 젊은 스타는 “완전 재미있었어요. 무용수들이 너무나도 훌륭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안무가인 보니 스토리가 만든 춤은 정말 감탄스러웠습니다.”라고 얘기했다.

뮤지컬에 모든 것을 쏟아 낸 후 키릴 쿨리쉬는 공연 후 연회장에 화려하게 차려진 비건 채식 만찬 식탁에 앉았다. “지금까지 먹은 음식이 전부 다 맛있었어요. 고기를 덜 먹고 이 음식을 더 먹도록 꼭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주 맛있어요.”

분명 키릴은 예술 활동을 계속해 나가면서 사람들에게 꿈을 좇도록 격려할 것이다.



같이 출연한 케이티 맥마흔(왼쪽), 헤더 박과 함께 레드카펫에서.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케이티 맥마흔

케이티 맥마흔(Katie McMahon)은 아일랜드에서 차트 1위를 차지한 오리지널 「리버댄스(Riverdance)」 싱글에 담긴 더없이 아름답고 가볍게 날아오르는 듯한 고음의 소프라노 독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아이리쉬 타임스(The Irish Times)』는 이런 그녀의 목소리를 “시와 완벽, 청순”이라고 묘사한 바 있다.

더블린 토박이인 그녀는 「리버댄스」에 합류하기 전까지 성악과 하프의 클래식 음악 교육을 받았다. 음악 활동 초기에 보컬 그룹 「아누나(Anúna)」에 들어간 후 그들이 처음에 발매한 두 장의 CD에 특별 솔로 곡이 실렸다. “그때 TV에 많이 보도되기 시작했고 U2 멤버들이 우리 공연을 보러 왔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아누나」에 예사롭지 않은 실력과 가수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리버댄스」의 작곡가 빌 웰란(Bill Whelan)은 그녀에게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Eurovision Song Contest) 막간에 독창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공연을 계기로 훗날 어마어마

한 성공을 거둔 댄스 공연 「리버댄스」가 만들어지게 된다. 맥마흔 씨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당시를 떠올렸다. “더블린에서 리버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때 보노(Bono)가 보러 왔어요. 아누나 콘서트에도 왔었고요. U2 멤버들은 모두 편안하고 친절하고 다정했어요. 하지만 아일랜드에서는 신 같은 존재들이라서 우리 모두 보노와 사진을 찍으려고 했는데, 그가 ‘오, 목소리가 정말 멋지더군요.’라고 했어요.”

많은 저명인사와 고위 관리들이 맥마흔 씨의 공연을 좋아했다. 미국의 제42대 대통령 빌 클린턴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클린턴 대통령을 만난 건 어떤 행사에서였어요.” 그녀는 설명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스승과 나 사이」를 노래하는 아일랜드 소프라노 케이티 맥마흔.

“그는 아일랜드 평화 과정 때문에 할 일이 많았어요. 그가 파견한 조지 미첼(George Mitchell) 상원의원이 중간에서 양쪽을 중재했지요. 그래서 조지 미첼 상원의원을 기리는 만찬이 열렸어요. 빌 클린턴이 들어왔을 때 그는 저와 잠시 담소를 나누며 리버댄스를 아주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진짜 황홀했지요.”

미국 공연 중에 남편인 벤 크레이그(Ben Craig)를 만나 미네소타

세 상 연인들은 자신들만이
사랑이 뭔지 안다고 생각하지요.
아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나와 스승 사이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
알면 좋으려만.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에 정착한 그녀는 독자적으로 아일랜드 밴드와 무용단을 꾸려 아일랜드 전통 음악을 클래식한 스타일로 공연했으며, 많은 찬사를 받은 솔로 CD도 5장 발매했다. 이 밖에 2009년에는 『아이리쉬 보이즈(The Irish Voice)』가 선정한 「아일랜드계 미국인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75인」 후보에 올랐고, 미네소타 뮤직 아카데미(Minnesota Music Academy)로부터 최고의 민요 및 성악가라는 칭호를 선사받았다.

그녀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조국을 대표하자 『아이리쉬 센트럴(IrishCentral)』과 뉴욕 WTBO의 라디오 프로그램 「드롭



양상블의 활발한 스텝 댄스로 한층 더 빛난 케이티 맥마흔의 아일랜드 노래 공연.

오브 아이리쉬(A Drop of the Irish)」 등 여러 아일랜드 매스컴이 그녀를 인터뷰했다. 그녀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아일랜드를 대표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맥마흔 씨는 흥분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자신의 공연을 맛보기로 보여 주곤 외쳤다. “아,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들이 만들어 준 의상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요. 아주 매혹적이에요. 저는 위에서 하프를 연주하며 노래하는데, 저만의 아일랜드 무용단도 있어요. 진짜 여왕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래서 공연이 아주 멋지게 될 것 같아요!” 그녀의 솔로 곡 「스승과 나 사이(Between the Master and I)」는 『침묵의 눈물』에 실린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바탕으로 한 가사에 그래미상을 수상한 작곡가 낸 슈워츠가 곡을 붙인 것으로, 영어와 아일랜드 언어인 게일어 두 가지로 불리었다. 이 아티스트는 노래에 대해 설명했다. “그녀의 시에는 전체 뮤지컬을 관통하는 주제가 담겨 있어요. 바로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지요. 제 노래는 스승, 지고한 존재, 또는 그 호칭이 뭐가 됐든 신과 연결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화 형식을 띠고 그 영적인 존재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합니다.”

케이티 맥마흔의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 청아한 고음의 목소리와 아름다운 음악, 뜻 깊은 가사에 날렵한 스텝 댄서들의 춤까지 어우러진 아일랜드 노래 장면은 참으로 천국처럼 아름다웠다.

“제 가 미니애폴리스에서 녹음했을 때 음향 기사가 ‘누가 쓴 거예요? 정말 정말 좋은데요!’라고 했습니다.”

-케이티 맥마흔/ 아일랜드 소프라노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헤더 박 (비건 채식주의)

“K 팝스타 브라이언과 함께 부른 헤더 박의 곡은 뮤지컬의 음악 여정 속에서 눈물을 자아내는 장면이었어요. 눈 내리는 정경까지 더해져 완전히 마법 같았습니다.”

-조디 와틀리/ 그래미상을 수상한 팝스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동료 출연진

‘서 울 디바’ 한국 가수 헤더 박(Heather Park)은 미국 뉴욕 시 맨해튼의 선도적인 힙합/R&B 라디오 방송국 핫 97(Hot 97)의 프로그램 연출자에게 처음 발굴되었다. 그의 도움으로 헤더는 곧 「스터쉬 뮤직(Stush Music)」에서 녹음을 시작했고 몇 달 후에는 본격적인 가수 생활에 들어섰다.

2005년 데뷔 앨범 「그림 속의 꿈(Dream in Pictures)」은 나오자마자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Is What It Is」가 에이벡스 레코드(Avex Records)의 선택을 받아 일본 발매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2007년에는 발라드 곡 「꿈꾸게 해주오(Leave Me To Dream)」가 존 조(John Cho)와 그레이스 박(Grace Park)이 주연한 마이클 강(Michael Kang) 감독의 영화 「웨스트 32번가(West 32nd)」에 삽입되었다. 또한 배우 겸 래퍼 커먼(Common)을 위해 오프닝 공연을 하고 미국과 영국 전역의 열광적인 청중들 앞에서 공연을 펼치기도 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한국을 대표한 R&B 가수 헤더 박.

다음은 수프리엄 마스터 텔레비전과 헤더 박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관해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질문: 초기 가수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음악을 전업으로 해야겠다고 깨닫게 된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어요?

헤더 박: 부모님 두 분 모두 너무너무 고생스럽게 일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한국에 보내 할머니와 잠시 살게 하셨는데 아주 어

오, 간절한 마음 기쁨으로 가득하네!

신성한 즐거움 또한,
당신의 무한한 광휘 속에
세상의 모든 근심, 슬픔 사라지네!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렸을 때 고모와 노래하던 기억만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 학교에서 하던 노래 활동이 모두 중단되면서 제 인생에서 사라졌을 때 비로소 음악이 제 삶에서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일부임을 확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질문: 이번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뮤지컬에서 당신의 공연이 몹시 기대됩니다. 엄청난 재능을 가진 다양한 출연진과 함께 작업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헤더 박: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제작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사람들의 명단을 다 봤기 때문에 몹시 긴장됐어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작품에 참여한다는 생각만 해도 아주 겁이 났습니다. 그런데 첫날 모두가 모였을 때 마냥 따뜻한 느낌의 멋진 분위기만 있었습니다. 다들 아주 반갑게 맞아 주고 에고를 내세우지도 않았어요. 우리 모두 함께 경축 행사를 위해 모였다는 암묵적인 이해가 깔려 있었습니다. 서로 축하해 주고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기리는 행사를 위해서요.

질문: 노래 가사가 칭하이 무상사가 쓴 『침묵의 눈물』의 시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그 시와 당신의 노래 「찬양의 노래(Singing Praise)」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헤더 박: 정말 아주 아름다웠어요. 가사를 읽었을 때 정말 정말 아름답고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세 번째와 마지막

절은 마음을 아주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거의 우리 자신을 신께 바치는 것 같았고, 예술가들이 공연할 때 느끼는 경험과 아주 흡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대로 바치는 거지요. 그래서 「찬양의 노래」가 뮤지컬에서 우리가 실제로 공연할 내용의 아름다운 소(小)우주 같았습니다.

질문: 근사한 얘기네요. 부르실 노래는 사실 듀엣 곡인데 그 노래에 대해서, 그리고 누구와 부르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헤더 박: 브라이언과 둘이서 부릅니다. 저는 영어로 부르고 브라이언은 한국어로 불러요. 같은 가사들요. 그래서 아름다운 부름과 화답 같은 느낌인데 그는 한국의 영적인 정수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둘 다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고 머리도 전통적이예요. 노래의 안무는 아주 정적이면서 장중합니다. 무용수들이 우리 뒤에서 그 아름다운 춤을 추는데 정말 근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질문: 예, 이 뮤지컬 전반이 칭하이 무상사의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의 연장선에 있지요.

헤더 박: 그녀의 메시지와 시는 아주 아름답고 만국 공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날 빈센트[패터슨]가 우리에게 해준 말이 있었어요. 이 시는 모든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을 수 있으리라는 축복의 기도와 다름없으며, 온갖 국적과 인종, 종교적 배경 등을 뛰어넘는 아름다운 메시지라는 거였습니다. 이 뮤지컬은 정말 그녀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구현한 겁니다.

“이렇게 실력 있고 아름다운 다양한 출연진에
제가 포함돼서 엄청난 영광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어려서부터 존[세카다]과 조디[와틀리],
블랙 우후루의 팬이었어요.”

-헤더 박/ 한국 가수, 비건 채식주의자



로스앤젤레스에 머무는 동안 헤더 박은 미주 『한국일보』와 라디오 코리아(Radio Korea), TVK24 같은 주요 한국 매체들과 「밥 린든의 고 비건 라디오(Go Vegan Radio with Bob Linden)」와 인터뷰를 가졌다.

인터뷰어: 주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발견돼 캐스팅되시는 것 같아요. 뉴욕에서도 그렇게 길거리 캐스팅됐다고 하던데 이번 출연에 대해 기분이 어떠셨나요?

헤더 박: 완전 영광이었어요. 정말 좋았지요.

브라이언: 헤더의 목소리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고 듣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이 뮤지컬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뷰어: 한국계 미국인이어서 ‘서울 디바’라고 불리는 건가요?

헤더 박: 맞아요!

인터뷰어: 당신이 하는 음악도 소울 쪽이고 비건 채식도 하시니까 훌륭한 영혼의 소유자인 게 확실한데, 어떻게 비건 채식을 하게 되셨나요?

헤더 박: 사실 2년 반 전에 씻어 내기로 마음먹었어요. 믿기 힘들 정도로 머리가 맑아지고 분명해졌는데, 그 어떤 경험과도 달랐습니다. 불교 신자도 됐고요. 또 당시에 요가 교실을 바꿨는데 그들은 비건 채식 생활을 강력하게 권장했어요. 그 요가 교실에서는 모피를 입고 오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런 공동체와 함께한다면 그렇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활 방식을 나누기가 아주아주 쉬워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주 『한국일보』와 인터뷰하는 헤더 박과 브라이언.

인터뷰어: 어떻게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열리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뮤지컬에 참여하게 되셨나요?

헤더 박: 저는 정말 제가 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을 바랍니다. 그래서 칭하이 무상사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녀의 메시지를 듣고 그녀에 대해 알고 보니까 정말 아름답고 보편적이며 마음을 고양시키는 긍정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이 뮤지컬 제작의 한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게 다시없는 영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세계 도처에서 온 연령도 각기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한데 모여 아름다운 음악과 예술을 통해 이런 아름다운 메시지를 구현하고 나누는 모습은 아주 보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경험은 제 인생에 간직할, 가장 기억에 남을 하나가 됐습니다.

인터뷰어: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들리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헤더 박: 각자가 자신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하나의 보편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모두의 내면에 그것을 갖고 있지요. 이 모든 것은 비건 채식에도 잘 부합합니다. 그녀의 메시지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모두 그렇게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무대에 올라 피날레를 장식하는 헤더 박과 전 출연진.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파비아나 파소니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고국의 유쾌한 기운을 나누는 수상 경력의 가수 파비아나 파소니.



파비아나 파소니의 뮤지컬 데뷔에 대한 매스컴 보도.

“그녀의 인생사는 도전과 성공으로 점철되어 있다. 파비아나 파소니(Fabiana Pausoni)는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 소명을 잘 꾸려 나가고 낙천적인 성품을 빛내며 밝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나누면서 모두에게 헌신과 인내의 본모기를 보이는 훌륭한 여성의 귀감이다.”

이 는 브라질 라디오 프로그램 「토크 2 브라질(Talk 2 Brazil)」이 파소니 씨를 「2012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면서 발표한 말이다. 브라질 포수스지카우다스(Poços de Caldas) 출신인 파비아나 파소니는 2012년 「국제 브라질 언론상(Brazilian International Press Awards)」 심사단에 의해 미국 내 「최고의 브라질 여가수」로 뽑혔고 이듬해에도 같은 상 후보에 올랐다.

그녀의 앨범과 싱글 곡들은 매체들의 찬사를 받았으며 여러 달 동안 스무드 재즈(Smooth Jazz) 차트에서 자리를 지켰다. 벨벳 같은 목소리를 통해 퓨전 재즈에 보사노바 같은 브라질의 전통적인 리듬을 결합시켜 유쾌하게 해석한 파비아나 파소니의 라이브 공연은 진정한 브라질 문화의 향연이라 할 수 있다.

파소니 씨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무대에서 독특한 목소리와 긍정적인 존재감을 발휘했다. 그녀는 화려한 의상으로 삼바 춤을 추면서 그래미상을 6차례 수상하고 오스카상 후보였던 호르헤 칼란드렐리가 작곡한 경쾌한 솔로 곡 「당신의 귀, 당신의 눈, 당신의 마음(Your Eyes, Your Ears, Your Heart)」을 부르며 흥겨

운 브라질 카니발을 연상시키는 한 장면을 연출했다.

파소니 씨와 그녀의 새 배역은 매체에 심심찮게 보도되었다. 이들 매체로는 「라 프렌사 데 로스앤젤레스(La Prensa de Los Angeles)」, KCAL 채널 9의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TV」, 「베리아 비전 TV(Bereavision TV)」, 「팝스탑 TV(PopStop TV)」, 「토크 2 브라질」, 「브라질리언 아워 라디오(Brazilian Hour Radio)」, 「브라질리언 디지털 채널(Brazilian Digital Channel)」, 「어파우아(Opaua)」 잡지, 「할리우드 위클리(Hollywood Weekly)」 잡지, 「아콘테시(Acontece)」 잡지, 「소울 브라질(Soul Brasil)」, 「브라질베스트(BrasilBest)」 신문, 그리고 그녀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브라질 고향 신문인 「호르날 다 만티케이이라(Jornal da Mantiqueira)」 등이 있다.

파비아나 파소니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경험한 일들에 대해 나누는 이야기를 일부 모아 보았다.

영감의 근원

저는 그게 긍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야만 해요. 제 인생에는 힘겨운 일들이 아주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고통이든 혹은 무엇을 겪고 있던 일단 거기서

빠져나오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점점 더 믿게 됐습니다. 저는 스튜디오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데, 지금 노래를 작곡하고 싶으면 곧바로 할 수 있어요. 신이 주시는 선물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주 긍정적이며 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에서 맡은 역할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조국 브라질을 대표하게 돼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중 일부 가사들은, 제 노래[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의 가사도 세상에 분투가 있다는 걸 말하는데, 분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칭하이 무상사기] 자기 자신에게 아주 솔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우리 삶에는 갈등이 있게 마련이며 갈등이 있는 게 정상이라고 알려 줍니다. 그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 나서면 되는 거지요. 그 점에 크게 공감하기 때문에 뮤지컬에서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진심이 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컬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 정말 공감이 갔기 때문에 이번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뮤지컬에 참가하는 게 아주 흥분됐어요. 저도

「당신의 눈, 당신의 귀, 당신의 마음」의 파비아나 파소니.



삶에서 몇 번이나 행복을 찾기 위해 분투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 거든요. 암에 걸렸어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요.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네요. 죽음의 기로에 섰을 때 삶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며 숨쉬는 공기나 평소 사느라 바빠서 관심을 주지 않았던 것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아, 난 정말 영적인 삶과 진정한 자아에 대해서 완전히 잊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이것은 다릅니다. 우리 내면의 자아의 행복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인데, 저는 사람들이 인간의 영적인 측면에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세상을 바꿀 힘이 때문이지요.

레드카펫에서

기분이 너무나 좋아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요. 멋진 여정이었고 정말 공연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은 많은 면에서 제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좋은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 점도 아주 멋졌어요. 저는 브라질 삼바 춤을 출 거예요. 예, 정말 재미있을 겁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요」를 부르며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꼭 참고서 “그래, 해야지.” 했어요. 다들



출연진과 함께 피날레 「서로의 손을 잡아요」를 부르며.

사랑하는 스승님, 인간의 마음을 잃어버리셨다면 내 마음을 가져가세요.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깊은 영감을 받았고 정말 좋아했어요. 여기 참석해서 영광스럽고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뮤지컬 무대

이것은 평화와 행복이라는 하나의 메시지가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왔든, 한국이나 일본, 베트남에서 왔든 모두가 같은 메시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공연 후

아름다웠어요. 달콤 쌉싸름한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거기에 심혈을 기울였고 여러 날 동안 리허설을 했습니다. 다들 여기 와서 가족이 됐어요. 제 생각에는 [출연진] 모두가 어느 정도, 어떤 면에서는 이 뮤지컬의 메시지에 감동받았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뛰어났고 아주 프로다운 사랑과 영혼을 여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큰 성공을 거둔 거겠지요. 제 어머니도 브라질에서 시청하셨는데 실시간 생중계 전 과정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정말 멋진 일이에요! 경이로워요!

시인에 대한 감사

무상사님은 진짜 멋진 분이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정말 팬이 됐어요! 칭하이 무상사님은 멋진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 긍정적인 공연에 참여해서 정말 기뻐요. 정말 멋진 일이지요. 칭하이 무상사님, 당신이 하시는 일은 정말 훌륭한 일이니 꼭 계속해 주세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존 세카다

전 설적인 싱어송라이터 존 세카다(Jon Secada)는 제니퍼 로페즈(Jennifer Lopez), 리키 마틴(Ricky Martin), 맨디 무어(Mandy Moore) 등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들의 1위 히트곡을 썼다. 사실 음악 생활 초기부터 글로리아 에스테판의 노래들을 썼던 그는 결국에는 그녀의 1위곡 「커밍 아웃 오브 더 다크(Coming Out of the Dark)」를 공동 작곡하기에 이르렀다. 리키 마틴의 말이 꼭 들어맞는다. “존은 인간적으로도 위대하지만 아름다운 노래를 쓸 수 있는 선천적인 재능을 가졌습니다. 그와 함께 일한 모든 예술가들은 진심으로 그를 존경합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작곡 실력에 비범한 가창력까지 갖췄다. 글로리아 에스테판은 말했다. “존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처음 듣고부터 열렬한 팬이 됐어요. 노래를 들었을 때 전율이 느껴지는 비범한 가수 중 한 사람이예요!” 실제로 국제적인 팝스타로 급부상한 존의 앨범은 세계적으로 2천만 장 이상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자비의 메시지

그래미상을 수상한 이 팝의 아이콘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자작곡 「모두 사랑하고 모두 용서하기를(All Love, All Forgive)」을 공연했다. 그 가사는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의 시와 그녀의 전 세계 베스트셀러 책인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에 실린 시 「한 아이가 전하는 마음의 소리」로 만든 것이다.

“영광스럽게도 노래 한 곡을 쓰게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쿠바를 맞아 「모두 사랑하고 모두 용서하기를」을 부르는 세계적인 싱어송라이터 존 세카다.

됐는데, 물론 가사는 칭하이 무상사의 시입니다.” 세카다 씨는 말했다. “제가 그런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어서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노래가 아주아주 쉽게 써졌어요. 특히 그녀의 가사를 따라가면서요.”

그에게 이 뮤지컬 노래를 작곡한 과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물었다. “곡 작업은 저에게 있어 마법과 같은데, 때론 설명하기 힘들습니다. 이 곡의 경우 머릿속에 특정한 곡조에 대한 구상이 떠오



위에서부터 글로리아 에스테판, 제니퍼 로페즈, 리키 마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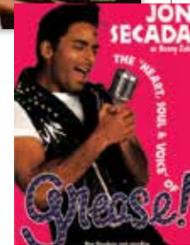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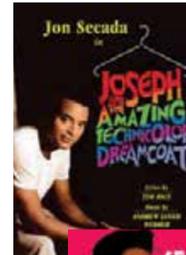
「모두 사랑하고 모두 용서하기를」에서 중요한 자비의 메시지를 불어넣는 한편 화려한 라틴계 정취를 연출한 존 세카다.

르고 이어서 무상사의 가사와 연결되어 멋진 곡이 나왔습니다.” 세카다 씨는 자신의 노래에 조국 쿠바의 독특하고 생동감 넘치는 스타일을 입혔다. “제가 이 노래에서 쿠바 문화를 표현함에 있어서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리듬적인 요소, 음악, 그리고 이 나라에서 쿠바/히스패닉계 미국인으로 살고 있는 제 속에 있는 라틴계와의 연결 고리입니다.”

빛나는 경력

2012년은 존 세카다가 동명의 앨범으로 데뷔한 지 20주년 되는 해이다. 「저스트 어나더 데이(Just Another Day)」, 「두 유 빌리브 인 어스(Do You Believe In Us)」, 「아임 프리(I'm Free)」, 「엔젤(Angel)」 등의 싱글 곡이 수록된 이 앨범이 트리플 플래티넘을 달성하면서 이 싱어송라이터는 미국과 라틴아메리카, 전 세계 어디서나 말만 하면 다 아는 스타가 됐다.

존 세카다는 팝과 재즈, 라틴 장르에 정통한 음악적 역량을 범접할 수 없는 멋진 목소리를 통해 표현해 그래미상을 두 차례 수상했다. 하나는 「저스트 어나더 데이」의 스페인어판 「Otro Día Más Sin Verte」를 통해서, 또 하나는 유명한 앨범 「아모르(Amor)」를 통해서였다. 그는 그래미상을 받은 「로저스 씨의 이웃(Mr. Rogers' Neighborhood)」의 주제가 앨범에도 참여했고, 프랭크 시나트라와 듀엣을 녹음했으며,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한 무대에 서기도 했다. 이 밖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개인적인 요청을 받아 공연한 바 있다.



주목할 점은 세카다 씨가 뮤지컬계에서 큰 이력을 쌓았다는 점이다. 젊었을 때부터 이 예술 장르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그는 「그리스(Grease)」와 「카바레(Cabaret)」의 브

오, 주여,
당신을 사랑할 뿐 나를 위해선 아무 바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모든 중생을 위해서는
당신의 뜻대로
모든 이들이 자신의 평화를 찾기를.

이는 우리 사랑스러운 동물 친구들이
누려야 할 삶의 본보기.
땅에 살든 하늘에 살든 혹은 바다에 살든
사랑받고 보호받고 소중히 돌봐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듯이.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과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에 실린 시 「한 아이가 전하는 마음의 소리」와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 하이 무상사의 시에서 받은 인상은 이 시들이 지혜와 깊은 의미, 평화에 대한 성찰, 정직함, 완전히 1,000% 비종파적인 마법 같은 본질 그 자체로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 때문에 저에게 더욱 각별히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형태의 종교 신앙을 초월하기 때문이지요. 이 시는 인간인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룹니다.”

- 존 세카다 / 그래미상을 2차례 수상한 팝스타

로드웨이 리메이크작과 「요셉 어메이징(Joseph and the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의 전미 투어에서 주연으로 출연했다. 세 작품 모두 큰 찬사를 받았다.

“브로드웨이 공연은 저의 연예인 경력을 통틀어 가장 힘든 일이었습니다. 콘서트 투어보다도 훨씬 더 힘들었지요.” 세카다 씨는 말했다. “춤과 노래, 연기 등 모든 걸 동시에 해야 했어요. 그 걸 하지 않았다면 공연가로서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극 작품을 사랑합니다.”

이런 많은 재주 외에도 세카다 씨는 세계적인 히트 프로그램 「라틴아메리카 아이돌(Latin American Idol)」의 특별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솔직하고 객관적인 심사평으로 큰 찬사를 받았고, 유니비전(Univision)의 댄스 경연 프로그램 「미라 키엔 바일라!(¡Mira Quién Baila!)」에 참가하기도 했다.

수많은 프로젝트에서 성공을 거둔 활동에 대해 세카다 씨는 비결은 없으며 있다면 하나뿐이라고 했다. “제가 늘 노력하고자 했던 한 가지는 최대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해낼 수 있는 최



공연에 앞서 잡힌 매스컴과의 일정 가운데 존 세카다는 스페인어 TV 방송국이자 5천2백만이나 되는 시청자를 보유해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TV 방송국 유니비전과 인터뷰를 가졌다.



유니비전: 노래에 대해 얘기해 주시지요.
세카다: 이 노래는 무상사의 메시지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정말 멋진 메시지입니다. 사랑과 평화, 화합에 관한 메시지만이 단체가 지향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사랑, 세상에 대한 사랑, 우리 간의 사랑, 우주 자체에 대한 사랑을 반영합니다.

유니비전: 지금 세상에 아주 많이 필요한 것이군요?
세카다: 바로 그것[필요] 때문에 무상사의 메시지를 단순하고도 아름답게, 직접적으로 전달해야 하는 겁니다. 그 필요성 때문에 제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것이기도 하고요.

유니비전: 다른 위대한 예술가들, 음악가들, 모든 분들과 한 무대에 서시겠군요?
세카다: 정말 멋진겁니다. 대단한 작품이에요. 무용수들과 모든 것, 훌륭한 오케스트라까지 정말 근사한 저녁이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지도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아주 아주 특별한 메시지지요.

유니비전: 당신이 이 공연에 출연해서 정말 기쁩니다, 존.

고치를 해내고 가능한 한 최고의 음악가가 되고자 많은 훈련과 많은 희생을 한 뒤 나머지는 신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비결이라면 비결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걸 비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활 방식일 뿐이지요. 하루하루를 마무리할 때 제가 가진 축복을 소중히 여기고 그런 기회를 가진 것에 고맙게 생각할 뿐입니다.”

자선 활동

존 세카다는 지금까지 수년간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는 한편 자신의 단체인 「존 세카다 자선협회(Jon Secada Charities)」를 통해 헌신적으로 전 세계에서 자선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는 자선 모금 콘서트와 지역 사회 프로젝트를 위해 공연하고 건강 및 교육을 위한 활동들을 후원했다.

“저는 늘 자선 활동을 지지하는 것은 제 성공과 책임의 연장선에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언제라도 기회가 있다면, 그리고 시간이 허락된다면 늘 참여할 겁니다.” 세카다 씨의 말이다.

의식이 높고 인정 많은 존 세카다는 이 뮤지컬이 기리는 박애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존 세카다 옆에서 포즈를 취한 실사 춤 앙상블.

“이 공연에 참여하게 돼 무척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 작품은 멋진 뮤지컬 작품일 뿐 아니라 메시지도 전달합니다. 그 메시지는 깊이가 있으며, 그 메시지의 간결함과 아름다움이 이 작품을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진정성 있게 만듭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엄청난 공연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존 세카다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건 채식을 하고 평화를 이롭시다.”

-존 세카다
그래미상을 2차례 수상한 팝스타



리즈 캘러웨이, 루크 이벌과 「서로의 손을 잡아요」를 부르며.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시아바쉬 샴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독특한 음색과 스타일을 가져온 페르시아의 슈퍼스타 시아바쉬 샴스.

시아바쉬 샴스(Siavash Shams)는 전 세계 모든 팬들에게 가장 진정한 의미의 슈퍼스타이다. 22세의 나이에 데뷔 앨범 「함사예하(Hamsayehaa)」로 스타로 발돋움한 그는 페르시아 음악계의 우상으로 손꼽힌다.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공연자가 처음 무대에 올라 모든 사람들을 볼 때 그들과 연결된 느낌을 받고 무대에 있는 게 편안하게 느껴진다면 신이 당신에게 원하는 일이 바로 그것임을 알게 됩니다. 저는 늘 저의 음악을 통해서, 평화롭고 행복한 사랑의 노래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축복이고 감사하게 생각하며, 또한 이 일을 사랑합니다.”

선구자 시아바쉬 샴스는 전통적인 멜로디와 가사에 서구의 리

듬을 접목시켜 중동/페르시아 음악을 현대화시켰다. 그의 업적은 세대를 불문하고 이란의 대중가수와 R&B 가수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자작곡을 쓰는 몇 안 되는 페르시아 가수로서 7장의 앨범을 제작해 성공을 거두었고 세계적으로 백만 장 넘게 판매되었다. 한편으로는 전 세계에서 공연을 하며 매진 사례를 이어 나갔다. 그는 히트곡 「도크타르 이루니(Dokhtar Irouni)」로 하루아침에 모르는 사람이 없는 스타가 됐고 앨범 「사흐네(Sahneh)」로 페르시아 음악사에서 입지를 굳혔다. 일약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이스타는 겸손해했다. “음악은 모든 장벽, 우리가 부수어야 할 모든 것들을 허물어 줍니다.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은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킨다면, 그럼 그 모든 게 가치



베스트셀러 데뷔 앨범 「함사예하」.



카리스마 넘치는 시아바쉬 샴스의 사랑 노래를 듣고자 물리는 팬들.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을 돕는다면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시아바쉬 샴스와 아내 캐롤라인(Caroline)은 노아(Noah)와 로코(Rocco) 두 아이를 입양한 자랑스러운 부모이기도 하다. 이 가수의 인생관에는 다음과 같은 것도 포함돼 있다. “사심을 넘어서 신이 주신 힘과 돈, 명예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신이 그런 것들을 주시는 유일한 이유는 남을 도우라는 뜻에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허한 삶을 살 뿐이며 결코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신이 주신 재능을 더 큰 선(善)을 위해 나누는 이 예술가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참여하게 되었다. 뮤지컬의 중동 곡을 위해 시아바쉬 샴스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두 여자 가수, 즉 이스라엘의 리엘 콜렛과 레바논-팔레스타인계 가수 카멜리아 아부-오다가 함께 「진리와 에고, 영혼, 축복(Truth, Ego, Soul and Blessings)」이라는 파워풀한 노래를 같이 공연했다. 이는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원작으로 한 가사예다 에미상 수상자 더그 캣사 로스가 작곡한 노래였다. 샴스 씨는 말했다. “많은 다양한 문화가 함께 융합될 때는 형용하기 힘든 어떤 에너지 같은 게 있습니다. 특히 가사와 진동이 매우 긍정적이고 평화와 사랑, 인류

를 노래하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시아바쉬 샴스는 시의 심오한 메시지가 가장 잘 전달되도록 직접 페르시아어로 번역하고 페르시아 고전풍의 음악에 맞춘 1절을 맡아 중동 노래의 포문을 열었다. 이어서 리엘 콜렛과 카멜리아 아부-오다가 영어와 모국어(히브리어와 아랍어)로 그다음 절을 불렀다.

합창곡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대해 시아바쉬 샴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 노래에 대한 저의 감상은,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지고의 존재, 신을 생각할 때면 정말 그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과 아내, 가족, 친구, 모든 것을 사랑한다는 건 알지만 그 모든 것 위에는 그 전부를 실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속을 탐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찾게 되지요. 저는 이게 아주아주 위대한 노래이며 위대한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뮤지컬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면서 그는 이 말을 덧붙였다. “칭하이 무상사는 삶과 사랑, 평화에 관해 정말 멋진 시를 쓰셨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평화를 찾고 신을 찾으며, 이생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사랑을 초월하는 뭔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이기심을 지울 수 있을 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더 낮고 더 평화로운 세상을 이룩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쉽게 하길래
그들의 예술을 따라 해볼까도 했었지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입만 열면 ‘진리’가 방울방울 쏟아집니다!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전 세계 시청자가 약 1억 2천3백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VOA)는 미국 정부 산하의 국제 방송국이다. VOA-페르시아 TV(VOA-Persian TV)는 뮤지컬 전에 가진 시아바쉬 샴스와의 인터뷰와 행사 후 보도를 통해 뮤지컬에 관한 상당 분량의 내용을 보도했다.

다음은 「샤바항(Shabahang)」 프로그램에서 시청자의 질문을 포함해 샴스 씨와 가진 생방송 인터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VOA: 또 다른 분의 질문입니다. 과거 시아바쉬 씨는 영어와 스페인어로 노래를 불렀는데 그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앞으로도 이런 노래를 부르실 건가요?

시아바쉬 샴스: 아시겠지만 10월 27일 슈라인 오디오리움에서 대형 뮤지컬이 열리는데 제가 이란 가수로 초청받았습니다. 그 작품은 모두 영어로 진행됩니다. 이란과 이란인을 위해 좋은 일입니다. 누군가가 이란의 긍정적인 면을 조명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자랐고 여러 언어로 작곡을 하기 때문에 늘 이런 일을 좋아했습니다.

VOA: 어떤 내용의 공연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아바쉬 샴스: 공연 제목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이고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공연을 주관하는 단체는 긍정적인 곳입니다. 처음 섭외받았을 때 유명한 예술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조디 와틀리 같은 그래미상 수상자도 참여하는 등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연하러 오기 때문에 제가 초대받았다는 것에 정말 기쁩니다. 이 행사의 취지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참여하기로 한 거지요.

VOA: 시청자들과 당신의 팬들이 이 공연의 내용을 아시도록 그에 관한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샤바항」에서 방영하도록 하겠습니까.



시아바쉬 샴스의 뮤지컬 참가를 전한 매체 보도.

뮤지컬의 주제가 평화인 관계로 이 행사에서는 자비로운 비건 채식을 함으로써 동물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이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이상을 장려했다. “사실 저는 비건 채식을 아주 좋아해서 생각 중입니다. 정말 저와 내내는 채식을 할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비건 채식이 자연과 동물, 아름다운 지구를 살린다는 사실 때문에 정말 비건 채식을 하고 싶습니다.”

공연에 앞서 시아바쉬 샴스는 말했다. “고생해서 행사를 이루어 낸 모든 출연진들께 감사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힘든 일이기도 하지만 정치가 만든 벽을 우리가 음악으로 허물 수 있다면 정말 좋습니다. 저는 이 뮤지컬에 저의 100%를 바칠 겁니다.

제가 완벽하게 잘 발휘하길 바랍니다.” 「진리와 에고, 영혼, 축복」에 쏟아진, 장내를 뒤흔드는 박수와 긍정적인 반응으로 봤을 때 시아바쉬 샴스는 확실히 리엘 콜렛, 카멜리아 아부-오다와 함께 자신들의 전부를 공연에 바쳐 6천여 관객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공연에 참여해서 영광이었습니다. 마법과 같으면서도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었습니다.”

-시아바쉬 샴스/ 페르시아 슈퍼스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사안기 (채식인)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돌부처에게 건네는 이야기」를 부르는 홍콩 플래티넘 팝 스타 사안기.

“당신은 동양의 보석입니다.”

-AMGA TV의 오드리 퍼거슨(Audrey Ferguson)

홍콩 대중음악계의 정상급 여가수 중 한 명인 사안기(謝安琪, Kay Tse)는 재능과 미모를 겸비했을 뿐 아니라 의미심장한 곡을 만드는 직관력 있는 송라이터라는 점 때문에 그들 중에서 더욱 눈에 띈다.

‘광둥어 팝의 여왕’으로 알려진 사안기는 대학 가요제에서 수상한 후 음악 프로듀서에게 처음 발탁됐고, 오래지 않아 아시아 팝 음악계에서 유명한 아티스트로 성장했다. 호평받는 앨범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홍콩의 주요 음악상을 석권했고 중국 본토의 TV 및 라디오 음악상도 수상했다.

이 플래티넘 가수의 이력은 그 놀라운 음역대와 다재다능함에다 빈곤 같은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희망을 주는 사색적인 음악으로 성공한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민중의 노래하는 여왕’으로 존경받는 그녀는 또한 「인약이혼후(人約離婚後)」, 「나이트폴(大追捕)」, 「돈황의 전설(敦煌傳奇)」 등 많은 영화에 출연한 배우이기도 하다. 그녀는 환경에 대한 인식, 동물 보호, 그리고 여타 자선 목적에 자신의 명성을 사용하기에 더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음악적 재능은 추구해야 합니다.” 사안기는 말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 다른 이들과 나누고자 하는 마음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일상적으로 음악 일을 하면서도 기회만 된다면 자선 활동도 하고 싶거든요. 이 뮤지컬 행사도 그 일환이지요.”

단 한 번의 무대를 선보이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자신의 목소리를 보태고 싶었던 바쁜 스타는 특별히 일정을 조율해 2주간의 시간을 통째로 비웠다. 중국 본토에서 진행 중이던 콘서트 투어도 미루고 TV 출연과 상영을 앞둔 2편의 영화 일정이 지 미루면서 말이다. 사안기가 설명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동료 출연진 대부분이 각자의 나라에서 너무나도 바쁜 사람들일 텐데 이 공연을 위해 시간을 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공연 하나에 이렇게 긴 시간을 낸 적이 거의 없어요. 홍콩에서 공연을 준비한다고 치면 정식 공연을 위한 리허설과 다텈는 시간을 합쳐도 이틀이나 사흘, 길어야 사흘이거든요. [하지만] 이 행사는 정말 얻기 어려운 기회라서요.”



홍콩 스타 유덕화의 콘서트에서 함께 노래 부르는 사안기.

사안기의 뮤지컬 데뷔는 홍콩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화제가 되었다. 매체들은 광둥어와 중국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이 가수에게 그 3개 언어로 인터뷰를 요청했다. 홍콩의 「HK 매거진(HK Magazine)」, 「동방일보



팬들로 가득 찬 사안기의 콘서트 중 하나.

(東方日報), 온에어파워 라디오(OnAirPower Radio), 아이케이블닷컴(i-CABLE.com) TV 채널을 비롯해 미국과 캐나다의 ETTV, CTI, TVB, 「헬로우 할리우드(Hello Hollywood)」, WCETV, 「세계일보(世界日報)」, 「성도일보(星島日報)」, 「국제일보(國際日報)」, 「아시아 위클리(Asian Weekly)」, 그리고 중국 본토와 포모사(대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의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그녀는 말했다. “참여하게 돼서, 그리고 아시아권을 대표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뮤지컬에서 저는 중국의 선녀를 연기할 건데요. 슬픔에 찬 이들에게 위안을 가져다주길 바라며 노래를 부를 거예요. 아주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게다가 선녀를 연기하다니, 그걸 꿈꾸지 않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사안기는 오프닝 곡부터 칭하이



사안기의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배역이 매체에 대서특필된다.



「천상의 예술전」을 방문한 후.

무상사가 2007년에 작사·작곡한 특별 솔로 곡 「돌부처에게 건네는 이야기(Talking to a Stone Buddha)」, 그리고 단체 피날레 노래까지 참여한다.

다음은 사안기가 자신의 인생과 이 뮤지컬에 얽힌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 다양한 매체들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고귀한 이상을 지닌 예술가

이 행사의 주제가 박애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또한 모든 수익금은 어려운 처지의 다양한 사람들을 돕고 동물들을 보호하는 3개 자선 단체에 기부됩니다.

사랑이 많은 채식인

작년부터 남편[광둥어 팝 가수 장계충(張繼聰)]도 채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실상 비건 채식을 해요.

“제 곡은 사실 아주 특별한 노래입니다. 칭하이 무상사가 만드신 곡이거든요. 이 곡을 부르게 돼서 영광입니다.”

-사안기/ 중국의 플래티넘 팝스타. 채식인

올해 아주 멋진 일이 있었어요. 스튜디오에서 리허설을 하는데 오감이 굉장히 예리해진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베이스, 기타, 리듬 섹션, 피아노, 키보드, 모든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들이 선명하게 들렸는데 그 소리 하나하나가 너무나 선명하게 들려서 이상하다 싶을 정도였어요. 많은 것들이 아주 또렷하고 세세하게 분간할 수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장계충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가 “맞아, 내가 그랬잖아.” 하더군요. 채식을 하면 정확 과정을 겪습니다. 마음을 정확하지요. 전에는 무뎠던 감각들이 예리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채식을 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이런 반응이 많이 생기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건 그중 하나일 뿐이에요.

공연의 주제

이 뮤지컬은 위대한 사랑, 그리고 조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출연진] 가운데는 각기 다른 종교 신앙과 언어, 피부색, 문화가 존재합니다. 모두가 함께 모인 모습이 온 지구에



출연진 호꾸인호영, 마크 자니셀로와의 첫 만남.



인터내셔널 중국 네트워크(International Chinese Network, ICN TV)는 케이블 방송과 위성 방송, 무선 방송을 통해 영어, 중국어 프로그램을 북미 전역에 내보내는 TV 네트워크이다.



ICN: 오늘 방송은 아주 특별합니다. 우선 세계적인 슈퍼스타, 사안기를 모셔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기?
사안기: 안녕하세요? 그렇게 소개받으니 몸 둘 바를 모르겠어요.

ICN: 사실이잖아요. 당신을 세계적인 슈퍼스타라고 한 이유는 사안기 씨가 여기 미국에 있는 동안 아주 어려운 일을 하시게 됐고 그 임무가 대단하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조화롭고 화합된 하나의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훌륭한 본보기를 보여 줍니다. 그건 꿈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노력하면 정말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 뮤지컬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뮤지컬 제목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저에게 주는 메시지와 같아요. 이 세상의 어떤 슬픔과 고통은 사람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중 어떤 것은 이 세상 다른 구석에, 여러분이 모르는 곳에 존재할 수도 있지요. 그래도 우리는 늘 사랑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언제라도 어려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뮤지컬 제목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아주 뜻깊은 제목인 것 같아요.

첫 번째 리허설

[뮤지컬] 시작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부르는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네」라는 곡이 있어요. 그 노래를 처음 리허설했을 때가 아

사안기: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라는 뮤지컬을 하러 여기 로스앤젤레스에 왔거든요.

ICN: 당신 인생은 정말 축복받은 것 같아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고 성공한 가수잖아요. 이번에는 수많은 슈퍼스타들, 수상 경력이 화려한 감독에다 당신을 포함한 엄청난 수상자들과 함께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고요. 인생에서 정말 귀한 경험일 듯한데요.
사안기: 맞습니다. 인생에서 그런 일류의 제작 수준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일할 그런 훌륭한 기회는 많지 않지요. 그래서 저는 무대에 모든 것을 던지는 한편 기교적인 부분에 신경 쓰지 않고 압박감도 너무 느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들려주듯이 진심을 담아 노래해야 하지요.

ICN: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라는 뮤지컬 제목만 봐도 ‘사랑하며’라는 말이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것 같군요.

직도 기억나요. 다들 서로 처음 만난 순간이었는데 저는 여전히 프로그램북을 들고 다니며 모두의 얼굴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던 참이었어요! 많은 이들이 중학생들처럼 다 같이 앉아 있었는데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인정받는 많은 가수들이 모이는 거라서 충돌이나 어려움 없이 같이 노래하는 게 매우 힘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이들은 바리톤이고 어떤 이들은 유명한 소프라노라서 음역도 각자 다 다르잖아요. 하지만 첫 번째 리허설에서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해냈어요. “와, 바로 이거야. 정말 좋은데!” 그런 분위기였지요. 우리는 그냥 진심을 다해 행복하게 불렀는데 아주 멋지게 들렸습니다. 전에 몰랐던 사이였지만 음악 하나를 공통분모로 삼아서 단박에 성공했지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중국을 대표하다

사실 브로드웨이 뮤지컬에 중국이나 동양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 이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녕하세요, 부처님, 어찌하여 우시나요?
그들 가슴에 갈망이 얼마나 많나요?
어찌하여 당신의 눈물, 바다로 흐르나요?
어찌하여 당신의 사랑, 조약돌에 주시나요?**

시집 『천년의 사랑』에서
칭하이 무상사/ 2007년 3월 포모사(대만)

그들이 듣고 싶어하고 감동받도록 모두에게 정말 중국 스타일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요.

무용수들과의 리허설

어땠는지 아세요? 거의 울 뻔했어요. 무용수들이 제 앞에서 처음으로 전체 공연을 하는 걸 봤는데 와, 얼마나 아름다운지 눈물을 감추려고 애써야 했어요! 우리끼리의 교감이 느껴졌지요. 특히 우리가 춤추며 서로를 바라볼 때는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많은 무용 동작들에 익숙하지 않아서 몸이 좀 굳어 있었어요. 그러자 [감독이] “그냥 눈물을 닦듯이 이런 동작을 하라”고 제안해서 전체적으로 느낌이 충만해졌어요. 그건 ‘춤’이 아니라 메시지예요. “당신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어요. 제발 나를 바라봐 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그런 거지요. 그래서 와, 전체가 아주 아름다워요.

저도 뮤지컬을 보고 싶으니까 [DVD가] 어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당일에는 노래를 해야 하니까 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 보고 싶네요.

무대 의상

그들은 제가 공주처럼, 아니면 모두에게 알려 줄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사람처럼 느끼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무대 의상이 그 메시지를 극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지

요. 인생, 사랑, 지구상 모든 것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돌부처에게 건네는 이야기」

뮤지컬에 나오는 노래가 다 마음에 듭니다. 특히 제가 부를 노래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서 가장 좋아해요. 사실 칭하이 무상사가 만드신 노래인데 청중들의 가슴을 열어 주는 노래입니다. 눈물 방울방울에, 미소 하나하나에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노래는 제 가슴도 고요하게 해줍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해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모든 관객과 도시에 사는 사람들처럼 여유 없는 이들에게 바치고 싶습니다.



무용수들과 솔로 곡을 리허설하는 사안기.

이 장면은 무척이나 시적이예요. 깊은 외경심을 일으키는 영적인 노래지요.

공연 후

오늘 밤 공연이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관객 중 많은 분들이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가사의 의미는 잘 이해하신 걸로 느껴집니다. 제가 그 노래를 부르는 동안 서로 연결됐거든요. 정말 놀라운 느낌이었어요.

이 뮤지컬은 허영된 것들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 뮤지컬의 진정한 메시지는 수많은 저명인사들이 기꺼이 지지할 만큼 대단히 중요하고 지지할 가치가 있는 활동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뮤지컬이 끝난 후 이 광둥어 팝의 여왕은 홍콩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일정은 콘서트 출연으로 꽉 차 있는 가운데 그녀의 뮤지컬 참여에 대한 매체 보도가 많아지면서 뮤지컬의 긍정적인 반향이 그녀의 조국에 가득 울려 퍼졌다. 그해 12월에는 「가장 존경하는 여가수상」, 「아시아 히트 가수상」 등 권위 있는 「메

트로 라디오 히트 음악상(Metro Radio Hit Music Awards)」 3개 부문에서 수상한 상들이 지금까지 받은 무수히 많은 상패에 더해졌다. 시상식에서 사안기는 얼마 전 미국에서 공연된 뮤지컬에 유일한 중국 대표로 참가해 중국인을 빛냈다고 찬사를 받았다.

사안기의 진심 어린 노력은 중국인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빛내고 있다.

“최고였어요. 관객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다들 사랑해요. 얼마나 성원을 해주셨는지 몰라요. 정말 이 노래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감정에 북받쳐) 눈물이 나네요. 죄송해요!”

-사안기/ 중국 플래티넘 팝스타. 채식인 솔로 곡 공연을 마친 후



오프닝 곡 「발걸음도 하지 않으시네」에 화려하게 등장하는 사안기.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스타 심층 취재

조디 와틀리

그 래미상을 수상한 팝/R&B의 아이콘 조디 와틀리(Jody Watley)는 가수 활동 내내 혁신적인 음악과 유행을 선도하는 패션을 결합하는 한편 비디오 작업과 춤에 파격을 시도해 대중들과 미래의 예술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다. 『보그(Vogue)』, 『에센스(Essence)』, 『베니티 페어(Vanity Fair)』 같은 주요 패션지의 찬사를 받았고 『피플(People)』지의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 중 한 명으로도 선정된 바 있는 그녀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말했다. “저는 늘 아름다움은 정말 내면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면에 지니고 있는 것이 밖으로 풍겨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녀는 데이비드 핀처(David Fincher)가 연출한 비디오 「리얼 러브(Real Love)」로 여전히 MTV 뮤직 어워드 최다 후보로 지명된 가수 중 한 명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팝과 댄스 음악, 일렉트릭 뮤직 장르를 모두 합쳐 총 32곡의 싱글이 차트 10위권에 진입했고 13곡이 1위를 차지했다. 다양한 형식을 접목시킨 히트곡으로는 ‘안녕, 자기(hasta la vista, baby)’라는 유명한 유행어가 들어간 「새로운 사랑을 찾아서(Looking for a New Love)」, 「돈 유 원트 미(Don't You Want Me)」, 발라드 「에브리싱(Everything)」이 있다. 에릭 B(Eric B), 라킴(Rakim)과 공동 작업한 싱글 「프렌즈(Friends)」는 래퍼가 가수의 곡에 피처링을 하는 신기원을 열었다. 이 아티스트는 공연과 새로운 앨범 작업, 자선 공연 등 사람들과 끊임없이 영감을 나누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디 와틀리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장엄한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자 그녀의 팬들은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1회 공연되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참여하는 그녀의 모



그래미상을 수상한 팝 싱어송라이터 조디 와틀리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아프리카를 대표하다.

습을 보고자 장거리 여행도 마다하지 않았다. 페이스북 매체를 통해 사람들과 ‘좋은 느낌’을 나누기를 좋아하는 와틀리 씨는 팬들에게 예의 바르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먼 길을 온 가장 나이 어린 팬 중 하나인 이오나(Iona)와 그녀의 어머니를 만나서 반가웠어요. (고마워요.) 멀리 동부에서 날아온

패트릭 부트만(Patrick Butman)에게도 감사합니다.”

와틀리 씨는 「산 마리노 트리뷴(The San Marino Tribune)」, 「모어(More)」 잡지와 이그재미너닷컴(Examiner.com), 「팝스탑 TV(PopStop TV)」, KCAL TV의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TV(California Adventure TV)」 프로그램과 같은 매체 인터뷰에서 자신의 음악 활동과 뮤지컬에 대한 생각들을 나눴다.



질문: 그래미 최우수 신인 가수상을 수상하셨는데, 그 경험에 대해 좀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조디 와틀리: 그래미상은 모든 가수들이 꿈꾸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최우수 신인 가수로 지명된 그날은 제 음악 인생에서 최고의 밤이었다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난 영광이었지요. 그 상이 아티스트인 저에게 준 것은 자신감이라고 생각해요. 저 자신에게 충실하고 진정성 있게 표현한 보람인 것 같습니다.

질문: 그 폭과 깊이를 알 수 없는 재능은 어디에서 기원한 거지요?
조디 와틀리: 이 일은 결코 안주할 수 없고 결코 만족할 수 없으며 언제나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여정입니다. 저는 사랑에 대한 노래와 스스로 강해지는 노래, 특히 여자들에게 힘을 주고 싶은 노래를 많이 썼어요.

질문: 브로드웨이 무대에도 출연하셨는데요.

조디 와틀리: 첫 번째 뮤지컬로 브로드웨이에 데뷔했어요. 인기가 굉장했던 뮤지컬 「그리스(Grease)」에서 리조(Rizzo) 역을 할 기회를 얻었는데 아주 큰 경험이었어요. 그래서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출연 제의를 받았을 때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이전까지는 「그리스」보다 더 멋진 작품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

난 진정한 바보겠지요
부처가 되려 한다면
완전한 스승이 되려 한다면.

구루!
마하라지!
어찌하여 이 온갖 짐을 제 어깨에 올려놓아
당신 곁에 앉을 귀한 시간을 없애시나요?
하지만 가장 지혜로운 분이여!
어떤 일을 맡기시든
제 목숨을 거는 일이라도 해내겠어요.
하고말고요!
그저 당신에 대한 작은 감사의 마음으로.

시집 「침묵의 눈물」에서 발췌
칭하이 무상사/ 1980년대 포모사(대만)

거든요. 이 뮤지컬은 저의 두 번째 무대가 될 거라서 기대가 큼니다. 이전 작품 「진정한 사랑」에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 그 뮤지컬도 깨달음을 주는 경험이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럴 테지요... 아무리 말해도 부족할 것 같군요. 저는 저의 5만 퍼센트를 쏟아 넣을 겁니다.

질문: 이 뮤지컬에서는 칭하이 무상사가 지은 시에 곡을 붙이는데요. 저도 하루빨리 무대에 올러진 걸 보고 싶는데 당신은 어떠세요?

조디 와틀리: 시어들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가사는 깨달음에서 평화까지 두루 걸쳐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관객들 모두 영감을 받고 갈 거라고 생각해요. 칭하이 무상사의 인도주의적 노고는 온 세상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뮤지컬은 그 메시지를 우주에 전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봅니다.

질문: 칭하이 무상사의 시의 어떤 면이 특별히 눈에 띄던가요?
조디 와틀리: 우선 저는 늘 사색을 즐기는 사람이었고 늘 시를 좋아했습니다. 저는 작곡가이고, 시를 읽고 쓰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카드를 보내 용기를 주는 걸 좋아합니다. 제 친구들은 늘 이렇게 말해요. “너는 언제나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 아는 소질이 있구나.” 긍정적인 느낌이나 격려 같은 그런 것 말이에요. 무상사의 시에서 바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주 고양시키면서도 감정의 층이 풍부합니다. 그 속에는 우리 모두가 시시때때로 느끼는 절망까지 빠짐없이 나오거든요.

질문: 이 뮤지컬의 아름다운 주제와 시의 영감의 근원 외에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어떤 면이 흥미로우셨나요?

조디 와틀리: 출연진이 엄청납니다. 훌륭한 가수들과 오스카, 에미, 토니, 그래미 같은 상을 수상한 다양하고 위대한 작곡가들이 모였어요. 안무가 겸 연출가인 빈센트 패터슨도요. 그와 일할 게 정말 기대됩니다. 그는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와 일했고, 제가 좋아하는 안무 작품을 마돈나와 같이 작업한 사람이예요. 그의 작품 모두가 기억에 남고 고전적이며 시간이 가도 퇴색하지 않습니다. 다들 화려한 경력을 자랑해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한다는 게 몹시 기다려집니다. 또 메시지와 융합, 이만한 작품에 참여한다는 것, 영성과 사랑, 평화의 메시지, 모든 면에서 기대됩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더 많이 전해야 합니다. 그러니 놓쳐서는 안 될 공연이지요.

질문: 개인적인 면에서 이 공연에 영향을 받으신 게 있나요?
조디 와틀리: 지금은 고기를 덜 먹고 있습니다. 비건 채식과 자애로움의 측면에서요. 저는 동물들을 사랑하거든요. 어쨌거나 고기를 많이 먹지는 않지만, 어쩌면 이게 그쪽으로 향하도록 우주가 저의 등을 떠민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프리카풍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선 조디 와틀리는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룰라 워싱턴 무용단(Lula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조디 와틀리 또한 많은 스타들이 리무진에서 내릴 때 느꼈던 마음을 그대로 느꼈다. 그녀는 그 소감을 온라인에 올렸다. “우리는 수많은 팬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있는 것을 보고 경탄했어요. 꿈처럼 아름다웠어요!” 한편 인기 뉴스 사이트 이그재미너닷컴을 포함한 매체 기자들은 잠시라도 와틀리 씨와 얘기를 나누고자 열을 올렸다.



이그재미너: 이그재미너의 벨린다(Belinda)입니다. 언제 봐도 늘 아름다우세요.
조디 와틀리: 감사합니다.

이그재미너: 먼저 이 뮤지컬에 참여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디 와틀리: 환상적이에요. 예술가들의 유엔 같은 느낌이에요. 우리 모두 다 손발이 척척 맞고 친하게 아주 잘 지냈어요. 저는 빈센트 패터슨에게 반했어요. 늘 존경하던 사람으로, 마이클(잭슨)의 슈퍼볼 공연과 마돈나의 공연을 연출했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예요. 「하이스쿨 뮤지컬」을 안무한 보니(스토리)도 있고요. 그 외 모든 사람들에다 알카샤, 음악, 정말 아주 기가 막혀요. 아주 엄청납니다.

이그재미너: 어떻게 참여하시게 됐나요? 저도 기사를 보고는 “꼭 보러 가야지!” 그랬거든요.
조디 와틀리: [제가 어떤 공연을 하려면] 정말 창의적인 수준이 마음에 꽂혀야만 합니다. 이 작품은 창의적이었고 영적이었어요. 어떤 종교극이 아니라 보편적인 사랑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정말 장관이고요. 저는 브로드웨이 공연도 해봤는데 이런 건 없었어요. 이 공연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야말로 장관이고 놀랍습니다. 단 한 번의 공연이지요.

Washington Dance Theatre) 무용수들이 그 주위에서 리드미컬하게 춤을 추고 그녀의 노래 사이사이 줄루어 코러스를 들을 수 있었다. 그녀는 그 장면에 대해 “공연 끝 무렵에 제가 나오는 ‘아프리카’ 장면은 이야기 구성에서 중심축이 되는 순간입니다. 감

사의 노래인데 아주 강력한 장면입니다.”라고 얘기했다. 와틀리의 솔로 곡을 쓴 그래미상 수상 작곡가 낸 슈워츠는 다음과 같이 평했다. “저의 곡 중에서 아프리카 노래를 조디 와틀리가 부른다는 걸 알고선 정말 흥분됐어요. 그녀는 제가 쓴 노래를 완벽한 스타일과 완벽한 느낌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 아프리카 노래에 대한 그녀의 해석을 들을 걸 생각하니 몹시 기대됩니다.”

관객들의 기립 박수 속에 공연이 끝난 후 팬들이 열렬한 호응의 글을 올렸다. 예를 들어 크리스 킨(Chris Keen)은 와틀리 씨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 “비건 채식이 그 행사의 주제였던 것도 좋았어요, 조디! 아주 멋지게 보였고 끊임없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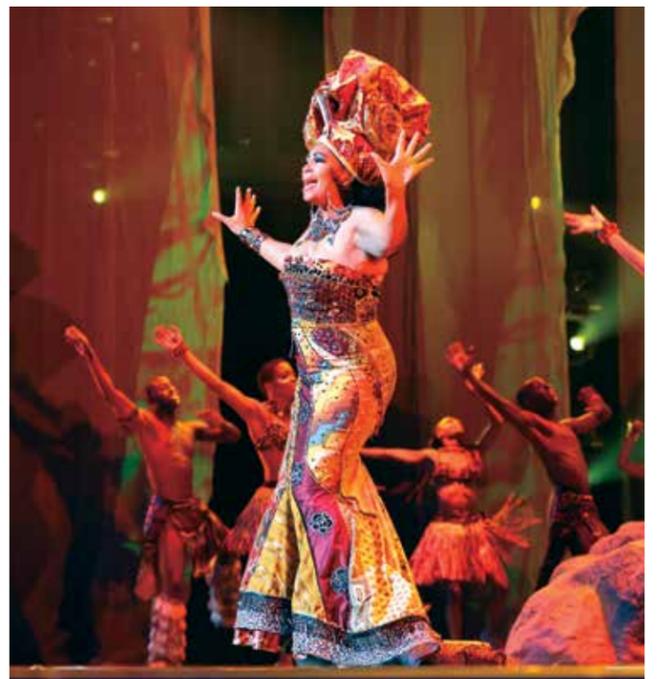
알리시아 카예(Alicia Kaye)도 글을 올렸다. “브라보, 조디! 모습이 진짜 근사했어요. 노래도 멋졌고요!!! 감동적이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였어요. 정말 웅장한 작품이었어요! 라이브로 봤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다섯 살짜리 딸도 좋아했을 거예요!”

그 글을 이어받아 실론 루이스(Silawn Lewis)가 댓글을 달았다. “조디, 오늘 밤 아주 당당해 보였어요. 이 작품이 왜 1회만 하는지 이제야 이해가 가네요. 알리시아가 말했듯이 진짜 ‘웅장’했거든요! 그런 대형 공연을 여러 번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그런 수많은 놀라운 스타들, 아름다운 무대 배경과 의상이라니, 거기 에다 각 노래 공연을 통해 서사를 엮어 간 방식도 좋았어요. 비디아가 나오면 좋겠어요. 그럼 positiveatmosphere.com 회원들을 비롯해 SNS 사이트에서 공유할 수 있을 텐데요.”

공연하는 사람과 관객 모두 동시에 즐거움을 나누는 것이 극장이 주는 마법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조디 와틀리의 글을 보면 그녀에게 꼭 들어맞는 말이었다. “새로운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2012년에 내가 가장 아끼는 프로다운 경험이자 가장 재미있고 가장 아름다우며 내 음악 생활의 가장 큰 상 중 하나이다. 이 이상은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당신이 이런 획기적인 공연에 참가했다는 게 정말 기쁩니다, 와틀리 씨!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지금껏 만들어진 최고의 뮤지컬 중 하나입니다. 꼭 주제 때문만이 아니라(그것도 꿈처럼 아름답긴 하지만) 공연에 참여한 모든 출연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판 DVD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늘 칭하이 무상사의 철학을 좋아했기 때문에 『침묵의 눈물』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닙니다. 이 공연을 본 사람들 모두에게 선물이었으리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머빈 말론(Mervin Malone)/ 미국 텍사스의 팬



「진정한 바보」에서 눈부시도록 멋진 공연을 선사한 조디 와틀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무대 디자이너 심층 취재

존 야코벨리

존 야코벨리(John Iacovelli)는 미국 내 300여 곳의 극장 무대를 디자인했다. 그는 토니상 후보 케이시 릭비(Cathy Rigby)가 주연하고 A&E 네트워크가 방송한 브로드웨이판 「피터팬(Peter Pan)」으로 권위 있는 에미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로스앤젤레스 드라마 비평가 협회 평생 공로상(Los Angeles Drama Critics Circle Lifetime Achievement Award)과 14차례의 드라마-로그 상(Drama-Logue Award), 베이에리어 드라마 비평가 협회상(Bay Area Drama Critics Circle Award), 백스테이지 웨스트 갈랜드 상(Back Stage West Garland Award)도 수상했다.



에미상을 수상한 무대 디자이너 존 야코벨리.

줄곧 혁신적인 통합 디지털 예술 감독의 최전선을 지켜 온 야코벨리 씨는 영화와 텔레비전 분야를 폭넓게 오가며 무대를 디자인해 왔으며, 「애들이 줄었어요!(Honey, I Shrank the Kids!)」와 「코스비 가족(The Cosby Show)」의 미술 감독, 텔레문도 네트워크(Telemundo Network)의 웨스트코스트(West Coast) 스튜디오의 미술 총감독, TV 시리즈 「와일드 웨스트(The Wild West)」와 「내셔널 램퐁(National Lampoon)」사의 제작 디자이너 등을 역임했다. 그 외에도 NBC 드라마 「다니엘서(The Book of Daniel)」와 TV 방송사 연합 프로그램 「리플리의 믿거나 말거나!(Ripley's Believe It or Not!)」, TNT의 「바빌론 5(Babylon 5)」를 비롯해 나사(NASA), 디즈니월드, 애틀랜타 올림픽의 산업 디자인에도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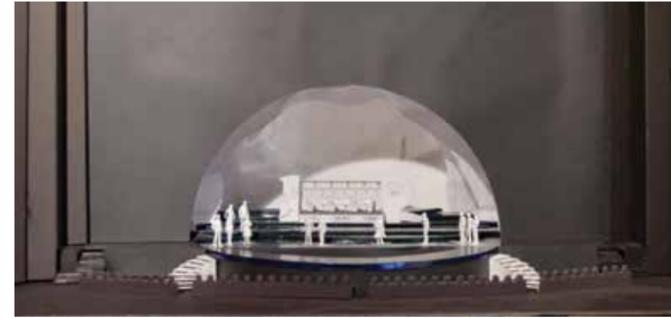
무대 디자인의 대가인 그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흥미로운 무대를 만드는 작업이 “특별한

도전”이었다고 말했다.

다음에 이어지는 글에서 야코벨리 씨의 주요 작품 활동과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발휘된 멋진 창작성을 살펴보도록 하자.

질문: 1999년 재공연된 「피터팬」을 환상적으로 디자인한 데 이어 2001년 A&E에서 방송한 「피터팬」에서도 미술 감독을 맡아 에미상을 수상하셨는데, 그에 관해 좀 더 얘기해 주시겠어요?

존 야코벨리: 제 작품 활동에서 브로드웨이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는 뮤지컬 작업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토니상 후보에 오른 케이시 릭비가 출연하고 제가 디자인한 「피터팬」은 사람들이 마법의 세계라 생각할 법한 무대 중 하나입니



축소 모형의 실제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인상적인 무대 세트.



다. 「피터팬」으로 에미상을 받은 건 한편으로 놀라운 일이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피터팬」은 순회공연 중이던 브로드웨이 작품이었거든요. 그해에는 아주 운이 좋았습니다. 「태양의 서커스」, 그리고 그래미상·오스카상 무대 디자인과 경합을 벌였는데, 「피터팬」이 돋보였던 건 그 스토리텔링 때문이었던 같습니다. 큰 영광이었고 제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극장과 텔레비전, 두 가지 일의 교차점이 되었으니까요. 연극이었는데 텔레비전 상을 받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었지만 멋진 일이기도 했지요!

질문: 가장 흥미로웠던 텔레비전 디자인 작업에 대해 얘기해 주시지요.

존 야코벨리: 15년 전쯤에 「바빌론 5」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미래를 배경으로 한 공상 과학 프로그램이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하고 등장인물을 배경 속에 집어넣는 시도를 한 드라마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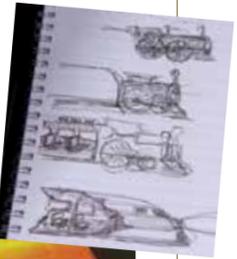
질문: 제작 디자이너는 이 모든 꿈과 흥미진진한 장소를 창조하는 일이라고 해야 맞겠군요.

존 야코벨리: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 꿈들을 만들어 내는 많은 일들이 실제적입니다. 연극이나 프로그램, 대본의 구상과 청중을 마법의 세계, 새로운 세계로 이동시키려는 시도를 결합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경우처럼 글로 쓰인 이야기라면 일련의 시들이 서로 엮이면서 멋

진 여행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작업은 어떠신가요?

존 야코벨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특별한 도전입니다. 1회 공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하거든요. 게다가 단번에 완벽하게 만들기는 어려운 법이지요. 우리는 그 아름다운 시들을 갖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빈센트는 작가들이 제시한 기차 여행이라는 구상을 받아들였어요. 상상의 여행, 영적 차원의 여행인 셈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미끄러지듯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곡선형의 세트를 구상했습니다. 영화 「휴고(Hugo)」나 다른 판타지 영화에 나올 법한 열차를 만들었는데, 그런 기차는 철로에만 매여 있지 않지요.



마법의 기차에 대한 존 야코벨리의 스케치와 실제 구현된 모습.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창작 팀과 만난 존 야코벨리.

우리는 오프닝을 위해 아름다운 곡선형의 배경천을 디자인했습니다. 아주 가볍고 하늘거리는 망사 입구에다 그 뒤에는 화려한 영사막을 설치할 겁니다.

또한 서로 다른 문화와 개념을 뽑아내 그래픽으로 표현합니다. 중국 장면 같은 경우 큰 홍등이 나온다거나 하면서 이런 다양한 문화와 정서적으로 연결된 장치들이 나옵니다.

질문: 아주 멋진데요. 마법의 기차에 대해 좀 더 들려주세요.

존 야코벨리: 스타일로 보자면 옛날 19세기 증기 기관차와 1930년대 현대 미술을 함께 조합한 것입니다. 거기에 기본 골격이 되는 공상 과학적인 색채를 가미했는데, 이러면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정말 멋진 기차 여행처럼 느껴질 겁니다.



이탈리아(왼쪽)와 중동 같은 문화적 특색을 살린 무대 디자인은 세계 각 지역으로의 여정이 두드러진다.

질문: 이 뮤지컬은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구상이나 영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존 야코벨리: 시들이 아름답습니다. 그게 작품 전체에 영감을 줬지요. 그 시들이 멋지게 느껴졌던 부분은 정말 어떤 여행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의 꿈결 같은 상태로 들어가면 그냥 읽을 때보다는 더 깊은 수준에서 시들이 강력하게 다가올 겁니다. 시를 읽을 때마다 “아, 이걸 몰랐네.” 하는 기분이 들지요. 그렇게 피상적인 차원을 넘어서 말하는 시라면 훌륭한 시인 거지요.

질문: 뮤지컬 초연 행사에서는 시인인 칭하이 무상사의 전 세계적인 인도주의 공헌도 표창되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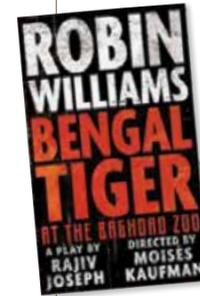
존 야코벨리: 제가 봤을 때 무상사님은 개인적인 삶을 아주 많이 희생하는 분입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크게 봉사하는 사람을 높이 삽니다. 그들은 더 큰 선(善)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제가 받은 메시지는, 우리 모두도 어떤 수준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녀가 제게 준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어떻게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가에 대한 메시지요. 갈수록 이 시와 이 가르침이 더 잘 이해된다는 사실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것을 이 예술 작품에 구현시킬 수 있다면 공연 후 그 메시지가 생명을 갖게 될 겁니다. 그 점이 흥분됩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음향 디자이너 심층 취재 크리켓 마이어스 (채식인)

음향 디자인은 텅 빈 극장 공간을 실감 나는 분위기로 채워서 관객들에게 다른 시공간에 있는 느낌을 주는 매력적인 역할이다. 음향 디자이너가 작업을 잘한다면 각 장면의 사실감이 한층 강화되도 관객은 음향 효과가 더해진 것을 알아채지 못한다.

로스앤젤레스에서만 200개 이상의 무대를 디자인해 온 크리켓 마이어스(Cricket S. Myers)는 그 뛰어난 재능으로 전 세계적인 요청을 받고 있다. 2011년에 드라마 데스크 상(Drama Desk Award)을 받은 데 이어 모이세스 카우프만(Moisés Kaufman)이 연출하고 로빈 윌리엄스가 주연한 연극 「바그다드 동물원의 벵갈 호랑



이(Bengal Tiger at the Baghdad Zoo)」로 토니상 최고 음향 디자이너 후보에 올랐다. 그녀의 수상 경력을 살펴보면 브로드웨이 월드 상(Broadway World Award), 스테이지 신 LA(Stage Scene LA)의 「시니 상(Scenie Award)」과 여러 차례에 걸친 「올해의 음향 디자이너(Sound Designer of the Year)」 선정, 로스앤젤레스 드라마 비평가상(Los Angeles Drama Critics Award), 백스테이지 갈란드 상(Back Stage Garland Award)이 있다. 그녀는 「라이브 디자인 매거진(Live Design Magazine)」의 「 주목해야 할 젊은 디자이너」로 칭해졌고, 「LA 스테이지 매거진(LA Stage Magazine)」의 「주목해야 할 예술가」 명단에도 올랐다.

“배우들이 제게 와서 배경 음이 들어간 게 정말 마음에 들고 덕분에 그 분위기를 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어스 씨는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과 가진 인터뷰에서 말했다. “음향은 그 장면의 긴장감이나 감정을 느끼도록 도움을 주며, 배우들은 종종 연기의 일환으로 음향을 활용합니다.”



토니상 후보 음향 디자이너 크리켓 마이어스.

2011년 마이어스 씨는 칭하이 무상사의 실제 인생 경험을 바탕으로 한 뮤지컬 「진정한 사랑」 창작 팀에 참여했다. 분주한 독일 병원, 거친 히말라야, 어울락(베트남) 전쟁, 인도의 왓자지결한 군중 등 다양한 장면이 그녀의 음향 작업을 통해 사실적으로 탄생했다. 이듬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다시 한 번 참여하게 된 그녀는 이 대형 공연에서 음향 전반의 디자인을 맡은 작

업에 대해 말했다. “저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빈센트 [패터슨]와 함께 일했어요. 먼저 그가 연출하려는 음향 효과와 분위기에 관해 얘기를 나눴지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대개는 기차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무대 장치였거든요. 존[야코벨리]의 기차는 매우 독특하면서도 복잡해서 기적 소리가 다양했어요. 어떤 것은 약간 소리가 달랐고 어떤 것은 길이가 달랐으며 어떤 것은 조금 멀리서 나는 소리였지요. 슈라인 홀에서 가장 좋은 음향, 장면에 가장 잘 어울리는 소리를 찾아 보려고 이곳저곳에서 실험을 거쳤습니다.”

마이어드 씨는 음악 감독 더그 캣사로스과 함께 21인 오케스트라를 작은 오케스트라석에 가장 알맞게 배치하고 그 연주음이 드넓은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완벽하게 울려 퍼지도록 도왔다.

그녀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아주 독특한 점이 많았으며 미소 지었다. “우선 슈라인 홀은 6천 석쯤 되는데 사실상 이 공연은 현장의 관객을 위해서뿐 아니라 촬영용으로도 진행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작자들은] 공연장에서는 물론 촬영 차량에서도 정말 깨끗하고 좋은 소리가 녹음되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시중에 나온 마이크 중 가장 작은 것을 구입했어요. 눈에 띄지 않도록요. 마이크도 아주 많았어요! 일반 공연에서는 4개에서 12개가 사용되고 15개만 돼도 많다 싶는데 이 공연에서는 거의 30개가 사용됐습니다.”

각국 노래들은 각자 독특한 가창 스타일과 문화적 특색이 두드러지는 관현악 연주 때문에 특별히 고민이 필요했다. 마이어드 씨는 이에 대해 회상했다. “아프리카[노래]는 북소리가 목직했고, 또 아일랜드의 경우엔 섬세한 하프 연주가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은 음역대가 아주 넓어서 아름답긴 했지만 엔지니어로서 큰 도전 과제였지요. 아주 저음으로 불려도 오케스트라 소리 위로 들려야 하고, 정말 크게 불려도 관객들이 듣기 불편하지 않아 했으니까요. 일반 공연에서는 노래들이 훨씬 더 비슷비슷



슈라인 오디토리엄 공연을 위해 음향 효과를 조합하는 크리켓 마이어드.

한데 여기서는 모든 노래가 완전히 독특해서 믹싱 작업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청난 도전이었지요.”

공연의 음향 디자인이 복잡하긴 했지만 크리켓 마이어드는 “모든 일이 아주 순탄하게 잘 진행됐어요. 훌륭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팀과 많은 지원 덕분입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크리켓 마이어드도 5대륙 23개국을 여행한 세계 여행자라는 점이다. 또한 동물을 사랑하는 채식주의자로서 토끼 구조 단체의 위탁모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있다.

일찍부터 고기를 안 먹는 생활을 선택한 것에 대해 그녀는 말했다. “부모님이 채식주의자는 아니었어요. 아기 때 부모님이 처음으로 고기를 먹이셨을 때 그걸 잠시 씹고선 뱉어 낸 후 안 먹겠다고 했어요. 제 어린 시절은 보통 그런 식이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곧 식물성 식단을 통해서 조숙한 딸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제공하기가 쉽다는 것을 알게 됐다. 마이어드 씨 본인도 맛있는 두부와 다른 식물성 단백질 요리를 잘 만드는 전문가가 됐다. “모두 멋진 음식이에요. 믿고 먹을 수 있고 아프지도 않아요. 기분도 아주 좋고요. 많은 사람들이 채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고기가 전혀 아쉽지 않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초청 연사 심층 취재 조지 차키리스 (채식인)



명 배우 조지 차키리스(George Chakiris)는 영화와 텔레비전, 연극계에서 국제적인 이력을 쌓았다.

나탈리 우드(Natalie Wood), 리처드 베이머(Richard Beymer), 러스 탬블린(Russ Tamblyn), 리타 모레노(Rita Moreno) 등이 주연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West Side Story)」를 각색한 동명의 영화에서 베르나르도(Bernardo) 역으로 걸출한 연기력을 선보인 차키리스 씨는 오스카상과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했다.

천부적인 노래와 춤 실력을 갖춘 조지 차키리스는 시드 카리스(Cyd Charisse), 데비 레이놀즈(Debbie Reynolds), 빙 크로스비(Bing Crosby) 등과 함께 영화에 출연했고 「쇼처럼 즐거운 인생은 없

“**무**엇보다 뮤지컬의 밤을 보는 그 자체가 아주 큰 즐거움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밤을 만든 영감의 근원을 보는 것도 굉장히 멋진 일이지요. 아주 아름답게 영감을 받은 것 같습니다.”

-조지 차키리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배우, 채식주의

다(There's No Business Like Show Business)」와 「화이트 크리스마스(White Christmas)」 등의 고전 영화, 「브리가둔(Brigadoon)」, 마릴린 먼로가 주연한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Gentlemen Prefer Blondes)」 등의 뮤지컬을 각색한 영화에도 출연했다. 그는 수퍼마켓 텔레비전과 가진 인터뷰에서, 마릴린 먼로가 그 대표작에서 「다이아몬드는 여자들에게 최고의 친구(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를 불렀을 때 댄서로 춤을 췄던 경험을 얘기했다. “굉장한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의 안무를 맡은 잭 콜(Jack Cole)은 위대한 안무가 중 한 사람입니다. 마릴린 먼로가 있었고 우리 모두 뒤에서 있던 기억이 있는데, 그녀는 아주 환상적이었습니다. 모습이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멋졌지요. 역사적인 그 뮤지컬 영화에 참여했던 저희 댄서 모두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조지 차키리스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영국 런던 공연에 출연했을 때는 리프(Riff) 역을 맡았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유명한 창작자이자 동명 영화에서 공동 감독과 안무를 맡았던 제롬 로빈스(Jerome Robbins)가 그를 베르나르도 역에 발탁한 것



이 오스카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 스타의 인기는 유럽에서도 계속돼 이탈리아 영화 「부베의 연인(Bebo's Girl)」과 「아비뇽의 음모(The Mona Lisa Has Been Stolen)」, 그리고 카트린 드뇌브(Catherine Deneuve), 진 켈리(Gene Kelly)와 함께한 프랑스 영화 「로슈포르의 연인들(The Young Girls of Rochefort)」에 출연했고, 프랑스 문화부 장관의 「예술 문학 훈장(Officer of the Order of Arts and Letters)」을 수여 받는 영예를 안았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조지 차키리스는 초청 연사로 칭하이 무상사를 소개하고 기리면서 1993년 프랭크 F. 파시(Frank F. Fasi) 호놀룰루 시장이 선포한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뮤지컬 초연의 의의에 대해 얘기했다.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와 마릴린 먼로 주연의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에서 잊지 못할 연기를 펼친 조지 차키리스.

차키리스 씨는 무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예술적 안목이 뛰어난 분을 소개하게 돼 기쁩니다. 뛰어난 시인이자 예술가이지만 영적 스승이자 인도주의자로 세계적으로 알려진 분입니다. 그녀는 예술도 사랑합니다. 예술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기 때문이지요. 칭하이 무상사는 인간이든 동물이든 모든 존재가 동등하고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평화롭고 존엄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며, 우리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다해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영웅이 되어 소중한 놀라운 생명을 구하고자 노력하는 한 가지 방식은 바로 채식을 하는 것입니다.”

조지 차키리스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가 지닌 보편적인 주제 ‘모든 이들이 자신의 평화를 찾기를’에 관해서도 얘기했다. 이 말은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

컬 가사에 나온다. “지구상 모든 이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자 애써야 한다는 것을 자각할 수 있다면 아주 멋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방향으로 탐색하고 이 방향에서 뭔가를 성취한다면 내면의 평화가 그들 자신을 넘어서 뻗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일하는 방식, 사람들과 여러 다양한 상황을 대하는 방식에서 내면의 평화를 보게 될 겁니다.”

뮤지컬이 평화와 비건 채식의 가치를 장려하는 관계로 조지 차키리스는 칭하이 무상사의 구호 ‘비건 채식을 하고 평화를 이롭시다’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다. “비건 채식을 하고 평화를 이롭시다’는 우리 일상생활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생각해 볼 만한 멋진 두 문구입니다. 비건 채식을 한다는 것은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뿐 아니라 지상의 모든 생명을 존중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평화는 우리 개개인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차키리스 씨는 성공한 보석 디자이너 겸 제작자이기도 하다. 그 아름다운 보석 작품에 대한 영감은 이탈리아 그 레이하운드인 그의 첫 번째 개 ‘새미’에게서 나왔다고 한다. “전 그 작은 개를 정말 사랑했어요. 무대 일을 할 때면 한 번에 보통 8, 9개월간 집을 비워야 했는데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새미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미의 인생에서 9개월은 정말 긴 시간이야. 다신 그러지 말아야지. 여기에 있자. 새미와 함께 지내자.’ 그 뒤로 금은 세공 장작를 듣기 시작했고 조금씩 만들다 보니 어느새 적잖은 작품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새미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조지 차키리스는 여러 세대에게 기쁨을 안기며 연예계 역사에 영원히 간직될 이정표를 남겼다. 온화하고 겸손한 성격 또한 내놓을 수 없는 그의 유산이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사회자 심층 취재 수지 카스틸로 (비건 채식주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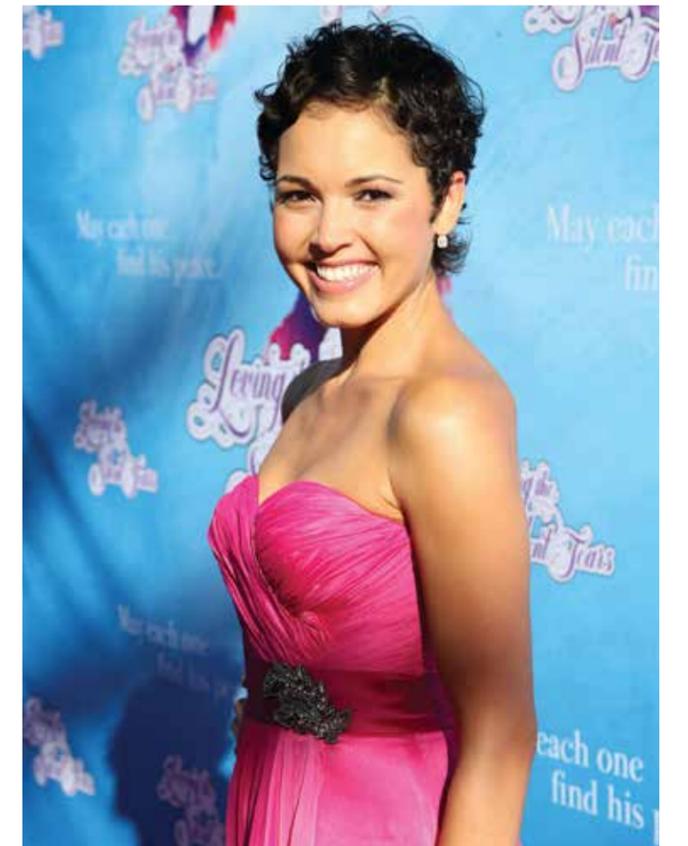
“지구상의 평화와 사랑을 고취시키는 행사에 참석하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수지 카스틸로/ TV 사회자, 배우, 전(前) 미스 미국. 비건 채식주의자

푸에르토리토-도미니카 미녀 수지 카스틸로(Susie Castillo)는 2003년 라틴계 여성으로는 세 번째로 미스 미국으로 선발되었다. 곧이어 「피플 엔 에스파뇰(People en Español)」이 그녀를 「가장 아름다운 25인」 중 1인으로 선정하면서 연예계로 진출하게 되었다.

수지 카스틸로의 가장 눈에 띄는 경력 중 하나는 청소년들에게 인기 있는 연예 채널 MTV의 진행을 맡은 것이다. 이어서 MTV 라디오 네트워크(MTV Radio Network)는 당시 미국과 푸에르토리코로 방송되는 「TR라티노(TRLatino)」를 제작해 카스틸로 씨에게 진행을 맡겼다. 그녀는 또한 CBS 스포츠, NBC의 「슈퍼스타 오브 댄스(Superstars of Dance)」의 진행자, 「레지스와 켈리의 라이브!(Live! with Regis and Kelly)」의 게스트로 참여했고, 미스 미국 대회를 생중계하는가 하면 전미 지역 사회에 힘을 주는 NBC 「스쿨 프라이드(School Pride)」의 공동 사회자도 맡았다. 배우로서는 TBS의 인기 시트콤 「타일러 페리의 페인 하우스(Tyler Perry's House of Payne)」에서 메르세데스 헤르난데즈(Mercedes Hernandez) 역을 연기했고 홀마크 채널(Hallmark Channel)의 「홀리데이 인게이지먼트(A Holiday Engagement)」와 독립 영화 「별들보다 더(More Than Stars)」, 디즈니 특선 영화 「슈퍼독(Underdog)」에 출연했다.

카스틸로 씨는 현재 로스앤젤레스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비건 채식 생활을 실천하며 어린이·동물 지원 비영리 기구들을 지



원하고 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와 관련해 「팝스탑 TV(PopStop TV)」, 「고비건 라디오(Go Vegan Radio)」, 「친환경 라디오(Environmentally Sound Radio)」 등의 매체가 그녀의 연예 활동과 자비로운 생활 방식, 이번 공동 사회자를 맡은 뮤지컬에 관해 인터뷰를 가졌다.

질문: MTV의 인기 프로그램 TRL(Total Request Live)의 진행자

로서 연예계 톱스타들을 인터뷰하셨는데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수지 카스틸로: 제니퍼 로페즈(Jennifer Lopez)부터 크리스티나 아길레라(Christina Aguilera), 샤키라(Shakira)까지 모두 인터뷰해 봤지만 MTV에서 인터뷰 일을 할 때 가장 좋았던 사람은 톰 크루즈일 것 같아요. 그는 모두에게 무척 자상했어요. 방송 내내, 그리고 중간 광고 시간에도 자리를 지키며 아이들과 얘기를 나눴어요. 정말 좋았어요.

질문: 많은 청소년 팬들이 존경하는 롤 모델이신데요. 사실 그 팬들 때문에 「자신감은 여왕의 길: 긍정적 사고를 통해 궁극의 아름다움을 쟁취하는 네 가지 열쇠(Confidence Is Queen: The Four Keys to Ultimate Beauty Through Positive Thinking)」라는 책까지 쓰셨잖아요. 그 책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수지 카스틸로: 기본적으로 아름다움,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요.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을 때 자신이 꿈을 좇고 있는지, 영혼이 진정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해 보세요. 저는 독자들이 먼저 그 점을 파악했으면 합니다. 첫째 열쇠는 영성인데, 저는 그게 인생의 기본 토대라고 믿습니다. 그 영성과 연결되고 깨닫는다면 그 튼튼한 토대 위에 삶을 일궈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질문: 청년들에게 의미 있는 삶을 장려하시다니 멋지네요. 10월 27일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초연일이자 동시에 당신 생일이기도 하던데요! 이번 행사를 진행하며 생일을 보내게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지 카스틸로: 모두의 평화를 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다니, 이보다 멋진 생일 축하는 없을 것 같아요. 비건 채식도 홍보하고요. 저는 그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칭하이



2003년 미스 미국 선발대회 우승자로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은 비건 채식주의자 수지 카스틸로가 내면의 아름다움도 빛낸다.

무상사의 날과 그녀의 멋진 시도 기념하지요.

질문: 어떤 영향으로 동물에 대한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발전시키게 되셨나요?

수지 카스틸로: 어릴 적 할머니한테서 아무리 가진 게 없어도 지구상엔 우리보다 덜 가지고 고통 받는 사람들과 존재들이 있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라면서 그 사랑의 마음이 살아 있는 모든 존재에게로 커지게 됐지요. 학대받는 동물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다들 잘 알듯이 축산업은 우리나라에서 동물 학대가 가장 심한 곳 중 하나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알아 갈수록 인생에서 더 현명하고 지성적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블로그를 통해서, 또 건강한 삶의 좋은 본보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돕고 계신데, 왜 사람들에게 비건 채식 생활을 알리는 데 시간을 들이시나요?

수지 카스틸로: 그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이번 생에 이 하나의 몸만 받았습시다. 그러니 그 몸을 제대로 대해야지 영망으로 만들어선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을 쓰레기처럼 다룹니다. 저도 몰랐던 시절에는 마찬가지로였어요. 6년 전에 채식으로 바꾸고부터 건강이 놀라울 정도로 좋게 변했어요. 그걸 세상과 나누고 싶은 거지요. 이제는 감기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만으로도 선물이에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 크게 외치고 싶은 심정이에요.

질문: 인생의 좌우명이나 원칙 같은 게 있나요?

수지 카스틸로: 제가 살아가는 황금률이 있습니다 “남에게 대우 받고 싶은 대로 남들을 대하라.” 제게는 동물도 여기에 포함돼요. 동물은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지구상에서 우리와 똑같이 영혼이 있습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사회자 심층 취재

코리 펠드만 (채식인)



수상 경력의 배우 코리 펠드만.

어린 시절 코리 펠드만(Corey Feldman)은 100여 편의 상업 광고와 「모크 앤드 민디(Mork and Mindy)」, 「아들과 딸(Eight Is Enough)」, 「한 번에 하루씩(One Day at a Time)」, 「치어스(Cheers)」 등 50여 편의 TV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영화 쪽으로는 디즈니사의 「미래의 추적자(Time After Time)」로 데뷔한 후 「토트와 코퍼(The Fox and the Hound)」에 출연했고, 그 후 「구니스(The Goonies)」, 「스탠 바이 미(Stand by Me)」, 「13일의 금요일 4(Friday the 13th: The Final Chapter)」, 「유령 마을(The «Burbs)」, 「그렘린(Gremlins)」 등 15편에 달하는 1위 흥행작에 연이어 출연했다. 코리 펠드만은 코리 하임(Corey Haim)과 함께 「로스트 보이(The Lost Boys)」, 「운전면허(License to Drive)」, 「드림 걸(Dream a Little Dream)」에도 출연하여 많은 찬사와 상을 받았다.

그는 활발한 음악 활동의 결실로 2장의 솔로 앨범을 냈고 자신

“코리 펠드만이 무대에 올랐다가 퇴장해서 제게 말을 걸었을 때 「구니스」의 왕팬인 내가 당신과 한 방에 있다니, 이렇게 영광스러운 데가! 싶었어요. 그의 사진을 찍어서 제 인스타그램에 올렸지요. 정말 대단했어요.”

-브라이언/ 한국 팝스타

“저는 코리 펠드만의 팬이에요. 「유령 마을」 같은 그의 영화를 보면서 자랐어요. 「구니스」는 지금까지도 가장 좋아하는 영화에 속합니다.”

-수지 카스틸로/ TV 사회자, 배우, 전 미스 미국, 비건 채식주의자

의 밴드 「코리 펠드만의 진실 운동(Corey Feldman's Truth Movement)」과도 2장의 앨범을 더 냈다. 또한 미국 전역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수십 차례에 걸쳐 공연하기도 했다.

계속해서 다양한 영화에 출연한 그는 큰 국제 영화제에서 남우 주연상을 수상했고, 2005년에는 「치명적 유혹: 그리스 비극(Fatal Attraction: A Greek Tragedy)」으로 오프브로드웨이 연극에 데뷔했다. 이 밖에 디즈니의 「슈퍼 로봇 몽키(Super Robot Monkey Team



Hyperforce Go!)에서 스팅스77(Sparx-77)의 목소리 연기도 맡았다. 2007년 코리 하임과 함께 A&E 네트워크의 리얼리티 TV 프로그램 「두 명의 코리(The Two Coreys)」를 진행했을 때는 프로그램의 책임 프로듀서도 담당했다.



채식하는 공동 사회자 수지 카스틸로와 함께 공연장 분위기를 띄우는 수상 경력의 배우 코리 펠드만.

사랑받는 배우, 음악가, 프로듀서인 그는 27년째 채식주의 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환경과 동물 보호를 위해 많은 자선 활동을 펼쳤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는 4명의 채식주의 공동 사회자 중 한 명으로 진행을 맡았다.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을 축하하는 이런 뜻 깊은 행사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겸허한 마음이 듭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 살아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평화와 조화를 가져다 주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동참하다니 정말 멋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날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착하던 것들, 물질세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사



매월 6백만 명이 찾아보는 온라인 할리우드 매체 「팝스탑 TV(Pop Stop TV)」가 뮤지컬 초연 직전에 코리 펠드만과 인터뷰를 가졌다.



팝스탑 TV: 이곳 할리우드에서 수많은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하셨을 텐데 이번 레드카펫 행사가 특별한 점은 뭐가요?

코리 펠드만: 아름답지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있나요? 실제 세계의 축소판이지요.

팝스탑 TV: 동감입니다.

코리 펠드만: 예, 놀라워요. 이 모든 아름다운 나라와 대륙들이 오늘 여기에 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세계 평화와 만물 동일체, 다 함께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아가는 모습을 실제로 구현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일이지요.

라질 수 있고 그것을 가졌든 못 가졌든 모두 똑같아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 [가슴을 가리키며]과 이곳[이마 중앙을 가리키며]에 담긴 것입니다. 그걸 가슴과 영혼에 간직하기만 한다면 괜찮을 겁니다.”

코리 펠드만이 인간과 동물 모두를 위해 평화와 사랑을 조성하자는 고귀한 이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덕분에 머지않아 자애로운 비건 채식 세계가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더해졌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레드카펫 행사에서 코리 펠드만은 글로벌 위성 TV 네트워크 「타임 TV(Time TV)」와 인터뷰를 가졌다.

타임 TV: 오늘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코리 펠드만: 오늘 행사는 아름답고 영적이며 마음을 고양시키는 놀라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앉아서 관람하고 또 참여도 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타임 TV: 무슨 이유로 이 행사에 참여하시게 됐나요?

코리 펠드만: 당연히 이 멋진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지요. 그들이 저를 생각해 줘서 감동받았고 영광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타임 TV: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담긴 메시지를 좀 알려 주시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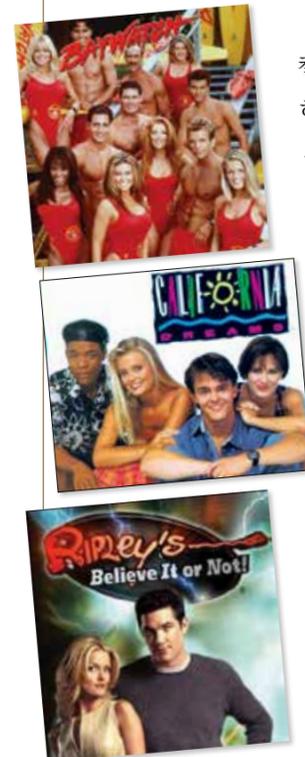
코리 펠드만: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인데, 지구상에 더불어 사는 모든 생명, 모든 존재들과 평화와 사랑, 조화 속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줄곧 이 중요한 메시지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우여곡절과 부정적인 힘, 장애에 사로잡혀서 그렇지요. 또한 사회, 정치도 우리 머릿속에 두려움에 기반한 모든 개념들을 집어넣으며 그것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믿게 만듭니다. 사실 그것들은 무시하고 차단해야 하며,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사랑과 신의 사랑, 평화에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사회자 심층 취재

켈리 팩커드 (채식인)

인 기 TV 드라마 「SOS 해상 구조대(Baywatch)」의 주연으로 가장 잘 알려진 켈리 팩커드(Kelly Packard)는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초연 행사에서 다른 세 명의 채식주의자와 함께 MC로 활약했다.

켈리 팩커드는 설렘으로 눈을 반짝이며 칭하이 무상사의 날을 기념하는 특별하고 자비로운 메시지 때문에 흔쾌히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타임 TV(Time TV)」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말했다. “당시에는 이 뮤지컬이 평화와 사랑에 관한 것이고 동물의 권리를 지지한다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도 바로 참여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칭하이 무상사와] 그 가르침에 대해 정말 알게 됐는데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켈리 팩커드는 여덟 살 때 TV 광고에 출연하며 연예계에 입문한 데 이어 1988년에는 어린이 미스 캘리포니아의 영예를 차지했다. 켈리 팩커드는 「케빈은 열두 살(The Wonder Years)」, 「보이 미츠 월드(Boy Meets World)」,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 「리빙 돌(Living Dolls)」 등 여러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했다. 그녀가 처음으로 고정 출연한 작품은 「베이스아이드 열개들(Saved by the Bell)」의 프로듀서 피터 엔겔(Peter Engel)이 제작한 NBC 코미디 「캘리포니아 드림(California Dreams)」이었다. 16세의 팩커드 양은 서핑하는 소녀 티파니(Tiffani) 역을 맡아 다섯 시즌 동안 연기했다.



배우이자 텔레비전 진행자 켈리 팩커드.

뫼니 뫼니 해도 이 여배우의 이름이 가장 잘 알려진 작품은 장수 드라마 「SOS 해상 구조대」일 것이다. 이 드라마에서 안전 요원 역을 맡았던 그녀는 이렇게 회상했다. “세계 최고의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저의 영적인 면이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깥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매일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팩커드 씨는 TV 사회자를 맡아 자연스러운 매력과 재능을 발휘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프로그램 중 하나인 「리플리의 믿거나 말거나!(Ripley's Believe It or Not!)」에서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특별한 사람들의 신기한 일들을 보도했다.

평생 동물을 사랑해 온 켈리 팩커드는 자비로운 생활 방식을 선택하게 된 사연에 대해 얘기했다. “저는 채식주의입니다. 8년 전에 정말 채식주의를 해보려고 했는데 두렵고 겁이 났어요. 채식주의하려던 이유는 동물을 사랑하는 동물 활동가로서 채식주의 하지 않는 게 우선적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 구조단체인] 「아만다 재단(Amanda Foundation)」의 행사에 갔는데... 행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선 바로 채식주의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쉬워서 놀랐어요. 하고 싶었던 일을 한다는 게 영적으로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켈리는 자신의 이상과 딱 맞아떨어지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행사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전했다. “미약하나마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서 아주 기뻐요. 시집 『침묵의 눈물』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오, 이걸 뮤지컬로 만들면 아름답겠는데!’ 하고 생각했지요. 그것을 미리 볼 수 있어서 아주 기쁘답니다.”

그녀는 공동 사회자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 순간을 즐기며 자신의 방식으로 메시지를 나누는 능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메시지를 묻는 질문에 팩커드 씨는 즉각 대답했다. “당연히 평화와 사랑입니다. [칭하이 무상사기] 이미 그 본보기를 보셨지요. 그녀의 모든 글이 그 본보기입니다. 이 행사는 그 메시지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그렇지요?”

뮤지컬 행사에는 켈리를 비롯해 같은 뜻을 지닌 많은 개인들이 참여해 조화로운 세상이라는 뮤지컬의 비전을 장려하고 기렸다.



동료 채식주의인 배우 크리스토프 세인트 존과 뮤지컬 초연 사회를 맡은 켈리 팩커드.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사회자 심층 취재 크리스토프 세인트 존 (채식인)

“우리는 매우 진화했고 지성을 갖춘 인류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먹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게 고기는 그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크리스토프 세인트 존/ 에미상을 2차례 수상한 배우. 채식주의



여덟 살의 나이에 시트콤 「우리 엄마예요(That's My Mama)」로 TV에 첫 출연한 크리스토프 세인트 존(Kristoff St. John)은 지난 23년간 최고 인기를 구가하는 CBS 주간(晝間) 드라마 「더 영 앤 더 레스트리스(The Young and the Restless)」의 스타 중 한 명으로 극중 등장인물 닐 윈터스(Neil Winters)를 연기했다.



에미상 후보에 8차례 지명된 바 있는 크리스토프는 「더 영 앤 더 레스트리스」로 에미상을 2차례 수상했고, NAACP(National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Colored People, 전미 흑인 지위 향상 협회)의 권위 있는 이미지 상(Image Award)의 「주간 드라마 남우 주연상(Best Actor in a Daytime Drama)」을 8차례 거머쥐는 영광을 누렸다. 이 외 「서든리 수잔(Suddenly Susan)」, 「마틴(Martin)」, 「리빙 싱글(Living Single)」, 「코스비 가족(The Cosby Show)」 등 20여 편이 넘는 TV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한 그는 많은 작품의 구애를 받는 배우이자 재능 있는 연출가, TV 진행자이다.

삶을 참으로 사랑하며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세인트 존 씨는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을 기념하는 초대형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공동 사회를 맡았다. 그의 인생과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행사에 대한 매혹적인 생각들을 들어 보자.

저희는 유대가 끈끈한 가족이고 채식주의 했습니다. 일정 기간은

생식도 했지요. 저는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일곱 살 때 레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를 읽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단순히 읽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를 했어요. 부모님은 영어와 언어, 교육을 무척 중시하셨습니다. 다방면으로 창의력이 뛰어나셨던 아버지는 작가, 감독, 배우 생활을 하셨고 왕립연극학교(Royal Academy of Dramatic Arts)에서 공부한 영국 여배우와 결혼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예계 집안에서 자란 셈입니다. 그 점을 깨달았을 무렵에는 이미 [연기 대사를] 외울 정도가 돼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반복해서 보고 또 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2의 천성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저는 이 일이 즐겁습니다.

『더 영 앤 더 레스트리스』에는 1991년에 합류했습니다. 첫 에피소드가 끝난 후 프로그램 제작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지요. “계약하면 어떻겠어요?” 하길래 “그럼요, 안 할 이유가 없지요!” 했지요. 아주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솔직히 3년을 못 넘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해로 22년이나 됐습니다. 연예계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피 데이즈(Happy Days)」 출연진과 일했던 게 기억나는데, 당시 「해피 데이즈」는 인기 절정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미니 시리즈 「뿌리(Roots)」에서 [유명 작가] 알렉스 헤일리(Alex Haley)의 아역을 연기했고 알렉스 헤일리와 제임스 얼 존스(James Earl Jones)와 일하게 됐습니다. 자라면서 「미녀 삼총사(Charlie's Angels)」를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같이 일할 기회가 생겼을 때는…! 그뿐만 아니라 「원더우먼(Wonder Woman)」이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리던 70년대에 린다 카터(Lynda Carter)와도 일했습니다. 인생이라는 이 여정을 따라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으로 즐겁습니다.

오, 작년 「진정한 사랑」 뮤지컬은 대단했습니다. 포스터에서 봤는데 ‘진정한 사랑과 돈 맥클린 특별 출연…」이라고 돼 있었던 게 생생합니다. 무상사의 이런저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 핵심은 사랑과 인류에 봉사하자는 내용 같았고, 해야 할 말을 하는 그



칭하이 무상사가 영상 연결을 통해 특별 귀빈으로 함께한 2011년 뮤지컬 「진정한 사랑」 초연에 참석한 크리스토프 세인트 존.

접근 방식이 정말 부드러웠습니다. 뮤지컬은 대단히 아름다웠습니다. 공연도 멋졌고 제작도 훌륭했습니다. 가수들의 공연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대단했고 무용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젊은 여인이 인도로 구도의 여정에 오른 줄거리였는데,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저 역시 인도에 간 적이 있었고 그게 무상사의 인생 이야기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참석할] 가치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한테서는 매우 균형 있게 온화하게 접근하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게는 그게 큰 의미를 지닙니다. 힌두교를 접한 지 10년째이고 힌두교도이기도 한 저는 그녀가 내면의 차원에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씀이 끝날 무렵에는 마치 성녀(聖女)를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가 갖지 못한 재능을 갖고 태어난 분 같았지요.

이번에는 제 입장이 달라졌습니다. 관객이 아니라 출연진 쪽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존 세카다, 조디 와틀리 등 음악 쪽에 있는 분들, 오스카 수상자 같은 수많은 대스타들이 출연합니다. 무용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전체적인 제작 수준이 작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이 말은, 필요할 경우엔 브로드웨이 무대에 올려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흥분되는 일이지요.

지금 채식 하고 있는데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롭고 상쾌한 느낌입니다. 잠은 더 적게 자지만 일은 더 많이 하고요. 채식이나 비건 채식 하는 사람들한테서 이 얘기를 듣긴 했는데 저 역시 훨씬 더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력적으로 활동하고 더 명확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정신적인 느낌일까요? 아닙니다. 당시 육체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었습니다.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잠깐이면 됩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내면의 평화가 없다면 살아 있는 게 아니지요. 다들 각자가 걸어야 할 여정이 있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기 위한 저의 여정은 제가 태어난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제 아이들로부터 내면의 평화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평화라기보다는 인내라고 해야 마땅하겠지만 인내를 통해 평화를 찾게 되더군요! 저는 공부를 많이 했지만 그건 진짜 개인적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곳에서 정말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능력이 있고 그게 바로 내면의 평화를 찾는 열쇠입



손님들과 레드카펫에서.

니다. 그것을 찾지 못한 채 지구를 떠날 건가요? 당연히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찾을 곳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정말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격조 높은 일류 행사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제가 좋아하는 분입니다. 인류 동포에게 사랑과 평화, 선의로 봉사하는 분들을 저는 아주 존경합니다. 공중 곡예는 믿기지 않을 겁니다. 이 행사에서 6대륙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세계 도처의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모인 거지요. 이게 바로 진짜 용광로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가 이 행사를 하기에 완벽한 곳이지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뮤지컬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걸 공연이니까 인생에서 멋진 하룻밤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제가 연예인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우울하거나 슬플 때 이런 공연을 보면 전에 갖고 있던 고민이나 괴로움을 두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혼의 양식도 약간 얻어 가게 되지요. 아니, 말을 바꿔야 옳을 듯한데 영혼의 양식을 ‘아주 많이’ 얻어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토프 세인트 존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비건 채식 하고 평화를 이롭시다. 사랑하고 전쟁을 하지 마세요. 되돌려 주고 빼앗지 마세요. 박수를 쳐 주고 여러분 동포를 안아 주세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무대 뒤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들뜨고 멋진 제작의 날입니다. 오늘 공연하기 때문이지요! 경사스러운 날이고, 여기는 평화와 사랑, 선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저는 이 세 가지의 친선 대사가 될 겁니다. 우!”

-크리스토프 세인트 존/ 에미상을 2차례 수상한 배우. 채식인



제 5 장

매체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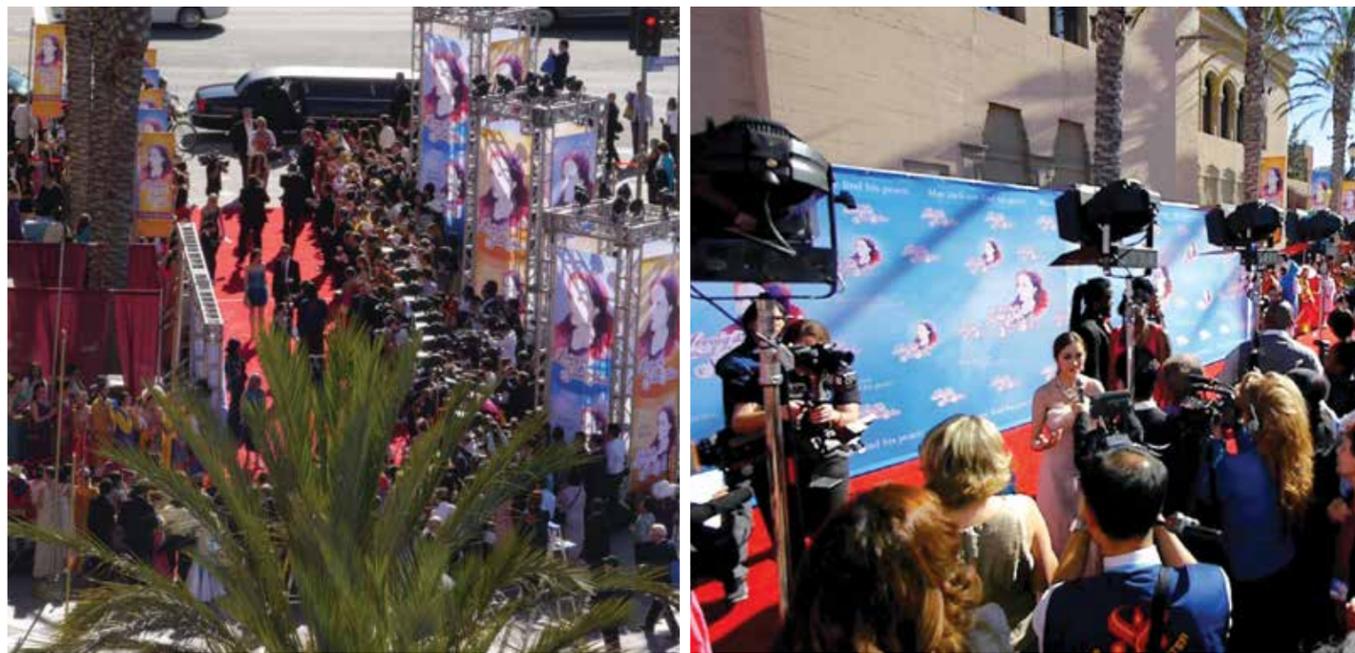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매체 보도

“아름답다!” “높은 에너지, 마음을 고양시킨다!” “황홀한 저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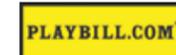
뮤지컬이 6대륙을 도는 한 편의 서사시 같은 여정을 펼쳐 보였듯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대한 보도 또한 각국 매체들을 통해 호주·자메이카·일본·인도네시아·태국·홍콩 등 멀리까지 전 세계 청중들을 찾아갔고,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도 전 세계 팬들에게 뮤지컬 소식이 퍼져 나갔다. 많은 신문·잡지·텔레비전·라디오·웹사이트에서 1회 초연된 뮤지컬에 대해 소개하고 방송하고 논평했다. 대표적

인 매체로는 『로스앤젤레스 타임스(Los Angeles Times)』, 『할리우드 리포터(The Hollywood Reporter)』 잡지, KCAL 채널 9 같은 현지 매체는 물론 유니비전(Univision, 스페인어), 『세계일보(世界日報, 중국어)』,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 페르시아어), 미주 MBC(한국어) 같은 재외 교민 매체까지 포함되었다. 3백여 곳의 매스컴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행사 전후의 소식을 대중들에게 알려 주었다. 다음은 이들 보도의 일부이다.



스타들과 매체 관계자들, 환호하는 군중들로 부산했던 레드카펫 행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브로드웨이와 전 세계 극장 공연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플레이빌(Playbill)』의 앤드류 간스(Andrew Gans)는 다음과 같이 썼다. “이 공연은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에 영감을 받은 것이었다. 여러 작곡가들이 한데 모여 감동적인 시를 음악으로 옮겼다.”



로스앤젤레스의 최고 인기 방송국에 속하는 KOST 103.5 FM은 행사 소식을 알리며 “독특하고 마음을 고양시키는” 뮤지컬이라고 전했다.



젊은 세대를 위한 세계 굴지의 연예 오락 채널로 알려진 MTV는 웹사이트에 재닌 바우어(Janine Bower)의 글을 게재하며 공연 소식을 전했다. “사실 이 특별한 뮤지컬을 왜 놓치고 싶겠는가? 답은, 결코 놓치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 브로드웨이풍의 뮤지컬은 음악계에서 가장 호평받는 국제적인 아티스트들의 조합을 자랑하기 때문이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멤버에서 솔로로 전향한 케이팝의 아이콘 브라이언과 깊고 강력한 R&B 스타일로 알려진 ‘서울 디바’ 헤더 박 외에도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출연진은 명실상부한 각 음악 분야의 진정한 거장들로 진용을 이루고 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TV」가 오스카상을 2차례 수상한 작곡가 알 카샤, 브라질 가수 파비아나 파소니와 함께 공연에 대해 인터뷰하다.



미국 주요 TV 방송국 유니비전이 그래미상을 2차례 수상한 존 세카다와 얘기를 나누다.



「산 마리노 트리뷰」이 그래미상 수상자이며 뮤지컬 출연자인 조디 와틀리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다.



「온 에어 워드 토니 스위트」와 방송한 뮤지컬 출연진. 왼쪽 위부터 토니상 수상자 데뷔 그래비티, 에미상 수상자 리즈 캘러웨이, 이탈리아 채식인 테너 마크 자니셀로, 프랑스 가수 플로 앙카.



유명한 소비자 보도 TV 프로그램 「베스트딜 TV 쇼」에 리얼 콜렛, 시아바쉬 샴스, 카멜리아 아부-오다가 출연하다. (왼쪽부터)



중국 방송국 ETTV가 홍콩의 플래티넘 팝스타 사안기와 인터뷰를 갖다.



미주 「한국일보」와 인터뷰한 브라이언과 헤더 박.



미국의 소리-페르시아 TV가 페르시아의 슈퍼스타 시아바쉬 샴스와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하다.



사이공 엔터테인먼트 TV에 출연한 어울락(베트남) 팝스타 호꾸인호영.



「고 비건 라디오」가 에미상을 2차례 수상한 배우이자 채식적인 크리스토프 세인트 존을 인터뷰하다.



뉴욕의 WVOX 1460 AMI TV 진행자이자 전 미국 수지 카스틸로와 뮤지컬에 대해 얘기를 나누다.

BEVERLY HILLS COURIER

캘리포니아 비벌리힐스 지역에서 18만 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비벌리힐스 큐리어(Beverly Hills Courier)』는 「시를 무대로 가져온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라는 기사를 실었다. 내용을 발췌하자면 다음과 같다. “10월 27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초연되는 새로운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참된 행복을 찾는 인류의 여정을 그린 매혹적인 이야기를 약속한다. 존 세카다 또한 뮤지컬에서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가사로 한 자작곡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Best Deals TV Show

로스앤젤레스의 주요 TV 채널 KCAL 9에서 방영되는 「베스트딜 TV 쇼(Best Deals TV Show)」는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시청률이 가장 높은 소비자 보도 프로그램으로, 연예 프로그램을 비롯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장 소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의 진행자 린다 홀리건(Lynda Halligan)은 이렇게 보도했다. “들리는 바로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30명이 족히 넘는 미국 내 현존하는 최고의 무용수로 꾸러진 앙상블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싶다면 오페라부터 삼바, 중등 스타일의 노래까지 매혹적인 목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뮤지컬의 보편적인 주제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날이 예증하는 전 지구적이고 귀한 가치에 꼭 맞아떨어집니다. 이 행사는 이 특별한 날의 19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오랫동안 오스카상 시상식장이었으며 북미 최대 무대이기도 한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공연된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재미있을지 상상이 갈 것입니다.”



글로벌 보이스 방송사(Global Voice Broadcasting)의 「온 에어 위드 토니 스위트(On Air with Tony Sweet)」는 매일 2백만이 청취하는 연예 토크 쇼이다. 라디오 진행자 토니 스위트(Tony Sweet)는 스튜디오에서 뮤지컬 출연진 여러 명과 인터뷰를 나누면서 얘기했다. “좀 전에 하이라이트 영상을 봤는데 정말 많은 방면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을 한데 모아 이 뮤지컬을 만들었다는 점이 참 마음에 드네요.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것 같습니다. 이런 출연진과 이런 프로젝트는 지금 세상을 위하는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 이해를 돕는 일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음악은 언제나 그 최고의 방법이지요.”



캘리포니아 패서디나의 월간지 「더 매거진(The Magazine)」도 소식을 알렸다. “올가을 브로드웨이 스타들과 팝 아이콘, 할리우드 작곡가들이 함께 뭉친 특별한 새 뮤지컬을 선물받게 될 것이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라는 제목을 가진 이 새 브로드웨이 품 뮤지컬은 독특하고도 웅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Awareness

미국 남서부의 7만여 독자들을 대상으로 의식 있는 삶을 인도하는 『어웨어니스 매거진(Awareness Magazine)』은 이렇게 말했다. “스타들과 할리우드 명사들로 화려한 새 뮤지컬이 이제 곧 우리 의식을 조금 더 높이 고양시킬 참이다. 이 새로운 뮤지컬이 유명인사뿐 아니라 고양된 의식으로도 눈부시게 빛나는 것을 보면 평화를 사랑하는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듯하다.”

LIFE AFTER 50

『50 이후의 인생(Life After 50)』의 데이비드 로렐(David Laurell)은 오스카상을 2차례 수상한 작곡가 알 카샤와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뮤지컬에 대해 얘기했다. “이는 종교 신앙을 초월합니다. 무상사의 가르침이나 교리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종교나 영성에 대해 가지는 느낌을 넘어섭니다. 이 독특한 뮤지컬에는 훌륭한 음악뿐 아니라 조디 와틀리, 존 세카다 같은 오늘날 지구를 휩쓰는 실력자들이 대거 참여합니다... 그러니 10월 말이면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한자리에 모여 엄청난 밤을 선사할 것입니다.”



뉴욕 WVOX 라디오 방송국에서 방송되는 라디오 토크 쇼 「친환경 라디오(Environmentally Sound Radio)」의 진행자 밥 레벤솔드(Bob Lebensold)는 뮤지컬에 참여하는 스타들과 인터뷰를 가지며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다음 게스트는 마크 자니셀로입니다. 그는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한 이탈리아계 미국인 테너입니다. 지금은 네덜란드에 살고 있는 관계로 그곳과 연결해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마크는 우리의 좋은 친구인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원작으로 해서 조만간 상연되는 뮤지컬에 참여하는 스타 중 한 분입니다. 칭하이 무상사는 이 라디오 프로그램에 모신 적도 있었는데 훌륭한 여성이며, 저는 그녀에게 많은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라는 제목의 이번 작품은 연극의 마법과 전통 무용의 신비로운 아름다움, 영혼을 뒤흔드는 시의 세계, 그 이상이 엮여 있습니다. 와! 그리고 단 1회 공연입니다.”



유니비전(Univision)은 미국의 주요 스페인어 텔레비전 방송국이자 미국에서 다섯 번째로 큰 텔레비전 방송국이다. 다음은 유니비전의 보도 내용이다.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가

로스앤젤레스를 찾습니다. 이 공연을 위해 모인 출연진 대부분은 그래미상이나 오스카상 등이 나라 연예계에서 가장 큰 인정을 받는 상을 수상한 사람들입니다. 그중 한 분이 존 세카다입니다. 쿠바 가수 존 세카다는 라틴계로서는 처음으로 브로드웨이 뮤지컬 「그리스(Grease)」의 주연을 맡았으며, 이번에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로 새로운 무대를 선보입니다.”

FRENCH MORNING

매달 8만 명이 방문하는 프랑스어 인터넷 잡지 『프렌치 모닝(French Morning)』은 출연자인 플로 양카(‘플로안느’로도 알려짐)에 대해 기사를 실었다. 이 잡지에서 갈리아 카디리(Ghalia Kadiri)의 기사를 발췌하자면 다음과 같다. “『타임 아웃(Time Out)』은 그녀를 일컬어 ‘프랑스의 마돈나’라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새로운 에디트 피아프라고 한다. 주로 뉴욕 무대와 카바레 공연에 출연했던 플로안느는 멋진 공연으로 기대되는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공연을 눈앞에 두고 있다. 뮤지컬은 지금껏 연극으로 각색된 적이 없었던 작품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이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은 행복과 내면의 평화에 대한 추구를 다룬다. 특유의 음색과 감성이 풍부한 목소리로 발탁된 플로안느는 ‘이 제작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중국어 채널 ETTV 아메리카(Eastern Television America)는 포모사(대만)에 모회사를 두고 있는 미국 현지의 텔레비전 방송국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홍콩의 유명 가수 사안기가 미국의 새로운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공연에 초청됐습니다. 그녀는 이 공연의 유일한 중국인 주요 출연자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명망 있는 다른 예술가들과 같이 한 무대에 섭니다. 캘리포니아 남부의 많은 중국계 미국인들이 그녀의 공연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출연진 브라이언과 헤더 박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어 TV 네트워크 TVK24의 진행자는 말했다. “오늘 방송에서는 뮤지컬사에 신기원을 여는 기념비적인 뮤지컬로 여겨지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캐스팅된 뮤지컬에서 자랑스런 한국 문화를 소개하실 한국 공연자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문화 공동체가 되어 가고 있는 지금 새로운 형식의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가 나왔는데 이 뮤지컬을 통해 한국 문화를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La Opinión

로스앤젤레스에서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신문 『라 오피니온(La Opinión)』은 미국 최대 스페인어 신문 중 하나이다. 루세로 아마도르-미란다(Lucero Amador-Miranda)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존 세카다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대해 얘기를 나눈 후 기사를 썼다. “존 세카다가 수록곡 한 곡을 쓴 새로운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는, 이 쿠바 가수가 「올라LA!(¡holaL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아주 리듬감 있고 열대 느낌이 나는 스타일’이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그는 극장 무대에 서게 된 것에 대해 예술적 도전을 시작한 게 극장에서부터였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일로서는 낯설지 않다고 말한다...” 이 신문은 자사 연예 잡지인 『라 비브라(La Vibra)』에서도 보도했다. “존 세카다는 최근 많은 자선 활동에 참여해 왔으며 이 행사 또한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 다들 존 세카다의 새로운 노래 「모두 사랑하고 모두 용서하기를」을 처음으로 들을 수 있고 마음을 깨우치는 이 행사의 일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The Irish Herald

아일랜드계 미국 신문 『아이리쉬 헤럴드(The Irish Herald)』는 이 공연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렸다. “그녀는 바로 아일랜드 예술의 진가를 새로 알렸던 오리지널 ‘리버댄스(Riverdance)’에서 세상을 매혹시켰던 목소리이다. 더블린 토박이이며 보컬 그룹 아누나(Anúna)와 발매한 CD로도 유명한 케이트 맥마흔은 이제 미국에서 상연되고 초호화 캐스팅을 자랑하는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자랑스러운 아일랜드 문화를 선보인다.”

TEHRAN

주요 페르시아어 간행물 『테헤란 인터내셔널 위클리 매거진(Tehran International Weekly Magazine)』도 기사를 실었다. “시아바쉬 삼스가 저명한 미국 예술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새로운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평화를 고취한다... 아랍 대중문화에 자리잡은 시아바쉬의 대단한 위상을 생각한다면 이란 문화의 대표자로 그 이상의 책임자는 떠올리기 어렵다.”

L'Italo-Americano

이탈리아 영자 신문 『라이탈로 아메리카노(L'Italo-Americano)』의 알레산드라 마스트로아니(Alessandra Mastroianni)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마크 자니셀로가 놀라운 작품에서 공연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로스앤젤레스는 세계적인 영적 스승이자 인도주의자, 시인, 예술가인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을 원작으로 한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다. 그녀의 작품은 작곡가 알 카사의 손을 거쳐 작곡되어 뮤지컬로 발전했다. 이번 공연은 모두를 16개국의 영적 차원으로 인도하여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 뮤지컬에는 그래미상 수상자 존 세카다, 조디 와틀리, 블랙 우후루와 같은 유명 스타들이 출연한다. 테너 마크 자니셀로는 물론이다.”



어울락어(베트남어) 공중파 디지털 채널인 리틀 사이공 TV(Little Saigon TV)는 어울락 팝스타 호꾸인호영과 인터뷰를 가졌다. 진행자는 이 가수와의 그녀의 새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아주 독특한 오락 공연을 소개해 드립니다. 새로운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유명한 가수와 예술가들이 한 무대에 모여 창작 공연을 선사합니다. 우리 베트남 국민도 이 공연에 참여하는데 아주 매력적인 베트남 여가수입니다.”

mantiqueira

브라질에서는 『호르날 다 만티케이아(Jornal da Mantiqueira)』 신문이 보도했다. “포스스지카우다스(Poços de Caldas) 출신의 가수가 미국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다. 해외에서의 활동을 인정받고 북미 국가에 사는 최고의 브라질 가수상을 수상한 파비아나 파소니가 모국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이번에 대형 뮤지컬에 출



연한다... 그녀는 날이 갈수록 미국 음악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 브라질 언론상(Brazilian International Press Awards)」의 미국 내 「최고의 브라질 여가수」로 선정된 것을 계기로 파비아나 파소니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브라질 대표로 초청받게 되었다. 이 뮤지컬 작품은 평화를 옹호하는 베트남 여성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을 원작으로 한 것이다.”

유대인 교민 사회에서 10만 명의 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유대 신문(Los Angeles Jewish News)』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어린 시절 혜성처럼 등장해 성공을 거둔 23세의 이스라엘 노래 감성 리얼 콜렛이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팝 아이콘, 브로드웨이 스타들로 이루어진 쟁쟁한 출연진에 합류한다... 리얼은 이 작품에서 고국 이스라엘의 자랑스러운 대표가 되어 전 세계 6대륙 16개국을 도는 놀라운 여정에 오른다.”



행사 후 보도

행사 후에도 각 매체들이 공연에 관한 논평을 실었다. 다음은 그중 일부이다.



세계 최대의 가장 종합적인 연극 사이트로 알려진 「브로드웨이 월드(Broadway World)」는 공연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게시하고 다음과 같이 평했다.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 『침묵의 눈물』에 영감을 받은 이 공연은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인류의 보편적인 추구를 주제로 삼았기에 그와 비슷한 대다수 공연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었다.”



구독자가 2만 5천 명에 이르며 생활 방식을 다루는 월간지 『패서디나 매거진(Pasadena Magazine)』의 몰리 칼슨(Molli Carlson)은 이렇게 썼다. “10월 27일 토요일 로스앤젤레스의 유명한 슈라인 오디토리엄 밖은 세계 최초로 공연되는 독특한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를 관람하려는 대중들이 몰려들면서 기쁨이 물결치는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 이 뮤지컬은 문제를 가진 두 주인공과 누구나 공감할 법한 그들 내면의 조화를 찾는 탐색을 담고 있다. 완성도 높은 제작에 몰입된 객석은 30명의 앙상블이 라이브 오케스트라에 맞춰 공연을 펼치자 16개국을 가로지르는

시각적·청각적 영적 여행에 동승하게 되었다. 이는 음악성을 극대화시킨 용광로라고밖에 묘사할 길이 없었다. 무대는 정교하게 제작되었고 공연자들은 탁월했으며 박애 정신은 노래만큼이나 아름다웠다. 행사를 기념해 30만 달러의 기부금이 3개 자선 단체에 전달되었다.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예술적이고도 낙천적인 이타주의가 빛난 오후다운 오후였다.”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TV(California Adventure TV)」는 로스앤젤레스 KCAL 채널 9에서 방영되며 주목할 만한 장소와 행사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다. 상을 받은 바 있는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탁월한 새 뮤지컬이 10월 27일 로스앤젤레스의 음악 및 공연 애호가들을 위한 큰 선물이었음을 스스로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브로드웨이와 팝 음악계 출신의 수많은 슈퍼스타와 전 세계 노래 및 문화가 함께 어우러졌으며, 무엇보다 내면의 평화를 찾는 인류의 영원한 탐색이라는 아름다운 메시지가 담긴 경이적인 공연이었습니다.”



유명인의 자선 활동 소식을 전하는 웹사이트 「룩 투 더 스타즈(Look to the Stars)」는 「스타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출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모습을 드러낸 스타로는 존 후에르타스(Jon Huertas), 코리 펠드만, 제임스 기선 리(James Kyson Lee), 크레이그 로빈슨(Craig Robinson), 에이제이 버클리(AJ Buckley), 크리스토프 세인트 존, 켈리 팩커드 외 많은 이들이 있었다... 유명 인사들과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룻밤만 공연되는 이 특별한 행사는 그 수익금으로 「브로드웨이 케어즈 & 에이즈와 싸우는 배우 조합(Broadway Cares/Equity Fights AIDS)」, 「국제동물보호협회(Animal Defenders International, ADI)」, 「국제 수의사 봉사협회(Worldwide Veterinary Service)」를 지원했다. 각 기관당 10만 달러를 수령해 총 30만 달러가 기부되었다.”

Canyon News

비벌리힐스 지역에 배포되는 「캐년 뉴스(Canyon News)」의 이베타 바바자니안(Ivetta Babadianian)은 공연을 감상한 경험을 정리해 실었다. “이 작품은 친절은 아무리 높이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모든 문화의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한다는 믿음에 충신했다... 행사가 끝난 후 많은 관객들은 가장 좋았던 장면에 대해서, 또는 전체적인 주제와 연결된 감정적인 동질감에 대해 삼삼오오 얘기 나누지 않을 수 없었다. 칭하이 무상사의 사회적 공헌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술을 통해 그녀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영향을 주었고, 그 예술은 다시 관객들에게 사회 환원을 깨우쳤다. 그녀의 노고 덕분에 이 세상의 미래를 이롭게 할, 결코 끝나지 않는 인도주의 순환이 형성되었다.”



「할리우드 위클리」가 (위로부터) 배우 루크 이벌, 토니 상 후보 패티 코헨아워, 아랍 가수 카멜리아 아부-오다를 인터뷰하다.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TV」가 레드카펫 취재를 비롯한 공연 전반에 대해 보도하다.





할리우드 마스크 「팝스탑 TV」가 (위로부터) 팝 슈퍼스타 존 세카다와 배우 코리 펠드만, 루크 이별과 나눈 레드카펫 인터뷰를 방영하다.



이그재미너닷컴이 에미상을 2차례 수상한 배우 크리스토프 세인트 존과 얘기를 나누다.



「타임 TV」가 그레미상을 6차례 수상한 작곡가 호르헤 칼란델리(위)와 배우이자 TV 진행자 켈리 맥커드를 인터뷰하다.



전 세계에서 월 평균 6백만 명이 넘게 방문하는 「팝스탑 TV(PopStop TV)」는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한 스타들과 인터뷰를 갖고 온라인에 글을 게재했다. 인터뷰 진행자 시시양(Xixi Yang)은 팬들에게 이번 경험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을 전했다. “나는 그동안 할리우드 레드카펫 행사에 수도 없이 참석했었다... 그러나 10월 27일 토요일의 경험은 완전히 예상치 못했던 것이었다! 16개국의 최고 인기 스타들을 모은 강력한 행사를 한번 상상해 보라! 그렇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뮤지컬이다! 나는 이 뮤지컬의 레드카펫 행사에 참석하면서 너무나도 멋진 시간을 보냈다. 태국, 중국, 어울락 사람들의 환영 인사를 받았을뿐더러 전설적인 그레미상 수상자 조디 와틀리, 중국 플래티넘 가수 사안기, 케이팝 스타 브라이언 등과 얘기할 기회도 있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출판되는 「아시아 태평양 예술(Asia Pacific Arts)」 잡지에서 마이응우옌(Mai Nguyễn) 기자는 뮤지컬 평을 실었다. “칭하이 무상사의 시집에서 영감을 받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뮤지컬 공연에서 흘린 눈물은 전혀 ‘침묵의’ 것이 아니었다... 시라는 것은 이미 메시지를 전달할 시어를 예술적으로 예민하게 선택해 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 시어들을 멜로디와 짝을 맞춰서 이런 의미 깊은 말들을 노래로 바꿔 놓는다면 그 메시지는 완전히 수준을 달리해서 전달된다. 이렇게 결합된 두 가지 예술은 새로운 중간 형태의 매체를 형성해 새로운 청중들에게 다가간다. 각 공연의 의상 디자인을 통한 놀라운 시각적 향연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었다. 속속 선보인 화려하고 다채로운 의상들은 각 나라 문화의 다양성을 돋보이게 하고 각 장면에 따르는 새로운 장소로 관객들을 끌어들이었다... 음악이 이끌고 이야기가 따라가는 가운데 등장인물들이 누구나 겪지만 그래도 힘들기만 한 인생의 역경을 서서히 헤쳐 나가다가 마침내 간단하지만 심오한 계시 속에 그 답을 발견했을 때는 눈물과 갈채의 형태를 띤 카타르시스 섞인 안도감까지 불러일으켰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마법의 기차가 없어도 세상 어디서나 평화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격려한다. 내면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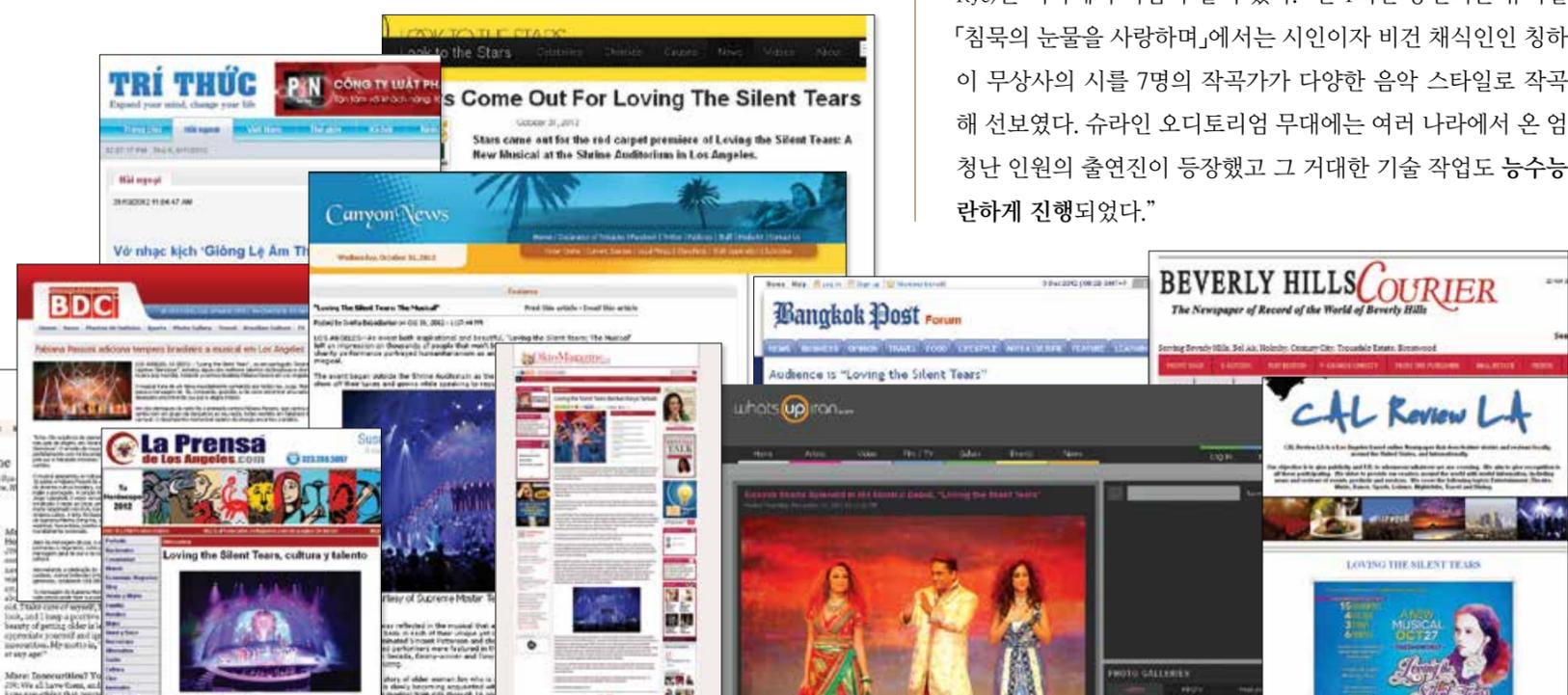
미국의 소리(Voice of America)는 미국 정부 산하의 국제 방송이다. 미국의 소리-페르시아 TV는 프로그램 「샤바항(Shabahang)」을 통해 뮤지컬에 대한 소식을 상당량 보도했다. 프로그램 진행자는 페르시아어로 소개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고대하시던 소식입니다. 몇 주 전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가들과 가수들이 출연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예술 애호가들의 큰 호평을 받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라는 제목의 이 뮤지컬에서 인기 팝가수 시아바쉬 샴스는 이란을 대표하여 다른 가수들과 함께 여러 공연 장면에서 기량을 펼쳤습니다. ... 이 행사는 전 지구적으로 존경받는 영적 스승인 칭하이 스승의 날 19주년 기념일에 공연되었습니다. 칭하이 무상사로 알려진 작가 겸 시인, 화가, 음악가, 보석 및 패션 디자이너는 어울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전 세계에 걸친 박애주의 활동과 평화 활동으로 여러 나라의 많은 저명인사들로부터 많은 상패와 상을 수여받았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소재한 온라인 신문 「CAL 리뷰 LA(CAL Review LA)」는 세계 독자들에게 이 도시의 흥미로운 소식과 활동을 알린다. 이번 공연에 대해서도 논평을 실었다. “빈센트 패터슨은 토니상 후보이자 2차례의 월드 투어(마이클 잭슨과 마돈나) 감독을 역임한 바 있다. 높이 평가받는 그가 새로운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를 들고 나왔다. 단순하면서도 의미 깊은 메시지는 화려하기 그지없는 인기 스타 출연진과 그레미상을 수상한 R&B/팝스타 조디 와틀리, ... 에미상과 토니상을 수상한 스타들의 그늘에 묻히는 일 없이 진가를 발휘했다. 친절과 자비, 관대함, 사랑, 그리고 역경을 통한 영성의 성장이라는 교훈이 이런 높은 에너지와 마음을 고양시키는 멋진 공연을 통해 잘 엮여 있었다.”



「라치몬트 크로니클(Larchmont Chronicle)」은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역사적인 주거 지역에 속하는 라치몬트 지역의 7만 7천여 명이 구독하는 신문이다. 패트리샤 포스터 라이(Patricia Foster Rye)는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단 1회만 공연되는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는 시인이자 비건 채식주의자인 칭하이 무상사의 시를 7명의 작곡가가 다양한 음악 스타일로 작곡해 선보였다. 슈라인 오디토리엄 무대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엄청난 인원의 출연진이 등장했고 그 거대한 기술 작업도 능수능란하게 진행되었다.”





이탈리아어 신문 『아메리카 오지(America Oggi)』는 이탈리아 테너 마크 자니셀로를 특집으로 다루고 이 뮤지컬에 대한 그의 생각을 조명했다. 『아메리카 오지』의 주세페 그레코(Giuseppe Greco)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놀라운 뮤지컬 초연은 칭하이 무상사의 날 19주년을 기념한 기쁨 가득한 공연이었다. 이 「칭하이 무상사의 날」은 프랭크 프랜시스 파시(Frank Francis Fasi) 하와이 호놀룰루 시장이 칭하이 무상사가 인도주의와 영성 방면에서 세계에 공헌한 귀감을 기려 선포한 날이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재난 당시 지원을 제공했고 로마에서 초청 강연을 하기도 했다. 2006년에는 이탈리아 정부가 금연법 시행에 성공한 것을 표창해 제롤라모 시르키아(Girolamo Sirchia) 전 이탈리아 보건 장관에게 「빛나는 세계 지도자상(Shining World Leadership Award)」을 수여한 바 있다.”



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중국어 일간지 『성도일보(星島日報)』는 「사안기,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싣고 다음과 같이 썼다. “사안기

가 최근 로스앤젤레스에서 세계 문화의 아름다움을 기린 새로운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출연했다… 그녀가 중국 선녀와 같은 드레스를 입고 공주의 자태로 무대에 등장하자 팬들의 갈채가 쏟아졌다. 그녀를 둘러싼 무용수들의 춤은 에미상 수상자인 보니 스토리의 안무였다. 많은 관객들이 그 가사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다. ‘안녕하세요, 부처님, 어찌하여 우시나요?/ 그 돌 가슴에 갈망이 얼마나 많나요?/ 어찌하여 당신의 눈물, 바다로 흐르나요?/ 어찌하여 당신의 사랑, 조약돌에 주시나요?’”



미국과 전 세계에 보급되는 가장 큰 레바논과 아랍계 미국 신문 『베이루트 타임스(Beirut Times)』는 가수 카멜리아 아부-오다와 뮤지컬에 묘사된 중동 문화에 대해 조명했다. “16개국의 찬란한 문화를 선보인 뮤지컬 속에서 카멜리아는 영어와 아랍어로 노래하면서 아랍 문화를 자랑스럽게 대표했다. 그녀는 페르시아 가수 시아바쉬 샴스, 이스라엘 가수 리엘 콜렛과 함께한 무대에서 같은 노래를 부르며 감동적인 평화의 메시지를 고취시켰다. 그들 공연에 함께한 무용단에는 여러 명의 멋진 벨리 댄서들도 포함되었다.”



수상 경력이 있는 신문 『브라질 베스트(BrasilBest)』는 브라질 문화를 대표한 출연자 파비아나 파소니를 유난히 자랑스러워하며 기사를 실었다.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펼쳐진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브라질 카니발만큼이나 환상적이었다. 파비아나 파소니는 이 멋진 뮤지컬에서 감성이 충만한 생동감 넘치는 공연으로 관객들을 매혹시켰다. 사랑과 전 세계 문화의 음악이 울려 퍼졌던 잊지 못할 행사였다.”



캘리포니아에 1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러시아 월간지 『팩트 매거진(FACT Magazine)』은 이렇게 썼다. “브로드웨이의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출신인 18세의 토니상 수상 배우 키릴 쿨리쉬가 새로운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서 찬란한 존재감을 빛냈다. 이 뮤지컬은 10월 27일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엄의 6천 석 객석을 모두 메운 가운데 선보였다. 키릴이 솔로 곡에서 일부는 러시아어로, 일부는 영어로 부르는 동안 무용수들의 힘찬 러시아 민속춤이 펼쳐졌다. 미국 내 최고의 무용수 중에서 엄선된 그들 대다수가 『태양의 서커스』 공연을 마치고 합류한 이들이었다. 무용 대회 수상 경력이 있는 키릴 쿨리쉬 본인도 노래를 부르는 동시에 높은 점프와 회전하는 고난도의 장면에서 앙상블과 함께 직접 춤을 주었다. 참으로 인상적인 공연이었다.”



국제적인 채널 안디셰(Andisheh) TV에서 (위에서부터) 블랙 우후루의 가수 더기 심슨과 안무가 보니 스토리, 감독 빈센트 패터슨을 인터뷰하다.



미국 정부 산하의 국제 방송국 미국의 소리-페르시아 TV가 「사바향」 프로그램에서 뮤지컬과 페르시아 출연진 시아바쉬 샴스를 소개하다.





캐러비안 연예 대중 매체 myKEEtv가 이 뮤지컬 취재의 일환으로 블랙 우후루의 앤드류 비즈와 인터뷰를 갖다.



유대계 뉴스 매체 「LA의 새로운 소식」이 공연 직후 이스라엘 출연진 리엘 콜렛에게 소감을 묻다.



북미 최대의 중국 TV 네트워크 ICN TV가 현장을 보도하고 홍콩의 팝스타 사안기와 인터뷰를 진행한다.



TVK24가 뉴스 프로그램에서 뮤지컬을 소개하며 레드카펫에서 한국 팝스타 브라이언과 인터뷰를 하다.



스페인어 잡지 『라 프렌사 데 로스앤젤레스(La Prensa de Los Angeles)』의 일리아나 살구에로(Iliana Salguero)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문화와 스타」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로스앤젤레스는 대스타들의 본고장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하지만 수많은 세계의 다양한 민족과 문화를 포용하고 있는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런 이유로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에 다양한 문화권이 신속하게 집결할 수 있었고, 또한 16개국 출신의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들이 평화와 행복을 찾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에 생명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이 이야기는 영적인 스승이자 예술가, 시인인 칭하이 무상사의 시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하게 되었다. 감탄을 부르는 화음에 맞춰 세계의 목소리들이… 꿈과 희망이 가득한 마법의 세계를 읊으며 모든 관객들에게 전율을 선사해 다들 뮤지컬의 한 장면 한 장면을 숨죽인 채 경탄하기만 했다…. 공연이 정말 멋졌다. 색채와 문화, 끼가 넘치는 많은 스타들은 물론 완벽한 조명과 무대 배경, 분위기까지 그 너적을 잊지 못할 행사로 만들었다. 예술가들이 등장해 평화와 사랑, 희망, 관용의 메시지를 전하는 연기를 보일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가 끊이지 않았다. 존 세카다, 파비야나 파소니, 데비 그래비티, 리엘 콜렛, 마크 자니셀로,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엄을 통째로 사로잡은 뮤지컬에 출연했다.”



주요 한국어 신문 『한국일보』는 로스앤젤레스에서 발행되어 미국 내 10개 주요 도시에 30만 부를 보급하고 있다. 하은선 기자가 「브라이언, 헤더 박이 출연한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성황」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플라이 투 더 스카이의 한국 가수 브라이언과 ‘서울 디바’ 헤더 박이 출연한 다민족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가 지난 10월 27일 L.A.의 슈라인 오디토리엄을 꽉 메운 채 성황리에 끝났다. 이날 아름다운 궁중 한복 차림으로 제1막 5번째 순서로 등장한 브라이언과 헤더 박은 심금을 울리는 한국어와 영어 노래로 한국을 소개해 객석의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사이공 방송 텔레비전 네트워크(Saigon Broadcasting Television Network, SBTN)는 북미 케이블 텔레비전의 어울락(베트남) TV 네트워크이다. 그중 「인 포커스(In Focus)」 프로그램에서 진행자 투이 판(Thùy Phan)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를 소개하며 다음과 같이 말문을 열었다. “세계 평화의 이상을 무대로 꾸민다면 뮤지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칭하이 무상사의 업적을 기리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뮤지컬 행사에 그치지 않고 자선을 위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단연코 다양한 국가들 간의 평화와 화합을 보여 주는 가장 포괄적인 본보기 중 하나입니다. 예술과 음악, 시를 통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공동의 이상을 위해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재능 있는 카리브인을 소개하는 『카리비안 익스프레스션 매거진(Karibbean Expressions Magazine)』과 계열사 myKEEtv는 그라미상을 수상한 레계의 전설 블랙 우후루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공연에 대한 이야기와 영상을 게재했다. 잡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고귀한 목적을 지닌 전례 없는 문화 축전이다. 브로드웨이풍의 이 작품은 자비와 인류애, 음악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이야기한다.”

지면 관계상 관련된 모든 매체들의 기사를 발췌할 수 없지만 마음과 고양시키는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경험을 시청자 및 독자들에게 전해 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를 전한다. 행사 전의 보도 덕분에 공연이 성공을 거두었던 한편 대중을 배려한 행사 후 보도로 뮤지컬의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졌다.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268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269

간행물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뮤지컬**

DVD: 16개국이 출연한 국제적인 뮤지컬. 그래미상, 오스카상, 토니상, 에미상 수상자들의 공동 작품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초연. 뮤지컬 제작 이야기가 담긴 보너스 디스크 포함. (4디스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뮤지컬**

CD: 오리지널 캐스트 앨범. (2디스크)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뮤지컬**

라이브 CD: 뮤지컬의 오리지널 라이브 앨범. (1디스크)

**침묵의 눈물**

책: 시집. 한국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독일어/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필리핀어.

**진정한 사랑: 뮤지컬**

DVD: 토니상 수상 브로드웨이 스타들이 출연한 뮤지컬과 미국 음악의 아이콘 돈 맥클린 콘서트. 미국 패서디나의 패서디나 시빅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5주년 기념행사. (3디스크)

**진정한 사랑: 뮤지컬**

책: 뮤지컬 대본과 가사 모두 수록. 전면 컬러 인쇄. 영어, 중국어.

**진정한 사랑: 뮤지컬**

라이브 CD: 뮤지컬의 오리지널 라이브 앨범. (1디스크)

**최고의 환경 영웅 길라**

DVD: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콘서트. 알 자딘, 알 카샤, 데이비드 사이어의 노래. 필리파 지오다노, 멜바 무어, 케리 윌시, 린 윈터스텔러 출연. (2디스크)

**평화를 선물하자**

DVD: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4주년 기념 콘서트. 알 카샤, 빌 콘티, 빌 컨리프, 데이비드 사이어, 도나 루이스의 노래. 리즈 캘러웨이, 멜바 무어, 멜리사 맨체스터, 카렌 지엠바, 에릭 로버츠, 존 샐리, 리사 블룸 출연. (2디스크)

**푸른 지구와 평화로운 삶을 기뻐하기**

DVD: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3주년 기념 콘서트. 빌 콘티, 돈 데이비스, 알 자딘, 밥 쿨릭, 조지아 푸만티, 케리 윌시, 데비 레이놀즈, 크리스 드로즈, 데브라 윌슨 출연. (2디스크)

**모든 생명에 경의를 표하는 문화 향연**

DVD: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2주년 기념 콘서트. 호평받는 음악가들의 원곡 공연과 영화 제작자 버니 윌리엄스가 초청 연사로 출연. (3디스크)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CD: 미국 로스앤젤레스 슈라인 오디토리엄에서 열린 콘서트. 빌 콘티, 프레드 칼린, 피터 보이어, 마리아 뉴먼의 음악과 65인조 오케스트라 연주.

**음악으로 하나 된 평화의 세상**

책: 라이브 콘서트에서 선보인 노래의 악보와 작곡가들의 평이 담긴 양장본. 영어/어울락어/중국어 합본.

**천국의 새들-날개를 펴라**

칭하이 무상사와 그녀의 반려조 가족의 실화에 영감을 받은 애니메이션. 계속 기억에 남는 노래들과 수상 경력의 애니메이션 작가들의 예술성이 담긴 작품.

**왕과 신하들**

DVD: 왕과 그의 웃긴 조정을 소재로 칭하이 무상사가 각본을 쓰고 원격 연출한 오리지널 희극. 시청자들에게 육식과 음주, 흡연, 마약 중독의 해로움을 알리는 이야기. (6디스크)

**고귀한 야생**

DVD: 아무라(Amoura) 호수의 야생 동물들과 칭하이 무상사의 사랑가득한 교감이 담긴 보기 드문 영상집.

**고귀한 야생**

책: 칭하이 무상사의 국제적인 베스트셀러 1위 도서. 저자가 찍은 아름다운 사진들과 함께 아무라 호수에 사는 야생 동물들의 풍부한 내적 삶을 보여 주는 책. 한국어, 독일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내 인생의 개들과 새들**

DVD: 칭하이 무상사의 개들과 새들 가족이 집에서 함께 지내는 모습을 담은 영상집.

**사랑스런 내 인생의 새들**

책: 칭하이 무상사의 국제적인 베스트셀러 1위 도서. 그녀의 독특한 반려조들과 그들의 깊은 생각과 감정을 소개한 책. 한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아랍어, 어울락어(베트남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프랑스어.

**사랑스런 내 인생의 개들**

책: 반려견 10마리에 관한 마음 따뜻한 이야기를 나눈 칭하이 무상사의 국제적인 베스트셀러 1위 도서. 한국어, 독일어, 스페인어, 어울락어(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폴란드어. (전권 2권)

향기로운 손길: 유명 가수들이 어울락어로 부른 노래. CD.

지난날과 지금*: 어울락어 시 낭송. CD.

영원히 간직해 주세요*: 어울락어 시 낭송. CD.

사랑으로 보살펴 주세요*: 어울락어 노래. CD.

잘 자라, 아가야*: 영어 노래 공연. CD.

사랑의 전설로 가는 길*: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CD 1, 2, 3.

전생의 발자취*: 어울락어 시 낭송. CD 1, 2, 3과 DVD 1, 2.

고대의 사랑*: 어울락어 시 낭송. CD와 DVD.

조국 사랑*: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DVD.

조약들과 황금: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전생의 발자취: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나비의 꿈: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잃어버린 기억: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그 옛날: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무자시: 시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천년의 사랑
시집. 한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몽골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

S.M. 천의집: 영어/중국어.

칭하이 무상사 예술 창작집-회화 시리즈: 영어, 중국어.

천상의 예술: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시간의 그늘(시공을 초월하여)*: 어울락어 노래. CD와 DVD.

한밤의 꿈*: 어울락어 노래. CD와 DVD.

황금 연꽃*: 어울락어 시 낭송. CD와 DVD. 칭하이 무상사의 감미로운 음성으로 듣는 틱만지의 선사의 아름다운 시. 무상사는 선사에게 바치는 헌정 시 「황금 연꽃」과 「사요나라」 두 편의 시도 낭송하였다.

보석 시집*: 저명한 어울락 시인들의 시를 어울락어로 낭송. CD 1, 2와 DVD 1, 2.

칭하이 무상사 창작 가곡 모음집*: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노래. CD와 DVD.

부처의 슬픔: 어울락어 노래. DVD.

당신을 사랑한 이후로: 어울락어 노래. DVD.

*시인 칭하이 무상사가 낭송하거나 작곡하여 부른 시들.

책

즉각 깨닫는 열쇠-강연집

한국어, 독일어, 몽골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티베트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즉각 깨닫는 열쇠-문답록

한국어, 독일어, 러시아어, 불가리아어, 어울락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헝가리어.

즉각 깨닫는 열쇠 특별판/ 1992년 선철집: 어울락어, 영어.

즉각 깨닫는 열쇠 특별판/ 1993년 세계 순회강연집: 영어, 중국어.

사제지간의 편지: 스페인어, 어울락어(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한국어, 스페인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태국어.

신과 인류의 이야기-성경 이야기를 통한 교훈: 영어, 중국어.

신은 모든 것을 돌보신다-칭하이 무상사의 지혜 만화집
한국어, 어울락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칭하이 무상사의 깨달음이 담긴 유머집-후광이 너무 꼭 끼요!: 영어/중국어.

삶을 다채롭게: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쉽게 수행하는 비결: 어울락어, 영어, 중국어.

신과의 직접적인 연결-평화에 이르는 길: 영어, 중국어.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한국어, 그리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몽골어, 불가리아어, 스페인어, 아랍어, 어울락어, 영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체코어, 터키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헝가리어.

건강에 대한 깨달음-자연적이고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돌아가기
영어, 중국어.

감로벌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독일어/프랑스어, 스페인어/포르투갈어, 영어/일본어, 영어/중국어.

위기에서 평화로: 유기농 비건 채식이 해답이다

한국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스페인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최신 출판물 목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www.SMCHBooks.com>

출판물을 주문 및 다운로드하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www.theCelestialShop.com
www.EdenRules.com (디지털 미디어)
www.OceanofLoveEntertainment.com (엔터테인먼트 출판물)

수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www.SupremeMasterTV.com
peace@SupremeMasterTV.com

사진 크레딧

135페이지

글로리아 에스테판 (사진: Michele Eve)
마이클 부블레 (사진: Dallas Bittle)
셀린 디온 (사진: Anirudh Koul)
보노 (사진: David Shankbone)
홀리오 이글레시아스 (사진: Roberto Santorini)
스팅 (사진: Nikita)
베트 미들러 (사진: Alan Light)
폴 매카트니 경 (사진: Oli Gill)
존 마티스 (사진: Dwight McCann)
엘튼 존 경 (사진: David Shankbone)
베리 매닐로우 (사진: Matt Becker)
케이디 랭 (사진: Charlie Llewelin)
존 그로반 (사진: Cristopher Simon)
퀸시 존스 (사진: Gorup de Besanez)

알 재로 (사진: Stig Ove Voll)

리키 마틴 (Presidencia.gov.ar 제공)
토니 베넷 (사진: Tom Beetz)
아투로 산도발 (사진: Ataelw)
요요마 (세계 경제 포럼 제공/ 사진: Andy Mettler)

142페이지

로드 스투어트 (사진: Gorri)
존 본 조비 (사진: David Shankbone)
글로리아 에스테판 (사진: Ron van Ruten)
비비 킹 (사진: Tom Beetz)
마이클 볼튼 (사진: Alterna2)

147-148 페이지

라디오 시티 뮤직홀 (사진: Matt H. Wade)

토니 베넷 (사진: Peter Chiapperino)

150페이지

나탈리 콜 (사진: dbking)

163-164페이지

마이클 잭슨 (사진: Zoran Veselinovic)
마이클 잭슨과 무용수들 (사진: Drew H. Cohen)
마돈나 (사진: Pascal Mannaerts)

217페이지

글로리아 에스테판 (사진: Michele Eve)
제니퍼 로페즈 (사진: Firdaus Latif)
리키 마틴 (사진: Presidencia.gov.ar 제공)

Ocean of Love Entertainment, Inc. 배포
www.OceanofLoveEntertainment.com
122-A East Foothill Blvd. #306, Arcadia, CA 91006 USA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

“전대미문의 음악 경험!”

-브로드웨이 월드



그래미상 15차례 · 아카데미상 4차례 · 토니상 3차례 · 에미상 6차례 수상
정상급 예술가들과 창작 팀의 공동 작품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적 스승, 인도주의자, 예술가, 시인인 칭하이 무상사의 가슴에 사무치는 시에 영감을 얻은 「침묵의 눈물을 사랑하며」는 세계 정상급 작곡가들의 곡으로 그녀의 성찰을 풀어낸다. 관객들은 하룻밤에 걸친, 대륙과 바다를 넘나드는 짜릿한 기차 여행에 오르게 되며, 각 역에서 우리를 맞이하는 막강한 실력과 가수들은 끝없이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는 인류를 표현한다.

뮤지컬 본 공연 및 보너스 영상이 담긴 4장의 DVD에다 뮤지컬의 총 대본과 가사, 그리고 책장을 무대로 구현한 출연진과 창작 팀의 해설까지 포함된 이 기념 서적을 통해 놀라운 여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멋진 뮤지컬에 참여하게 돼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 뮤지컬은,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성과 사랑, 인도주의에 대한 심오한 메시지를 남길 것입니다.”

-호르헤 칼란드렐리

그래미상을 6차례 수상하고 오스카상 후보에 2차례 지명된 작곡가(와호장룡)



OCEAN OF LOVE ENTERTAINMENT, INC.
WWW.OCEANOFLOVEENTERTAINMENT.COM
122-A EAST FOOTHILL BLVD. #306
ARCADIA, CA 91006 USA
캐나다에서 인쇄 (PRINTED IN CANADA)

환경 혜택 안내문

Ocean of Love Entertainment는 사용 후 폐기물로 만든 무염소 표백 용지로 이 책을 제작함으로써 다음과 같이 자원을 절약했습니다.

다 큰 나무	물	에너지	고형 폐기물	온실가스
214 그루	376,815 리터	9천6백만 BTU	3,029 킬로그램	8,343 킬로그램

환경 영향 예상치는 이 책 각각의 초판의 총 인쇄 부수에 기준해서 Environmental Paper Network의 Paper Calculator 3.2로 계산되었습니다. 상세 정보: www.papercalculator.org.

